

ISSN 2233-7768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87-100693-10



승인번호
제 117075 호



지역사회건강조사
Community Health Survey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본문 /

ISSN 2233-7768

발간등록번호

11-1790387-100693-10



승인번호
제 117075 호



지역사회건강조사
Community Health Survey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본문 /

| 발간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보건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며, 이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년 만19세 이상 성인 23만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일한 조사설계와 안정적인 표본 규모를 유지하여 지역 간 건강수준과 변화추이를 정밀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행태, 이환 및 의료이용 등 46개 주요 건강지표를 수록한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관계자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담배 흡연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인해 전체 담배제품 사용 감소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만을 또한 10년 이상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인지 및 치료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진단 경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건강지표의 변화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지표에서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걷기 실천, 건강생활 실천,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는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러한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정책을 추진하고 취약지역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기 건강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 간 격차 확대와 노인의 만성질환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한국형 노쇠 진단 척도를 특별지표로 도입하여 지역별 노쇠 유병률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지역 수준의 건강통계 생산에 그치지 않고 조사 참여자 개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참여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별 건강리포트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건강관리 솔루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와 함께 공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역의 건강 수준을 진단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책임대학교 교수진과 연구진,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조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2.

질병관리청장 임승관

이용자를 위하여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통계청 승인사항

승인번호 제117075호(2008.9.12.)

수록내용

2016~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건강지표 결과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간 비교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으로 선정된 약 23만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자료 작성 기준** ■ 본 자료의 지표 결과는 비교 집단 간 인구구조 차이를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표준화율로 산출하였습니다.
■ 격차비를 제외한 모든 통계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통계값이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지역은 행정구역 코드 순(최대 3개 지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대푯값 산출** ■ 전국 대푯값은 시·군·구 중앙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시·도와 시·군·구, 도시유형, 수도권·비수도권, 중부·남부, 동·읍·면의 대푯값은 지역 분류 단위별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시·군·구 단위로 산출된 지표값을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
- 지역분류와 정의** ■ 지역 유형은 6가지 기준(시·도, 시·군·구, 도시유형, 수도권·비수도권, 중부·남부, 동·읍·면)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지역 유형별 격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 시·도 및 시·군·구, 도시유형 간 격차: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중부·남부 지역, 동·읍·면 지역 간 격차: 두 지역 유형 간의 차이
- 격차비: 동일 시·도 내 시·군·구별 지표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비(최댓값/최솟값)
* 지표값은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일부 통계표의 지역별 차이와 격차값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처 표기방법** ■ 국문: 질병관리청,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본문), 2026
■ 영문: KDCA, Korea Community health at a Glance 2025: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Full version), 2026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 043-719-7391, 7396

용어 정의

1. 통계

모집단 (Population)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표본 (Sample)	모집단 중 추출된 일부 집단
표본오차 (Sampling Error)	모집단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로서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척도
비표본오차 (Non-Sampling Error)	표본추출을 제외한 조사 설계, 조사 수행, 자료 집계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로서 불명확한 조사개념, 조사문항의 객관성 결여, 조사지 구성의 논리적 오류, 면접방법, 조사원의 자질, 조사원을 감독하는 관리자의 태도, 조사대상자의 무응답, 자료 코딩 등이 비표본오차의 주요 발생 원인에 해당
조율 (Crude Rate)	총 발생건수를 전체 모집단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지역 모집단의 성·연령별 등의 인구 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보정한 통계치(조사연도 4월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준화율 (Standardized Rate)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간 인구구조 차이를 보정한 통계치(2005년 추계인구 기준)
표준오차 (Standard Error)	각 표본들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는 값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모집단의 평균(참값)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구간

2. 조사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전자조사표가 구현된 태블릿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현장에서 자료입력, 수정, 저장 및 전송이 가능
순환조사체계	2010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도입된 조사체계로서, 산출지표의 활용도 및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의 주기를 1년, 2년, 4년으로 구분하고, 순환주기는 총 4년으로 구성
지역보건지표뱅크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를 수집·정리한 것으로 지표별 조사문항 및 응답보기, 지표정의, 산출식, 조사주기 등 상세정보 포함

차례

발간사	05
이용자를 위하여	06
용어정의	07

제1부 조사체계

I. 조사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28
2. 조사체계	28
3. 표본설계	30
4. 조사방법	31
5. 자료 질 관리	33
6. 조사수행 결과	35
7. 원시자료 공개	37

II. 통계 추정방법

1. 가중치의 사용	38
2. 무응답처리	40
3. 연령표준화	40
4. 분산추정	40

제2부 건강지표 결과 요약 43

제3부 건강지표 상세 결과

I. 건강행태

흡연

1. 현재흡연율	62
2. 남자 현재흡연율	66
3.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70
4.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74
5.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78
6.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살내 간접흡연 노출률	82

음주

7. 월간음주율	86
8. 고위험음주율	90
9.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94

신체활동

10.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98
11. 걷기 실천율	102

건강생활실천

12. 건강생활실천율	106
-------------	-----

비만 및 체중조절

13. 비만율(자가보고)	110
14.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114

식생활

15. 아침식사 실천율	118
16. 영양표시 활용률	122

정신건강

17. 스트레스 인지율	126
18. 연간 우울감 경험률	130
19. 우울증상유병률	134

구강건강

20.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138
21. 어제 점심식사 후 치솔질 실천율	142

활동제한 및 삶의 질

22. 주관적 건강인지율	146
---------------	-----

개인위생

23.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150
24.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154

안전의식

25.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158
26.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162
27.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166

II. 이환 및 의료이용

이환 - 고혈압

28. 혈압수치 인지율	170
29.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174
30.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178
31.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182
32.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184
33.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186

이환 - 당뇨병

34. 혈당수치 인지율	188
35.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192
36.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196
37. 연간 당뇨병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200
38. 연간 당뇨병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204
39.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208
40.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210
41.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212

건강지식

42.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214
43.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218

의료이용

44.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222
--------------------	-----

예방접종

45.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26
--------------------	-----

보건기관 이용

46.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230
-----------------	-----

제4부

부록

1. 지표정의	236
2. 조사표	243
3. 도시유형 분류기준	273
4. 운영위원회 및 참여기관	274

제 1부 조사체계

표 1. 기관별 역할	29
표 2.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영역 및 항목	32
표 3. 기관별 질 관리 역할	34
표 4.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대상 가구 특성	35
표 5.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대상 인구 특성	36
표 6.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도별 조사 현황	36
표 7. 가구가중치 산출 예	38
표 8. 개인가중치 산출 예	39
표 9. 보정가중치 산출 예	39
표 10. 2005년 추계인구 : 19세 이상, 10세 간격	40

제 2부 지표결과요약

표 11. 2016-2025 전국 현재흡연율 추이	44
표 12. 2016-2025 전국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44
표 13. 2019-2025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44
표 14. 2019-2025 전국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45
표 15. 2020-2025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45
표 16. 2020-2025 전국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45
표 17. 2016-2025 전국 월간음주율 추이	46
표 18. 2016-2025 전국 고위험음주율 추이	46
표 19. 2016-2025 전국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46
표 20. 2016-2025 전국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47
표 21. 2016-2025 전국 걷기 실천율 추이	47
표 22. 2016-2025 전국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47
표 23. 2016-2025 전국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48
표 24. 2016-2025 전국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48
표 25. 2019-2025 전국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48
표 26. 2016-2025 전국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49
표 27. 2016-2025 전국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49
표 28. 2016-2025 전국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49
표 29. 2017-2025 전국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50
표 30. 2016-2025 전국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50
표 31. 2016-2025 전국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50
표 32. 2016-2025 전국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51
표 33. 2017-2025년 전국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51
표 34. 2017-2025년 전국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51

표 35. 2016-2025 전국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52
표 36. 2016-2025 전국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52
표 37. 2016-2025 전국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52
표 38. 2016-2025 전국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53
표 39.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53
표 40.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53
표 41.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54
표 42.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54
표 43.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54
표 44. 2016-2025 전국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55
표 45.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55
표 46.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55
표 47. 2016-2025 전국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56
표 48. 2016-2025 전국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56
표 49.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56
표 50.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57
표 51.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57
표 52. 2017-2025 전국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57
표 53. 2017-2025 전국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58
표 54. 2019-2025 전국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58
표 55. 2016-2025 전국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58
표 56. 2016-2025 전국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59

제 3부 지표상세결과

표 57. 2016-2025 전국 현재흡연율 추이	62
표 58. 2016-2025 시·도별 현재흡연율 추이	62
표 59.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63
표 60. 2025년 현재흡연율 상·하위 시·군·구	63
표 61.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64
표 62.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현재흡연율 추이	65
표 63.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현재흡연율 추이	65
표 64.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현재흡연율 추이	65
표 65.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현재흡연율 추이	65
표 66. 2016-2025 전국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66
표 67. 2016-2025 시·도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66
표 68. 남자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67
표 69. 2025년 남자 현재흡연율 상·하위 시·군·구	67
표 70. 남자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68

표 71.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69
표 72.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69
표 73.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69
표 74.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69
표 75. 2019-2025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0
표 76. 2019-2025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0
표 77.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71
표 78. 20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상·하위 시·군·구	71
표 79.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72
표 80. 2019-2025 6개 도시유형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3
표 81. 2019-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3
표 82. 2019-2025 중부·남부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3
표 83. 2019-2025 동·읍·면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3
표 84. 2019-2025 전국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4
표 85. 2019-2025 시·도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4
표 86.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75
표 87. 2025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상·하위 시·군·구	75
표 88.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76
표 89. 2019-2025 6개 도시유형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7
표 90. 2019-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7
표 91. 2019-2025 중부·남부 지역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7
표 92. 2019-2025 동·읍·면 지역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7
표 93. 2020-2025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78
표 94. 2020-2025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78
표 95.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79
표 96. 20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상·하위 시·군·구	79
표 97.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80
표 98. 2020-2025 6개 도시유형별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81
표 99. 2020-2025 중부·남부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81
표 100. 2020-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81
표 101. 2020-2025 동·읍·면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81
표 102. 2020-2025 전국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82
표 103. 2020-2025 시·도별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82
표 104.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83
표 105. 2020-2025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상·하위 시·군·구	83
표 106.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84
표 107. 2020-2025 6개 도시유형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85
표 108. 2020-2025 중부·남부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85
표 109. 2020-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85
표 110. 2020-2025 동·읍·면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85
표 111. 2016-2025 전국 월간음주율 추이	86
표 112. 2016-2025 시·도별 월간음주율 추이	86
표 113. 월간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87

표 114. 2025년 월간음주율 상·하위 시·군·구	87
표 115. 월간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88
표 116.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월간음주율 추이	89
표 117.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월간음주율 추이	89
표 118.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월간음주율 추이	89
표 119.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월간음주율 추이	89
표 120. 2016-2025 전국 고위험음주율 추이	90
표 121. 2016-2025 시·도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90
표 122.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91
표 123. 2025년 고위험음주율 상·하위 시·군·구	91
표 124.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92
표 125.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93
표 126.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93
표 127.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93
표 128.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93
표 129. 2016-2025 전국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94
표 130. 2016-2025 시·도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94
표 131.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95
표 132. 2025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상·하위 시·군·구	95
표 133.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96
표 134.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97
표 135.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97
표 136.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97
표 137.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97
표 138. 2016-2025 전국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98
표 139. 2016-2025 시·도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98
표 140.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99
표 141. 2025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99
표 142.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00
표 143.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101
표 144.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101
표 145.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101
표 146.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101
표 147. 2016-2025 전국 걷기 실천율 추이	102
표 148. 2016-2025 시·도별 걷기 실천율 추이	102
표 149. 걷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03
표 150. 2025년 걷기 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103
표 151. 걷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04
표 152.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걷기 실천율 추이	105
표 153.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걷기 실천율 추이	105
표 154.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걷기 실천율 추이	105
표 155.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걷기 실천율 추이	105
표 156. 2016-2025 전국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106

표 157. 2016-2025 시·도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106
표 158. 건강생활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07
표 159. 2025년 건강생활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107
표 160. 건강생활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08
표 161.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109
표 162.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109
표 163.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109
표 164.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109
표 165. 2016-2025 전국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110
표 166. 2016-2025 시·도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110
표 167. 비만율(자가보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11
표 168. 2025년 비만율(자가보고) 상·하위 시·군·구	111
표 169. 비만율(자가보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12
표 170.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113
표 171.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113
표 172.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113
표 173.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113
표 174. 2016-2025 전국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114
표 175. 2016-2025 시·도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114
표 176.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15
표 177. 2025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상·하위 시·군·구	115
표 178.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16
표 179.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117
표 180.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117
표 181.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117
표 182.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117
표 183. 2019-2025 전국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118
표 184. 2019-2025 시·도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118
표 185. 아침식사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19
표 186. 2025년 아침식사 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119
표 187. 아침식사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20
표 188. 2019-2025 6개 도시유형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121
표 189. 2019-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121
표 190. 2019-2025 중부·남부 지역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121
표 191. 2019-2025 동·읍·면 지역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121
표 192. 2016-2025 전국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122
표 193. 2016-2025 시·도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122
표 194. 영양표시 활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23
표 195. 2025년 영양표시 활용률 상·하위 시·군·구	123
표 196. 영양표시 활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24
표 197.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125
표 198.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125
표 199.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125

표 200.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125
표 201. 2016-2025 전국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126
표 202. 2016-2025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126
표 203. 스트레스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27
표 204. 2025년 스트레스 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127
표 205. 스트레스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28
표 206.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129
표 207.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129
표 208.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129
표 209.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129
표 210. 2016-2025 전국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130
표 211. 2016-2025 시·도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130
표 212. 연간 우울감 경험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31
표 213. 2025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상·하위 시·군·구	131
표 214. 연간 우울감 경험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32
표 215.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133
표 216.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133
표 217.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133
표 218.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133
표 219. 2017-2025 전국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134
표 220. 2017-2025 시·도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134
표 221. 우울증상유병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35
표 222. 2025년 우울증상유병률 상·하위 시·군·구	135
표 223. 우울증상유병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36
표 224. 2017-2025 6개 도시유형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137
표 225. 2017-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137
표 226. 2017-2025 중부·남부 지역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137
표 227. 2017-2025 동·읍·면 지역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137
표 228. 2016-2025 전국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138
표 229. 2016-2025 시·도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138
표 230.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39
표 231. 2025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상·하위 시·군·구	139
표 232.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40
표 233.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141
표 234.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141
표 235.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141
표 236.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141
표 237. 2016-2025 전국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142
표 238. 2016-2025 시·도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142
표 239.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43
표 240. 2025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143
표 241.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44
표 242.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145

표 243.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145
표 244.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145
표 245.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145
표 246. 2016-2025 전국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146
표 247. 2016-2025 시·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146
표 248. 주관적 건강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47
표 249. 2025년 주관적 건강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147
표 250. 주관적 건강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48
표 251.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149
표 252.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149
표 253.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149
표 254.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149
표 255. 2017-2025 전국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150
표 256. 2017-2025 시·도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150
표 257.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51
표 258. 2025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151
표 259.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52
표 260. 2017-2025 6개 도시유형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153
표 261. 2017-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153
표 262. 2017-2025 중부·남부 지역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153
표 263. 2017-2025 동·읍·면 지역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153
표 264. 2017-2025 전국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154
표 265. 2017-2025 시·도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154
표 266.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55
표 267. 2025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상·하위 시·군·구	155
표 268.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56
표 269. 2017-2025 6개 도시유형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157
표 270. 2017-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157
표 271. 2017-2025 중부·남부 지역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157
표 272. 2017-2025 동·읍·면 지역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157
표 273. 2016-2025 전국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58
표 274. 2016-2025 시·도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58
표 275.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59
표 276. 2025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상·하위 시·군·구	159
표 277.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60
표 278.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1
표 279.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1
표 280.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1
표 281.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1
표 282. 2016-2025 전국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2
표 283. 2016-2025 시·도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2
표 284.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63
표 285. 2025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상·하위 시·군·구	163

표 286.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64
표 287.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5
표 288.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5
표 289.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5
표 290.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5
표 291. 2016-2025 전국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166
표 292. 2016-2025 시·도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166
표 293.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67
표 294. 2025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상·하위 시·군·구	167
표 295.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68
표 296.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169
표 297.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169
표 298.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169
표 299.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169
표 300. 2016-2025 전국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170
표 301. 2016-2025 시·도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170
표 302. 혈압수치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71
표 303. 2025년 혈압수치 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171
표 304. 혈압수치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72
표 305.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173
표 306.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173
표 307.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173
표 308.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173
표 309.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74
표 310.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74
표 311.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75
표 312. 2025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상·하위 시·군·구	175
표 313.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76
표 314.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77
표 315.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77
표 316.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77
표 317.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77
표 318.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78
표 319.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78
표 320.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79
표 321. 20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상·하위 시·군·구	179
표 322.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80
표 323.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81
표 324.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81
표 325.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81
표 326.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81
표 327.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182
표 328.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182

표 329.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83
표 330.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183
표 331.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184
표 332.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184
표 333.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85
표 334.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185
표 335.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186
표 336.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186
표 337.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87
표 338.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186
표 339. 2016-2025 전국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188
표 340. 2016-2025 시·도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188
표 341. 혈당수치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89
표 342. 2025년 혈당수치 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189
표 343. 혈당수치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90
표 344.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191
표 345.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191
표 346.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191
표 347.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191
표 348.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92
표 349.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92
표 350.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93
표 351. 2025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상·하위 시·군·구	193
표 352.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94
표 353.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95
표 354.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95
표 355.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95
표 356.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95
표 357.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96
표 358.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96
표 359.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197
표 360. 20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상·하위 시·군·구	197
표 361.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198
표 362.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99
표 363.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99
표 364.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99
표 365.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99
표 366. 2016-2025 전국 연간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0
표 367. 2016-2025 시·도별 연간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0
표 368. 연간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201
표 369. 2025년 연간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상·하위 시·군·구	201
표 370. 연간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202
표 371.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3

표 372.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3
표 373.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3
표 374.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3
표 375. 2016-2025 전국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4
표 376. 2016-2025 시·도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4
표 377.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205
표 378. 2025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상·하위 시·군·구	205
표 379.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206
표 380.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7
표 381.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7
표 382.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7
표 383.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7
표 384.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208
표 385.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208
표 386.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209
표 387.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209
표 388.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210
표 389.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210
표 390.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211
표 391.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211
표 392.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212
표 393.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212
표 394.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213
표 395.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213
표 396. 2017-2025 전국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14
표 397. 2017-2025 시·도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14
표 398.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215
표 399. 2025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215
표 400.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216
표 401. 2017-2025 6개 도시유형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17
표 402. 2017-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17
표 403. 2017-2025 중부·남부 지역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17
표 404. 2017-2025 동·읍·면 지역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17
표 405. 2017-2025 전국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18
표 406. 2017-2025 시·도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18
표 407.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219
표 408. 2025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219
표 409.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220
표 410. 2017-2025 6개 도시유형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21
표 411. 2017-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21
표 412. 2017-2025 중부·남부 지역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21
표 413. 2017-2025 동·읍·면 지역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21
표 414. 2019-2025 전국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원원) 추이	222

표 415. 2019-2025 시·도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222
표 416.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223
표 417. 2025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상·하위 시·군·구	223
표 418.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224
표 419. 2019-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225
표 420. 2019-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225
표 421. 2019-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225
표 422. 2019-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225
표 423. 2016-2025 전국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226
표 424. 2016-2025 시·도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226
표 425.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227
표 426. 2025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상·하위 시·군·구	227
표 427.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228
표 428.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229
표 429.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229
표 430.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229
표 431.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229
표 432. 2016-2025 전국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230
표 433. 2016-2025 시·도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230
표 434.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231
표 435. 2025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상·하위 시·군·구	231
표 436.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232
표 437.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233
표 438.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233
표 439.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233
표 440.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233

제 1부 조사체계

그림 1.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구성	28
그림 2.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체계	29
그림 3. 수행과정	30
그림 4. 표본선정과정	31
그림 5. 지역사회건강조사 순환조사체계	31
그림 6. 질 관리 수행체계	33
그림 7. 콜센터 운영체계	34
그림 8. 전화점검 절차	34
그림 9. 가중치 산출 과정	38

제 3부 지표상세결과

그림 10. 2016-2025 시·도별 현재흡연율 추이	62
그림 11. 2016-2025 시·도 현재흡연율 분포	63
그림 12. 시·군·구별 현재흡연율 지리적 분포 추이	63
그림 13. 2016-2025 시·군·구 현재흡연율 분포	64
그림 1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현재흡연율 분포	64
그림 15. 2016-2025 시·도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66
그림 16. 2016-2025 시·도 남자 현재흡연율 분포	67
그림 17. 시·군·구별 남자 현재흡연율 지리적 분포 추이	67
그림 18. 2016-2025 시·군·구 남자 현재흡연율 분포	68
그림 1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남자 현재흡연율 분포	68
그림 20. 2019-2025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0
그림 21. 2019-2025 시·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71
그림 22. 시·군·구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71
그림 23. 2019-2025 시·군·구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72
그림 2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72
그림 25. 2019-2025 시·도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74
그림 26. 2019-2025 시·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75
그림 27. 시·군·구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75
그림 28. 2019-2025 시·군·구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76
그림 2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76
그림 30. 2020-2025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78
그림 31. 2020-2025 시·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분포	79
그림 32. 시·군·구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지리적 분포 추이	79
그림 33. 2020-2025 시·군·구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분포	80
그림 3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분포	80

그림 35. 2020-2025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82
그림 36. 2020-2025 시·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분포	83
그림 37. 시·군·구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지리적 분포 추이	83
그림 38. 2020-2025 시·군·구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분포	84
그림 3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분포	84
그림 40. 2016-2025 시·도별 월간음주율 추이	86
그림 41. 2016-2025 시·도 월간음주율 분포	87
그림 42. 시·군·구별 월간음주율 지리적 분포 추이	87
그림 43. 2016-2025 시·군·구 월간음주율 분포	88
그림 4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월간음주율 분포	88
그림 45. 2016-2025 시·도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90
그림 46. 2016-2025 시·도 고위험음주율 분포	91
그림 47. 시·군·구별 고위험음주율 지리적 분포 추이	91
그림 48. 2016-2025 시·군·구 고위험음주율 분포	92
그림 4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고위험음주율 분포	92
그림 50. 2016-2025 시·도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94
그림 51. 2016-2025 시·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95
그림 52. 시·군·구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지리적 분포 추이	95
그림 53. 2016-2025 시·군·구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96
그림 5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96
그림 55. 2016-2025 시·도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98
그림 56. 2016-2025 시·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분포	99
그림 57. 시·군·구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99
그림 58. 2016-2025 시·군·구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분포	100
그림 5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분포	100
그림 60. 2016-2025 시·도별 걷기 실천율 추이	102
그림 61. 2016-2025 시·도 걷기 실천율 분포	103
그림 62. 시·군·구별 걷기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103
그림 63. 2016-2025 시·군·구 걷기 실천율 분포	104
그림 6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걷기 실천율 분포	104
그림 65. 2016-2025 시·도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106
그림 66. 2016-2025 시·도 건강생활실천율 분포	107
그림 67. 시·군·구별 건강생활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107
그림 68. 2016-2025 시·군·구 건강생활실천율 분포	108
그림 6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건강생활실천율 분포	108
그림 70. 2016-2025 시·도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110
그림 71. 2016-2025 시·도 비만율(자가보고) 분포	111
그림 72. 시·군·구별 비만율(자가보고) 지리적 분포 추이	111
그림 73. 2016-2025 시·군·구 비만율(자가보고) 분포	112
그림 7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비만율(자가보고) 분포	112
그림 75. 2016-2025 시·도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114
그림 76. 2016-2025 시·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분포	115
그림 77. 시·군·구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지리적 분포 추이	115

그림 78. 2016-2025 시·군·구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분포	116
그림 7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분포	116
그림 80. 2019-2025 시·도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118
그림 81. 2019-2025 시·도 아침식사 실천율 분포	119
그림 82. 시·군·구별 아침식사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119
그림 83. 2019-2025 시·군·구 아침식사 실천율 분포	120
그림 8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아침식사 실천율 분포	120
그림 85. 2016-2025 시·도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122
그림 86. 2016-2025 시·도 영양표시 활용률 분포	123
그림 87. 시·군·구별 영양표시 활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123
그림 88. 2016-2025 시·군·구 영양표시 활용률 분포	124
그림 8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영양표시 활용률 분포	124
그림 90. 2016-2025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126
그림 91. 2016-2025 시·도 스트레스 인지율 분포	127
그림 92. 시·군·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127
그림 93. 2016-2025 시·군·구 스트레스 인지율 분포	128
그림 9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스트레스 인지율 분포	128
그림 95. 2016-2025 시·도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130
그림 96. 2016-2025 시·도 연간 우울감 경험률 분포	131
그림 97. 시·군·구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지리적 분포 추이	131
그림 98. 2016-2025 시·군·구 연간 우울감 경험률 분포	132
그림 9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우울감 경험률 분포	132
그림 100. 2017-2025 시·도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134
그림 101. 2017-2025 시·도 우울증상유병률 분포	135
그림 102. 시·군·구별 우울증상유병률 지리적 분포 추이	135
그림 103. 2017-2025 시·군·구 우울증상유병률 분포	136
그림 10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우울증상유병률 분포	136
그림 105. 2016-2025 시·도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138
그림 106. 2016-2025 시·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분포	139
그림 107. 시·군·구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지리적 분포 추이	139
그림 108. 2016-2025 시·군·구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분포	140
그림 10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분포	140
그림 110. 2016-2025 시·도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142
그림 111. 2016-2025 시·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분포	143
그림 112. 시·군·구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143
그림 113. 2016-2025 시·군·구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분포	144
그림 11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분포	144
그림 115. 2016-2025 시·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146
그림 116. 2016-2025 시·도 주관적 건강인지율 분포	147
그림 117. 시·군·구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147
그림 118. 2016-2025 시·군·구 주관적 건강인지율 분포	148
그림 11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주관적 건강인지율 분포	148
그림 120. 2017-2025 시·도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150

그림 121. 2017-2025 시·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분포	151
그림 122. 시·군·구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151
그림 123. 2017-2025 시·군·구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분포	152
그림 12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분포	152
그림 125. 2017-2025 시·도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154
그림 126. 2017-2025 시·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분포	155
그림 127. 시·군·구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155
그림 128. 2017-2025 시·군·구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분포	156
그림 12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분포	156
그림 130. 2016-2025 시·도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58
그림 131. 2016-2025 시·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159
그림 132. 시·군·구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159
그림 133. 2016-2025 시·군·구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160
그림 13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160
그림 135. 2016-2025 시·도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162
그림 136. 2016-2025 시·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163
그림 137. 시·군·구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163
그림 138. 2016-2025 시·군·구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164
그림 13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164
그림 140. 2016-2025 시·도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166
그림 141. 2016-2025 시·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분포	167
그림 142. 시·군·구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지리적 분포 추이	167
그림 143. 2016-2025 시·군·구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분포	168
그림 14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분포	168
그림 145. 2016-2025 시·도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170
그림 146. 2016-2025 시·도 혈압수치 인지율 분포	171
그림 147. 시·군·구별 혈압수치 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171
그림 148. 2016-2025 시·군·구 혈압수치 인지율 분포	172
그림 14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혈압수치 인지율 분포	172
그림 150.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74
그림 151. 2016-2025 시·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175
그림 152. 시·군·구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지리적 분포 추이	175
그림 153. 2016-2025 시·군·구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176
그림 15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176
그림 155.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78
그림 156. 2016-2025 시·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179
그림 157. 시·군·구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지리적 분포 추이	179
그림 158. 2016-2025 시·군·구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180
그림 15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180
그림 160.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182
그림 161.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지리적 분포 추이	183
그림 162. 2016-2025 시·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분포	183
그림 163.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184

그림 164.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지리적 분포 추이	185
그림 165. 2016-2025 시·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185
그림 166.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186
그림 167.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187
그림 168. 2016-2025 시·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분포	187
그림 169. 2016-2025 시·도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188
그림 170. 2016-2025 시·도 혈당수치 인지율 분포	189
그림 171. 시·군·구별 혈당수치 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189
그림 172. 2016-2025 시·군·구 혈당수치 인지율 분포	190
그림 173.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혈당수치 인지율 분포	190
그림 174.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192
그림 175. 2016-2025 시·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193
그림 176.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지리적 분포 추이	193
그림 177. 2016-2025 시·군·구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194
그림 178.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194
그림 179.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196
그림 180. 2016-2025 시·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197
그림 181.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지리적 분포 추이	197
그림 182. 2016-2025 시·군·구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198
그림 183.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198
그림 184. 2016-2025 시·도별 연간 당뇨병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0
그림 185. 2016-2025 시·도 연간 당뇨병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201
그림 186. 시·군·구별 연간 당뇨병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지리적 분포 추이	201
그림 187. 2016-2025 시·군·구 연간 당뇨병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202
그림 188.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당뇨병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202
그림 189. 2016-2025 시·도별 연간 당뇨병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204
그림 190. 2016-2025 시·도 연간 당뇨병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205
그림 191. 시·군·구별 연간 당뇨병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지리적 분포 추이	205
그림 192. 2016-2025 시·군·구 연간 당뇨병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206
그림 193.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당뇨병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206
그림 194.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208
그림 19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지리적 분포 추이	209
그림 196. 2016-2025 시·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분포	209
그림 197.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210
그림 198.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지리적 분포 추이	211
그림 199. 2016-2025 시·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211
그림 200.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212
그림 201.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213
그림 202. 2016-2025 시·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분포	213
그림 203. 2017-2025 시·도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14
그림 204. 2017-2025 시·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215
그림 205. 시·군·구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215
그림 206. 2017-2025 시·군·구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216

그림 207.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216
그림 208. 2017-2025 시·도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218
그림 209. 2017-2025 시·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219
그림 210. 시·군·구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219
그림 211. 2017-2025 시·군·구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220
그림 212.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220
그림 213. 2019-2025 시·도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222
그림 214. 2019-2025 시·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분포	223
그림 215. 시·군·구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지리적 분포 추이	223
그림 216. 2019-2025 시·군·구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분포	224
그림 217.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분포	224
그림 218. 2016-2025 시·도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226
그림 219. 2016-2025 시·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분포	227
그림 220. 시·군·구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지리적 분포 추이	227
그림 221. 2016-2025 시·군·구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분포	228
그림 222.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분포	228
그림 223. 2016-2025 시·도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230
그림 224. 2016-2025 시·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분포	231
그림 225. 시·군·구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231
그림 226. 2016-2025 시·군·구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분포	232
그림 227.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분포	232

제1부

조사체계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1995년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통계자료가 부재한 실정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비교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증가하는 지역단위 보건통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검증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나. 추진목적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조사체계

가. 추진체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제공한다. 책임대학교 위원회에서는 총괄 대표대학교(1개)를 지정하여, 교육·홍보 등 공통적인 사업내용을 수행하며, 각 책임대학교는 조사수행, 자료 분석, 건강통계집 작성 등을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지표개발, 조사수행 및 자료 분석 지원, 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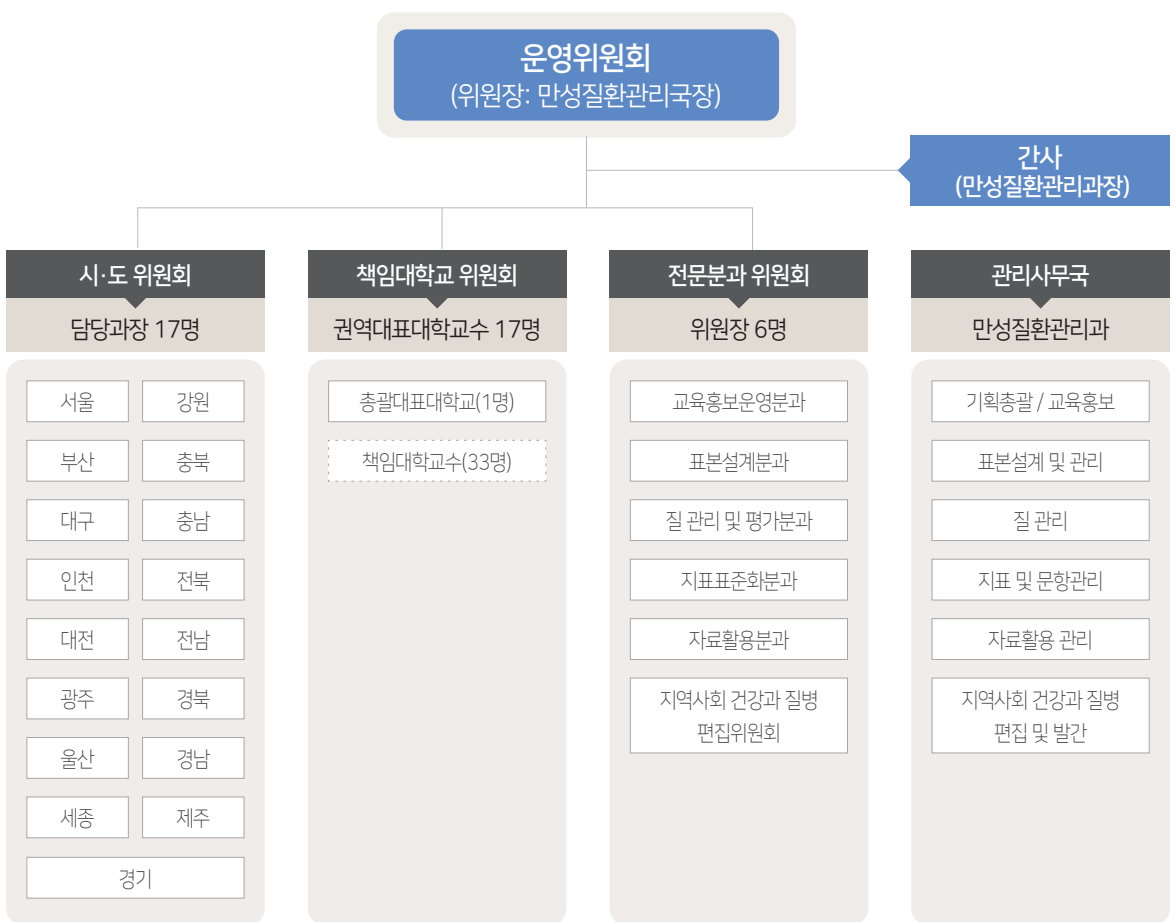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구성

나. 수행체계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하고, 표본설계, 조사문항 및 지침표준화, 교육 및 홍보물 개발 등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는 전국의 시·도 및 책임대학교 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시·도는 권역대표대학교를 지정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을 위한 지역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예산을 받아 시·군·구 보건소로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수행하였다. 시·군·구 보건소는 책임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수행 관련한 행정지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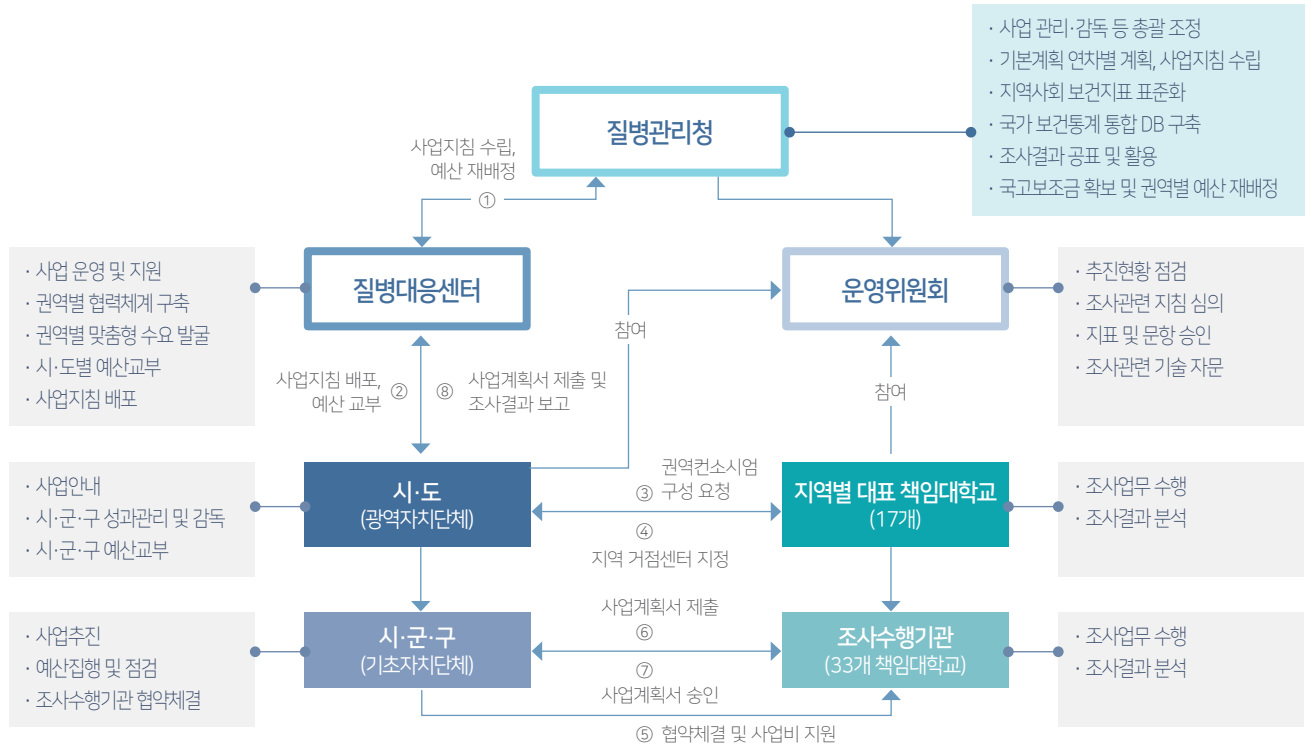


그림 2.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체계

표 1.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질병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본계획 수립 ·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 조사수행체계 및 지표 표준화 · 전국 시·군·구 표본설계 총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관리 및 조사수행, 조사문항지침 작성 · 교육자료 및 홍보물 개발 · 전국자료 분석 및 통계집 발간
질병대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대응센터-지자체-책임대학교 간 소통체계 구축 · 전문분과위원회 참석 · 조사 및 사업진행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콜센터 운영 · 예산 교부 및 정산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주요현안 검토 및 심의 · 표본설계, 지표, 질 관리, 교육 및 홍보, 자료 활용 등 관련 기술 자문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보건소 사업예산 배정 ·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참석 · 조사수행 관련 행정 지원 	
시·군·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대학교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조사수행 관련 행정지원(표본지점 확인, 가구선정안내서 발송, 홍보) · 시·군·구 건강통계집 검독 	
책임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교육/홍보/대외협력 지원 · 사업계획서 시·군·구 보건소 제출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수행 · 조사수행 지원(가구대체, 가구 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현장 지원 콜센터 운영 · 조사원 및 조사정도 관리 · 자료 분석 및 보건통계 생산

다. 수행과정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표, 지침서, 조사원 교육자료 개발 및 표본추출 완료 후, 시·군·구 보건소 및 책임대학교에서는 조사원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표본지점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구방문 전 가구선정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완료 자료를 중앙서버로 전송하였다. 모든 표본지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중앙의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책임대학교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고 당해 연도 시·군·구 건강통계집을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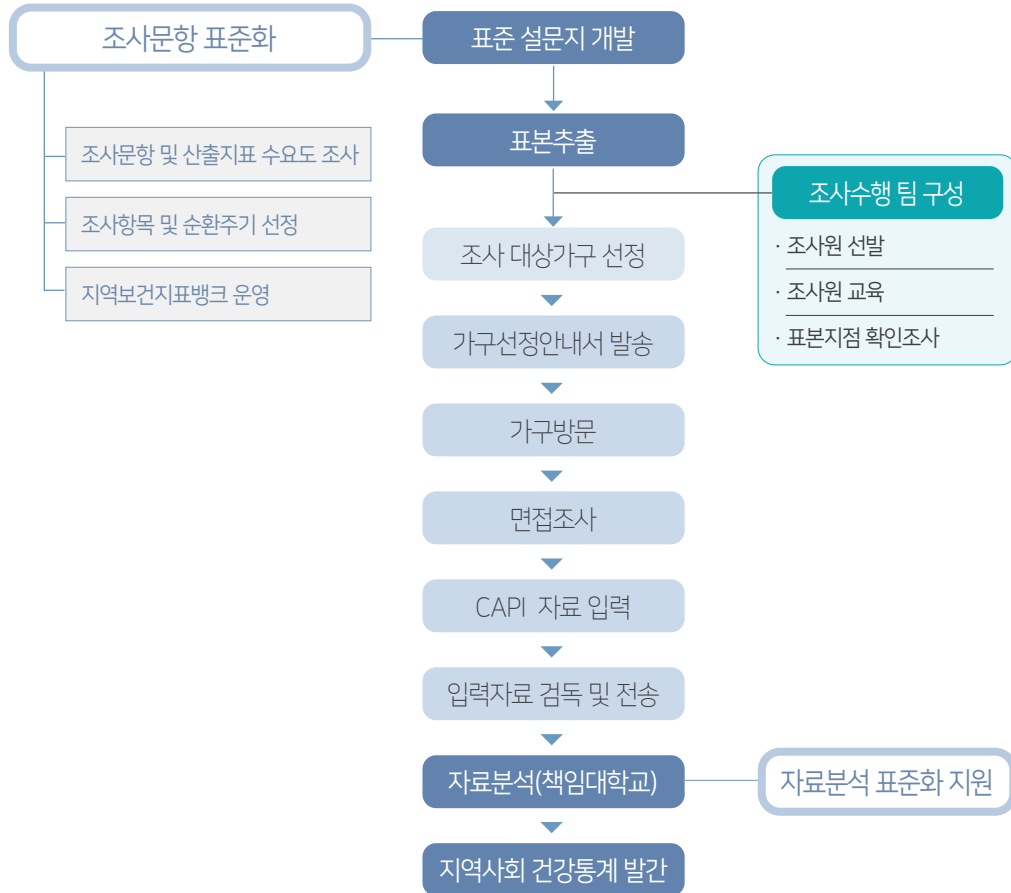


그림 3. 수행과정

3. 표본설계

가. 모집단

- (1) 목표 모집단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다.
- (2) 조사 모집단은 시·군·구의 동·읍·면 내 통·반·리의 표본지점을 1차 추출단위로 하며, 선정된 통·반·리의 표본지점 내 주거용 주택(아파트,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다.

나. 표본추출

(1) 1차 추출(표본지점)

통·반·리 내 주택유형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자료와 주택자료를 연계하여 작성된 표본추출틀에서 각 동·읍·면별로 할당된 표본지점을 추출하는데, 이때 통·반·리를 명칭기준으로 정렬한 후 가구 수 크기를 고려하여 추출확률이 비례하도록 추출하였다.

(2) 2차 추출(표본가구)

표본가구는 표본지점으로 선정된 통·반·리의 가구 수를 파악하여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통·반·리의 규모가 커서 2개 이상의 표본지점이 할당된 경우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본가구가 가능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표본지점별로 평균 5개 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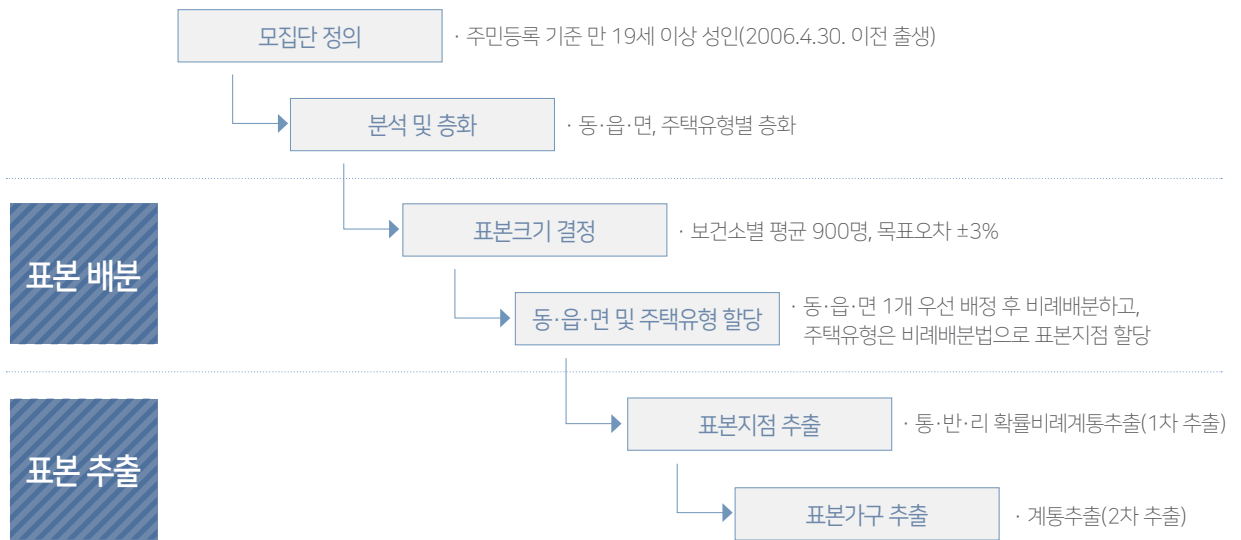


그림 4. 표본선정과정

4.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

조사시점에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2006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며, 조사단위는 가구(가구조사) 및 가구원(개인조사)이다.

나. 조사기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다. 조사내용

(1) 순환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2010년부터 4년을 하나의 조사주기로 설정하고 지표의 중요도와 활용성, 표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조사항목을 1년, 2년, 4년 주기로 구분하여 조사한다(1기 순환조사 : 2010-2013년, 2기 순환조사 : 2014-2017년, 3기 순환조사 : 2018-2021년, 4기 순환조사 : 2022-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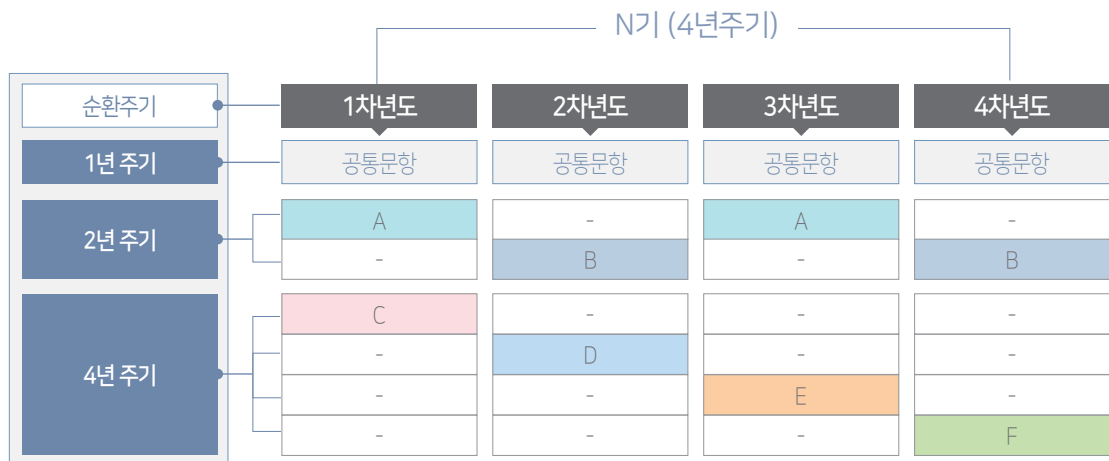


그림 5. 지역사회건강조사 순환조사체계

(2) 조사내용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설문조사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이루어지며, 가구조사에서는 표본가구 당 만 19세 이상 성인 1인에게 세대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가구소득을 조사하고, 개인조사는 가구원 모두에게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등),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개인위생, 여성건강, 교육 및 경제활동을 조사한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표는 19개 영역, 총 16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영역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영역 및 항목

영역		조사항목	
설문조사	가구조사(*가구대표 1인 참여)	세대유형, 기초생활수급 여부, 가구소득, 가구 식품 안정성, 치매환자 동거여부	
	개인조사	흡연	평생흡연(일반, 궤련형, 액상형, 기타), 현재흡연(일반, 궤련형, 액상형, 기타), 모든 담배 금연 시도·계획, 간접흡연(가정실내, 직장실내), 금연구역 인지
		음주	평생음주, 음주 경험 및 빈도, 음주량, 10잔 이상 응답자의 음주량, 폭음빈도, 절주 또는 금주 계획, 음주폐해예방 또는 절주에 대한 홍보노출 경험·교육경험
		안전의식	안전벨트 착용(자동차), 헬멧착용(오토바이,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경험(자동차, 오토바이)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 걷기 실천, 근력운동 실천
		식생활	아침식사 일수, 영양표시 인지·독해·활용
		비만 및 체중조절	본인인지 키(신장) 및 몸무게(체중) 자가보고, 본인인지 체형, 체중조절 시도
		구강건강	주관적 구강건강, 저작불편, 어제 하루 칫솔질 여부(점심, 저녁 또는 잠자기 전), 치과 미충족 의료 경험·이유, 구강검진 수진 여부 및 미수진 이유
		정신건강	수면시간, 스트레스 인지 및 정신상담, 우울감 및 정신상담, 우울증상유병, 자살생각 경험 및 정신상담, 인터넷·게임(오락)·스마트폰 사용, 도박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치매 및 인지장애
		예방접종 및 검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검진, 암 검진
		이환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 건강정보 이해능력,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의료이용	미충족 의료 여부, 미충족 의료 이유
		사고 및 중독	사고·중독 경험 및 건수, 사고·중독 원인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주관적 건강수준, 행복감 지수, 침상외병 경험,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연간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친척·이웃·친구 사회적 연결망
		개인위생	손씻기 실천 여부(식사 전, 외출 후) 비누·손세정제 사용 여부
		여성건강	현재 가임 여부
교육 및 경제활동	최종학력 및 졸업상태, 경제활동 참여, 직업 및 종사상지위, 혼인상태		

라. 조사방법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에 구현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 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으로 수행한다.

5. 자료 질 관리

가. 수행내용

(1) 조사준비 단계

- 조사 질 관리 계획 수립
-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개발
- 책임대학교 담당자 및 조사원 교육
- 표본지점확인조사 실시

(2) 조사수행 단계

- 중앙 콜센터 및 책임대학 콜센터를 통해 조사수행 시 문제 해결
- 조사자료 및 진행현황 관리
- 조사현장 점검을 통한 지침 준수 여부 점검
- 제3기관을 통한 전화점검 실시*로 조사 재확인
 - * 조사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전화점검기관을 선정하여 보건소별 조사자료의 약 13%를 추출하여 조사 진위여부 확인
- 책임대학교 자체점검을 통한 모니터링

(3) 조사완료 후 단계

- 입력 범위 내 입력 및 논리적 오류 점검
- 자료 확정 및 분석을 통한 통계집 작성
- 책임대학교 질 관리 평가 및 결과 확인

나. 수행체계

질병관리청은 사업계획 수립 및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여 책임대학교 담당자를 교육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중 질 관리 및 평가 분과는 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조사수행 중 질병관리청은 중앙 콜센터를 운영하고, 책임대학교에서는 책임대학교 콜센터를 운영하여 조사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 및 질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조사현장 점검 및 전화점검을 실시하여 조사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였다.

조사완료 후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자료 분석을 지원하여 책임대학교에서 통계집을 작성하였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검독하여 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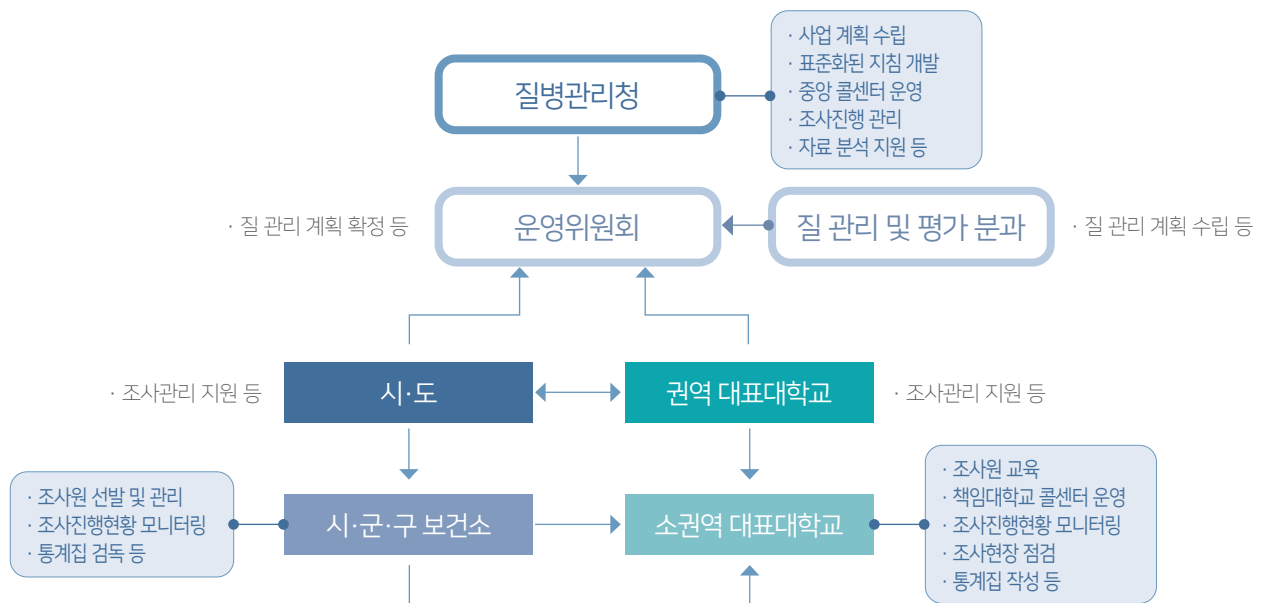


그림 6. 질 관리 수행체계

표 3. 기관별 질 관리 역할

구분	조사준비	조사수행	조사완료
운영위원회	· 사업계획, 질 관리 계획 확정 및 관련 주요사항 결정	-	· 질 관리 평가결과 확인
질 관리 및 평가분과	· 질 관리 계획 수립 · 질 관리 지표 개발 · 질 관리 관련 기술 자문	· 조사진행현황 모니터링	· 책임대학교 질 관리 평가
질병관리청	· 사업계획 수립 · 조사수행 및 관리 지침 개발 · 책임대학교 담당자 및 조사원 교육자료 개발 · 책임대학교 담당자 교육	· 중앙 콜센터 운영 · 조사 진행 관리 · 전화점검 결과 및 책임대학 콜센터 모니터링	· 자료 확정 및 정제 · 자료 분석 지원 ·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작성·발간
시·도	· 조사 계획 수립 · 조사 관리 지원	· 조사 관리 지원	· 통계집 검독 확인
보건소	· 조사 계획 수립 · 조사원 선발 및 관리	· 조사진행현황 모니터링 · 조사현장 관리 지원	· 통계집 검독 확인
책임대학교	· 조사 계획 수립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책임대학 콜센터 운영 · 조사자료 모니터링(직업 및 세대유형 재점검 등) · 조사현장 점검 · 전화점검 결과 모니터링 및 책임대학 자체점검	· 자료분석 및 지역사회 건강통계집 작성·발간

다. 콜센터 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조사원에게 표준화된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지침을 전달하고자 책임대학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책임대학교 콜센터에서는 표본가구 및 가구원 선정, 가구대체, 조사문항, 기타 태블릿 관련 질의사항을 처리하고, 담당자는 질의사항 및 조치내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여 질병관리청, CAPI 시스템 및 전산장비 대여업체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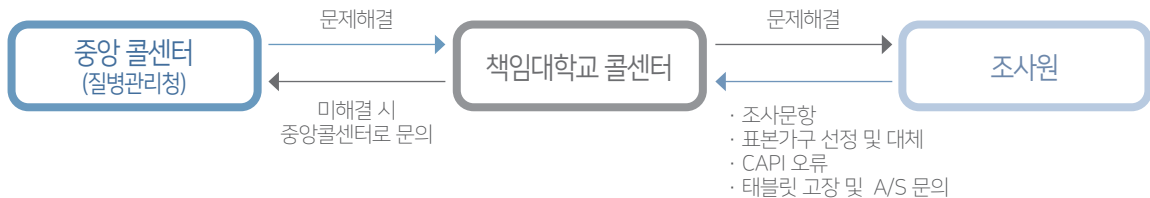


그림 7. 콜센터 운영체계

라. 전화점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조사자료 검증 및 조사원 질 관리를 위해 조사완료자 중 약 13%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3기관을 통해 전화점검을 실시하였다. 전화점검은 조사완료 후 3-4일 이내 실시하였으며, 조사원의 조사수행지침 준수 여부, 조사문항의 신뢰도 등을 검증하였다. 책임대학교에서 전화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 후 최종적으로 조사 자료의 사용여부를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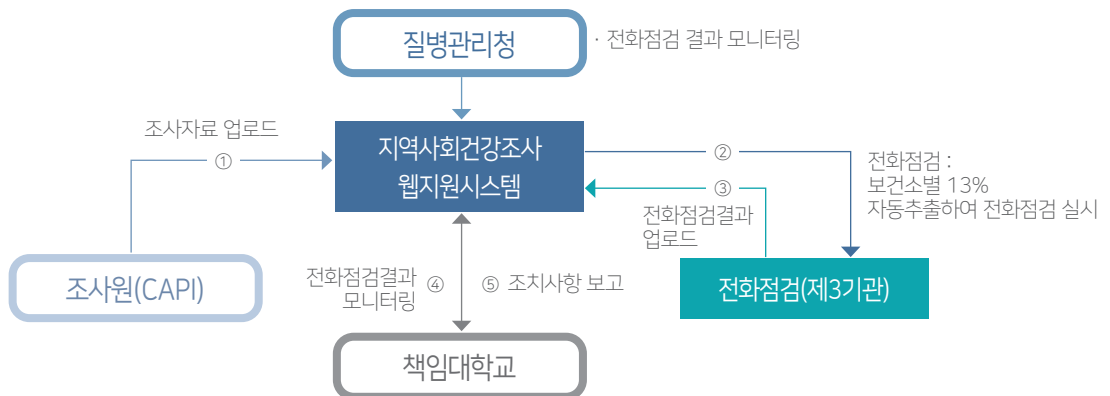


그림 8. 전화점검 절차

6. 조사수행 결과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대상 가구의 시·도별 평균 가구원수는 1.9명~2.3명 사이에 분포하며, 울산·경기가 가장 많고 강원·전남이 가장 적었다. 시·도별 성별 분포는 모든 시·도에서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높았고, 조사대상자의 시·도별 평균 연령은 50.5세~62.7세 사이에 분포하며, 세종이 가장 낮고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대상 가구 특성

(단위: 가구,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가구원수									
1명	4,057 (31.5)	2,789 (32.5)	1,407 (31.2)	1,788 (33.1)	926 (36.4)	813 (31.5)	708 (27.2)	165 (30.0)	7,346 (30.1)
2명	4,380 (34.0)	3,142 (36.6)	1,658 (36.8)	1,927 (35.6)	845 (33.3)	913 (35.4)	931 (35.8)	208 (37.8)	8,228 (33.7)
3명	2,574 (20.0)	1,526 (17.8)	783 (17.4)	964 (17.8)	380 (15.0)	450 (17.5)	537 (20.7)	90 (16.4)	4,737 (19.4)
4명	1,507 (11.7)	902 (10.5)	518 (11.5)	584 (10.8)	314 (12.4)	315 (12.2)	355 (13.7)	75 (13.6)	3,276 (13.4)
5명	293 (2.3)	184 (2.1)	108 (2.4)	116 (2.1)	65 (2.6)	70 (2.7)	57 (2.2)	11 (2.0)	673 (2.8)
6명	42 (0.3)	33 (0.4)	25 (0.6)	23 (0.4)	10 (0.4)	13 (0.5)	8 (0.3)	1 (0.2)	133 (0.5)
7명 이상	13 (0.1)	15 (0.2)	8 (0.2)	5 (0.1)	1 (0.0)	3 (0.1)	3 (0.1)	0 (0.0)	38 (0.2)
평균(명)	2.2	2.2	2.2	2.2	2.1	2.2	2.3	2.2	2.3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088 (8.5)	1,361 (15.9)	535 (11.9)	587 (10.9)	210 (8.3)	277 (10.7)	245 (9.4)	36 (6.5)	1,986 (8.1)
100-200만원 미만	1,659 (12.9)	1,560 (18.2)	710 (15.8)	889 (16.4)	356 (14.0)	300 (11.6)	317 (12.2)	50 (9.1)	2,653 (10.9)
200-300만원 미만	1,914 (14.9)	1,267 (14.8)	739 (16.4)	818 (15.1)	381 (15.0)	371 (14.4)	335 (12.9)	62 (11.3)	3,203 (13.1)
300-400만원 미만	1,847 (14.4)	1,111 (13.0)	708 (15.7)	700 (12.9)	363 (14.3)	378 (14.7)	346 (13.3)	74 (13.5)	3,422 (14.0)
400-500만원 미만	1,187 (9.3)	808 (9.4)	404 (9.0)	500 (9.2)	248 (9.8)	270 (10.5)	302 (11.6)	44 (8.0)	2,602 (10.7)
500-600만원 미만	1,422 (11.1)	866 (10.1)	510 (11.3)	633 (11.7)	301 (11.8)	324 (12.6)	317 (12.2)	63 (11.5)	3,211 (13.2)
600만원 이상	3,706 (28.9)	1,585 (18.5)	901 (20.0)	1,280 (23.7)	682 (26.8)	657 (25.5)	737 (28.4)	221 (40.2)	7,310 (30.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구원수									
1명	3,613 (37.3)	2,851 (37.0)	3,013 (34.1)	2,697 (35.7)	4,873 (39.8)	4,527 (34.9)	4,021 (36.6)	832 (29.5)	
2명	4,178 (43.1)	3,183 (41.3)	3,849 (43.6)	3,383 (44.8)	5,049 (41.3)	5,666 (43.7)	4,518 (41.1)	1,159 (41.1)	
3명	1,071 (11.1)	914 (11.9)	1,094 (12.4)	807 (10.7)	1,249 (10.2)	1,527 (11.8)	1,321 (12.0)	425 (15.1)	
4명	621 (6.4)	599 (7.8)	674 (7.6)	471 (6.2)	751 (6.1)	958 (7.4)	856 (7.8)	236 (8.4)	
5명	154 (1.6)	128 (1.7)	154 (1.7)	131 (1.7)	235 (1.9)	220 (1.7)	213 (1.9)	125 (4.4)	
6명	44 (0.5)	30 (0.4)	31 (0.4)	47 (0.6)	59 (0.5)	56 (0.4)	49 (0.4)	36 (1.3)	
7명 이상	5 (0.1)	6 (0.1)	9 (0.1)	10 (0.1)	15 (0.1)	12 (0.1)	11 (0.1)	10 (0.4)	
평균(명)	1.9	2.0	2.0	2.0	1.9	2.0	2.0	2.2	
월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554 (16.0)	1,107 (14.4)	1,622 (18.4)	1,776 (23.5)	3,134 (25.6)	2,907 (22.6)	2,406 (21.9)	413 (14.7)	
100-200만원 미만	1,868 (19.3)	1,295 (16.8)	1,536 (17.4)	1,691 (22.4)	2,541 (20.8)	2,440 (19.0)	1,900 (17.3)	416 (14.8)	
200-300만원 미만	1,696 (17.5)	1,233 (16.0)	1,332 (15.1)	1,156 (15.3)	1,760 (14.4)	1,872 (14.6)	1,606 (14.6)	459 (16.3)	
300-400만원 미만	1,358 (14.0)	1,134 (14.8)	1,065 (12.1)	912 (12.1)	1,302 (10.6)	1,502 (11.7)	1,423 (12.9)	392 (13.9)	
400-500만원 미만	863 (8.9)	752 (9.8)	849 (9.6)	572 (7.6)	924 (7.6)	1,132 (8.8)	906 (8.2)	294 (10.4)	
500-600만원 미만	973 (10.0)	808 (10.5)	980 (11.1)	563 (7.5)	973 (8.0)	1,178 (9.2)	1,024 (9.3)	372 (13.2)	
600만원 이상	1,374 (14.2)	1,359 (17.7)	1,438 (16.3)	874 (11.6)	1,594 (13.0)	1,825 (14.2)	1,724 (15.7)	470 (16.7)	

표 5.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대상 인구특성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성별									
남자	10,306 (45.0)	6,482 (44.7)	3,720 (45.5)	4,157 (46.3)	2,133 (46.7)	2,129 (46.5)	2,184 (48.0)	419 (45.7)	20,580 (47.2)
여자	12,583 (55.0)	8,025 (55.3)	4,449 (54.5)	4,817 (53.7)	2,433 (53.3)	2,446 (53.5)	2,368 (52.0)	498 (54.3)	23,047 (52.8)
연령(10세 간격)									
19-29세	2,837 (12.4)	1,269 (8.7)	883 (10.8)	793 (8.8)	633 (13.9)	625 (13.7)	411 (9.0)	83 (9.1)	4,939 (11.3)
30-39세	3,269 (14.3)	1,629 (11.2)	1,011 (12.4)	1,010 (11.3)	605 (13.3)	654 (14.3)	596 (13.1)	183 (20.0)	6,380 (14.6)
40-49세	3,321 (14.5)	2,143 (14.8)	1,169 (14.3)	1,347 (15.0)	802 (17.6)	687 (15.0)	829 (18.2)	211 (23.0)	7,491 (17.2)
50-59세	4,009 (17.5)	2,635 (18.2)	1,486 (18.2)	1,657 (18.5)	979 (21.4)	848 (18.5)	980 (21.5)	148 (16.1)	8,588 (19.7)
60-69세	4,438 (19.4)	3,259 (22.5)	1,758 (21.5)	2,115 (23.6)	784 (17.2)	968 (21.2)	1,030 (22.6)	150 (16.4)	8,812 (20.2)
70세 이상	5,015 (21.9)	3,572 (24.6)	1,862 (22.8)	2,052 (22.9)	763 (16.7)	793 (17.3)	706 (15.5)	142 (15.5)	7,417 (17.0)
평균(세)	53.5	56.0	54.8	55.8	51.5	52.0	53.1	50.5	52.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성별								
남자	7,446 (47.1)	5,921 (47.6)	6,588 (45.9)	5,599 (45.0)	8,801 (45.0)	9,899 (46.5)	8,092 (45.1)	2,324 (46.2)
여자	8,355 (52.9)	6,530 (52.4)	7,755 (54.1)	6,845 (55.0)	10,742 (55.0)	11,390 (53.5)	9,847 (54.9)	2,705 (53.8)
연령(10세 간격)								
19-29세	899 (5.7)	916 (7.4)	975 (6.8)	709 (5.7)	877 (4.5)	1,291 (6.1)	1,046 (5.8)	339 (6.7)
30-39세	1,182 (7.5)	1,183 (9.5)	1,210 (8.4)	735 (5.9)	1,260 (6.4)	1,613 (7.6)	1,260 (7.0)	448 (8.9)
40-49세	1,767 (11.2)	1,508 (12.1)	1,750 (12.2)	1,157 (9.3)	1,923 (9.8)	2,317 (10.9)	2,196 (12.2)	765 (15.2)
50-59세	2,977 (18.8)	2,365 (19.0)	2,616 (18.2)	2,016 (16.2)	3,220 (16.5)	3,734 (17.5)	3,337 (18.6)	1,050 (20.9)
60-69세	4,362 (27.6)	3,214 (25.8)	3,491 (24.3)	3,074 (24.7)	4,844 (24.8)	5,431 (25.5)	4,498 (25.1)	1,168 (23.2)
70세 이상	4,614 (29.2)	3,265 (26.2)	4,301 (30.0)	4,753 (38.2)	7,419 (38.0)	6,903 (32.4)	5,602 (31.2)	1,259 (25.0)
평균(세)	59.8	58.0	59.2	62.5	62.7	60.3	60.1	57.6

표 6.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도별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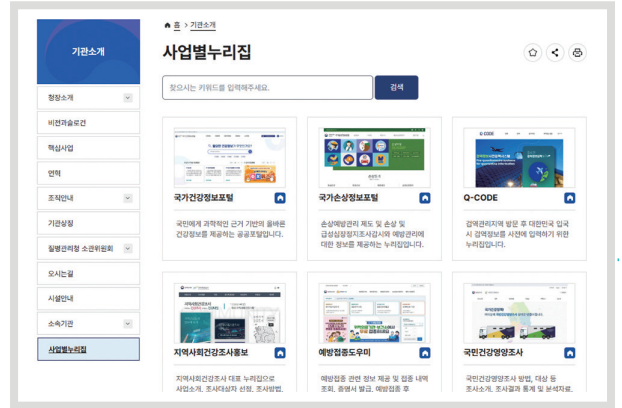
시·도별	조사 가구수			조사 완료자 수(명)						합계
				동지역			읍·면 지역			
	일반주택	아파트	합계	일반주택	아파트	소계	일반주택	아파트	소계	
서울	5,808	7,058	12,866	9,793	13,096	22,889	-	-	-	22,889
부산	3,097	5,494	8,591	4,821	8,780	13,601	220	686	906	14,507
대구	2,260	2,247	4,507	2,815	3,571	6,386	1,020	763	1,783	8,169
인천	2,464	2,943	5,407	2,081	5,131	7,212	1,646	116	1,762	8,974
광주	826	1,715	2,541	1,353	3,213	4,566	-	-	-	4,566
대전	986	1,591	2,577	1,607	2,968	4,575	-	-	-	4,575
울산	964	1,635	2,599	1,163	2,480	3,643	417	492	909	4,552
세종	120	430	550	-	647	647	189	81	270	917
경기	8,993	15,438	24,431	9,529	25,113	34,642	5,508	3,477	8,985	43,627
강원	6,185	3,501	9,686	1,797	3,336	5,133	8,187	2,481	10,668	15,801
충북	4,429	3,282	7,711	1,277	2,654	3,931	5,735	2,785	8,520	12,451
충남	5,155	3,669	8,824	1,251	2,802	4,053	7,070	3,220	10,290	14,343
전북	5,571	1,975	7,546	1,324	2,231	3,555	7,659	1,230	8,889	12,444
전남	9,152	3,079	12,231	1,006	2,091	3,097	13,505	2,941	16,446	19,543
경북	9,044	3,922	12,966	2,384	3,615	5,999	12,104	3,186	15,290	21,289
경남	7,126	3,863	10,989	2,102	3,984	6,086	9,123	2,730	11,853	17,939
제주	2,285	538	2,823	1,097	597	1,694	3,025	310	3,335	5,029
합계	74,465	62,380	136,845	45,400	86,309	131,709	75,408	24,498	99,906	231,615

7. 원시자료 공개

01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kdca.go.kr) 접속



02 기관소개 ▶ 사업별누리집을 통해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으로 이동



03 원시자료요청 ▶ 자료요청 메뉴 선택



04 자료이용 서약서 및 활용 계획서 작성·제출



05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원시자료 다운로드



06 논문 및 학회 발표 시 자료활용현황 등록



1. 가중치의 사용

가. 소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표본설계를 통하여 추출한 표본을 조사하여 설계 구조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모집단의 건강수준 등을 추정하였다.

나. 가중치 산출 과정

가중치는 가구별 분석을 위한 가구가중치와 개인별 분석을 위한 개인가중치로 분류된다. 가구가중치는 가구 추출률과 조사 적격 가구율을 반영하였고, 개인가중치는 가구가중치에 개인 응답률을 반영하였다. 추정에 쓰이는 보정가중치는 개인가중치를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당해연도 4월 주민등록인구)와 같도록 보정하여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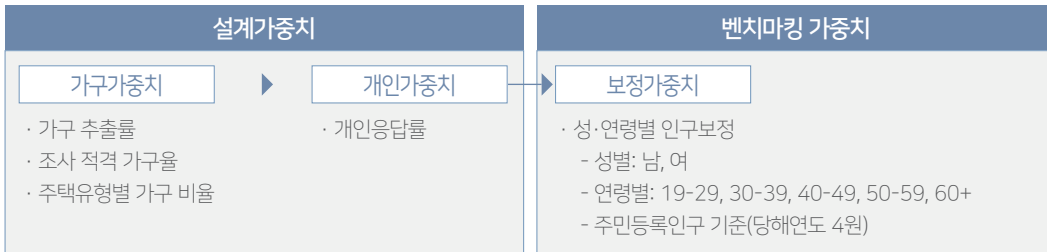


그림 9. 가중치 산출 과정

(1) 가구가중치

표본설계의 표본추출과정을 고려한 가구 추출률, 조사 적격 가구율, 주택유형별 가구비율을 반영한 가중치

$$W_{hi} = \frac{M_{hi}}{n_{hi}} = \frac{e_{hi} \cdot N_{hi}}{n_{hi}}$$

- N_{hi} : h 동·읍·면 i 주택유형별 가구 수
- M_{hi} : h 동·읍·면 i 주택유형별 적격 가구 수
- n_{hi} : h 동·읍·면 i 주택유형별 조사 가구 수
- e_{hi} : h 동·읍·면 i 주택유형별 조사 적격 가구율

표 7. 가구가중치 산출 예

내역	값
구분 1(①): 동·읍·면	(00동)
구분 2(②): 주택유형	(아파트)
①②의 가구 수(③)	(2,620)
①②의 조사된 가구 수(④)	(7)
①②의 조사 접촉 가구 수(⑤)	(9)
①②의 조사 적격 가구 수(⑥)	(8)
가구가중치(⑦)=③/④×⑥/⑤	(332.698=2620/7×8/9)
전체 가구가중치 합(⑧)	(8569.456)
전체 ②의 가구 수 합(⑨)	(10,356)
가구가중치 보정(⑩)=⑦×(⑨/⑧)	(402.0583=332.698×10,356/8569.456)

(2) 개인가중치

가구가중치에 개인 응답률을 반영한 가중치

$$W_{ijkl} = W_{ijk} \times \frac{P_{hjk}}{p_{hjk}}$$

- h : 동·읍·면, j : 표본지점
- k : 가구, l : 가구원
- P_{hjk} : 가구 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수
- p_{hjk} : 가구 내 만 19세 이상 조사 가구원 수

표 8. 개인가중치 산출 예

내역	값
구분 1(①) : 동·읍·면	(00동)
구분 2(②) : 주택유형	(아파트)
①②의 가구가중치(③)	(402.0583)
만 19세 이상 가구원 수(④)	(4)
만 19세 이상 조사 가구원 수(⑤)	(3)
개인가중치(⑥=③×④/⑤)	(536.0777=402.0583×4/3)

(3) 보정가중치

당해연도 4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정한 가중치

$$W'_{ijkl} = BF_d \cdot W_{ijkl}$$

$$\cdot BF_d = \frac{d(\text{성별} \cdot \text{연령대별})\text{주민등록인구수}}{\sum_h \sum_i \sum_{jkl} W_{ijkl} I_{d \in \text{성별} \cdot \text{연령대별}}}$$

표 9. 보정가중치 산출 예

내역	값
구분 1(①) : 동·읍·면	(00동)
구분 2(②) : 주택유형	(아파트)
①②의 개인가중치(③)	(536.0777)
주민등록인구(④)	(14,693)
성·연령별 개인가중치 합(⑤)	(12,157.23)
성·연령별 보정비(⑥=④/⑤)	(1.208=14,693/12,157.23)
보정가중치(⑦=③×⑥)	(647.89=536.0777×1.208)

(4) 가중치의 이상치 제거

특정 조사대상자의 개인가중치가 다른 조사대상자의 개인가중치보다 월등히 클 경우, 해당 조사대상자의 응답값에 의해 조사결과에 바이어스(bias, 편향성)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정가중치의 이상치를 Raking Ratio 방법으로 제거하여 재보정하였다.

$Q_3(W'_g) + 3 \times IQR$ 보다 큰 가중치는 이상치로 정의하였으며, $Q_3(W'_g) + 3 \times IQR$ 로 변경하였다.

- IQR : $Q_3(W') - Q_1(W')$
- $Q_1(W')$: 가중치 중 1사분위수
- $Q_3(W')$: 가중치 중 3사분위수

2. 무응답처리

무응답은 대체하지 않으며, 지표 산출시 무응답은 제외한다. 무응답에는 크게 개체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으로 나뉜다. 개체 무응답은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문항에 결측치를 갖는 경우이며, 항목 무응답은 조사항목 중 일부 항목에 결측치가 있는 것이다. 개체 무응답은 가중치를 사용한 추정방식에 의해 보완을 하며, 항목 무응답은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하여 대체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

3. 연령표준화

조사 지역이나 시점에 따라서 건강지표에 영향을 주는 연령별 인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지표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기에 조사된 지표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주요지표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직접표준화하였다. 직접표준화는 성·연령별 유병률에 각 구간의 표준인구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표준인구 가중 평균 유병률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본 통계집에서는 2018년 12월에 통계청에서 공표한 2005년 추계인구를 표준인구로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19-29, 30-39, 40-49, 50-59, 60-69, 70 이상”으로 연령 구분하였다. 2005년도 추계인구는 다음과 같다.

표 10. 2005년 추계인구 : 19세 이상, 10세 간격

연령대	합계	남자	여자
19-29	8,262,905	4,279,712	3,983,193
30-39	8,627,773	4,424,977	4,202,796
40-49	8,206,397	4,165,272	4,041,125
50-59	5,147,501	2,573,205	2,574,296
60-69	3,635,784	1,692,732	1,943,052
70 이상	2,631,178	956,776	1,674,402
합계	36,511,538	18,092,674	18,418,864

4. 분산추정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표본가중평균을 제시하였다.

표본조사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때 일반적으로 표본오차(sampling error) 및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가 수반된다. 표본오차는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과 어긋나는 정도를 나타내며, 비표본오차는 표본추출과정을 제외한 자료수집 과정이나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표현되는 표본오차는 추정치의 신뢰도에 대한 척도가 되며 분산추정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SAS 9.4를 활용하여 분산을 추정하였다.

◎ 표본가중평균

$$\hat{Y} = \frac{\left(\sum_h \sum_j \sum_k \sum_l W_{hijkl} y_{hijkl} \right)}{W_{\dots}}$$

- h : 동·읍·면, j : 표본지점
- k : 가구, l : 가구원
- $W_{\dots} = \sum_{h=1} \sum_{j=1} \sum_{k=1} \sum_{l=1} W_{hijkl}$: 가중치 계
- y_{hijkl} : 해당 문항의 응답값

◎ 표본오차

$$SE(\hat{Y}) = \sqrt{\sum_{h=1}^H \sum_{j=1}^J \frac{n_{hj}(1-f_{hj})}{n_{hj}-1} \sum_{k=1}^{n_{hj}} (e_{hjk} - \bar{e}_{hj})^2}$$

$$\cdot e_{hjk} = \frac{(\sum_{l=1}^L W_{hjkl}(y_{hjkl} - \hat{Y}))}{W_{...}}$$

$$\cdot \bar{e}_{hj.} = (\sum_{k=1}^{n_{hj}} e_{hjk}) / n_{hj}$$

◎ 상대표준오차(변동계수)

$$RSE(\hat{Y}) = \frac{SE(\hat{Y})}{\hat{Y}}$$

제2부

지표결과 요약

현재흡연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17.9%로 전년 대비 1.0%p 감소

표 11. 2016-2025년 전국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2.5	21.7	21.7	20.3	19.8	19.1	19.3	20.3	18.9	17.9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2.4%),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19.8%)
 - 전년 대비 16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대구, 제주(2.4%p)
 - 시·도 간 격차는 7.4%p로, 전년 대비 0.5%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7.5%),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해남군(27.4%)
 - 전년 대비 174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북 단양군(13.8%p)
 - 시·군·구 간 격차는 19.9%p로, 전년 대비 5.9%p 감소

남자 현재흡연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32.2%로 전년 대비 1.8%p 감소

표 12. 2016-2025년 전국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1.9	40.7	40.6	37.4	36.6	35.6	35.3	36.1	34.0	32.2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22.7%),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35.3%)
 - 전년 대비 16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5.0%p)
 - 시·도 간 격차는 12.6%p로, 전년 대비 1.1%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13.3%),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해남군(50.7%)
 - 전년 대비 174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북 단양군(20.4%p)
 - 시·군·구 간 격차는 37.3%p로, 전년 대비 9.2%p 감소

담배제품 현재사용률^[1]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22.1%로 전년 대비 0.5%p 감소

표 13. 2019-2025년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1.6	21.5	21.5	22.2	22.2	22.6	22.1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7.3%),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24.7%)
 - 전년 대비 9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북(1.5%p)
 - 시·도 간 격차는 7.3%p로, 전년 대비 1.1%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12.8%),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평택시 평택, 강원 정선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29.1%)
 - 전년 대비 143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북 단양군(10.3%p)
 - 시·군·구 간 격차는 16.3%p로, 전년 대비 9.1%p 감소

[1] '19년 신규 도입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2]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39.6%로 전년 대비 0.1%p 감소

표 14. 2019-2025년 전국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0.2	40.0	39.9	40.2	39.9	39.7	39.6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32.0%),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42.3%)
 - 전년 대비 10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3.8%p)
 - 시·도 간 격차는 10.3%p로, 전년 대비 4.4%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24.9%),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해남군(52.4%)
 - 전년 대비 143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북 영천시(16.7%p)
 - 시·군·구 간 격차는 27.5%p로, 전년 대비 17.8%p 감소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3]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40.6%로 전년 대비 2.0%p 감소

표 15. 2020-2025년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6.8	42.5	40.9	42.9	42.6	40.6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0.8%),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34.5%)
 - 전년 대비 6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전남(3.5%p)
 - 시·도 간 격차는 16.3%p로, 전년 대비 3.6%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계룡시(61.2%),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 완주군(16.9%)
 - 전년 대비 117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창원군(27.0%p)
 - 시·군·구 간 격차는 44.2%p로, 전년 대비 11.4%p 감소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4]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6.6%로 전년 대비 0.2%p 감소

표 16. 2020-2025년 전국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3.5	10.9	8.2	9.7	6.8	6.6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6%),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12.1%)
 - 전년 대비 11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대전(5.2%p)
 - 시·도 간 격차는 9.5%p로, 전년 대비 1.9%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강릉시(0.1%),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대덕구(31.3%)
 - 전년 대비 138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대전 대덕구(15.5%p)
 - 시·군·구 간 격차는 31.2%p로, 전년 대비 15.2%p 감소

[2] '19년 신규 도입

[3] '20년 문항 변경으로 이전 연도 결과 미제시, '25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4] '20년 문항 변경으로 이전 연도 결과 미제시, '25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월간음주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57.1%로 전년 대비 1.2%p 감소

표 17. 2016-2025년 전국 월간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61.0	61.5	60.9	59.9	54.7	53.7	57.7	58.0	58.3	57.1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52.2%),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0.6%)
 - 전년 대비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광주(4.4%p)
 - 시·도 간 격차는 8.4%p로, 전년 대비 0.5%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의령군(41.0%),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인제군(65.8%)
 - 전년 대비 172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대구 군위군(15.7%p)
 - 시·군·구 간 격차는 24.8%p로, 전년 대비 1.8%p 증가

고위험음주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12.0%로 전년 대비 0.6%p 감소

표 18. 2016-2025년 전국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4.8	15.3	15.0	14.1	10.9	11.0	12.6	13.2	12.6	12.0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7.0%),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15.7%)
 - 전년 대비 15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북(2.7%p)
 - 시·도 간 격차는 8.7%p로, 전년 대비 2.3%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4.4%),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속초시(21.8%)
 - 전년 대비 155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북 옥천군, 경북 영덕군(9.0%p)
 - 시·군·구 간 격차는 17.3%p로, 전년 대비 0.9%p 감소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15.8%로 전년 대비 0.8%p 감소

표 19. 2016-2025년 전국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8.6	19.2	19.2	18.4	15.4	15.4	16.5	17.3	16.6	15.8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8.9%),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20.6%)
 - 전년 대비 14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북(3.8%p)
 - 시·도 간 격차는 11.7%p로, 전년 대비 3.1%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5.4%),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괴산군(30.5%)
 - 전년 대비 149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북 영덕군(12.9%p)
 - 시·군·구 간 격차는 25.1%p로, 전년 대비 1.8%p 증가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5]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26.0%로 전년 대비 0.6%p 감소

표 20. 2016-2025년 전국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2.2	22.3	-	24.7	19.8	19.7	23.5	25.1	26.6	26.0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38.9%),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23.2%)
 - 전년 대비 5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5.9%p)
 - 시·도 간 격차는 15.7%p로, 전년 대비 5.7%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창녕군(74.4%),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군위군(11.9%)
 - 전년 대비 117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창녕군(29.8%p)
 - 시·군·구 간 격차는 62.5%p로, 전년 대비 17.5%p 증가

걷기 실천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49.2%로 전년 대비 0.5%p 감소

표 21. 2016-2025년 전국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38.7	39.7	42.9	40.4	37.4	40.3	47.1	47.9	49.7	49.2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69.0%),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37.6%)
 - 전년 대비 8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3.9%p)
 - 시·도 간 격차는 31.5%p로, 전년 대비 3.0%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중랑구(77.7%),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 보은군(20.5%)
 - 전년 대비 108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22.5%p)
 - 시·군·구 간 격차는 57.1%p로, 전년 대비 0.9%p 증가

건강생활실천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36.1%로 전년 대비 0.1%p 감소

표 22. 2016-2025년 전국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7.0	27.0	30.7	28.4	26.4	29.6	33.7	34.2	36.2	36.1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54.3%),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26.2%)
 - 전년 대비 9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7.4%p)
 - 시·도 간 격차는 28.1%p로, 전년 대비 2.9%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남구(64.3%),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 보은군(15.5%)
 - 전년 대비 116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19.5%p)
 - 시·군·구 간 격차는 48.8%p로, 전년 대비 1.1%p 증가

[5] '18년 문항 변경으로 해당 연도 결과 미제시, '24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자가보고)^[6]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35.4%로 전년 대비 1.0%p 증가

표 23. 2016-2025년 전국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7.9	28.6	31.8	-	31.3	32.2	32.5	33.7	34.4	35.4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29.4%),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38.2%)
 - 전년 대비 4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서울(0.8%p)
 - 시·도 간 격차는 8.7%p로, 전년 대비 0.9%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21.7%),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46.6%)
 - 전년 대비 99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11.9%p)
 - 시·군·구 간 격차는 25.0%p로, 전년 대비 0.9%p 감소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68.5%로 전년 대비 3.5%p 증가

표 24. 2016-2025년 전국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9.0	62.8	58.9	64.6	65.8	65.5	65.4	66.9	65.0	68.5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4.5%),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경북(64.7%)
 - 전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광주(7.1%p)
 - 시·도 간 격차는 9.8%p로, 전년 대비 0.3%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81.8%),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문경시(49.8%)
 - 전년 대비 196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전북 장수군(35.5%p)
 - 시·군·구 간 격차는 32.0%p로, 전년 대비 16.6%p 감소

아침식사 실천율^[7]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47.3%로 전년 대비 0.2%p 감소

표 25. 2019-2025년 전국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3.4	51.5	50.0	48.0	47.0	47.5	47.3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49.2%),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43.2%)
 - 전년 대비 6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3.4%p)
 - 시·도 간 격차는 6.0%p로, 전년 대비 0.3%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67.3%),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 진천군(36.0%)
 - 전년 대비 117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인천 강화군(14.8%p)
 - 시·군·구 간 격차는 31.3%p로, 전년 대비 0.2%p 증가

[6] '18년 신체계측과 동시조사, '19년 조사 미실시

[7] '19년 문항 변경으로 이전 연도 결과 미제시, '22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아침결식 예방인구비율')

영양표시 활용률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87.1%로 전년 대비 1.1%p 증가

표 26. 2016-2025년 전국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0.7	80.5	79.5	81.1	83.2	84.5	84.6	85.6	86.0	87.1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92.1%),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84.8%)
 - 전년 대비 12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5.7%p)
 - 시·도 간 격차는 7.3%p로, 전년 대비 2.0%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예천군(96.9%),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64.4%)
 - 전년 대비 151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전북 김제시(19.5%p)
 - 시·군·구 간 격차는 32.6%p로, 전년 대비 8.0%p 감소

스트레스 인지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23.9%로 전년 대비 0.2%p 증가

표 27. 2016-2025년 전국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8.0	26.9	26.4	25.2	26.2	26.2	23.9	25.7	23.7	23.9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 경북(21.7%),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6.3%)
 - 전년 대비 6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4.0%p)
 - 시·도 간 격차는 4.5%p로, 전년 대비 0.9%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덕군(12.8%),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중구(33.1%)
 - 전년 대비 120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대전 대덕구(13.1%p)
 - 시·군·구 간 격차는 20.3%p로, 전년 대비 7.3%p 감소

연간 우울감 경험률^[8]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5.9%로 전년 대비 0.3%p 감소

표 28. 2016-2025년 전국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5	5.8	5.0	5.5	5.7	6.7	6.8	7.3	6.2	5.9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3.4%),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충남(7.0%)
 - 전년 대비 12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1.9%p)
 - 시·도 간 격차는 3.6%p로, 전년 대비 0.9%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예천군, 경남 창원군(1.1%),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아산시(12.2%)
 - 전년 대비 151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인천 강화군(8.1%p)
 - 시·군·구 간 격차는 11.0%p로, 전년 대비 0.6%p 증가

[8] '25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우울감 경험률')

우울증상유병률^[9]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3.4%로 전년 대비 0.1%p 감소

표 29. 2017-2025년 전국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7	2.8	2.7	2.6	3.1	3.5	3.4	3.5	3.4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전북(2.3%),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4.9%)
 - 전년 대비 13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2.1%p)
 - 시·도 간 격차는 2.6%p로, 전년 대비 0.2%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창녕군(0.3%),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7.7%)
 - 전년 대비 143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인천 남동구(5.5%p)
 - 시·군·구 간 격차는 7.4%p로, 전년 대비 1.0%p 감소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26.6%로 전년 대비 1.1%p 감소

표 30. 2016-2025년 전국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4.1	39.5	38.0	35.7	31.6	34.2	31.5	30.2	27.7	26.6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17.8%),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9.5%)
 - 전년 대비 15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5.9%p)
 - 시·도 간 격차는 11.7%p로, 전년 대비 1.7%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10.0%),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동해시(37.9%)
 - 전년 대비 166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북 김천시(13.8%p)
 - 시·군·구 간 격차는 27.9%p로, 전년 대비 0.5%p 감소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10]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71.6%로 전년 대비 0.5%p 증가

표 31. 2016-2025년 전국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4.6	57.5	56.7	58.0	71.7	69.8	68.3	68.1	71.1	71.6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79.2%),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67.8%)
 - 전년 대비 11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3.9%p)
 - 시·도 간 격차는 11.4%p로, 전년 대비 1.8%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남구(91.2%),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완도군(57.7%)
 - 전년 대비 151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충남 서산시, 경남 의령군(16.4%p)
 - 시·군·구 간 격차는 33.5%p로, 전년 대비 2.8%p 증가

[9] '17년 신규 도입

[10] '19년까지는 모든 끼니마다 양치질 실천 여부를 설문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점심식사 후 양치질 실천 여부를 단독으로 설문하였으므로 연도 비교 시 주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1]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48.7%로 전년 대비 0.5%p 증가

표 32. 2016-2025년 전국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4.6	44.9	42.4	41.3	55.6	47.6	49.7	47.6	48.2	48.7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61.2%),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43.4%)
 - 전년 대비 8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5.7%p)
 - 시·도 간 격차는 17.9%p로, 전년 대비 2.7%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남구(69.6%),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고령군(32.9%)
 - 전년 대비 143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충남 부여군(18.9%p)
 - 시·군·구 간 격차는 36.7%p로, 전년 대비 3.6%p 감소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12]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 92.2%로 2년 전 대비 0.8%p 증가

표 33. 2017-2025년 전국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4.1	-	85.5	97.6	94.5	-	91.4	-	92.2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95.4%),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86.0%)
 - 2년 전 대비 10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5.1%p)
 - 시·도 간 격차는 9.5%p로, 2년 전 대비 3.9%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98.2%),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함양군(63.7%)
 - 2년 전 대비 150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산청군(18.3%p)
 - 시·군·구 간 격차는 34.5%p로, 2년 전 대비 5.9%p 감소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13]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 88.5%로 2년 전 대비 1.6%p 증가

표 34. 2017-2025년 전국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0.1	-	81.3	93.2	89.3	-	86.9	-	88.5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93.0%),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83.2%)
 - 2년 전 대비 16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4.2%p)
 - 시·도 간 격차는 9.8%p로, 2년 전 대비 0.6%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광주 남구(97.2%),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함양군(66.6%)
 - 2년 전 대비 157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충남 보령시(16.6%p)
 - 시·군·구 간 격차는 30.6%p로, 2년 전 대비 1.6%p 증가

[11] '20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12] 2년 주기 문항이나 '20년 코로나19 유행 관련으로 조사 실시'
 [13] 2년 주기 문항이나 '20년 코로나19 유행 관련으로 조사 실시'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90.5%로 전년 대비 0.2%p 감소

표 35. 2016-2025년 전국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4.1	85.7	88.5	89.7	92.0	89.5	91.2	90.5	90.7	90.5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96.7%),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충남(86.1%)
 - 전년 대비 11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전북(2.8%p)
 - 시·도 간 격차는 10.6%p로, 전년 대비 1.4%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여수시(99.6%),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45.7%)
 - 전년 대비 130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15.3%p)
 - 시·군·구 간 격차는 54.0%p로, 전년 대비 6.4%p 증가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29.5%로 전년 대비 0.7%p 감소

표 36. 2016-2025년 전국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2.6	13.7	18.2	28.4	33.1	31.3	32.9	28.1	30.2	29.5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35.4%),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22.3%)
 - 전년 대비 8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2.6%p)
 - 시·도 간 격차는 13.1%p로, 전년 대비 2.4%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창원군(60.3%),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8.0%)
 - 전년 대비 128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함안군(16.1%p)
 - 시·군·구 간 격차는 52.3%p로, 전년 대비 9.1%p 증가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1.4%로 전년 대비 0.3%p 감소

표 37. 2016-2025년 전국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0.1	8.8	7.3	5.2	1.9	2.0	1.8	2.0	1.7	1.4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0.4%),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4%)
 - 전년 대비 13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1.9%p)
 - 시·도 간 격차는 1.9%p로, 전년 대비 변동없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서구, 대구 서구(0.0%),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15.8%)
 - 전년 대비 148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전북 순창군(7.5%p)
 - 시·군·구 간 격차는 15.8%p로, 전년 대비 3.1%p 증가

혈압수치 인지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62.8%로 전년 대비 1.6%p 증가

표 38. 2016-2025년 전국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2.4	54.7	43.1	54.5	60.6	61.6	62.9	62.8	61.2	62.8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6.5%),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53.6%)
 - 전년 대비 10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13.9%p)
 - 시·도 간 격차는 22.9%p로, 전년 대비 0.3%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봉화군, 경북 울진군(84.4%),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 완주군(41.0%)
 - 전년 대비 147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부산 동구(23.9%p)
 - 시·군·구 간 격차는 43.4%p로, 전년 대비 3.0%p 감소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21.2%로 전년 대비 0.1%p 증가

표 39. 2016-2025년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9.6	19.8	19.4	19.4	19.2	20.0	19.8	20.6	21.1	21.2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18.8%),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24.1%)
 - 전년 대비 8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2.9%p)
 - 시·도 간 격차는 5.3%p로, 전년 대비 0.8%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14.4%),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고성군(28.2%)
 - 전년 대비 127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전북 익산시(8.5%p)
 - 시·군·구 간 격차는 13.8%p로, 전년 대비 0.2%p 감소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93.5%로 전년 대비 변동없음

표 40. 2016-2025년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8.4	88.6	92.3	91.7	93.1	93.3	93.6	93.6	93.5	93.5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96.7%),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90.4%)
 - 전년 대비 9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6.7%p)
 - 시·도 간 격차는 6.3%p로, 전년 대비 0.3%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가평군(99.4%),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73.6%)
 - 전년 대비 129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대전 대덕구(16.7%p)
 - 시·군·구 간 격차는 25.8%p로, 전년 대비 5.9%p 증가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14]

- ◆ '25년 전국 17개 시·도 중앙값은 30.7%로 전년 대비 1.4%p 감소

표 41. 2016-2025년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31.8	31.6	33.0	29.6	30.4	29.3	31.2	38.6	32.1	30.7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23.6%),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35.2%)
 - 전년 대비 10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7.8%p)
 - 시·도 간 격차는 11.6%p로, 전년 대비 10.6%p 감소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15]

- ◆ '25년 전국 17개 시·도 중앙값은 12.3%로 전년 대비 0.5%p 감소

표 42. 2016-2025년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14.1	13.9	14.2	13.3	10.7	10.1	12.5	12.4	12.8	12.3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9.6%),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15.1%)
 - 전년 대비 14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북(1.6%p)
 - 시·도 간 격차는 5.5%p로, 전년 대비 0.9%p 증가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16]

- ◆ '25년 전국 17개 시·도 중앙값은 47.9%로 전년 대비 2.0%p 감소

표 43. 2016-2025년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37.2	41.0	42.6	38.9	39.3	41.7	45.0	46.9	49.9	47.9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66.3%),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38.1%)
 - 전년 대비 2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경남(2.9%p)
 - 시·도 간 격차는 28.2%p로, 전년 대비 3.2%p 증가

[14] '만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자'로 분모를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15] '만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자'로 분모를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16] '만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자'로 분모를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혈당수치 인지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30.1%로 전년 대비 1.9%p 증가

표 44. 2016-2025년 전국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5.5	16.7	15.3	18.6	25.7	26.3	28.4	30.6	28.2	30.1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42.4%),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20.8%)
 - 전년 대비 10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10.2%p)
 - 시·도 간 격차는 21.6%p로, 전년 대비 1.4%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봉화군(65.6%),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12.6%)
 - 전년 대비 159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강원 고성군, 전북 무주군(22.5%p)
 - 시·군·구 간 격차는 53.0%p로, 전년 대비 5.2%p 증가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9.6%로 전년 대비 0.2%p 증가

표 45. 2016-2025년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7.8	8.1	7.9	8.0	8.3	8.8	9.1	9.1	9.4	9.6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6.4%),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10.0%)
 - 전년 대비 3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3.8%p)
 - 시·도 간 격차는 3.6%p로, 전년 대비 0.9%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 화성시 동탄(5.7%),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고창군(15.0%)
 - 전년 대비 112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남 부여군(4.9%p)
 - 시·군·구 간 격차는 9.3%p로, 전년 대비 0.7%p 감소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93.2%로 전년 대비 0.2%p 감소

표 46. 2016-2025년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6.1	87.1	90.9	91.9	91.5	91.2	91.8	92.8	93.4	93.2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제주(96.4%),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83.3%)
 - 전년 대비 9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광주(4.7%p)
 - 시·도 간 격차는 13.1%p로, 전년 대비 2.7%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옥천군, 전남 영암군(100.0%),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50.7%)
 - 전년 대비 128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전북 김제시(24.0%p)
 - 시·군·구 간 격차는 49.3%p로, 전년 대비 3.3%p 증가

연간 당뇨병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39.3%로 전년 대비 1.0%p 증가

표 47. 2016-2025년 전국 연간 당뇨병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35.0	35.2	38.0	40.5	41.4	39.1	38.5	38.4	38.3	39.3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49.7%),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32.4%)
 - 전년 대비 8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14.0%p)
 - 시·도 간 격차는 17.3%p로, 전년 대비 7.6%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86.0%),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해남군(6.7%)
 - 전년 대비 132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서울 서초구(24.0%p)
 - 시·군·구 간 격차는 79.3%p로, 전년 대비 4.5%p 증가

연간 당뇨병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51.8%로 전년 대비 1.7%p 증가

표 48. 2016-2025년 전국 연간 당뇨병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39.6	40.3	44.1	50.9	48.3	46.5	47.8	49.2	50.1	51.8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60.8%),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42.7%)
 - 전년 대비 9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부산(8.2%p)
 - 시·도 간 격차는 18.1%p로, 전년 대비 7.1%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남구(92.2%),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고성군(7.8%)
 - 전년 대비 139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부산 수영구(44.0%p)
 - 시·군·구 간 격차는 84.4%p로, 전년 대비 7.6%p 증가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17]

- ◆ '25년 전국 17개 시·도 중앙값은 35.2%로 전년 대비 1.3%p 감소

표 49. 2016-2025년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36.1	36.6	37.4	35.7	35.7	35.6	36.1	44.3	36.5	35.2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9.5%),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40.4%)
 - 전년 대비 11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북(11.3%p)
 - 시·도 간 격차는 20.9%p로, 전년 대비 4.2%p 감소

[17] '만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로 본문을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18]

- ◆ '25년 전국 17개 시·도 중앙값은 10.9%로 전년 대비 0.6%p 감소

표 50. 2016-2025년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12.8	13.5	13.5	12.1	9.7	9.5	11.1	11.2	11.5	10.9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7.4%),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13.2%)
 - 전년 대비 12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6.2%p)
 - 시·도 간 격차는 5.8%p로, 전년 대비 1.5%p 감소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19]

- ◆ '25년 전국 17개 시·도 중앙값은 47.7%로 전년 대비 1.8%p 감소

표 51. 2016-2025년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38.7	40.5	42.6	40.5	38.9	42.3	47.0	44.9	49.5	47.7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62.5%),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35.0%)
 - 전년 대비 6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전북(5.2%p)
 - 시·도 간 격차는 27.4%p로, 전년 대비 4.1%p 증가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20]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60.7%로 전년 대비 1.5%p 증가

표 52. 2017-2025년 전국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2.6	54.2	61.7	57.5	54.2	57.5	62.0	59.2	60.7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75.2%),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56.0%)
 - 전년 대비 13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9.9%p)
 - 시·도 간 격차는 19.2%p로, 전년 대비 6.4%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85.2%),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중구(33.9%)
 - 전년 대비 153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대전 대덕구(34.0%p)
 - 시·군·구 간 격차는 51.3%p로, 전년 대비 7.2%p 감소

[18] '만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로 분모를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19] '만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로 분모를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20] '17년 신규 도입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21]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51.5%로 전년 대비 1.8%p 증가

표 53. 2017-2025년 전국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6.5	50.1	56.9	50.6	46.8	47.1	52.9	49.7	51.5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70.2%),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41.8%)
 - 전년 대비 12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11.0%p)
 - 시·도 간 격차는 28.4%p로, 전년 대비 6.9%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83.3%),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중구(28.9%)
 - 전년 대비 149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 이천시(30.0%p)
 - 시·군·구 간 격차는 54.5%p로, 전년 대비 3.9%p 감소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22]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4.8%로 전년 대비 0.1%p 감소

표 54. 2019-2025년 전국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6.0	5.5	5.0	5.3	5.3	4.9	4.8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3.6%),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8.0%)
 - 전년 대비 9개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4.0%p)
 - 시·도 간 격차는 4.4%p로, 전년 대비 1.1%p 감소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수성구(0.5%),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15.8%)
 - 전년 대비 131개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광주 동구, 전남 구례군(8.9%p)
 - 시·군·구 간 격차는 15.2%p로, 전년 대비 3.4%p 감소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42.9%로 전년 대비 0.7%p 감소

표 55. 2016-2025년 전국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35.3	37.5	40.0	41.9	45.9	47.1	42.5	44.5	43.6	42.9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47.0%),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36.7%)
 - 전년 대비 8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강원(1.6%p)
 - 시·도 간 격차는 10.3%p로, 전년 대비 0.3%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청양군(63.0%),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 서구(30.4%)
 - 전년 대비 122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강원 고성군(14.7%p)
 - 시·군·구 간 격차는 32.7%p로, 전년 대비 2.5%p 증가

[21] '17년 신규 도입

[22] '19년 문항 변경으로 이전 연도 결과 미제시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23]

- ◆ '25년 전국 258개 시·군·구 중앙값은 20.7%로 전년 대비 0.7%p 증가

표 56. 2016-2025년 전국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6.9	27.8	25.2	26.3	-	-	48.7	-	20.0	20.7

- ◆ '25년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8.6%),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8.3%)
 - 전년 대비 8개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인천(1.6%p)
 - 시·도 간 격차는 20.3%p로, 전년 대비 1.2%p 증가
- ◆ '25년 258개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울릉군(65.1%),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 서구(4.7%)
 - 전년 대비 149개 시·군·구가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통영시(14.0%p)
 - 시·군·구 간 격차는 60.4%p로, 전년 대비 5.4%p 감소

[23] '20, '21, '23년 조사 미실시

제3부

지표상세결과

1. 현재흡연율

전국 결과

- ◆ '25년 현재흡연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17.9%로 '24년 18.9%에 비해 1.0%p 감소하였다.

표 57. 2016-2025 전국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2.5	21.7	21.7	20.3	19.8	19.1	19.3	20.3	18.9	17.9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현재흡연율은 세종에서 12.4%로 가장 낮게, 충남에서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현재흡연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구, 제주(2.4%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0.2%p)이었다.

표 58. 2016-2025 시·도별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20.5	20.0	19.8	17.8	16.6	15.8	16.3	17.9	15.7	14.9
부산	21.7	21.7	21.1	19.0	18.5	17.8	18.3	18.8	16.8	14.8
대구	20.7	20.8	21.7	19.8	19.4	18.8	17.4	19.4	19.0	16.6
인천	24.7	22.7	22.9	20.7	20.2	19.6	20.3	19.3	18.4	17.3
광주	19.7	21.6	21.1	19.6	18.5	17.4	18.4	18.3	16.7	16.9
대전	21.0	20.9	22.7	18.9	17.3	17.8	18.5	19.0	18.6	18.0
울산	22.2	20.9	20.2	19.0	20.0	18.7	19.8	19.7	19.2	18.6
세종	18.1	17.8	17.5	15.9	15.6	15.1	15.1	13.2	13.3	12.4
경기	22.1	21.0	20.9	19.9	19.1	18.1	18.4	19.2	18.2	16.2
강원	22.8	23.0	24.8	21.0	21.6	21.0	20.5	22.3	21.2	19.5
충북	22.5	23.2	23.2	22.2	21.5	21.0	20.7	21.9	20.7	19.6
충남	22.8	22.3	23.9	21.5	20.2	20.0	20.5	22.2	20.3	19.8
전북	21.7	20.6	21.1	18.9	19.6	18.3	20.6	20.6	18.2	16.4
전남	22.5	21.0	21.2	21.1	18.5	17.9	19.4	20.2	19.3	18.2
경북	23.7	22.4	23.2	21.2	20.8	20.4	20.6	21.3	20.1	19.4
경남	21.7	21.4	20.9	18.9	19.2	18.5	19.7	19.1	17.7	17.0
제주	26.7	23.1	21.8	20.6	18.8	20.0	21.9	19.1	19.6	17.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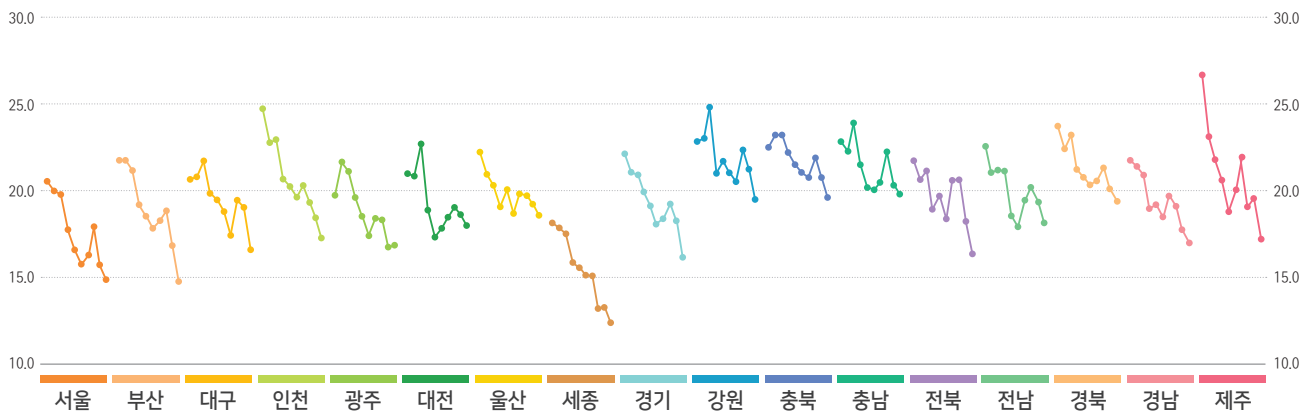


그림 10. 2016-2025 시·도별 현재흡연율 추이

- ◆ 전년 대비 현재흡연율이 감소한 시·도는 16개로 전체의 94.1%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대구, 제주(2.4%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9.5%p)이었다.

표 59.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 (5.9)		16 (94.1)		- (-)		1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광주	0.2	대구, 제주	2.4	-	-	제주	9.5
	2위	-	-	-	-	-	-	인천	7.4
	3위	-	-	-	-	-	-	부산	6.9
	4위	-	-	-	-	-	-	경기	5.9
	5위	-	-	-	-	-	-	세종	5.7

- ◆ '25년 현재흡연율의 시·도 간 격차는 7.4%p이며, '24년 7.9%p 대비 0.5%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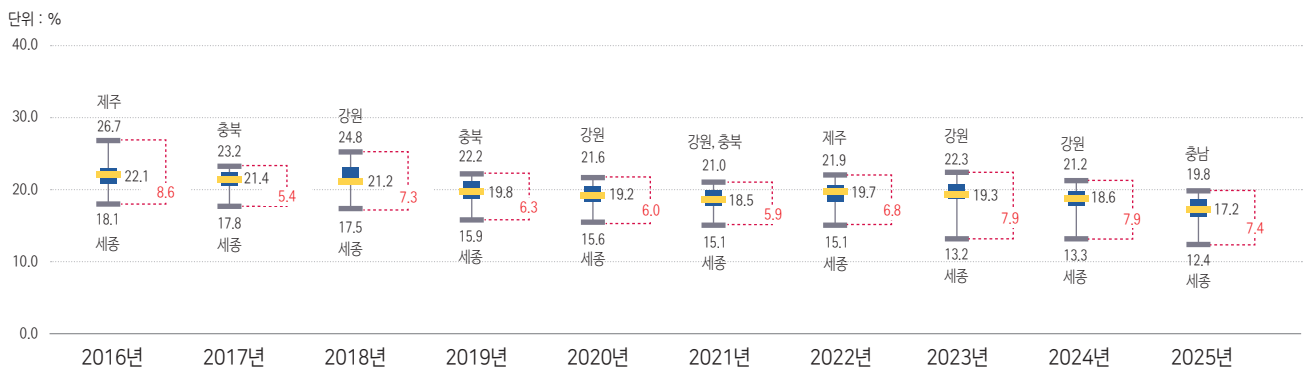


그림 11. 2016-2025 시·도 현재흡연율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현재흡연율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7.5%로 가장 낮게, 전남 해남군에서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0. 2025년 현재흡연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전남 해남군 27.4	경기 용인시 수지구 7.5
2위	전남 영암군 25.9	경기 과천시 9.0
3위	강원 평창군 25.6	서울 강남구 9.4
4위	강원 정선군 25.4	경기 안양시 동안구 9.6
5위	대전 동구 25.2	경기 용인시 기흥구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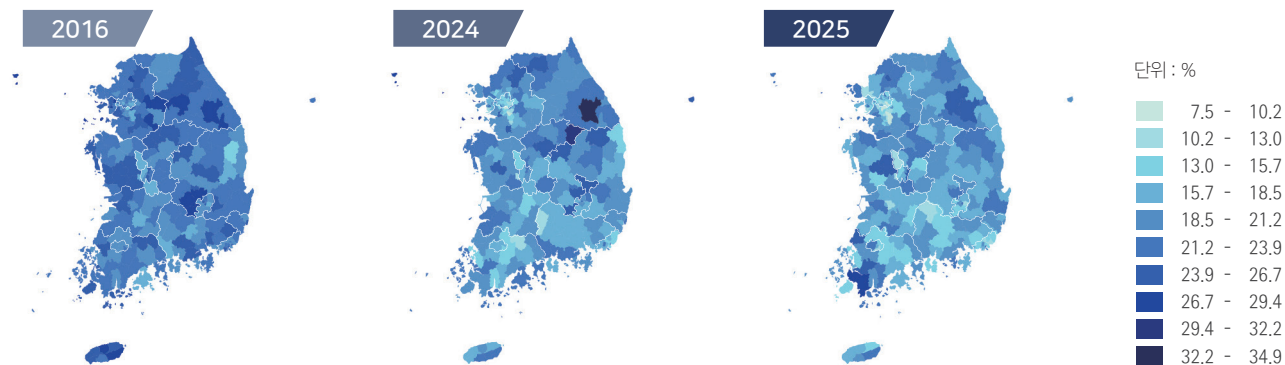


그림 12. 시·군·구별 현재흡연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현재흡연율이 감소한 시·군·구는 174개로 전체의 67.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북 단양군(13.8%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228개로 전체의 90.5%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북 성주군(12.1%p)이었다.

표 61.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79	(30.6)	174	(67.4)	23	(9.1)	228	(90.5)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남 해남군	7.0	충북 단양군	13.8	경북 영양군	6.8	경북 성주군	12.1		
	2위	전남 강진군	6.7	경기 김포시, 강원 정선군	9.5	전남 해남군	5.8	제주 제주시 제주	12.0		
	3위	전남 영광군	6.4	충남 금산군	5.7	경기 광주시	8.4	충남 금산군	5.1	부산 수영구	11.6
	4위	충남 공주시, 전남 장흥군, 경남 함양군	5.2	경기 파주시	7.4	강원 평창군	4.1	전남 진도군	11.2		
	5위	충남 공주시, 전남 장흥군, 경남 함양군	5.2	경기 파주시	7.4	충북 청주시 상당구	4.0	경기 성남시 수정구	11.0		

- ◆ '25년 현재흡연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19.9%p이며, '24년 25.8%p 대비 5.9%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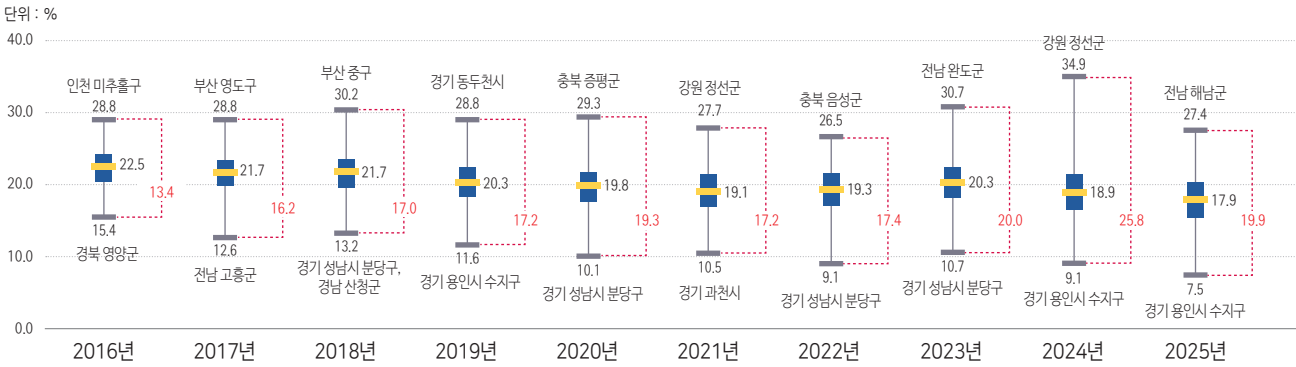


그림 13. 2016-2025 시·군·구 현재흡연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현재흡연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27), 가장 큰 지역은 경기(3.23)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인천, 충남(0.38),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서울(0.6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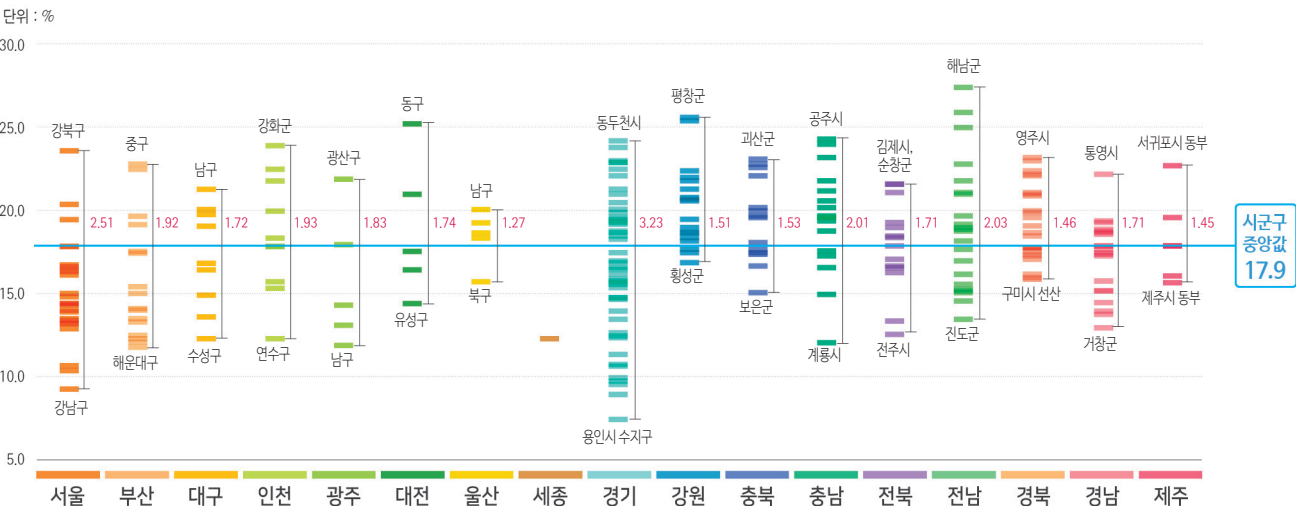


그림 1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현재흡연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현재흡연율은 특별시의 구에서 14.9%로 가장 낮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5.2%p로 '24년 4.9%p 대비 0.3%p 증가하였다.

표 62.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3	2.5	2.8	3.3	4.7	4.5	4.4	4.4	4.9	5.2
특별시의 구	20.5	20.0	19.8	17.8	16.6	15.8	16.3	16.3	15.7	14.9
광역시의 구	22.0	21.3	21.5	19.6	19.2	18.3	18.8	18.8	18.0	16.5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22.6	20.4	20.9	19.3	18.8	17.3	18.7	18.7	18.9	16.7
도농복합형태의 시	22.9	22.3	22.6	21.0	20.2	19.8	20.3	20.3	19.9	19
일반군	22.5	21.6	21.6	21.1	19.8	20.0	19.9	19.9	19.6	18.3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22.6	22.6	21.9	21.0	21.3	20.3	20.8	20.8	20.6	20.2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현재흡연율은 수도권 지역 15.9%, 비수도권 지역 17.6%로 수도권 지역에서 1.7%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63.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2	0.8	1.2	0.8	1.2	1.5	1.5	1.3	1.4	1.7
수도권	21.8	20.8	20.7	19.2	18.3	17.4	17.9	18.7	17.4	15.9
비수도권	22.0	21.6	21.9	20.0	19.5	18.9	19.5	20.0	18.7	17.6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현재흡연율은 중부 지역 16.5%, 남부 지역 17.0%로 중부 지역에서 0.5%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64.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1	0.4	0.1	0.2	0.7	0.7	1.0	0.4	0.5	0.5
중부	21.9	21.1	21.3	19.5	18.6	17.9	18.3	19.2	17.8	16.5
경기지방	21.8	20.8	20.7	19.2	18.3	17.4	17.9	18.7	17.4	15.9
영동지방	24.0	21.6	23.1	22.8	21.7	21.7	22.5	24.0	21.8	19.5
영서지방	22.2	23.6	25.7	20.1	21.6	20.6	19.5	21.4	20.9	19.5
호서지방	22.0	21.9	23.0	20.6	19.4	19.3	19.6	20.6	19.4	18.7
남부	22.0	21.5	21.4	19.7	19.3	18.6	19.3	19.6	18.3	17.0
호남지방	21.4	21.1	21.1	19.9	18.9	17.9	19.6	19.8	18.1	17.2
영남지방	22.0	21.5	21.5	19.6	19.4	18.8	19.1	19.6	18.3	17.0
제주지방	26.7	23.1	21.8	20.6	18.8	20.0	21.9	19.1	19.6	17.2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현재흡연율은 동 지역 16.2%, 읍·면 지역 19.4%로 동 지역에서 3.2%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65.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6	1.5	1.5	2.3	1.9	2.8	2.7	2.7	2.5	3.2
동	21.6	20.9	21.1	19.2	18.5	17.6	18.2	18.9	17.5	16.2
읍·면	23.2	22.5	22.6	21.5	20.4	20.5	20.8	21.6	20.1	19.4

2. 남자 현재흡연율

전국 결과

- ◆ '25년 남자 현재흡연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32.2%로 '24년 34.0%에 비해 1.8%p 감소하였다.

표 66. 2016-2025 전국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1.9	40.7	40.6	37.4	36.6	35.6	35.3	36.1	34.0	32.2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남자 현재흡연율은 세종에서 22.7%로 가장 낮게, 경북에서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남자 현재흡연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제주(5.0%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1.6%p)이었다.

표 67. 2016-2025 시·도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37.8	36.8	36.1	32.2	30.2	28.8	29.1	31.5	27.3	25.9
부산	40.6	40.8	39.1	35.2	34.4	32.9	33.0	33.8	30.2	26.6
대구	38.9	39.5	40.9	37.7	36.7	35.0	31.9	35.5	34.7	30.1
인천	44.5	40.3	41.0	37.0	36.2	35.5	35.1	33.9	32.6	30.7
광주	37.2	40.5	39.2	36.8	35.3	32.7	34.4	33.1	30.2	31.8
대전	39.2	38.2	41.3	35.3	31.9	32.9	33.4	34.0	33.0	32.0
울산	40.8	38.8	38.3	35.9	37.9	35.5	36.8	35.5	35.4	33.1
세종	34.3	34.1	33.0	30.9	28.3	28.0	29.3	23.7	24.5	22.7
경기	40.9	38.6	38.4	36.2	34.7	32.9	33.0	33.7	32.0	28.5
강원	43.4	42.7	45.3	39.2	40.9	39.2	37.0	39.8	38.2	33.3
충북	42.2	42.2	42.8	40.0	39.7	38.1	37.0	38.1	36.6	33.8
충남	41.3	40.6	43.5	39.4	37.0	36.3	36.0	39.8	35.0	34.7
전북	40.9	39.2	39.3	35.0	36.9	33.9	37.1	36.2	33.4	29.7
전남	42.9	40.2	40.6	40.2	35.0	35.0	37.1	37.7	35.4	33.5
경북	44.6	42.3	42.8	38.9	38.9	38.1	37.3	38.5	36.3	35.3
경남	40.9	40.3	39.6	35.4	36.0	34.6	36.1	35.6	32.5	31.4
제주	49.3	43.0	41.0	36.8	34.3	36.2	40.4	35.5	35.4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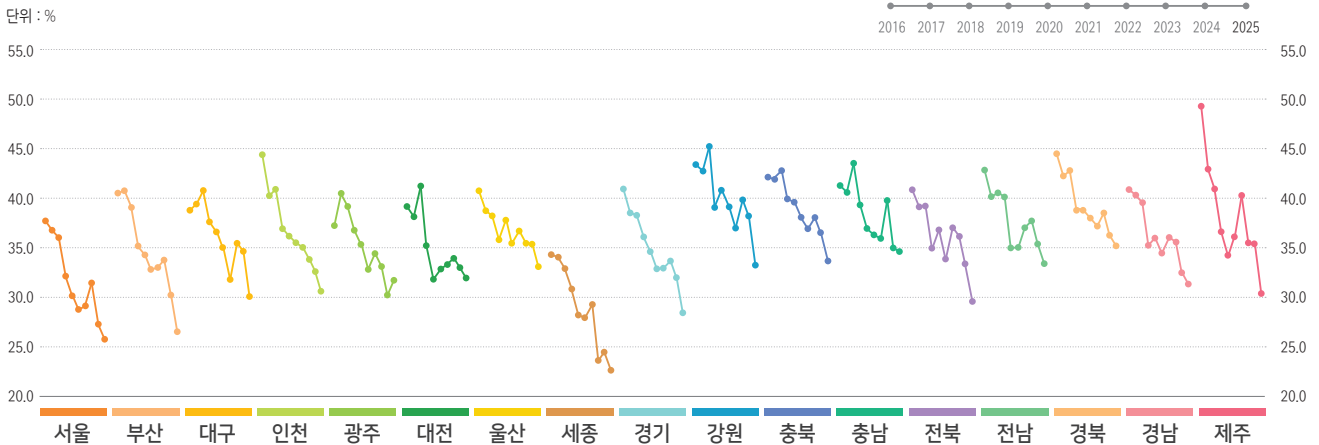


그림 15. 2016-2025 시·도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 ◆ 전년 대비 남자 현재흡연율이 감소한 시·도는 16개로 전체의 94.1%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5.0%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18.9%p)이었다.

표 68. 남자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 (5.9)		16 (94.1)		- (-)		1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광주	1.6	제주	5.0	-	-	제주	18.9
	2위	-	-	강원	4.9	-	-	부산	14.0
	3위	-	-	대구	4.6	-	-	인천	13.8
	4위	-	-	전북	3.7	-	-	경기	12.4
	5위	-	-	부산	3.6	-	-	서울	11.9

- ◆ '25년 남자 현재흡연율의 시·도 간 격차는 12.6%p이며, '24년 13.7%p 대비 1.1%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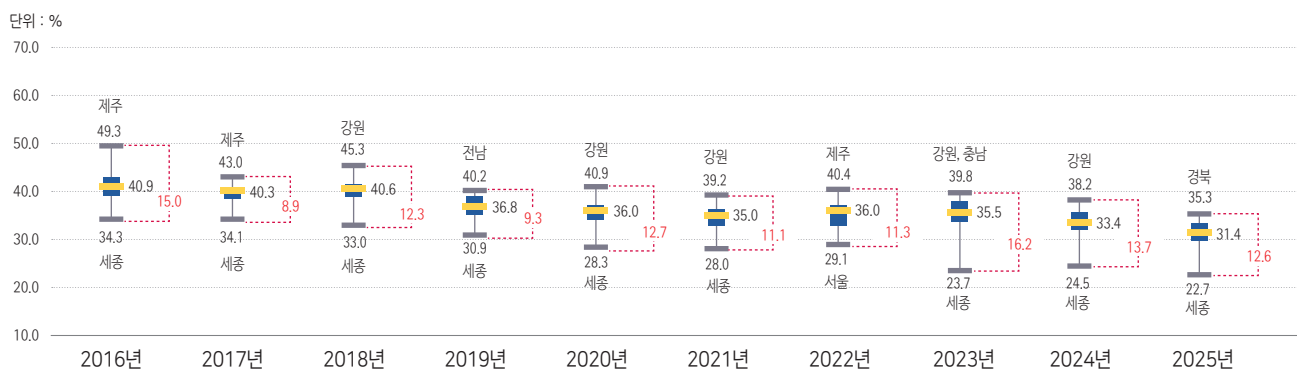


그림 16. 2016-2025 시·도 남자 현재흡연율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남자 현재흡연율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13.3%로 가장 낮게, 전남 해남군에서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9. 2025년 남자 현재흡연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전남 해남군	50.7	경기 용인시 수지구	13.3
2위	전남 영암군	47.2	서울 강남구	15.4
3위	충남 청양군	46.2	경기 과천시	17.3
4위	대전 동구	46.1	서울 동작구	17.5
5위	강원 평창군	45.5	경기 화성시 동탄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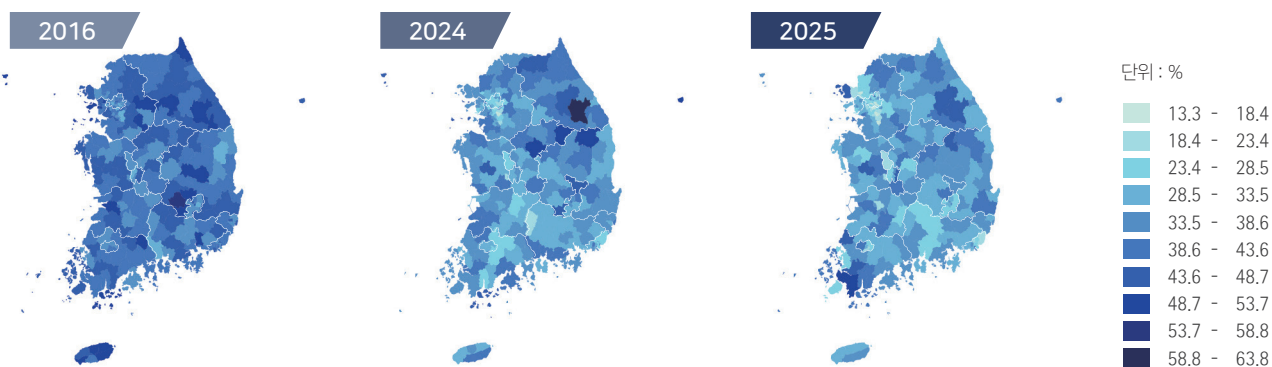


그림 17. 시·군·구별 남자 현재흡연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남자 현재흡연율이 감소한 시·군·구는 174개로 전체의 67.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북 단양군(20.4%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237개로 전체의 94.0%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부산 수영구(26.1%p)이었다.

표 70. 남자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4	(32.6)	174	(67.4)	15	(6.0)	237	(94.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남 해남군	14.8	충북 단양군	20.4	경북 영양군	12.3	부산 수영구	26.1
	2위	전남 강진군	13.5	강원 정선군	19.6	전남 해남군	7.5	경북 성주군	23.4
	3위	서울 강북구	11.5	경기 김포시	15.9	강원 평창군	4.7	제주 제주시 제주	22.5
	4위	전남 영광군	11.2	경기 광주시	14.5	충남 금산군	4.3	전남 진도군	22.2
	5위	서울 서대문구	10.6	부산 수영구	13.6	광주 광산구	4.2	경기 양평군	21.9

- ◆ '25년 남자 현재흡연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37.3%p이며, '24년 46.5%p 대비 9.2%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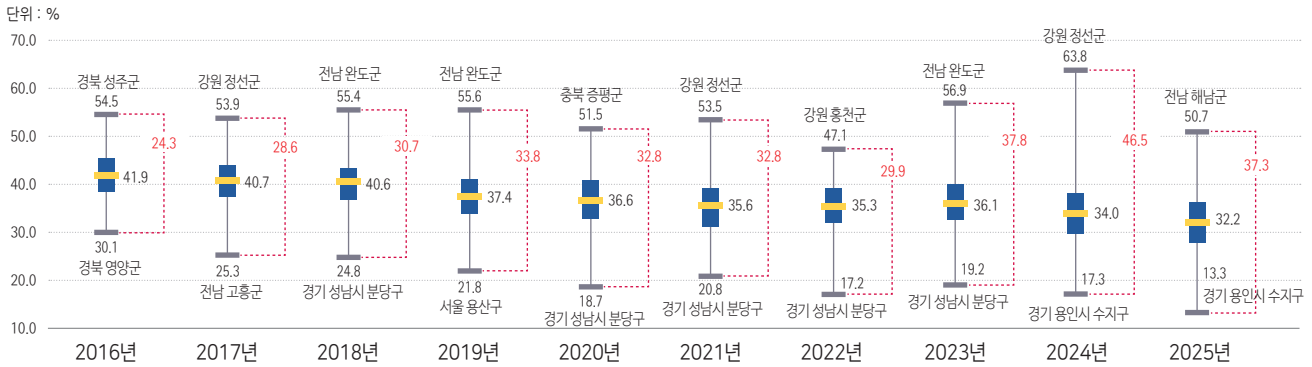


그림 18. 2016-2025 시·군·구 남자 현재흡연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남자 현재흡연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14), 가장 큰 지역은 경기(3.01)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남(0.51),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서울(0.7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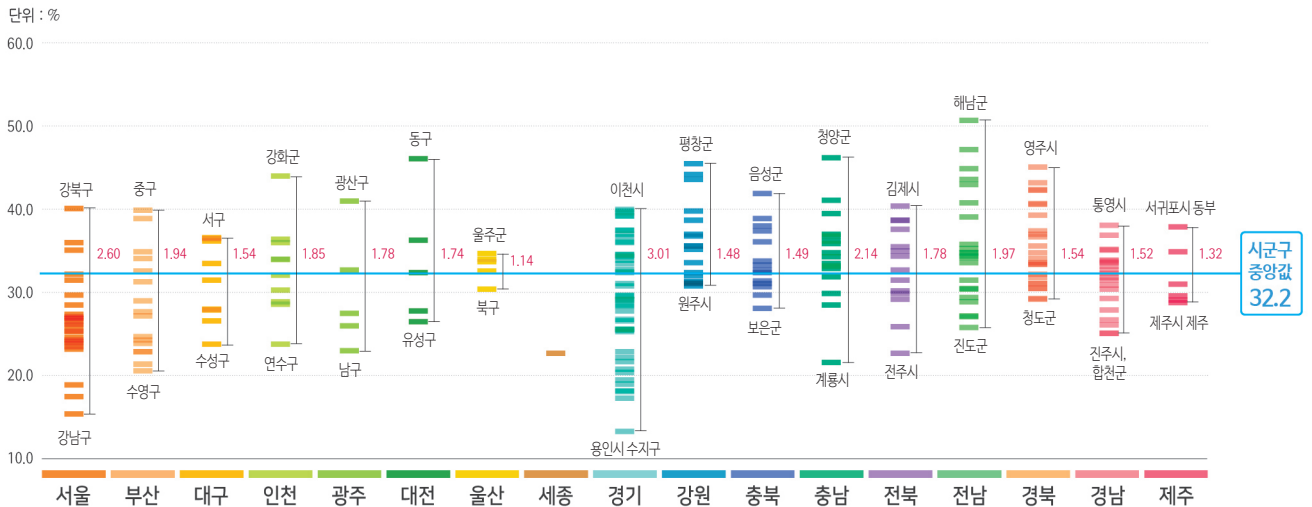


그림 1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남자 현재흡연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남자 현재흡연율은 특별시의 구에서 25.9%로 가장 낮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11.6%p로 '24년 10.5%p 대비 1.1%p 증가하였다.

표 71.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5.3	6.1	5.7	7.7	10.0	9.2	10.0	9.3	10.5	11.6
특별시의 구	37.8	36.8	36.1	32.2	30.2	28.8	29.1	31.5	27.3	25.9
광역시외의 구	40.7	39.4	39.6	36.0	35.1	33.6	33.8	34.1	32.2	29.5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41.9	37.5	38.5	35.8	34.8	31.5	34.3	36.2	33.7	29.0
도농복합형태의 시	42.9	41.5	41.8	38.7	37.5	36.6	36.9	37.4	35.4	33.8
일반 군	43.1	41.2	41.0	39.9	37.8	37.6	36.8	38.5	35.9	33.6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42.8	42.9	40.9	39.6	40.2	38.0	39.0	40.8	37.7	37.5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남자 현재흡연율은 수도권 지역 27.8%, 비수도권 지역 31.6%로 수도권 지역에서 3.8%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72.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1	2.4	3.0	2.4	3.2	3.4	3.6	3.2	3.4	3.8
수도권	40.1	38.1	37.8	34.7	33.2	31.7	31.9	33.0	30.4	27.8
비수도권	41.2	40.5	40.9	37.2	36.4	35.1	35.4	36.1	33.8	31.6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남자 현재흡연율은 중부 지역 28.9%, 남부 지역 31.0%로 중부 지역에서 2.1%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73.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0	1.8	1.3	1.3	2.3	2.2	2.8	1.8	2.0	2.1
중부	40.3	38.6	38.8	35.4	33.9	32.6	32.6	33.9	31.3	28.9
경기지방	40.1	38.1	37.8	34.7	33.2	31.7	31.9	33.0	30.4	27.8
영동지방	45.8	40.5	43.1	42.7	41.2	40.3	39.9	44.5	38.6	33.3
영서지방	42.0	43.9	46.6	37.3	40.8	38.5	35.5	37.3	37.8	33.4
호서지방	40.6	40.1	42.1	37.9	35.8	35.3	35.1	36.6	34.2	32.8
남부	41.3	40.5	40.1	36.8	36.2	34.7	35.4	35.6	33.3	31.0
호남지방	40.6	40.0	39.7	37.4	35.8	33.9	36.4	35.9	33.1	31.7
영남지방	41.2	40.6	40.2	36.6	36.5	35.0	34.8	35.7	33.4	30.9
제주지방	49.3	43.0	41.0	36.8	34.3	36.2	40.4	35.5	35.4	30.4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남자 현재흡연율은 동 지역 28.7%, 읍·면 지역 34.6%로 동 지역에서 6.0%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74.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6	3.4	3.6	4.8	4.0	5.5	5.2	5.2	5.3	6.0
동	40.0	38.7	38.7	35.1	34.0	32.4	32.7	33.6	31.1	28.7
읍·면	43.6	42.1	42.3	39.9	38.0	37.9	37.9	38.8	36.3	34.6

3. 담배제품 현재사용률^[24]

전국 결과

-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22.1%로 '24년 22.6%에 비해 0.5%p 감소하였다.

표 75. 2019-2025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1.6	21.5	21.5	22.2	22.2	22.6	22.1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세종에서 17.3%로 가장 낮게, 충북에서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1.5%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1.4%p)이었다.

표 76. 2019-2025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9.7	19.4	19.4	20.3	21.0	20.4	19.7
부산	20.7	21.2	20.9	21.6	21.5	21.5	20.2
대구	21.0	20.8	21.8	20.1	21.3	22.2	21.5
인천	22.7	22.5	22.4	23.8	21.5	22.7	22.3
광주	20.7	19.8	20.1	21.6	20.7	20.5	20.9
대전	20.1	19.1	20.3	20.6	20.5	20.6	21.3
울산	20.8	21.9	21.6	23.6	22.9	22.7	22.9
세종	17.4	16.7	17.0	18.0	14.8	15.9	17.3
경기	21.8	21.5	21.2	22.3	21.8	22.6	22.0
강원	22.4	23.2	23.6	22.9	24.7	24.4	23.8
충북	23.9	23.4	23.7	23.4	25.0	24.3	24.7
충남	22.6	21.7	21.7	23.0	24.4	23.6	23.8
전북	19.9	20.8	20.2	22.6	22.2	21.2	19.7
전남	22.0	20.0	19.8	21.5	21.6	21.6	22.1
경북	22.5	22.4	22.7	23.6	23.5	23.9	23.3
경남	20.5	20.7	20.9	22.6	21.6	21.2	21.3
제주	21.8	20.7	23.1	24.2	21.0	22.9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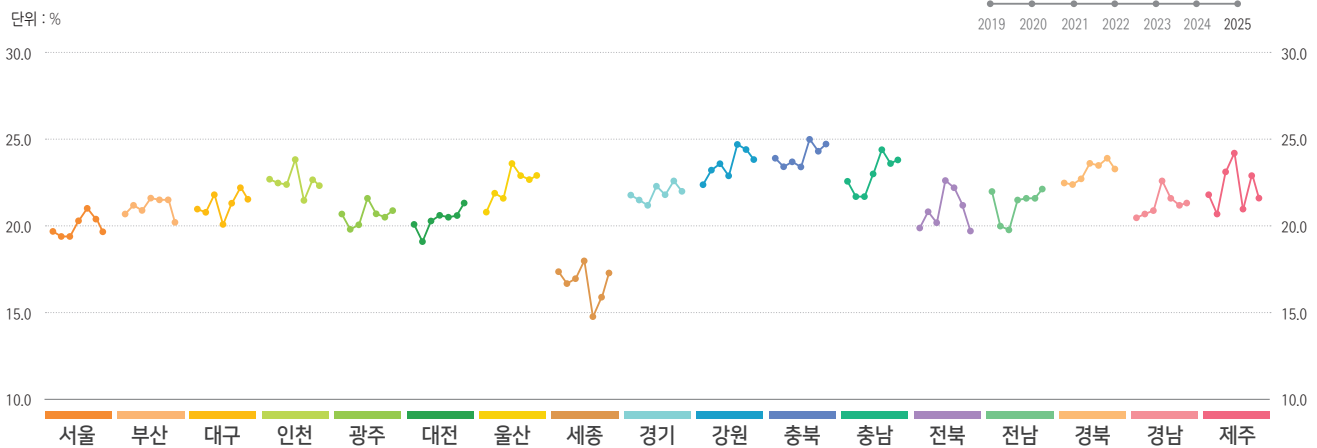


그림 20. 2019-2025 시·도별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24] '19년 신규 도입

- ◆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감소한 시·도는 9개로 전체의 52.9%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북(1.5%p)이었다.
- ◆ 6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5개로 전체의 29.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부산(0.5%p)이었다.

표 77.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6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 (47.1)		9 (52.9)		11 (64.7)		5 (29.4)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1.4	전북	1.5	울산	2.1	부산	0.5
	2위	대전	0.7	부산, 제주	1.3	강원	1.4	인천	0.4
	3위	전남	0.5			대전, 충남	1.2	전북, 제주	0.2
	4위	광주, 충북	0.4	서울, 대구	0.7	충북, 경북, 경남	0.8	세종	0.1
	5위								

-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시·도 간 격차는 7.3%p이며, '24년 8.4%p 대비 1.1%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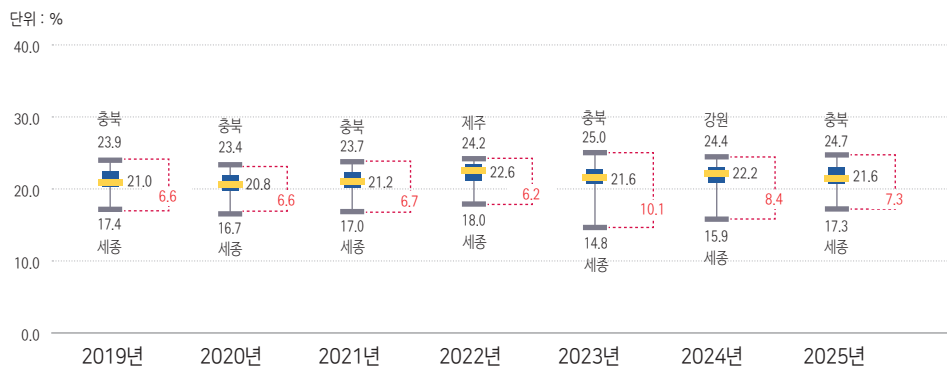


그림 21. 2019-2025 시·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경기 과천시에서 12.8%로 가장 낮게, 경기 평택시 평택, 강원 정선군,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8. 20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기 평택시 평택, 강원 정선군, 29.1	경기 과천시 12.8
2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경남 거창군 14.5
3위		경기 용인시 수지구 14.9
4위	경기 동두천시 29.0	서울 서초구 15.1
5위	부산 중구 28.8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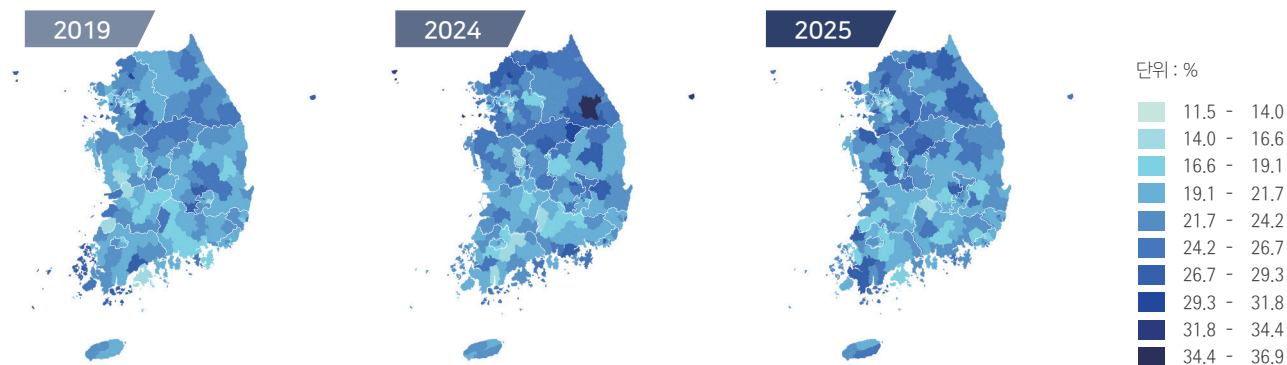


그림 22. 시·군·구별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9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143개로 전체의 55.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북 단양군(10.3%p)이었다.
- ◆ 6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110개로 전체의 43.3%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북 고령군(7.2%p)이었다.

표 79.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6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15	(44.6)	143	(55.4)	143	(56.3)	110	(43.3)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남 강진군	8.5	충북 단양군	10.3	부산 동구	8.7	경북 고령군	7.2
	2위	경남 함양군	7.3	경북 영천시	9.1	경남 산청군	8.5	경기 성남시 수정구	7.1
	3위	전남 해남군	7.0	강원 정선군	7.8	경기 평택시 평택	8.1	경북 의성군	6.8
	4위	경남 산청군		경북 울릉군	7.2	대전 동구, 충남 공주시	7.2	경기 광주시	6.6
	5위	전남 곡성군	6.5	인천 옹진군	6.7			경북 영천시	6.4

-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16.3%p이며, '24년 25.4%p 대비 9.1%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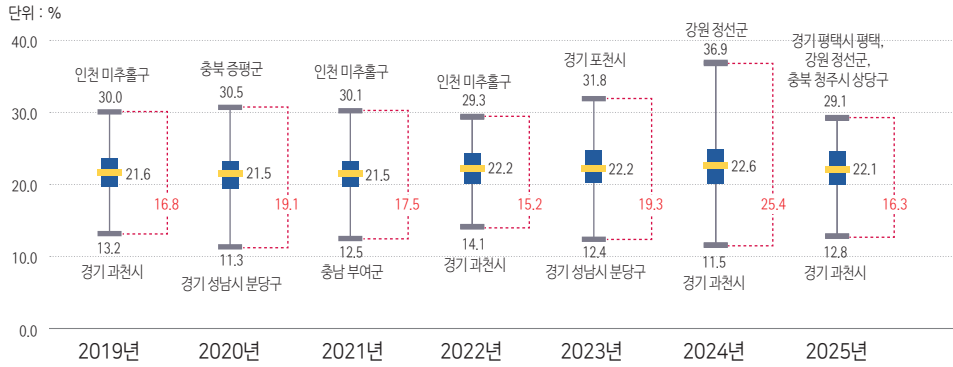


그림 23. 2019-2025 시·군·구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25), 가장 큰 지역은 경기(2.27)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기(0.32),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부산(0.2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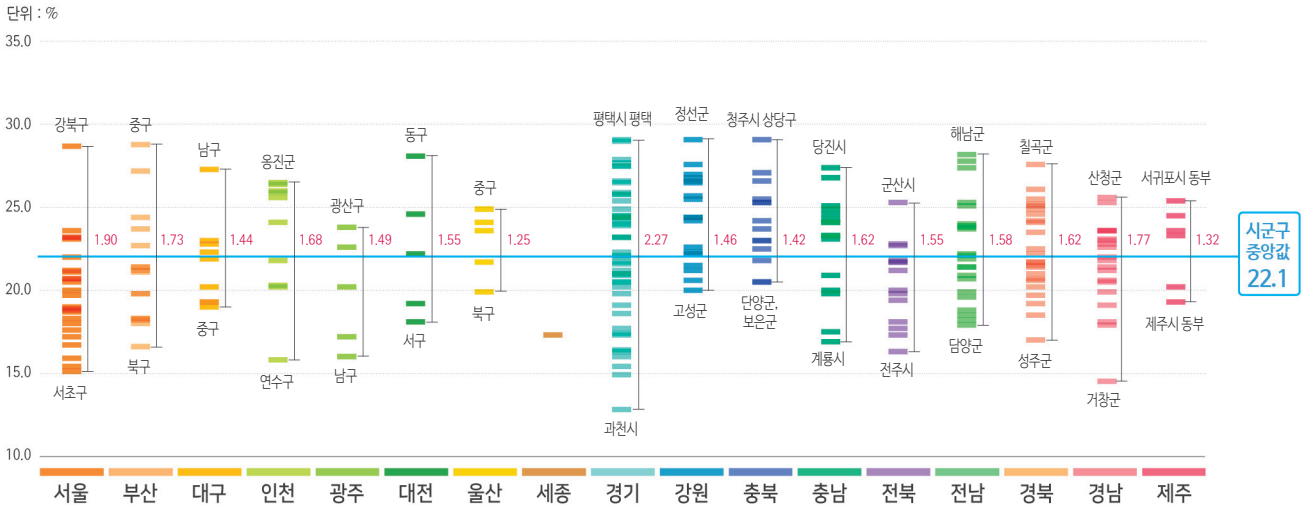


그림 2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특별시의 구에서 19.7%로 가장 낮게, 도농복합형태의 시,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3.6%p로 '24년 2.8%p 대비 0.8%p 증가하였다.

표 80. 2019-2025 6개 도시유형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6	2.9	2.7	2.8	3.3	2.8	3.6
특별시의 구	19.7	19.4	19.4	20.3	21.0	20.4	19.7
광역시의 구	21.3	21.3	21.2	22.2	21.7	22.1	21.7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20.7	20.8	20.3	22.3	22.0	22.9	21.9
도농복합형태의 시	22.3	21.9	22.2	23.1	22.8	23.2	23.2
일반군	22.2	21.0	21.9	22.1	22.8	22.4	22.1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21.8	22.3	21.6	22.7	24.3	23.2	23.2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수도권 지역 21.2%, 비수도권 지역 21.9%로 수도권 지역에서 0.7%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81. 2019-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3	0.3	0.7	0.4	0.8	0.3	0.7
수도권	21.1	20.9	20.7	21.7	21.5	21.9	21.2
비수도권	21.3	21.2	21.4	22.2	22.2	22.1	21.9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중부 지역 21.6%, 남부 지역 21.4%로 남부 지역에서 0.2%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82. 2019-2025 중부·남부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2	0.0	0.2	0.3	0.0	0.1	0.2
중부	21.3	21.0	20.9	21.9	21.8	22.0	21.6
경기지방	21.1	20.9	20.7	21.7	21.5	21.9	21.2
영동지방	23.5	23.0	23.9	24.8	26.2	25.5	23.6
영서지방	21.9	23.3	23.5	22.0	23.9	23.7	23.8
호서지방	21.9	21.1	21.6	22.1	22.9	22.4	22.8
남부	21.1	21.0	21.2	22.2	21.9	21.9	21.4
호남지방	20.9	20.3	20.1	22.0	21.6	21.2	20.9
영남지방	21.1	21.3	21.5	22.2	22.0	22.1	21.6
제주지방	21.8	20.7	23.1	24.2	21.0	22.9	21.6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동 지역 21.1%, 읍·면 지역 23.6%로 동 지역에서 2.4%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83. 2019-2025 동·읍·면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6	1.3	2.1	1.8	2.3	1.8	2.4
동	20.9	20.8	20.7	21.7	21.5	21.6	21.1
읍·면	22.5	22.0	22.8	23.5	23.8	23.5	23.6

4.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25]

전국 결과

- ◆ '25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39.6%로 '24년 39.7%에 비해 0.1%p 감소하였다.

표 84. 2019-2025 전국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0.2	40.0	39.9	40.2	39.9	39.7	39.6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세종에서 32.0%로 가장 낮게, 충북에서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제주(3.8%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3.4%p)이었다.

표 85. 2019-2025 시·도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35.4	35.3	35.2	35.7	36.7	34.9	33.5
부산	38.6	39.5	38.6	38.6	38.2	38.4	35.7
대구	40.0	39.4	40.4	36.8	38.7	40.4	38.6
인천	40.7	40.2	40.5	41.0	37.4	39.5	38.4
광주	38.9	37.6	37.4	39.7	37.0	36.7	38.8
대전	37.4	35.1	37.6	37.0	36.2	36.7	37.3
울산	39.2	41.2	40.3	43.3	41.5	41.2	40.0
세종	33.8	30.2	31.9	35.0	26.6	28.6	32.0
경기	39.6	39.0	38.4	39.5	38.1	39.3	38.2
강원	41.9	44.0	43.3	41.0	43.7	43.3	40.7
충북	43.0	43.3	43.3	41.6	43.1	42.3	42.3
충남	41.2	40.0	39.2	39.9	43.1	40.7	41.2
전북	36.7	38.9	37.3	40.8	38.9	37.8	35.6
전남	42.0	37.8	38.6	40.9	40.3	39.5	40.1
경북	41.4	41.8	42.3	42.4	42.5	42.3	41.9
경남	38.5	38.8	39.0	40.9	39.8	38.7	39.1
제주	39.1	37.7	41.9	44.5	38.5	41.2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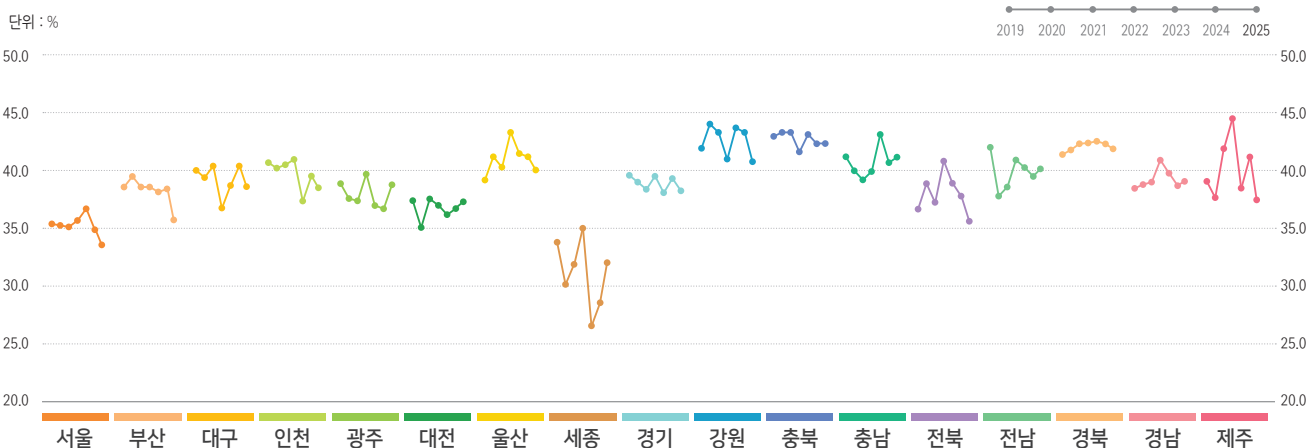


그림 25. 2019-2025 시·도별 전국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25] '19년 신규 도입

- ◆ 전년 대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감소한 시·도는 10개로 전체의 58.8%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3.8%p)이었다.
- ◆ 6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13개로 전체의 76.5%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부산(2.9%p)이었다.

표 86.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6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6 (35.3)		10 (58.8)		3 (17.6)		13 (76.5)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3.4	제주	3.8	울산	0.8	부산	2.9
	2위	광주	2.1	부산	2.7	경남	0.6	인천	2.3
	3위	대전, 전남	0.6	강원	2.6	경북	0.5	서울, 전남	1.9
	4위			전북	2.2	-	-	-	-
	5위	충남	0.5	대구	1.8	-	-	세종	1.8

- ◆ '25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시·도 간 격차는 10.3%p이며, '24년 14.7%p 대비 4.4%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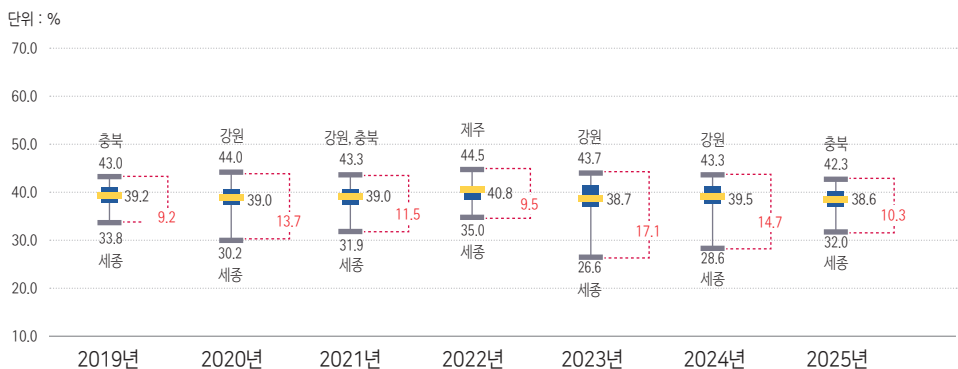


그림 26. 2019-2025 시·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경기 과천시에서 24.9%로 가장 낮게, 전남 해남군에서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7. 2025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전남 해남군	52.4	경기 과천시	24.9
2위	강원 정선군	51.7	서울 서초구	25.7
3위	부산 중구	51.3	서울 동작구	26.1
4위	대전 동구	50.9	서울 강남구	26.4
5위	강원 영월군	50.7	경기 용인시 수지구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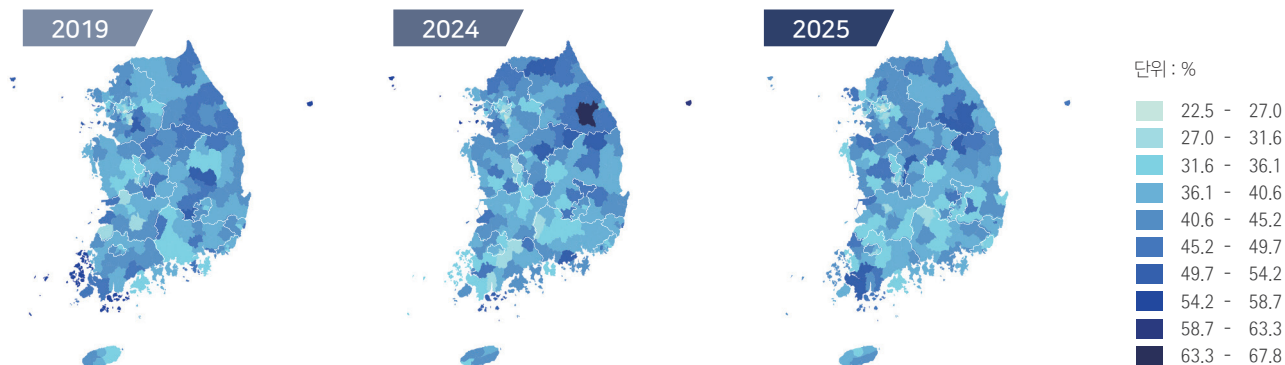


그림 27. 시·군·구별 전국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9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143개로 전체의 55.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북 영천시(16.7%p)이었다.
- ◆ 6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135개로 전체의 53.1%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기 광주시(14.0%p)이었다.

표 88.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6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14 (44.2)		143 (55.4)		115 (45.3)		135 (53.1)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남 해남군	16.5	경북 영천시	16.7	전북 임실군	14.1	경기 광주시	14.0
	2위	전남 강진군	15.0	강원 정선군	16.1	대전 동구	12.2	경기 수원시 장안구,	13.1
	3위	경기 성남시 중원구,	12.1	경북 울릉군	14.2	충남 청양군	12.1	경북 의성군	
	4위	전남 곡성군		충북 단양군	13.9	부산 동구	12.0		
	5위	전남 장흥군	10.5	인천 옹진군	13.4	전남 장흥군,	10.1	경북 영천시,	12.3
					경북 영주시		경북 성주군		

- ◆ '25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27.5%p이며, '24년 45.3%p 대비 17.8%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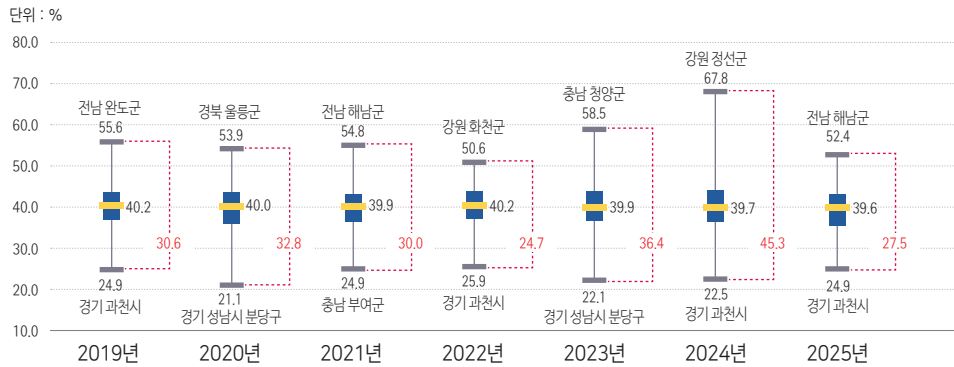


그림 28. 2019-2025 시·군·구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 (1.20), 가장 큰 지역은 경기(1.92)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북(0.36),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전(0.3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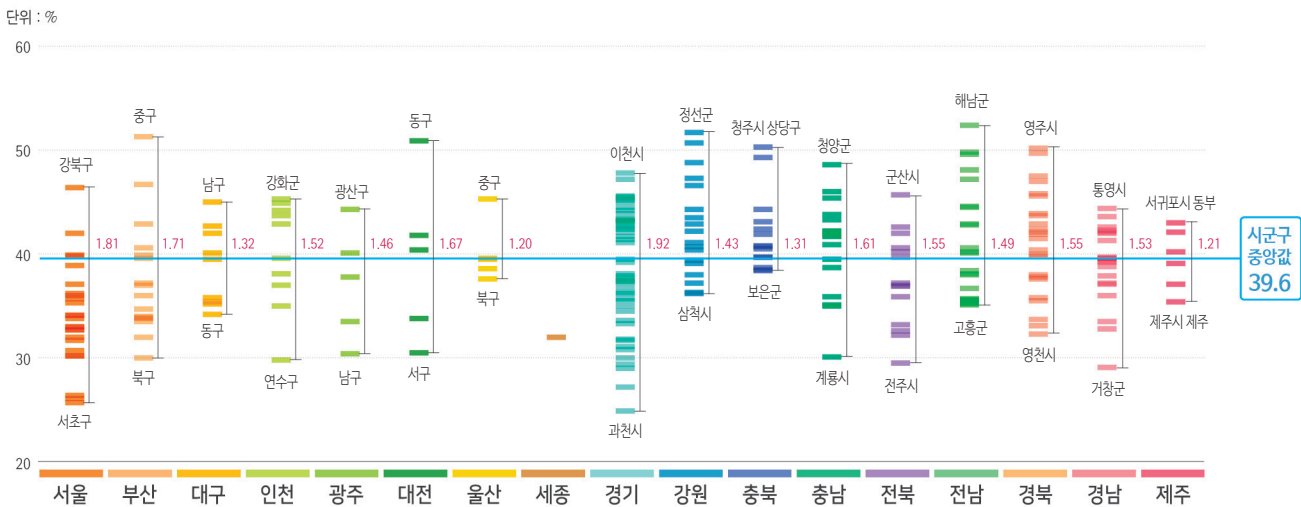


그림 2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특별시의 구에서 33.5%로 가장 낮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8.9%p로 '24년 7.5%p 대비 1.4%p 증가하였다.

표 89. 2019-2025 6개 도시유형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5	7.0	5.9	6.7	6.7	7.5	8.9
특별시의 구	35.4	35.3	35.2	35.7	36.7	34.9	33.5
광역시의 구	39.2	39.0	38.8	39.4	38.3	38.9	38.1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38.3	38.4	36.9	41.0	39.4	40.2	37.5
도농복합형태의 시	41.1	40.7	40.8	41.6	41.2	40.9	41.0
일반군	41.9	40.1	41.1	40.6	41.3	40.6	40.0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41.2	42.3	40.3	42.4	43.4	42.4	42.4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수도권 지역 36.5%, 비수도권 지역 39.0%로 수도권 지역에서 2.4%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90. 2019-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6	1.8	2.2	1.8	2.4	1.8	2.4
수도권	38.1	37.8	37.4	38.3	37.5	37.8	36.5
비수도권	39.7	39.5	39.6	40.1	39.9	39.6	39.0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중부 지역 37.2%, 남부 지역 38.6%로 중부 지역에서 1.3%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91. 2019-2025 중부·남부 지역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8	1.1	1.4	1.8	1.3	1.2	1.3
중부	38.6	38.2	38.0	38.6	38.2	38.2	37.2
경기지방	38.1	37.8	37.4	38.3	37.5	37.8	36.5
영동지방	44.1	43.6	44.0	43.6	48.1	44.3	39.6
영서지방	40.8	44.1	42.9	39.7	41.5	42.7	41.2
호서지방	40.2	38.9	39.4	39.2	40.1	39.2	39.8
남부	39.4	39.3	39.4	40.3	39.5	39.4	38.6
호남지방	39.2	38.2	37.8	40.6	38.9	38.0	38.2
영남지방	39.4	39.9	39.9	40.1	39.8	39.9	38.8
제주지방	39.1	37.7	41.9	44.5	38.5	41.2	37.4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동 지역 36.9%, 읍·면 지역 41.8%로 동 지역에서 4.9%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92. 2019-2025 동·읍·면 지역별 남자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7	2.7	4.2	3.9	4.3	4.1	4.9
동	38.2	38.1	37.8	38.5	37.9	37.9	36.9
읍·면	41.9	40.8	42.0	42.4	42.2	42.0	41.8

5.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26]

전국 결과

-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40.6%로 '24년 42.6%에 비해 2.0%p 감소하였다.

표 93. 2020-2025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6.8	42.5	40.9	42.9	42.6	40.6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은 세종에서 50.8%로 가장 높게, 광주에서 3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3.5%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강원(7.6%p)이었다.

표 94. 2020-2025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49.1	45.6	42.0	46.8	44.1	43.9
부산	46.6	41.7	44.0	46.7	42.9	41.4
대구	43.5	45.7	41.0	48.4	41.6	41.8
인천	47.8	45.4	42.8	42.6	44.6	44.1
광주	51.2	49.7	41.1	37.7	33.6	34.5
대전	42.2	43.5	40.4	36.8	37.2	39.0
울산	48.0	45.1	52.3	46.1	45.6	46.0
세종	35.7	39.4	40.4	48.5	53.4	50.8
경기	46.4	42.0	39.8	43.3	44.1	43.7
강원	48.2	45.2	42.4	44.9	46.1	38.5
충북	50.3	43.8	41.7	39.4	40.4	39.0
충남	51.7	44.4	45.1	44.0	46.5	44.7
전북	53.3	47.1	40.5	44.7	40.0	42.3
전남	43.1	44.8	37.2	41.2	42.8	46.3
경북	46.7	45.5	41.7	42.4	42.8	42.8
경남	52.1	47.1	45.4	45.4	41.4	35.5
제주	41.6	39.5	39.0	41.1	42.4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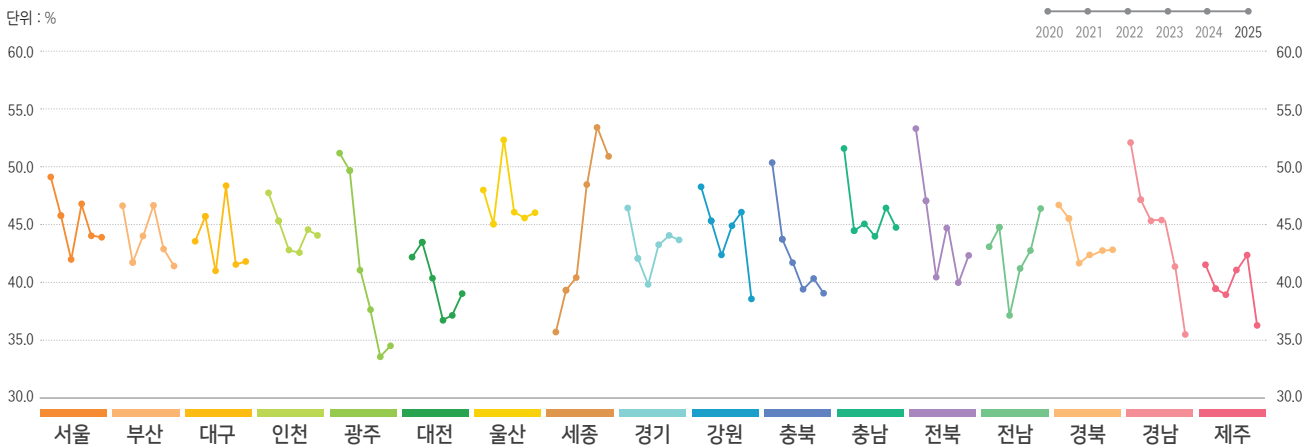


그림 30. 2020-2025 시·도별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26] '20년 문항 변경으로 이전 연도 결과 미제시, '25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 ◆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이 증가한 시·도는 6개로 전체의 35.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전남(3.5%p)이었다.
- ◆ 5년 전 대비 증가한 시·도는 2개로 전체의 11.8%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15.1%p)이었다.

표 95.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5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6 (35.3)		10 (58.8)		2 (11.8)		15 (88.2)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남	3.5	강원	7.6	세종	15.1	광주	16.7
	2위	전북	2.3	제주	6.2	전남	3.2	경남	16.6
	3위	대전	1.8	경남	5.9	-	-	충북	11.3
	4위	광주	0.9	세종	2.6	-	-	전북	11.0
	5위	울산	0.4	충남	1.8	-	-	강원	9.7

-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의 시·도 간 격차는 16.3%p이며, '24년 19.9%p 대비 3.6%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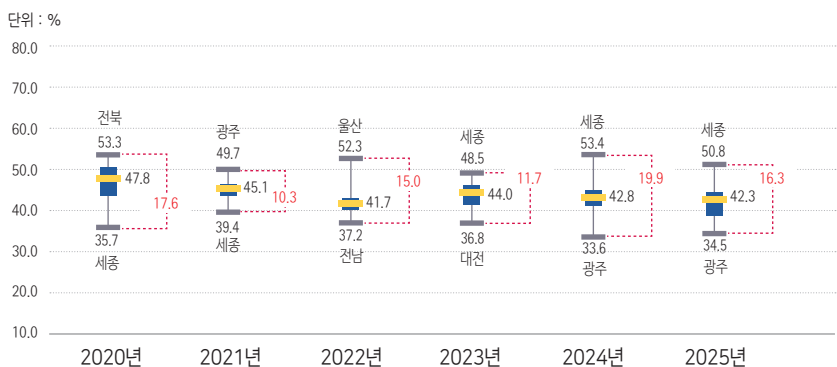


그림 31. 2020-2025 시·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은 충남 계룡시에서 61.2%로 가장 높게, 전북 완주군에서 1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6. 20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충남 계룡시	61.2	전북 완주군	16.9
2위	전남 순천시	61.0	서울 중구	17.5
3위	충남 예산군	57.6	경남 고성군	19.7
4위	충남 홍성군	57.3	경북 영양군	19.8
5위	경남 창원시 진해	57.2	서울 용산구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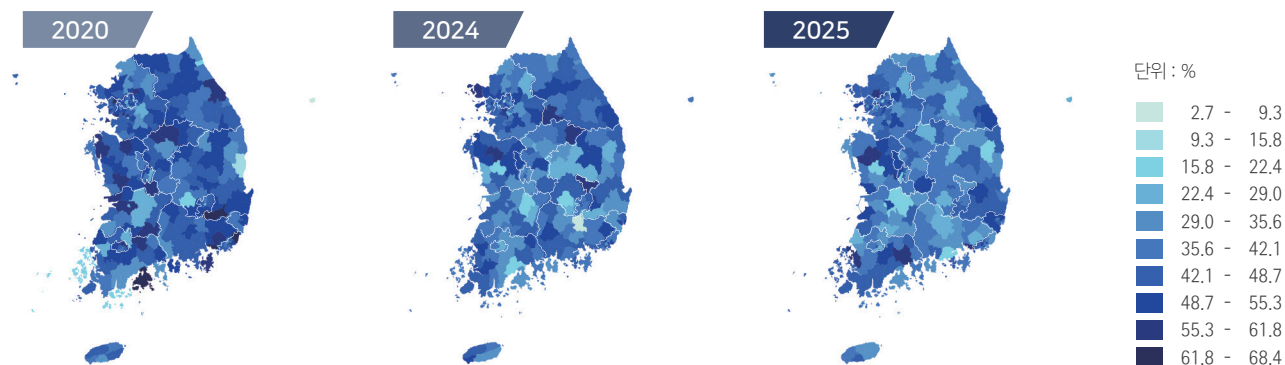


그림 32. 시·군·구별 전국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20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17개로 전체의 45.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창녕군(27.0%p)이었다.
- ◆ 5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84개로 전체의 33.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전남 신안군(30.0%p)이었다.

표 97.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5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17	(45.3)	137	(53.1)	84	(33.1)	169	(66.5)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남 창녕군	27.0	대구 군위군	24.8	전남 신안군	30.0	전남 고흥군	33.9
	2위	전남 보성군	22.7	강원 홍천군	21.5	대구 남구	21.9	경남 김해시	32.7
	3위	대전 유성구, 전북 장수군	20.1	경북 영주시, 경남 고성군	21.2	경기 용인시 처인구	20.1	경남 의령군	31.7
	4위					전남 완도군	19.1	충북 충주시	31.5
	5위	경북 청도군	19.8	충북 단양군	21.1	경북 울릉군	18.7	충남 청양군	29.7

-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44.2%p이며, '24년 55.6%p 대비 11.4%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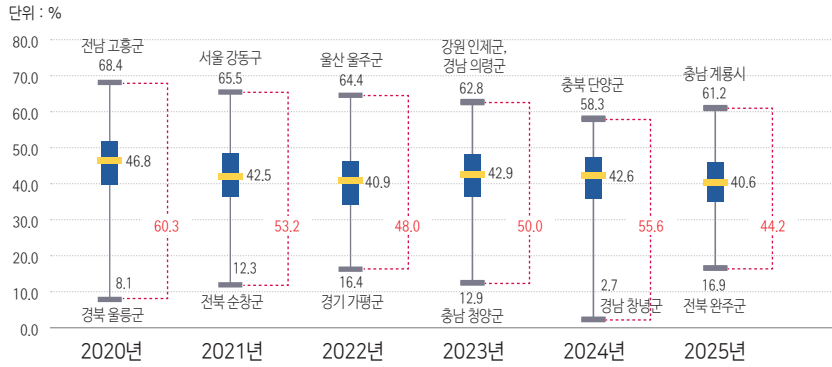


그림 33. 2020-2025 시·군·구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지역은 울산(1.38), 가장 큰 지역은 서울(3.17)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남(15.21),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북(0.9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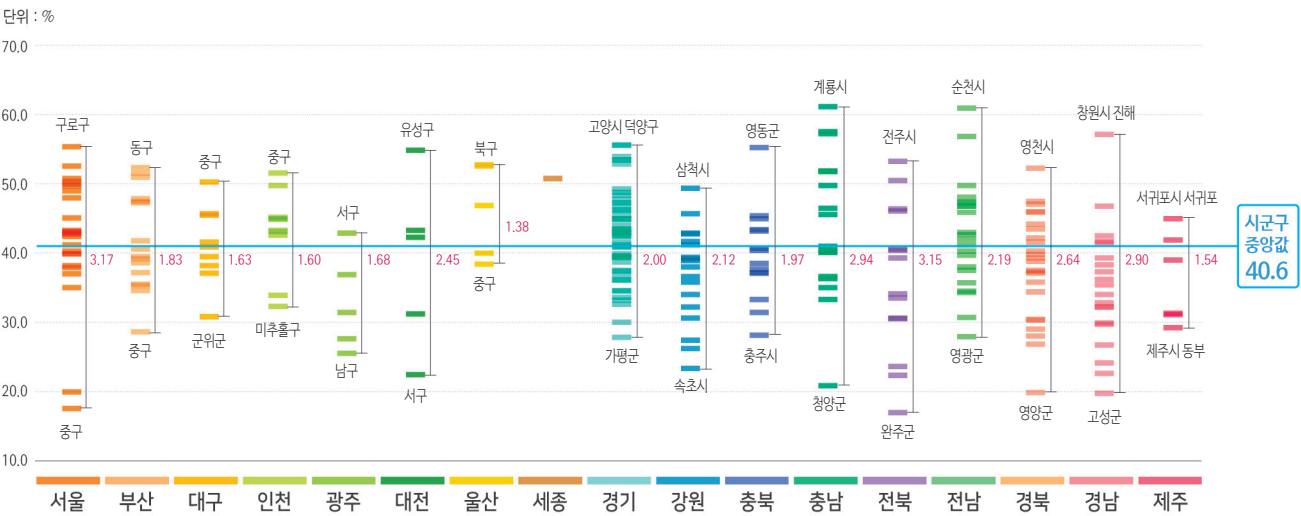


그림 3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서 44.5%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3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6.9%p로 '24년 7.4%p 대비 0.5%p 감소하였다.

표 98. 2020-2025 6개 도시유형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0.0	5.8	5.2	11.1	7.4	6.9
특별시의구	49.1	45.6	42.0	46.8	44.1	43.9
광역시의구	47.8	44.5	42.0	43.9	43.5	42.2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44.7	39.8	39.2	39.3	47.2	44.5
도농복합형태의 시	47.1	43.8	40.1	43.0	41.6	42.2
일반군	46.6	42.9	44.4	43.6	40.1	41.3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39.1	42.2	40.4	35.7	39.8	37.5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은 수도권 지역 43.9%, 비수도권 지역 40.8%로 수도권 지역에서 3.0%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9. 2020-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3	1.2	1.8	0.7	2.0	3.0
수도권	47.5	43.6	40.9	44.4	44.2	43.9
비수도권	47.9	44.8	42.7	43.7	42.2	40.8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은 중부 지역 43.3%, 남부 지역 40.7%로 중부 지역에서 2.6%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00. 2020-2025 중부·남부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2	1.5	1.4	0.5	2.4	2.6
중부	47.6	43.7	41.3	43.9	44.0	43.3
경기지방	47.5	43.6	40.9	44.4	44.2	43.9
영동지방	47.0	39.8	43.6	38.5	43.5	37.8
영서지방	48.8	48.0	41.6	48.5	47.8	39.1
호서지방	47.9	43.8	42.7	41.2	42.5	41.9
남부	47.8	45.2	42.7	44.5	41.7	40.7
호남지방	49.2	47.1	39.5	41.4	39.1	41.2
영남지방	47.6	44.8	44.1	45.8	42.6	40.7
제주지방	41.6	39.5	39.0	41.1	42.4	36.2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은 동 지역 42.8%, 읍·면 지역 40.6%로 동 지역에서 2.3%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01. 2001-2025 동·읍·면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9	3.1	0.7	0.7	2.6	2.3
동	48.0	44.8	41.9	44.2	43.6	42.8
읍·면	46.1	41.7	41.2	43.6	41.0	40.6

6.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27]

전국 결과

- ◆ '25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6.6%로 '24년 6.8%에 비해 0.2%p 감소하였다.

표 102. 2020-2025 전국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3.5	10.9	8.2	9.7	6.8	6.6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광주에서 2.6%로 가장 낮게, 충남에서 1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전(5.2%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남(2.6%p)이었다.

표 103. 2020-2025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1.4	10.0	9.0	8.9	6.3	6.7
부산	13.9	11.6	9.4	11.7	8.1	7.4
대구	12.7	11.3	8.4	9.6	7.9	7.4
인천	20.9	10.9	10.8	9.0	6.8	7.4
광주	11.8	11.0	9.9	8.9	5.0	2.6
대전	17.2	17.4	17.7	15.1	15.0	9.8
울산	17.1	19.5	14.9	11.9	11.5	11.1
세종	17.1	7.6	9.3	12.2	7.9	3.8
경기	14.2	11.6	9.1	8.9	6.2	6.6
강원	12.4	8.5	5.1	6.0	3.6	3.6
충북	13.5	12.7	7.9	7.9	5.1	5.6
충남	12.6	14.4	11.0	12.1	9.5	12.1
전북	16.8	14.0	10.0	9.4	8.1	7.7
전남	12.3	10.5	10.7	9.4	8.2	7.1
경북	15.2	12.2	8.6	10.6	7.7	7.5
경남	18.2	12.0	9.5	9.6	7.0	5.3
제주	13.0	12.1	7.4	8.1	8.8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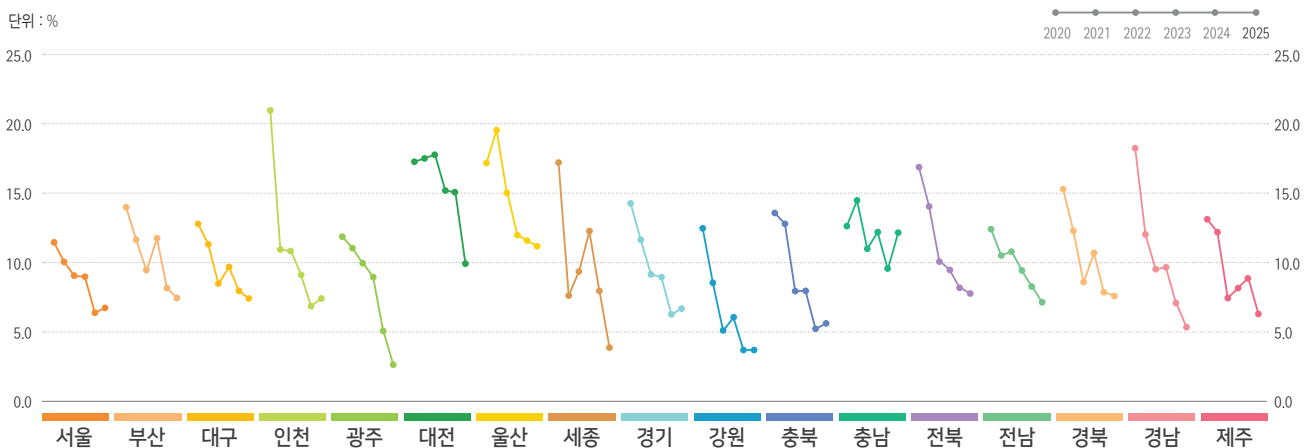


그림 35. 2020-2025 시·도별 전국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27] '20년 문항 변경으로 이전 연도 결과 미제시, '25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 ◆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이 감소한 시·도는 11개로 전체의 64.7%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대전(5.2%p)이었다.
- ◆ 5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인천(13.5%p)이었다.

표 104.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5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5 (29.4)		11 (64.7)		- (-)		1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충남	2.6	대전	5.2	-	-	인천	13.5
	2위	인천	0.6	세종	4.1	-	-	세종	13.3
	3위	충북	0.5	제주	2.6	-	-	경남	12.9
	4위	서울, 경기	0.4	광주	2.4	-	-	광주	9.2
	5위				경남	1.7	-	-	전북

- ◆ '25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의 시·도 간 격차는 9.5%p이며, '24년 11.4%p 대비 1.9%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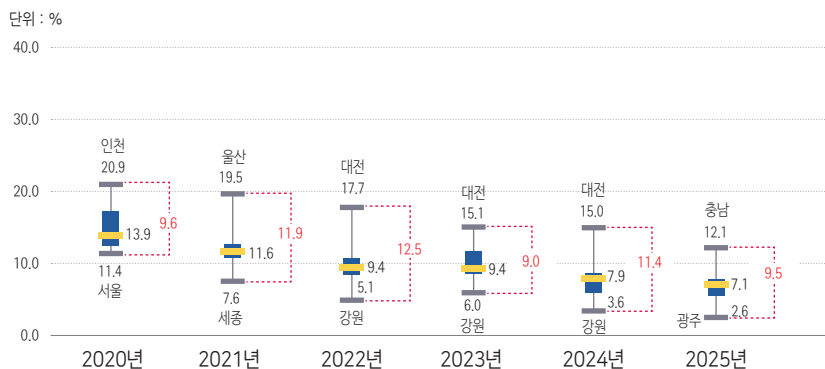


그림 36. 2020-2025 시·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노출률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강원 강릉시에서 0.1%로 가장 낮게, 대전 대덕구에서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5. 2025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대전 대덕구	31.3	강원 강릉시	0.1
2위	충남 금산군	24.1	강원 태백시, 경남 양산시	0.4
3위	충남 아산시	21.6	경남 의령군	0.5
4위	경남 함안군	20.9	경남 창원시 진해, 경남 합천군	1.0
5위	경북 청도군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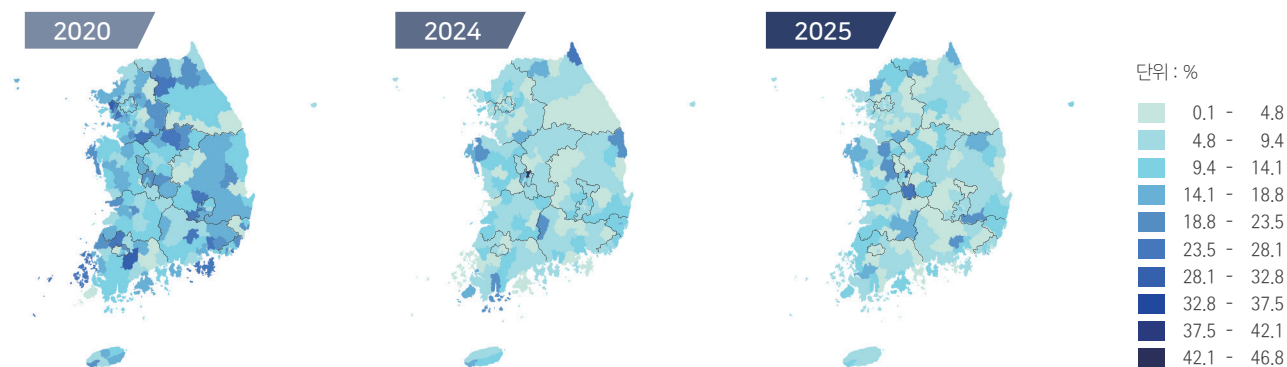


그림 37. 시·군·구별 전국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20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138개로 전체의 53.5%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대전 대덕구(15.5%p)이었다.
- ◆ 5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210개로 전체의 82.7%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26.6%p)이었다.

표 106.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5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17 (45.3)		138 (53.5)		44 (17.3)		210 (82.7)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충남 금산군	19.1	대전 대덕구	15.5	충남 금산군	16.8	경남 의령군	26.6
	2위	전북 장수군	16.3	경북 울진군	15.0	전북 임실군	9.1	전남 화순군	26.0
	3위	충남 아산시	14.7	경남 함양군	13.8	강원 고성군	8.8	강원 춘천시	25.0
	4위	경북 봉화군	13.3	전남 완도군	12.8	대전 대덕구, 전남 진도군	8.3	충북 충주시	24.3
	5위	경남 함안군	10.3	서울 종로구	11.0			경남 통영시	24.0

- ◆ '25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31.2%p이며, '24년 46.4%p 대비 15.2%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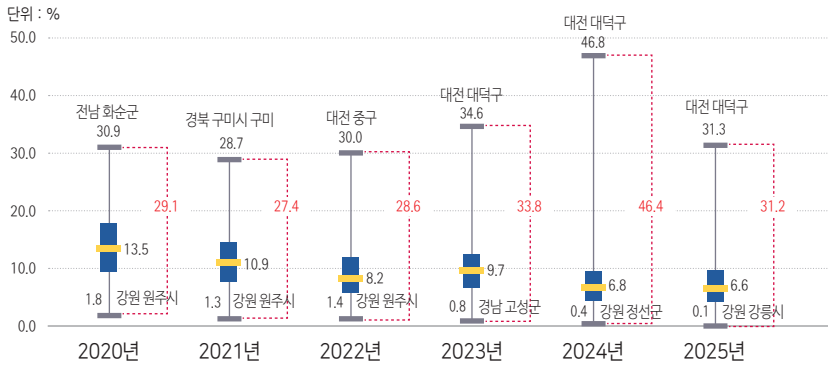


그림 38. 2020-2025 시·군·구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지역은 울산(2.00), 가장 큰 지역은 강원(155.00)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북(27.84),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강원 (93.0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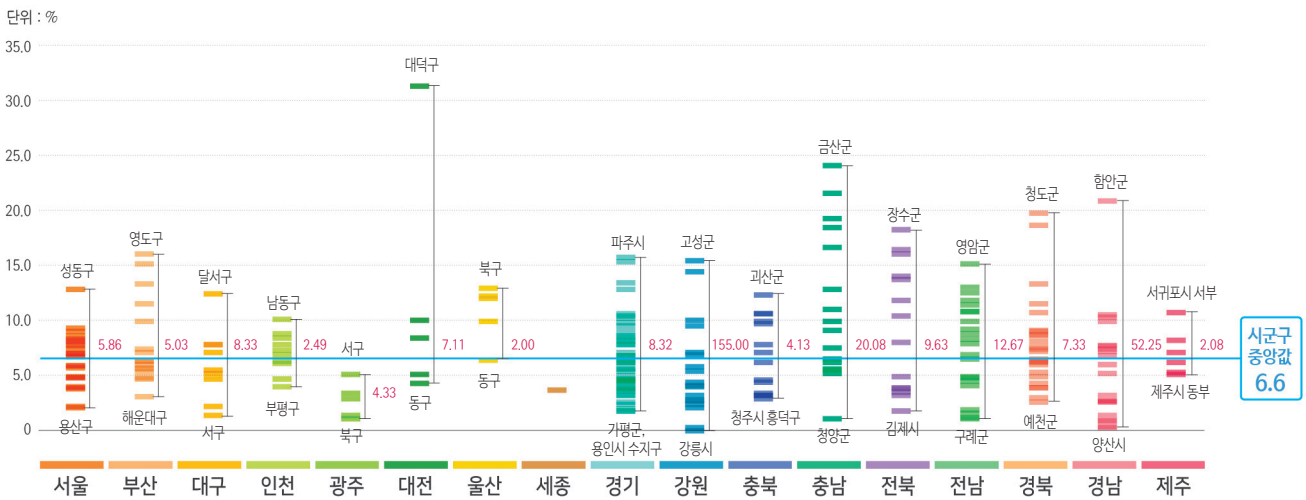


그림 3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4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서 5.5%로 가장 낮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3.5%p로 '24년 2.3%p 대비 1.2%p 증가하였다.

표 107. 2020-2025 6개 도시유형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8	2.4	0.7	2.9	2.3	3.5
특별시·구	11.4	10.0	9.0	8.9	6.3	6.7
광역시·구	15.2	12.4	9.7	9.5	7.1	6.9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12.8	10.5	9.5	9.0	6.9	5.5
도농복합형태의 시	14.8	11.3	9.2	9.4	7.2	6.7
일반군	13.6	11.9	9.4	11.8	8.3	8.4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13.3	12.2	9.4	10.0	8.6	9.0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수도권 지역 6.7%, 비수도권 지역 7.0%로 수도권 지역에서 0.3%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08. 2020-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6	1.5	0.5	1.2	1.6	0.3
수도권	13.9	10.9	9.3	8.9	6.3	6.7
비수도권	14.5	12.4	9.8	10.1	7.9	7.0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중부 지역 6.9%, 남부 지역 6.8%로 남부 지역에서 0.2%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09. 2020-2025 중부·남부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0	0.8	0.1	0.8	1.1	0.2
중부	13.8	11.3	9.5	9.2	6.7	6.9
경기지방	13.9	10.9	9.3	8.9	6.3	6.7
영동지방	10.4	7.9	4.1	5.6	3.3	2.7
영서지방	13.5	8.8	5.6	6.1	3.7	4.0
호서지방	14.2	14.1	11.7	11.6	9.5	8.9
남부	14.8	12.1	9.5	10.0	7.8	6.8
호남지방	13.5	11.7	10.1	9.2	7.1	5.8
영남지방	15.3	12.3	9.5	10.5	8.0	7.1
제주지방	13.0	12.1	7.4	8.1	8.8	6.2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동 지역 6.7%, 읍·면 지역 7.9%로 동 지역에서 1.2%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10. 2020-2025년 동·읍·면 지역별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6	0.0	0.1	1.3	0.4	1.2
동	14.1	11.6	9.5	9.3	7.0	6.7
읍·면	14.7	11.6	9.5	10.6	7.4	7.9

7. 월간음주율

전국 결과

◆ '25년 월간음주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57.1%로 '24년 58.3%에 비해 1.2%p 감소하였다.

표 111. 2016-2025 전국 월간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61.0	61.5	60.9	59.9	54.7	53.7	57.7	58.0	58.3	57.1

시·도별 결과

◆ '25년 시·도별 월간음주율은 전북에서 52.2%로 가장 낮게, 울산에서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전년 대비 월간음주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광주(4.4%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없었다.

표 112. 2016-2025 시·도별 월간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63.8	63.8	62.8	62.1	56.5	54.9	59.4	60.7	60.5	58.6
부산	64.0	63.7	64.0	61.9	56.0	54.3	59.2	59.6	61.4	59.0
대구	60.6	60.9	61.5	58.6	51.1	53.7	56.7	57.9	57.1	55.3
인천	62.7	64.0	63.8	60.7	55.3	55.2	58.1	59.5	59.9	57.3
광주	58.6	61.6	60.3	61.1	52.9	54.5	58.6	59.5	59.5	55.1
대전	61.5	61.9	60.5	58.7	56.5	52.2	57.2	59.4	59.5	58.6
울산	63.7	63.2	62.6	63.5	57.4	56.5	62.0	61.0	62.4	60.6
세종	59.6	62.5	56.6	60.8	47.4	48.4	58.1	57.2	57.1	53.4
경기	62.5	63.0	61.9	61.0	56.1	53.7	59.0	59.0	60.2	58.3
강원	62.2	63.7	62.2	60.5	57.2	56.5	60.2	60.2	60.2	58.3
충북	61.9	63.4	61.1	61.7	57.4	55.7	59.9	62.2	61.4	60.5
충남	60.7	62.2	62.9	58.8	53.7	53.9	57.9	58.4	57.3	56.4
전북	56.6	56.2	58.7	56.9	50.6	52.8	55.3	54.1	53.5	52.2
전남	57.9	59.2	57.8	58.4	52.5	53.6	56.0	55.5	55.9	54.5
경북	59.6	60.1	59.9	58.9	55.1	52.5	56.6	57.5	56.6	55.6
경남	63.1	63.7	63.5	61.6	57.3	55.1	60.1	57.8	60.0	58.1
제주	61.9	62.6	60.1	58.8	55.2	55.7	57.3	53.8	58.1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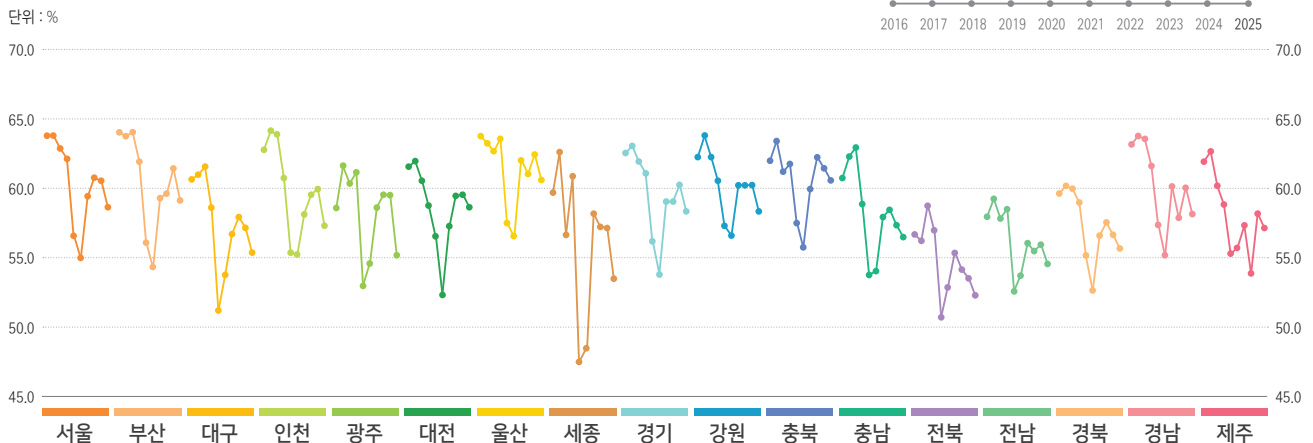


그림 40. 2016-2025 시·도별 월간음주율 추이

- ◆ 전년 대비 월간음주율은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광주(4.4%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6.2%p)이었다.

표 113. 월간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	(-)	17	(100.0)	-	(-)	1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	-	광주	4.4	-	-	세종	6.2
	2위	-	-	세종	3.7	-	-	인천	5.4
	3위	-	-	인천	2.6	-	-	대구	5.3
	4위	-	-	부산	2.4	-	-	서울	5.2
	5위	-	-	경기, 강원	1.9	-	-	부산, 경남	5.0

- ◆ '25년 월간음주율의 시·도 간 격차는 8.4%p이며, '24년 8.9%p 대비 0.5%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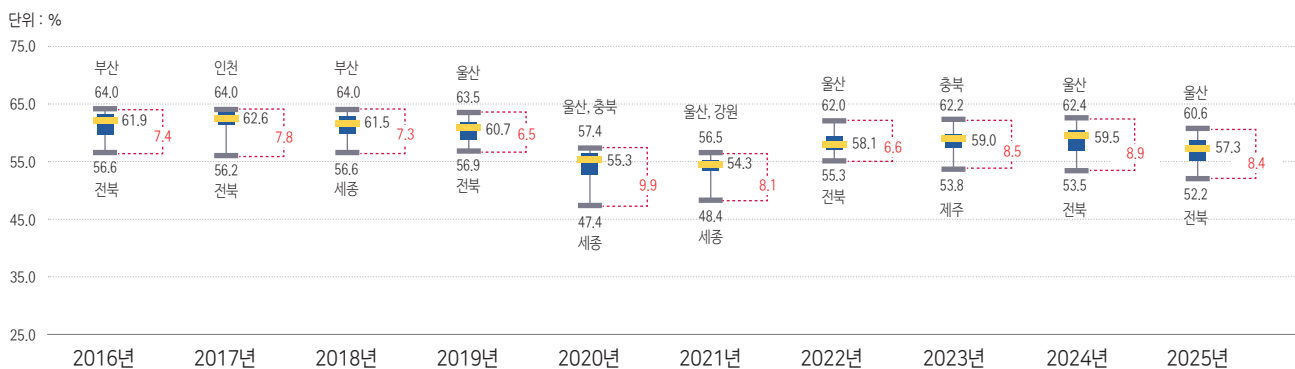


그림 41. 2016-2025 시·도 월간음주율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월간음주율은 경남 의령군에서 41.0%로 가장 낮게, 강원 인제군에서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4. 2025년 월간음주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강원 인제군	65.8	경남 의령군	41.0
2위	충북 청주시 흥덕구	64.6	전북 고창군	41.7
3위	충북 청주시 청원구	64.5	대구 군위군	42.1
4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전남 완도군	64.1	전남 화순군	42.3
5위			경북 영덕군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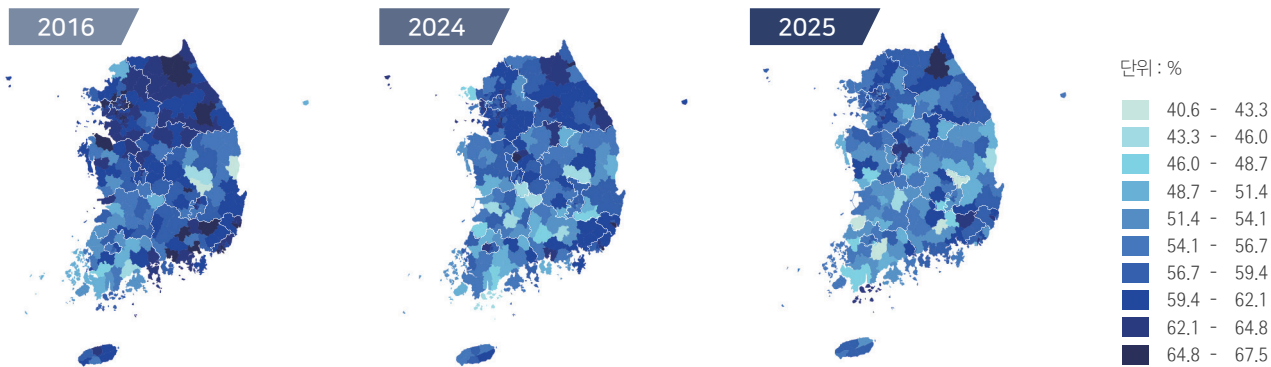


그림 42. 시·군·구별 월간음주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월간음주율이 감소한 시·군·구는 172개로 전체의 66.7%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대구 군위군(15.7%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212개로 전체의 84.1%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17.6%p)이었다.

표 115. 월간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3		172		38		212		
	(32.2)		(66.7)		(15.1)		(84.1)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남 완도군	19.4	대구 군위군	15.7	경기 연천군	8.7	경남 의령군	17.6
	2위	경북 청도군	13.2	광주 동구	10.5	전남 곡성군	6.6	부산 사하구	15.1
	3위	충남 금산군	11.4	강원 횡성군	10.1	전남 보성군,	6.4	광주 동구	14.3
	4위	전북 임실군	10.1	서울 중랑구	9.9	전남 신안군		전북 진안군	13.4
	5위	전북 김제시	9.3	서울 동대문구	9.7	전남 영암군	6.1	서울 동대문구	13.0

- ◆ '25년 월간음주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24.8%p이며, '24년 23.0%p 대비 1.8%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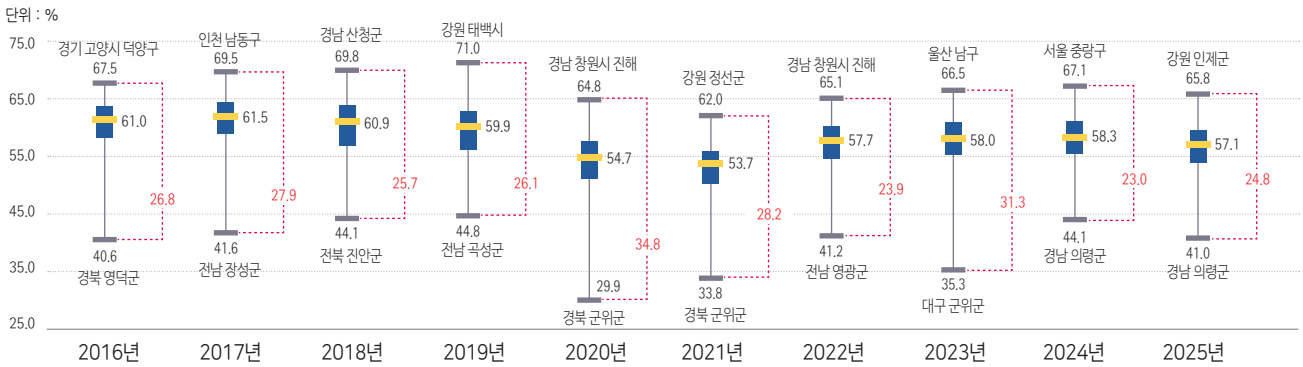


그림 43. 2016-2025 시·군·구 월간음주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월간음주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인천(1.09), 가장 큰 지역은 전남, 경남(1.52)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인천(0.26),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구(0.2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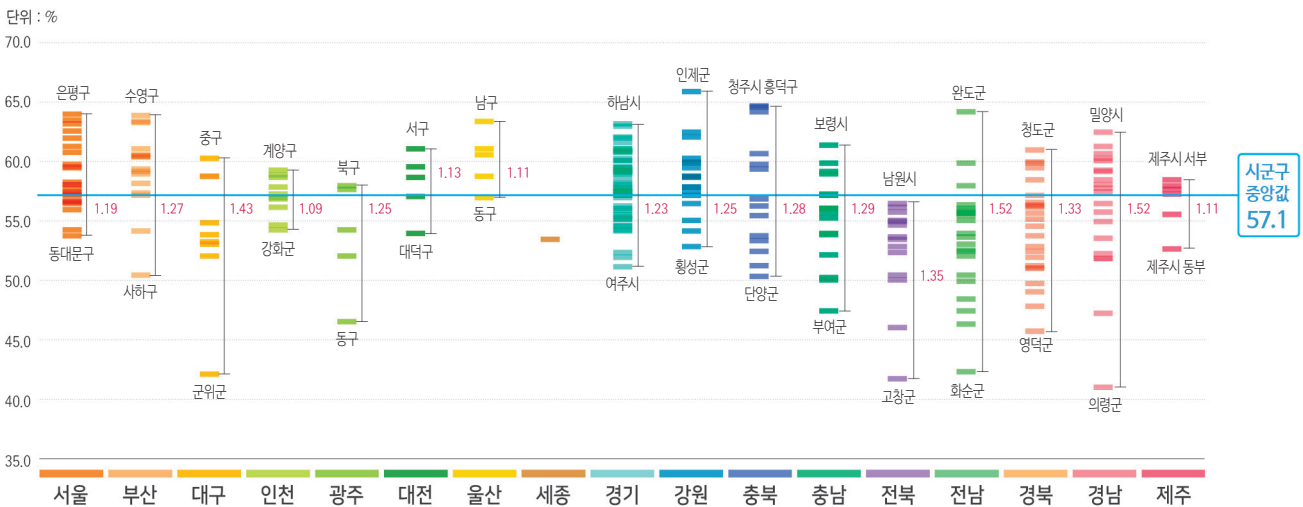


그림 4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월간음주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월간음주율은 일반 군에서 54.3%로 가장 낮게, 특별시의 구에서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4.4%p로 '24년 6.3%p 대비 1.9%p 감소하였다.

표 116.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월간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3	5.9	6.2	6.0	5.1	5.2	5.5	5.1	6.3	4.4
특별시의 구	63.8	63.8	62.8	62.1	56.5	54.9	59.4	60.7	60.5	58.6
광역시의 구	62.4	63.1	62.5	61.1	55.8	54.4	59.2	59.2	60.0	58.1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62.6	62.4	61.7	59.7	55.9	54.7	58.8	58.5	60.4	58.0
도농복합형태의 시	60.3	61.7	60.8	59.4	54.4	53.9	57.0	57.6	58.1	55.8
일반 군	57.6	57.9	57.8	57.0	51.7	51.4	55.3	55.6	55.4	54.3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57.5	59.0	56.5	56.1	51.4	49.7	53.9	56.9	54.2	55.7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월간음주율은 수도권 지역 58.4%, 비수도권 지역 56.9%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1.4%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17.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월간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9	1.6	1.0	1.4	1.5	0.2	0.8	1.4	1.6	1.4
수도권	63.1	63.4	62.4	61.4	56.2	54.3	59.1	59.7	60.3	58.4
비수도권	61.1	61.8	61.4	60.1	54.7	54.1	58.3	58.4	58.7	56.9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월간음주율은 중부 지역 58.3%, 남부 지역 56.5%로 남부 지역에서 1.8%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18.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월간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7	1.8	0.8	1.0	1.6	0.1	0.9	2.0	1.6	1.8
중부	62.7	63.3	62.2	61.1	56.1	54.3	59.0	59.7	60.1	58.3
경기지방	63.1	63.4	62.4	61.4	56.2	54.3	59.1	59.7	60.3	58.4
영동지방	61.4	64.3	61.7	61.5	57.6	57.7	62.8	62.3	62.5	59.3
영서지방	62.7	63.3	62.5	60.0	56.9	55.8	58.8	59.1	59.0	57.8
호서지방	61.2	62.5	61.4	59.7	55.1	53.5	58.4	59.7	59.1	58.0
남부	61.0	61.5	61.4	60.1	54.4	54.2	58.1	57.8	58.5	56.5
호남지방	57.7	58.8	58.9	58.7	51.9	53.6	56.6	56.3	56.2	53.9
영남지방	62.3	62.4	62.4	60.7	55.4	54.3	58.7	58.5	59.4	57.5
제주지방	61.9	62.6	60.1	58.8	55.2	55.7	57.3	53.8	58.1	57.1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월간음주율은 동 지역 58.1%, 읍·면 지역 55.5%로 읍·면 지역에서 2.6%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19.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월간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8	4.1	4.1	3.9	2.8	2.6	2.4	3.6	3.6	2.6
동	62.7	63.3	62.6	61.4	55.9	54.6	59.1	59.6	60.1	58.1
읍·면	59.0	59.2	58.5	57.5	53.2	52.1	56.7	56.0	56.5	55.5

8. 고위험음주율

전국 결과

- ◆ '25년 고위험음주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12.0%로 '24년 12.6%에 비해 0.6%p 감소하였다.

표 120. 2016-2025 전국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4.8	15.3	15.0	14.1	10.9	11.0	12.6	13.2	12.6	12.0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고위험음주율은 세종에서 7.0%로 가장 낮게, 강원에서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2.7%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구(0.3%p)이었다.

표 121. 2016-2025 시·도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3.2	14.0	13.8	13.5	9.6	9.1	10.6	11.2	11.4	10.1
부산	15.1	14.9	17.2	13.7	11.4	10.9	13.5	12.6	12.3	11.3
대구	12.6	12.9	11.9	12.1	9.1	9.6	9.7	10.8	10.4	10.7
인천	16.0	16.6	15.8	14.6	12.2	12.2	12.8	12.7	12.6	11.9
광주	13.2	12.5	12.7	13.2	9.8	11.9	11.8	10.9	12.5	10.1
대전	13.3	12.5	12.4	11.2	10.4	7.9	9.9	12.0	11.5	9.5
울산	15.5	16.2	15.5	14.5	11.7	10.8	13.8	13.6	13.8	13.3
세종	12.7	13.2	11.0	10.8	6.6	7.6	6.1	9.3	9.5	7.0
경기	14.8	15.0	14.5	13.8	10.8	10.3	11.9	12.4	12.4	11.1
강원	16.9	18.2	17.9	16.3	14.3	14.4	16.1	16.9	15.9	15.7
충북	17.2	17.0	16.0	17.6	13.4	12.6	15.1	16.2	15.6	14.4
충남	15.5	16.3	15.0	14.6	12.1	11.5	14.2	14.0	13.4	12.8
전북	13.1	11.6	13.6	12.2	9.9	11.5	12.8	13.7	13.3	10.6
전남	14.1	14.7	15.2	15.1	11.3	10.9	13.8	13.9	13.8	11.9
경북	14.9	15.8	15.1	14.2	11.6	11.5	12.6	13.2	11.8	12.0
경남	15.8	15.9	15.9	15.6	11.0	11.2	13.6	13.9	13.8	12.5
제주	17.2	14.1	15.5	14.0	13.4	13.0	13.8	14.0	13.8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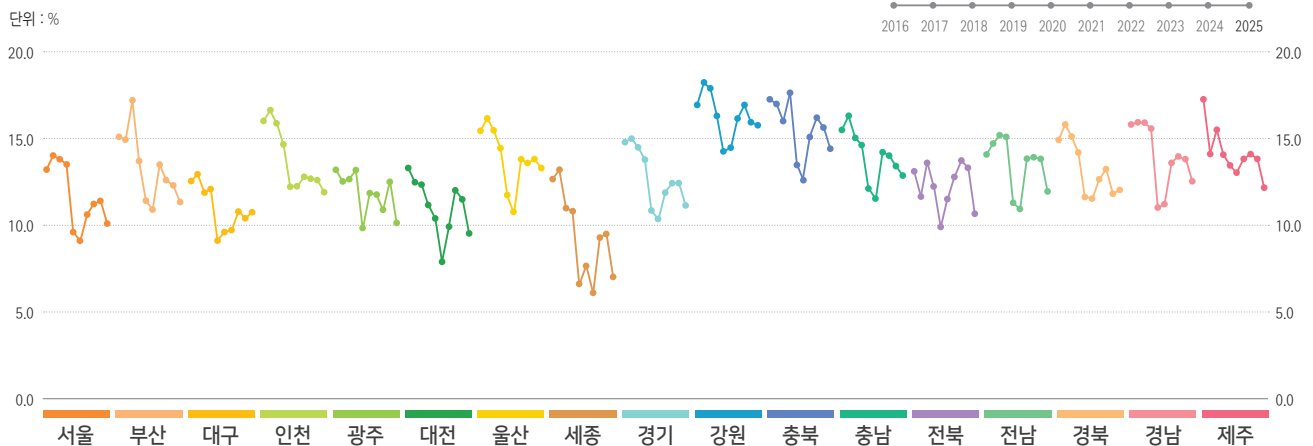


그림 45. 2016-2025 시·도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 ◆ 전년 대비 고위험음주율이 감소한 시·도는 15개로 전체의 88.2%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북(2.7%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5.7%p)이었다.

표 122.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2 (11.8)		15 (88.2)		- (-)		1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대구	0.3	전북	2.7	-	-	세종	5.7
	2위	경북	0.2	세종	2.5	-	-	제주	5.1
	3위	-	-	광주	2.4	-	-	인천	4.1
	4위	-	-	대전	2.0	-	-	부산, 대전	3.8
	5위	-	-	전남	1.9	-	-		

- ◆ '25년 고위험음주율의 시·도 간 격차는 8.7%p이며, '24년 6.4%p 대비 2.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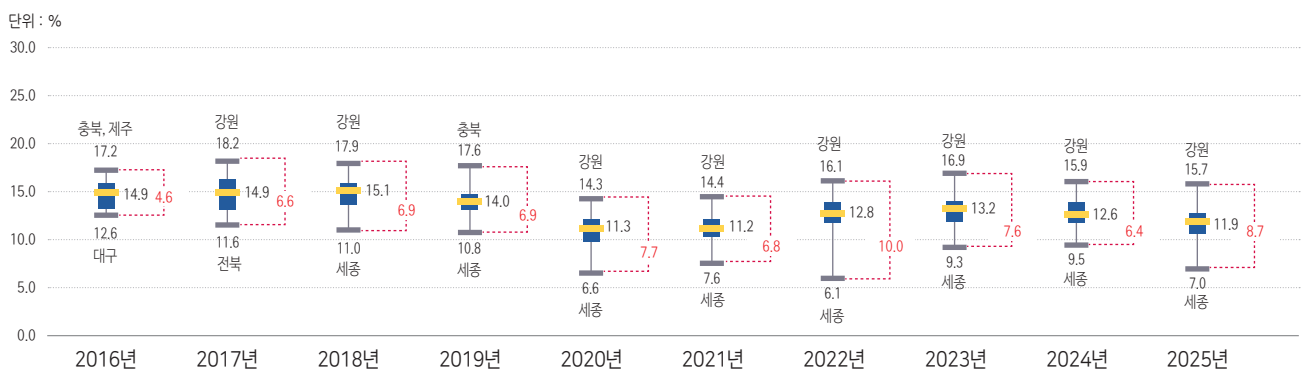


그림 46. 2016-2025 시·도 고위험음주율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고위험음주율은 경기 과천시에서 4.4%로 가장 낮게, 강원 속초시에서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3. 2025년 고위험음주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강원 속초시	21.8	경기 과천시	4.4
2위	충북 괴산군	21.6	광주 남구	4.9
3위	강원 동해시	19.5	서울 용산구	5.5
4위	인천 강화군	19.3	서울 강남구	6.5
5위	강원 영월군	19.2	광주 동구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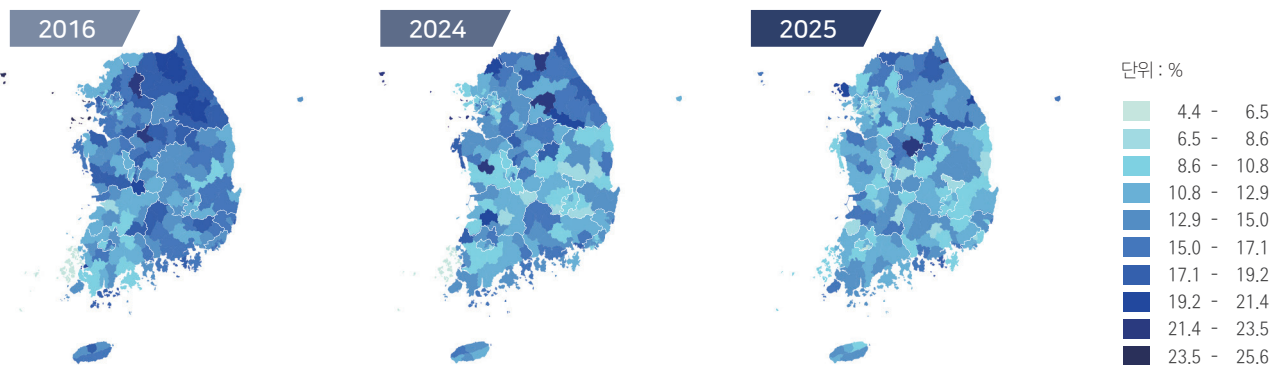


그림 47. 시·군·구별 고위험음주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고위험음주율이 감소한 시·군·구는 155개로 전체의 60.1%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북 옥천군, 경북 영덕군(9.0%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197개로 전체의 78.2%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기 가평군(11.3%p)이었다.

표 124.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02 (39.5)		155 (60.1)		54 (21.4)		197 (78.2)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인천 강화군	9.6	충북 옥천군, 경북 영덕군	9.0	충북 괴산군	6.5	경기 가평군	11.3
	2위	충북 괴산군	8.9			인천 강화군	6.4	서울 용산구	9.5
	3위	전북 임실군	6.6	강원 횡성군	8.4	강원 철원군	5.9	전남 목포시	9.0
	4위	경북 청송군	6.5	충남 태안군	7.6	전북 김제시	5.7	경기 안성시	8.9
	5위	경북 의성군	6.4	광주 남구	6.9	전남 신안군	5.4	광주 남구	8.6

- ◆ '25년 고위험음주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17.3%p이며, '24년 18.2%p 대비 0.9%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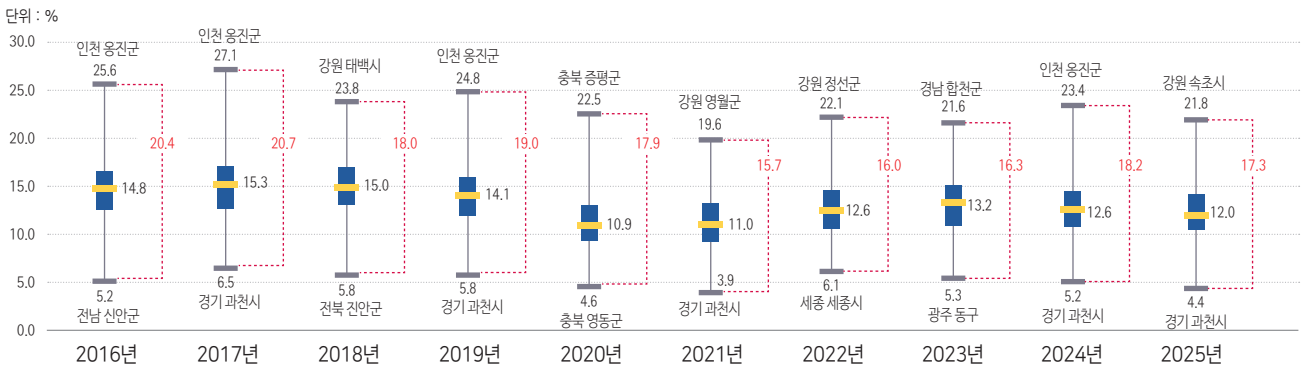


그림 48. 2016-2025 시·군·구 고위험음주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고위험음주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1.41), 가장 큰 지역은 경기(3.70)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1.14),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북(1.4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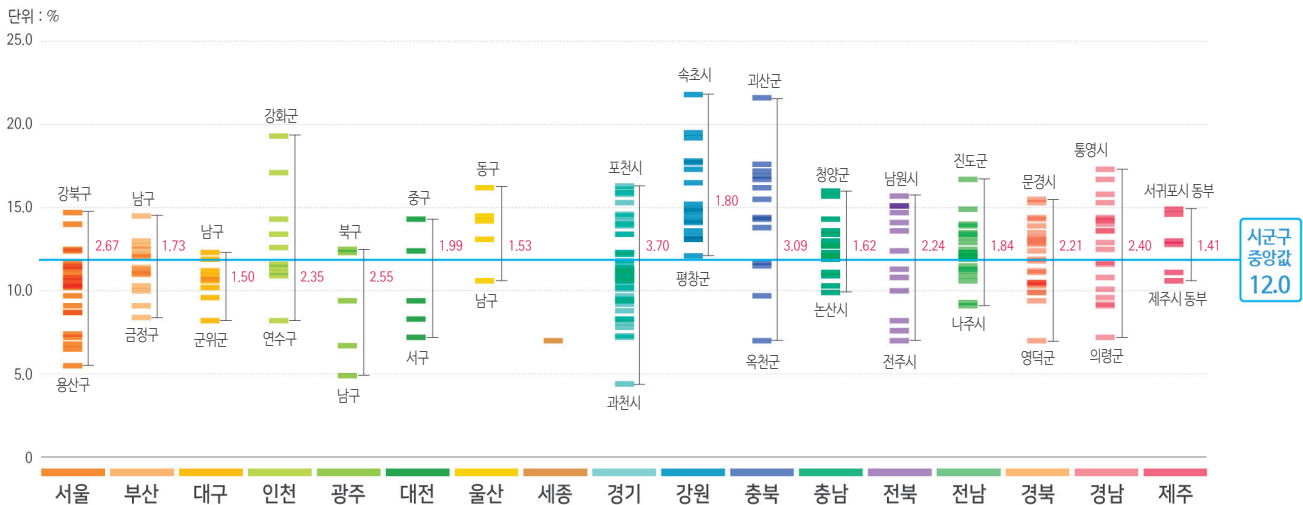


그림 4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고위험음주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고위험음주율은 특별시의 구에서 10.1%로 가장 낮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2.8%p로 '24년 3.5%p 대비 0.7%p 감소하였다.

표 125.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5	2.1	2.2	1.4	2.8	2.6	3.3	3.6	3.5	2.8
특별시의 구	13.2	14.0	13.8	13.5	9.6	9.1	10.6	11.2	11.4	10.1
광역시의 구	14.8	14.8	14.6	13.8	10.9	10.7	12.3	12.7	12.4	11.3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15.2	15.8	15.8	14.5	11.7	11.3	13.7	12.8	13.5	12.2
도농복합형태의 시	15.7	16.1	16.0	14.9	12.1	11.5	13.3	13.6	13.7	12.4
일반 군	14.3	14.9	14.7	14.1	11.2	11.4	13.0	13.5	12.9	12.5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14.4	15.8	13.8	14.8	12.4	11.7	13.9	14.8	14.9	12.9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고위험음주율은 수도권 지역 10.8%, 비수도권 지역 11.9%로 수도권 지역에서 1.1%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26.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5	0.0	0.6	0.3	0.7	1.1	1.4	1.2	0.9	1.1
수도권	14.3	14.8	14.4	13.8	10.5	10.1	11.5	12.1	12.1	10.8
비수도권	14.8	14.9	15.0	14.1	11.2	11.2	12.9	13.3	13.0	11.9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고위험음주율은 중부 지역 11.2%, 남부 지역 11.6%로 중부 지역에서 0.4%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27.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0	0.5	0.4	0.1	0.0	0.7	0.8	0.4	0.2	0.4
중부	14.6	15.0	14.5	14.0	10.9	10.3	11.9	12.5	12.5	11.2
경기지방	14.3	14.8	14.4	13.8	10.5	10.1	11.5	12.1	12.1	10.8
영동지방	17.3	17.4	17.2	16.1	13.4	14.7	17.1	17.0	17.7	16.5
영서지방	16.6	18.5	18.2	16.5	14.8	14.2	15.7	16.7	15.0	15.3
호서지방	15.2	15.3	14.3	14.3	11.7	10.6	12.7	13.7	13.3	11.9
남부	14.6	14.5	14.9	13.9	10.9	11.1	12.7	12.9	12.7	11.6
호남지방	13.5	12.9	13.9	13.5	10.4	11.4	12.8	12.9	13.2	10.9
영남지방	14.8	15.1	15.3	14.1	10.9	10.8	12.7	12.8	12.4	11.9
제주지방	17.2	14.1	15.5	14.0	13.4	13.0	13.8	14.0	13.8	12.1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고위험음주율은 동 지역 11.1%, 읍·면 지역 12.3%로 동 지역에서 1.2%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28.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2	0.8	0.4	0.4	0.8	1.3	1.5	1.4	0.6	1.2
동	14.5	14.7	14.6	13.9	10.7	10.4	11.9	12.4	12.4	11.1
읍·면	14.7	15.5	15.0	14.3	11.5	11.6	13.5	13.8	13.0	12.3

9.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전국 결과

- ◆ '25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15.8%로 '24년 16.6%에 비해 0.8%p 감소하였다.

표 129. 2016-2025 전국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8.6	19.2	19.2	18.4	15.4	15.4	16.5	17.3	16.6	15.8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세종에서 8.9%로 가장 낮게, 강원에서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3.8%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구(0.8%p)이었다.

표 130. 2016-2025 시·도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6.0	17.2	17.0	17.0	12.9	12.3	13.7	14.2	14.4	12.9
부산	18.4	18.4	21.2	17.5	15.5	15.0	17.8	16.3	15.7	14.7
대구	15.6	15.6	14.7	15.3	12.9	13.2	12.7	13.8	13.3	14.1
인천	20.0	20.4	19.4	18.3	16.3	16.5	16.5	16.5	16.0	15.1
광주	16.9	15.6	15.9	16.4	13.7	16.2	15.2	14.3	16.3	13.6
대전	16.8	15.9	15.6	15.0	14.5	11.3	13.6	15.8	15.4	12.7
울산	18.6	19.9	18.8	17.9	15.0	14.3	17.0	17.1	17.0	16.7
세종	15.3	16.1	13.8	14.0	9.7	10.9	8.4	11.6	12.0	8.9
경기	18.1	18.5	17.9	17.3	14.5	14.2	15.4	15.9	15.7	14.1
강원	21.3	22.5	22.6	20.8	19.7	19.5	21.0	21.8	20.6	20.6
충북	21.5	21.2	20.1	22.2	18.2	17.4	19.5	20.8	19.9	18.5
충남	19.5	20.3	18.6	19.1	17.0	16.4	18.8	18.2	17.5	16.9
전북	17.0	15.4	17.7	16.7	14.3	16.1	17.1	18.5	18.5	14.7
전남	18.4	19.3	20.3	20.4	16.1	15.7	18.9	19.0	18.8	16.4
경북	18.9	19.8	18.9	18.2	15.6	15.9	16.6	17.4	15.5	15.8
경남	19.4	19.5	19.4	19.5	14.4	15.3	17.1	17.9	17.8	16.1
제주	21.9	17.7	19.7	18.3	18.6	17.2	17.8	19.1	17.8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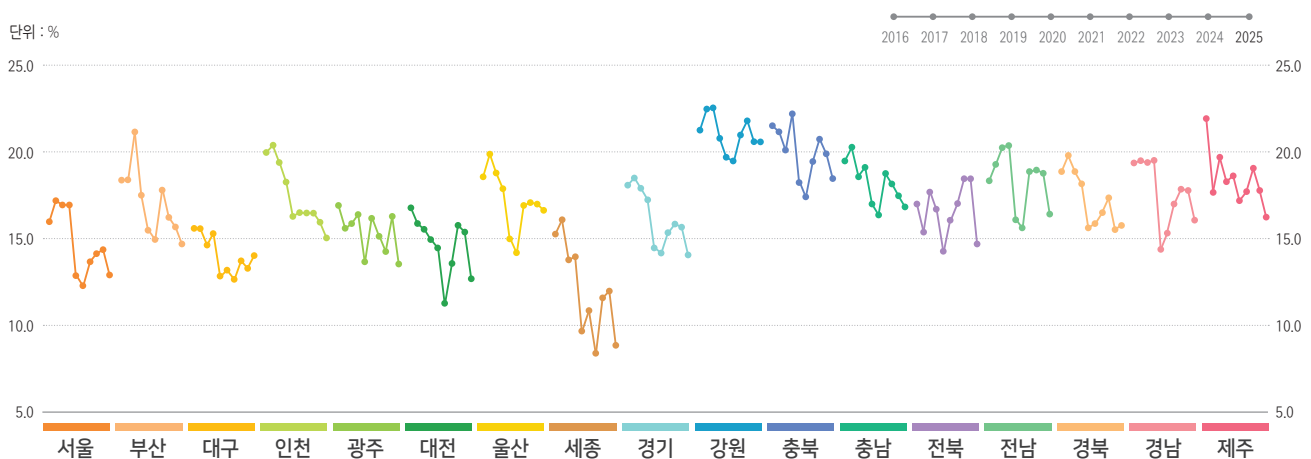


그림 50. 2016-2025 시·도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 ◆ 전년 대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이 감소한 시·도는 14개로 전체의 82.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북(3.8%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6.4%p)이었다.

표 131.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2 (11.8)		14 (82.4)		- (-)		1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대구	0.8	전북	3.8	-	-	세종	6.4	
	2위	경북	0.3	세종	3.1	-	-	제주	5.6	
	3위	-	-	광주, 대전		2.7	-	-	인천	4.9
	4위	-	-	전남		2.4	-	-	대전	4.1
	5위	-	-	경기		4.0	-	-	경기	4.0

- ◆ '25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의 시·도 간 격차는 11.7%p이며, '24년 8.6%p 대비 3.1%p 증가하였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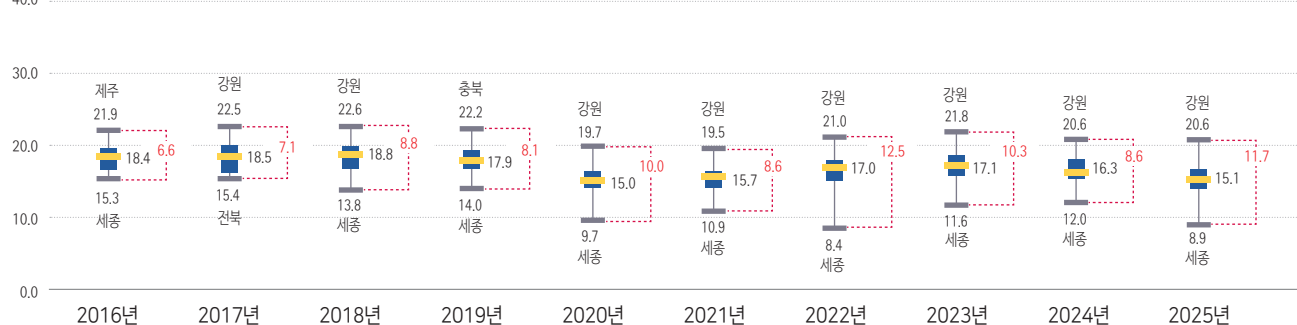


그림 51. 2016-2025 시·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경기 과천시에서 5.4%로 가장 낮게, 충북 괴산군에서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32. 2025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충북 괴산군	30.5	경기 과천시	5.4
2위	강원 속초시	28.5	광주 남구	6.8
3위	인천 강화군	26.8	서울 용산구	7.7
4위	강원 동해시, 경남 창원군	24.6	서울 강남구	7.8
5위			서울 서초구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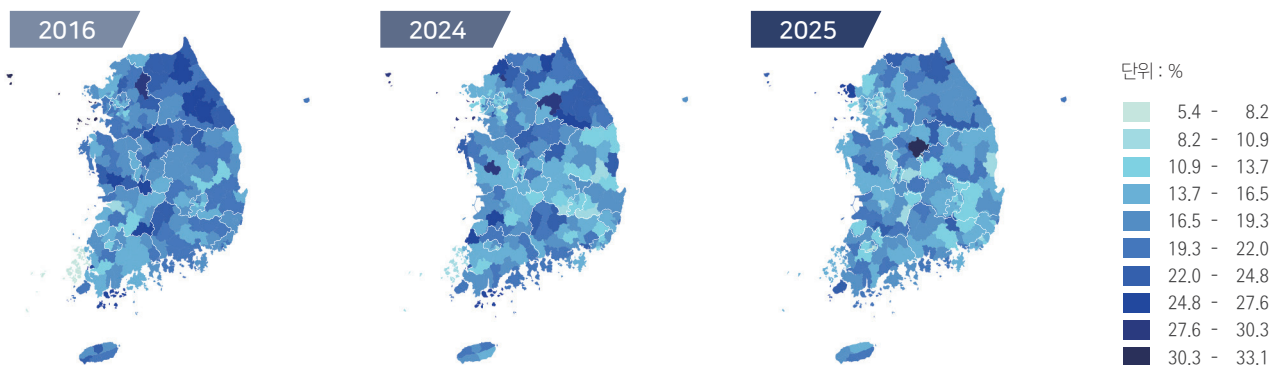


그림 52. 시·군·구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이 감소한 시·군·구는 149개로 전체의 57.8%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북 영덕군(12.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183개로 전체의 72.6%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기 가평군(13.4%p)이었다.

표 133.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05 (40.7)		149 (57.8)		64 (25.4)		183 (72.6)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충북 괴산군	13.9	경북 영덕군	12.9	충북 괴산군	10.9	경기 가평군	13.4
	2위	인천 강화군	12.4	충북 옥천군	12.1	전북 순창군	10.6	서울 용산구	11.4
	3위	경북 청송군	9.9	충남 태안군	9.4	인천 강화군	9.2	광주 남구	10.7
	4위	전남 영암군	8.4	광주 남구	9.1	전남 신안군, 경남 창녕군	8.9	경기 안성시	10.4
	5위	경북 의성군	7.9	강원 횡성군	9.0			인천 연수구	10.3

- ◆ '25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25.1%p이며, '24년 23.3%p 대비 1.8%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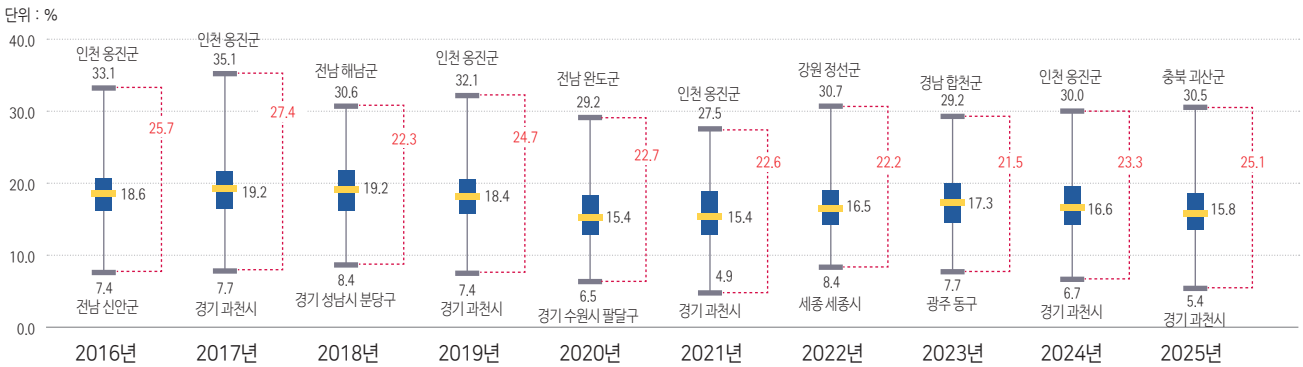


그림 53. 2016-2025 시·군·구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대구, 제주(1.35), 가장 큰 지역은 경기(4.04)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0.89),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북(1.5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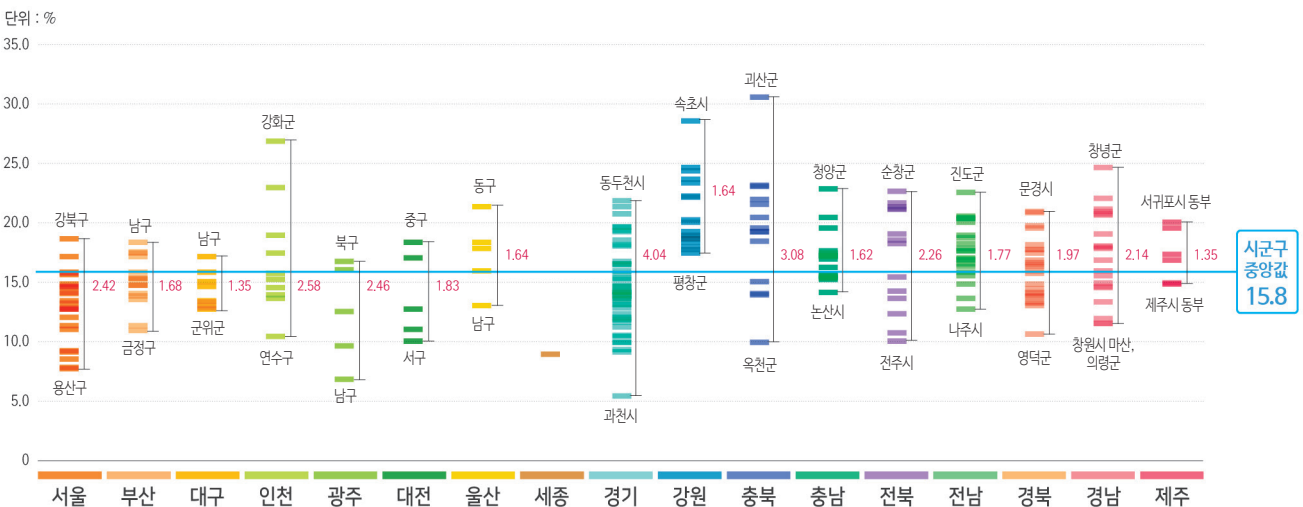


그림 5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특별시의 구에서 12.9%로 가장 낮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5.2%p로 '24년 6.5%p 대비 1.3%p 감소하였다.

표 134.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9	3.6	3.2	3.6	5.5	5.6	5.9	6.2	6.5	5.2
특별시의 구	16.0	17.2	17.0	17.0	12.9	12.3	13.7	14.2	14.4	12.9
광역시의 구	18.1	18.1	17.9	17.4	14.6	14.6	15.8	16.3	15.8	14.6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18.6	19.6	19.8	18.8	16.1	15.3	17.9	16.6	17.3	15.5
도농복합형태의 시	19.9	20.3	20.2	19.3	16.7	16.0	17.8	18.0	17.9	16.5
일반 군	18.7	19.6	19.3	19.0	16.1	16.6	17.8	18.5	17.4	17.3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19.0	20.8	18.6	20.6	18.4	17.9	19.6	20.4	20.9	18.1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수도권 지역 13.8%, 비수도권 지역 15.7%로 수도권 지역에서 1.9%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35.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1	0.3	1.0	0.8	1.4	1.7	2.0	2.0	1.6	1.9
수도권	17.5	18.2	17.7	17.4	14.1	13.7	14.9	15.3	15.3	13.8
비수도권	18.5	18.5	18.7	18.2	15.5	15.4	16.9	17.3	16.9	15.7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중부 지역 14.3%, 남부 지역 15.3%로 중부 지역에서 1.0%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36.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3	0.5	0.7	0.1	0.2	1.0	1.2	0.8	0.6	1.0
중부	17.9	18.5	17.9	17.7	14.7	14.2	15.4	16.0	15.8	14.3
경기지방	17.5	18.2	17.7	17.4	14.1	13.7	14.9	15.3	15.3	13.8
영동지방	22.1	21.7	21.6	20.7	18.2	20.0	21.8	21.9	22.6	21.5
영서지방	20.8	22.9	23.1	20.8	20.5	19.2	20.6	21.7	19.5	20.2
호서지방	19.1	19.1	17.9	18.6	16.2	15.0	16.9	17.8	17.2	15.6
남부	18.2	18.1	18.7	17.8	14.9	15.2	16.6	16.8	16.5	15.3
호남지방	17.5	16.8	18.1	17.9	14.8	16.0	17.0	17.3	17.9	15.0
영남지방	18.3	18.6	18.8	17.8	14.7	14.8	16.4	16.5	15.9	15.4
제주지방	21.9	17.7	19.7	18.3	18.6	17.2	17.8	19.1	17.8	16.3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동 지역 14.3%, 읍·면 지역 16.6%로 동 지역에서 2.3%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37.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1	1.8	1.4	1.6	1.7	2.7	2.6	2.7	1.4	2.3
동	17.8	18.1	18.0	17.5	14.5	14.1	15.4	15.8	15.8	14.3
읍·면	18.9	19.9	19.4	19.1	16.2	16.8	18.0	18.5	17.2	16.6

10.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8]

전국 결과

- ◆ '25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26.0%로 '24년 26.6%에 비해 0.6%p 감소하였다.

표 138. 2016-2025 전국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2.2	22.3	-	24.7	19.8	19.7	23.5	25.1	26.6	26.0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제주에서 38.9%로 가장 높게, 대구에서 2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5.9%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4.9%p)이었다.

표 139. 2016-2025 시·도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22.0	22.2	-	23.6	19.0	19.5	24.4	26.2	26.8	27.3
부산	21.9	24.7	-	24.4	19.1	18.1	23.7	24.4	25.8	24.7
대구	20.8	21.2	-	24.6	18.8	17.8	20.5	23.1	23.7	23.2
인천	22.2	21.0	-	24.7	22.6	19.7	24.2	25.7	28.0	24.4
광주	23.4	24.0	-	25.3	17.3	22.1	23.8	21.2	23.0	25.1
대전	25.5	21.7	-	28.4	19.1	19.3	24.3	25.3	26.3	23.9
울산	23.0	21.9	-	27.7	20.6	18.1	26.2	27.1	29.2	29.1
세종	26.6	22.7	-	24.8	13.1	17.5	23.2	23.5	29.1	24.1
경기	20.5	20.2	-	22.6	17.6	18.9	21.7	23.8	25.4	24.1
강원	23.5	23.3	-	23.5	19.7	19.1	22.6	23.8	25.1	24.0
충북	21.9	27.5	-	23.7	20.0	19.7	26.6	27.4	29.8	28.9
충남	22.2	21.1	-	26.7	23.2	19.1	23.7	26.1	28.7	26.8
전북	25.7	25.5	-	27.1	21.4	22.0	25.4	25.1	24.7	25.7
전남	27.9	28.1	-	26.6	21.2	21.3	24.2	25.2	28.0	27.3
경북	23.9	23.6	-	24.7	22.2	20.0	24.1	27.4	27.0	26.7
경남	21.2	26.3	-	26.8	26.5	23.1	30.1	25.9	31.8	32.2
제주	26.2	25.2	-	24.7	25.6	26.7	25.7	23.7	33.0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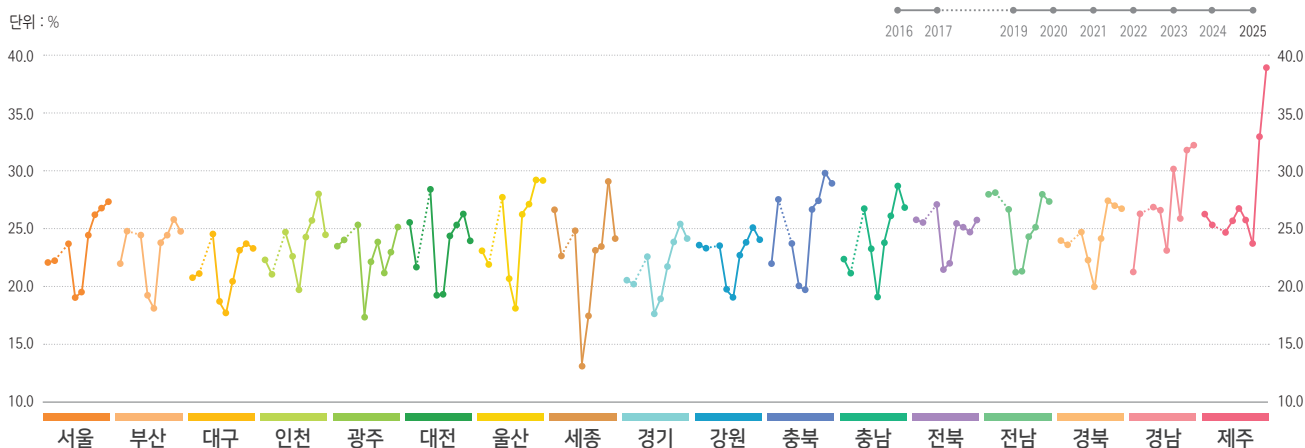


그림 55. 2016-2025 시·도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28] '18년 문항 변경으로 해당 연도 결과 미제시, '24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 전년 대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한 시·도는 5개로 전체의 29.4%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5.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도는 13개로 전체의 76.5%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12.7%p)이었다.

표 140.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5 (29.4)		12 (70.6)		13 (76.5)		3 (17.6)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제주	5.9	세종	4.9	제주	12.7	세종	2.5
	2위	광주	2.1	인천	3.6	경남	11.0	대전	1.6
	3위	전북	1.0	대전	2.4	충북	7.0	전남	0.6
	4위	서울	0.5	충남	1.9	울산	6.1	-	-
	5위	경남	0.4	경기	1.3	서울	5.3	-	-

- ◆ '25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시·도 간 격차는 15.7%p이며, '24년 10.0%p 대비 5.7%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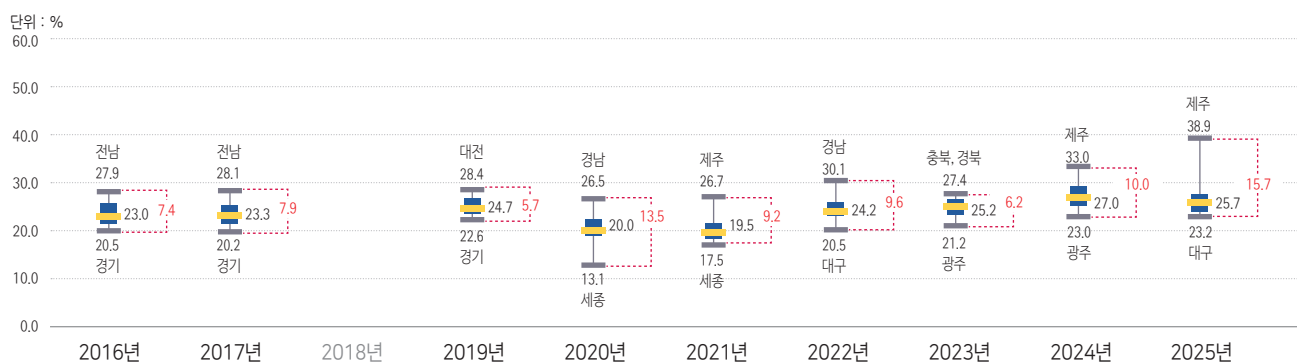


그림 56. 2016-2025 시·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분포

- ◆ '25년 시·군·구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경남 창녕군에서 74.4%로 가장 높게, 대구 군위군에서 1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41. 2025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남 창녕군	74.4	대구 군위군	11.9
2위	전북 정읍시	56.8	경북 영덕군	13.8
3위	전남 구례군	50.8	강원 태백시	14.5
4위	경남 창원시 진해	48.4	경기 부천시 오정구	14.8
5위	전남 곡성군	47.5	인천 동구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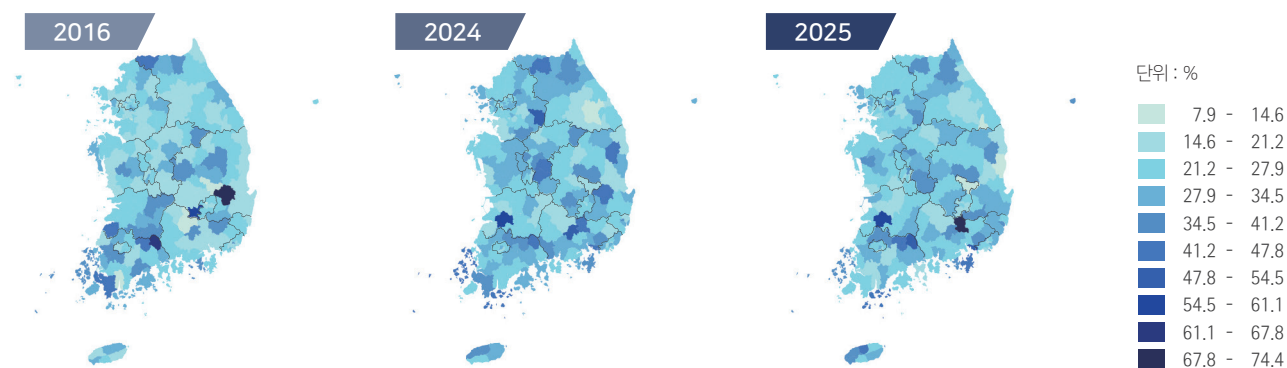


그림 57. 시·군·구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17개로 전체의 45.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창녕군(29.8%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167개로 전체의 66.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창녕군(54.7%p)이었다.

표 142.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17	(45.3)	136	(52.7)	167	(66.3)	83	(32.9)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남 창녕군	29.8	경북 영덕군	20.6	경남 창녕군	54.7	경북 영천시	41.0
	2위	충북 청주시 청원구	14.2	울산 중구	13.2	전북 정읍시	31.5	경북 고령군	26.2
	3위	전북 장수군	11.6	경남 하동군	12.9	경남 거제시	25.9	부산 동래구	21.6
	4위	경남 거제시	11.4	강원 양양군	11.9	경남 의령군	24.5	전북 고창군	20.3
	5위	경남 양산시	10.4	전남 영암군	11.3	제주 제주시 서부	22.2	강원 철원군	19.9

- ◆ '25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62.5%p이며, '24년 45.0%p 대비 17.5%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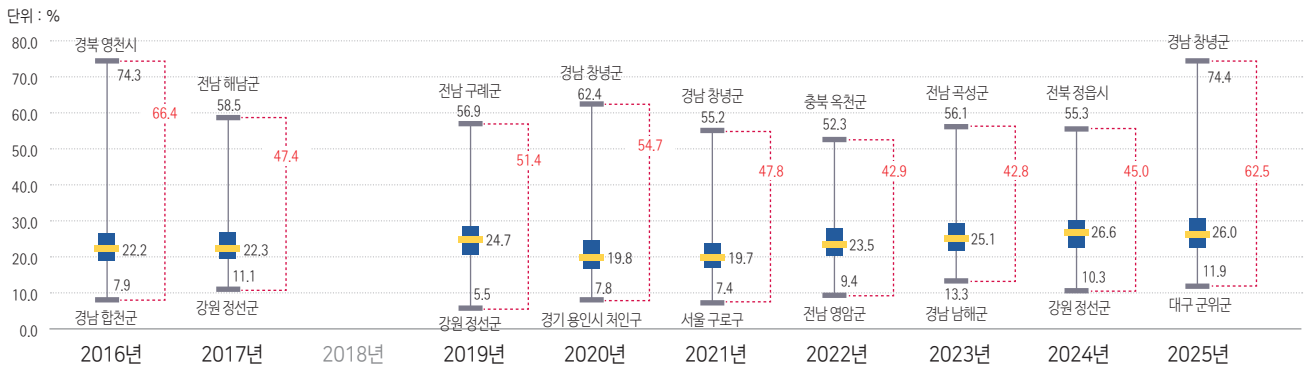


그림 58. 2016-2025 시·군·구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광주(1.51), 가장 큰 지역은 경남(3.94)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강원(1.39),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남(1.1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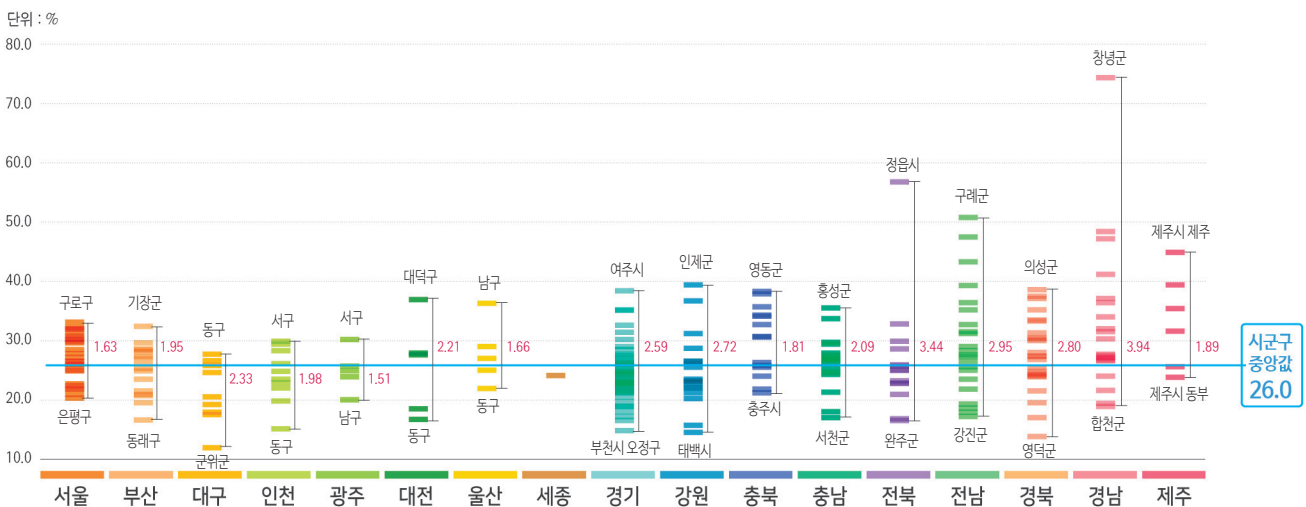


그림 5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30.6%로 가장 높고,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서 2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5.9%p로 '24년 4.5%p 대비 1.4%p 증가하였다.

표 143.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2.8	8.0	-	4.8	7.5	8.0	7.8	7.0	4.5	5.9
특별시의 구	22.0	22.2	-	23.6	19.0	19.5	24.4	26.2	26.8	27.3
광역시의 구	21.1	21.9	-	24.0	19.3	19.2	23.3	24.2	26.3	25.2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22.4	21.8	-	22.1	17.5	18.4	21.8	21.9	24.2	24.8
도농복합형태의 시	25.1	24.7	-	26.9	22.5	20.5	24.2	26.1	27.8	27.4
일반 군	24.4	24.9	-	25.8	21.9	21.9	25.5	27.6	28.1	27.6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34.0	29.8	-	26.9	25.1	26.4	29.6	29.0	28.7	30.6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수도권 지역 25.4%, 비수도권 지역 26.9%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1.5%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44.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9	3.1	-	2.4	2.4	1.0	1.8	0.2	1.0	1.5
수도권	21.3	21.1	-	23.3	18.7	19.2	23.0	24.9	26.3	25.4
비수도권	23.2	24.2	-	25.6	21.1	20.2	24.8	25.2	27.3	26.9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중부 지역 25.4%, 남부 지역 27.3%로 남부 지역에서 1.9%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45.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5	3.1	-	1.9	2.4	1.3	1.8	0.1	0.6	1.9
중부	21.7	21.5	-	23.7	19.1	19.2	23.2	25.1	26.6	25.4
경기지방	21.3	21.1	-	23.3	18.7	19.2	23.0	24.9	26.3	25.4
영동지방	25.2	23.8	-	24.0	19.0	18.8	19.5	20.6	21.2	23.4
영서지방	22.5	23.0	-	23.2	20.1	19.3	24.1	25.4	27.0	24.3
호서지방	23.2	23.2	-	26.1	20.5	19.2	24.6	26.1	28.4	26.4
남부	23.2	24.6	-	25.7	21.4	20.5	25.0	25.0	27.1	27.3
호남지방	26.0	26.1	-	26.4	20.1	21.9	24.6	23.9	25.4	26.1
영남지방	22.1	24.0	-	25.4	21.7	19.7	25.1	25.4	27.5	27.2
제주지방	26.2	25.2	-	24.7	25.6	26.7	25.7	23.7	33.0	38.9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동 지역 25.6%, 읍·면 지역 28.4%로 읍·면 지역에서 2.8%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46.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7	2.0	-	2.2	2.7	2.8	1.4	1.7	1.7	2.8
동	21.7	22.2	-	24.0	19.4	19.2	23.6	24.7	26.5	25.6
읍·면	24.5	24.2	-	26.2	22.1	22.0	25.0	26.4	28.1	28.4

11. 걷기 실천율

전국 결과

◆ '25년 걷기 실천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49.2%로 '24년 49.7%에 비해 0.5%p 감소하였다.

표 147. 2016-2025 전국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38.7	39.7	42.9	40.4	37.4	40.3	47.1	47.9	49.7	49.2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걷기 실천율은 서울에서 69.0%로 가장 높게, 강원에서 3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걷기 실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3.9%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부산(5.0%p)이었다.

표 148. 2016-2025 시·도별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55.8	61.5	67.0	61.0	53.1	55.5	62.3	64.3	68.0	69.0
부산	44.7	49.4	55.7	49.7	40.7	46.1	52.9	53.2	60.3	55.3
대구	37.9	43.2	46.2	44.6	39.1	41.4	43.5	49.4	49.0	50.9
인천	44.9	47.3	51.9	49.9	44.8	45.6	54.4	57.2	55.9	55.6
광주	40.8	47.7	47.6	43.7	34.3	43.4	48.8	46.7	53.0	55.2
대전	54.6	47.1	49.8	47.0	33.3	39.8	53.2	47.4	53.8	55.2
울산	34.7	40.1	43.5	42.7	39.6	40.9	48.5	52.5	54.5	50.8
세종	35.6	36.1	28.8	34.5	28.8	38.5	50.7	47.1	49.6	53.5
경기	43.8	43.5	49.4	45.4	40.6	46.1	49.6	52.0	54.3	50.5
강원	33.3	31.9	38.0	36.2	34.7	32.4	35.6	40.6	39.6	37.6
충북	38.6	38.6	41.9	33.4	31.9	38.4	45.6	51.6	50.3	45.5
충남	38.4	35.7	40.3	39.3	39.5	37.5	44.9	46.5	54.7	51.3
전북	34.1	37.5	38.3	38.0	31.7	36.7	46.8	47.5	47.3	46.4
전남	38.8	35.3	39.5	38.8	36.7	35.9	44.5	44.9	45.7	45.9
경북	31.3	33.8	35.6	32.8	30.6	33.1	38.1	42.3	46.5	42.8
경남	31.1	34.9	36.7	35.6	40.8	42.9	44.0	43.3	48.0	50.2
제주	39.4	35.4	35.4	33.2	35.1	40.6	35.3	41.0	47.7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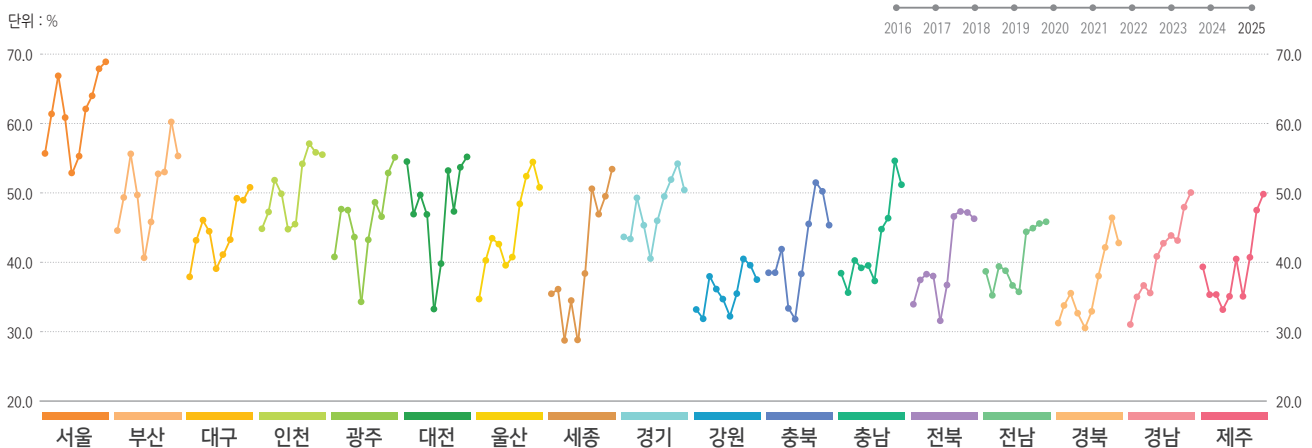


그림 60. 2016-2025 시·도별 걷기 실천율 추이

- ◆ 전년 대비 걷기 실천율이 증가한 시·도는 8개로 전체의 47.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3.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경남(19.1%p)이었다.

표 149. 걷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 (47.1)		9 (52.9)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3.9	부산 5.0	경남 19.1	-	-
	2위	광주, 경남, 제주 2.2	충북 4.8	세종 17.9	-	-
	3위		경기 3.8	울산 16.1	-	-
	4위	대구 1.9	울산, 경북 3.7	광주 14.4	-	-
	5위			서울 13.2	-	-

- ◆ '25년 걷기 실천율의 시·도 간 격차는 31.5%p이며, '24년 28.5%p 대비 3.0%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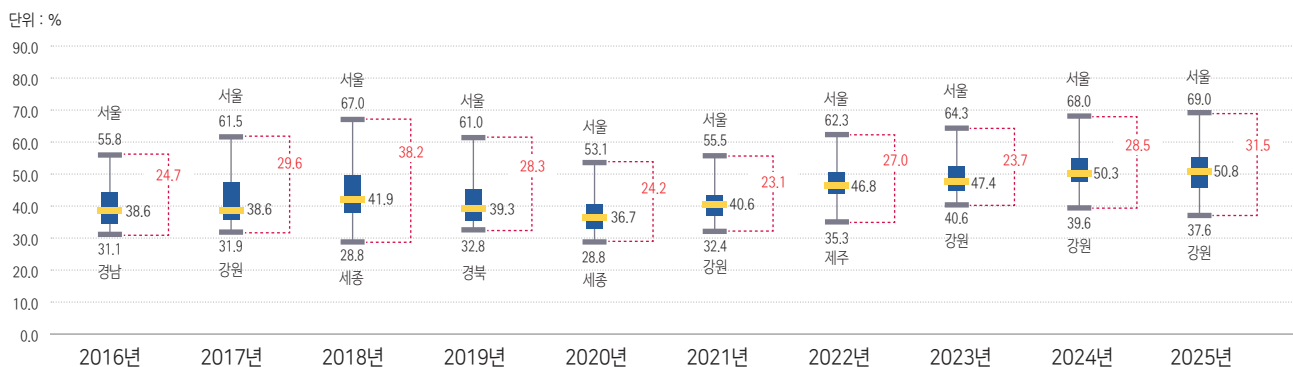


그림 61. 2016-2025 시·도 걷기 실천율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걷기 실천율은 서울 중랑구에서 77.7%로 가장 높게, 충북 보은군에서 2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50. 2025년 걷기 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서울 중랑구	77.7	충북 보은군	20.5
2위	광주 남구	76.8	경남 합천군	21.0
3위	서울 송파구	74.8	경북 예천군	25.9
4위	서울 용산구	73.7	전남 장성군	26.6
5위	서울 광진구	73.2	충북 단양군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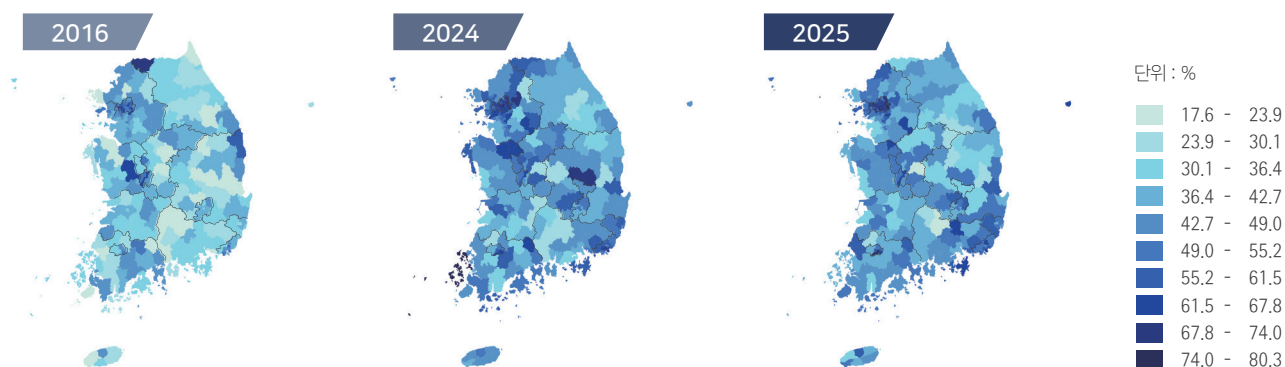


그림 62. 시·군·구별 걷기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걷기 실천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08개로 전체의 41.9%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22.5%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14개로 전체의 84.9%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북 칠곡군(39.6%p)이었다.

표 151. 걷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08		150		214		37		
시·군·구	(41.9)		(58.1)		(84.9)		(14.7)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남 의령군	22.5	전남 신안군	31.9	경북 칠곡군	39.6	강원 철원군	36.1
	2위	경북 울릉군	18.8	강원 철원군	26.9	전남 구례군	37.0	충남 공주시	20.1
	3위	경남 창녕군	17.6	경북 의성군	22.2	전남 함평군	35.7	경북 울진군	18.2
	4위	전남 장흥군	17.2	전남 화순군	17.9	경북 울릉군	35.4	부산 동래구	15.3
	5위	전북 장수군	16.3	경북 예천군	17.7	광주 남구	34.4	전남 곡성군	12.9

- ◆ '25년 걷기 실천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57.1%p이며, '24년 56.2%p 대비 0.9%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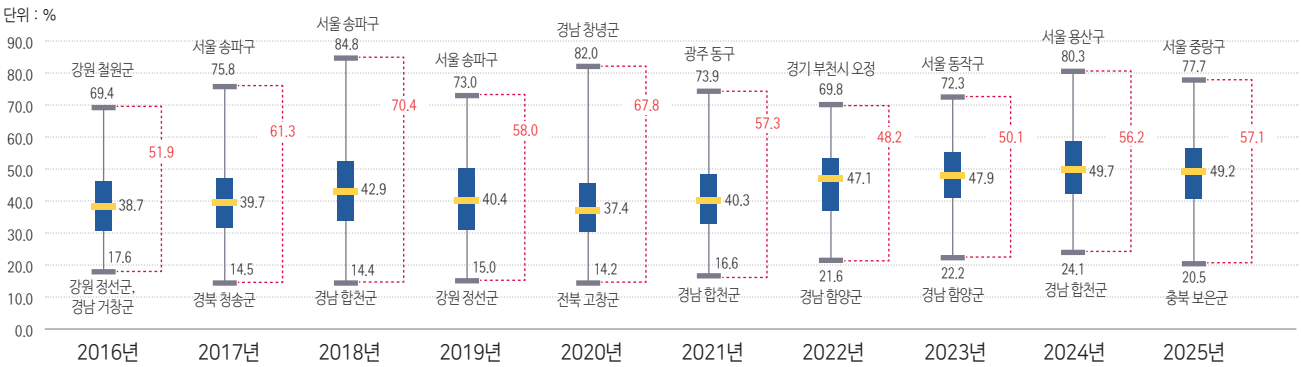


그림 63. 2016-2025 시·군·구 걷기 실천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걷기 실천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41), 가장 큰 지역은 경남(3.10)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0.65),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남(0.6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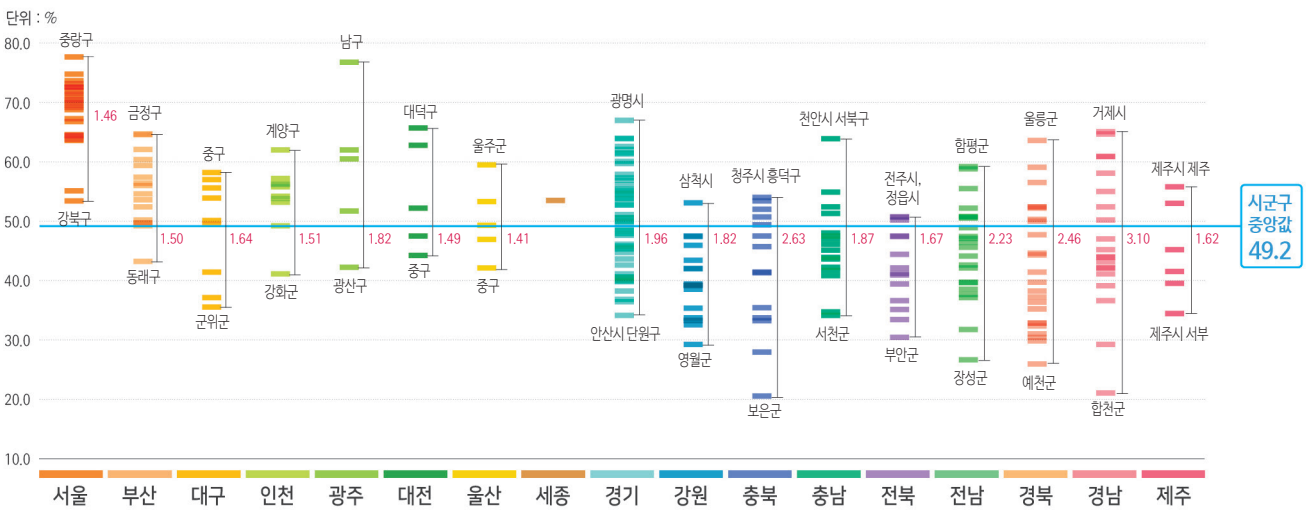


그림 6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걷기 실천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4년 걷기 실천율은 특별시의 구에서 69.0%로 가장 높고, 일반군에서 4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25.5%p로 '24년 25.6%p 대비 0.1%p 감소하였다.

표 152.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3.2	30.7	33.3	33.2	24.7	25.6	24.2	22.4	25.6	25.5
특별시의 구	55.8	61.5	67.0	61.0	53.1	55.5	62.3	64.3	68.0	69.0
광역시의 구	41.9	43.6	48.4	44.7	39.5	44.4	50.0	51.8	54.4	52.2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45.6	45.4	49.7	45.8	37.7	38.8	46.3	47.0	51.0	48.6
도농복합형태의 시	36.4	35.0	37.2	37.6	36.9	38.1	41.9	43.9	47.2	45.1
일반군	33.2	35.2	37.5	34.6	34.6	35.3	38.1	41.9	45.1	43.5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32.6	30.9	33.7	27.8	28.4	29.9	39.0	41.9	42.4	44.0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걷기 실천율은 수도권 지역 57.9%, 비수도권 지역 49.5%로 수도권 지역에서 8.4%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53.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0.8	11.5	13.9	11.9	9.4	10.0	9.6	10.2	8.9	8.4
수도권	48.7	51.1	56.6	52.0	45.8	49.6	54.9	57.2	59.5	57.9
비수도권	38.0	39.6	42.7	40.0	36.5	39.6	45.3	47.0	50.6	49.5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걷기 실천율은 중부 지역 55.9%, 남부 지역 50.0%로 중부 지역에서 6.0%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54.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0.2	8.2	10.6	8.7	6.5	6.5	7.5	7.9	6.9	6.0
중부	47.1	48.4	53.5	49.2	43.6	47.0	52.9	55.0	57.6	55.9
경기지방	48.7	51.1	56.6	52.0	45.8	49.6	54.9	57.2	59.5	57.9
영동지방	35.2	32.4	38.0	41.1	32.4	30.3	31.7	37.5	39.4	39.4
영서지방	32.2	31.6	38.1	33.6	36.0	33.6	37.5	42.1	39.7	36.6
호서지방	43.0	39.7	42.8	39.4	34.8	38.4	47.7	48.1	52.8	50.9
남부	36.9	40.2	42.9	40.5	37.1	40.5	45.4	47.1	50.8	50.0
호남지방	37.7	39.7	41.4	40.0	34.2	38.4	46.6	46.3	48.5	48.9
영남지방	36.4	40.6	43.9	41.1	38.3	41.4	45.5	47.8	51.8	50.4
제주지방	39.4	35.4	35.4	33.2	35.1	40.6	35.3	41.0	47.7	49.9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걷기 실천율은 동 지역 55.8%, 읍·면 지역 44.3%로 동 지역에서 11.5%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55.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0.8	12.8	14.6	12.0	6.7	7.9	11.4	9.8	9.9	11.5
동	45.3	47.7	52.3	48.2	42.5	46.2	52.3	54.0	56.9	55.8
읍·면	34.5	34.8	37.7	36.2	35.8	38.2	40.9	44.2	47.1	44.3

12. 건강생활실천율

전국 결과

- ◆ '25년 건강생활실천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36.1%로 '24년 36.2%에 비해 0.1%p 감소하였다.

표 156. 2016-2025 전국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7.0	27.0	30.7	28.4	26.4	29.6	33.7	34.2	36.2	36.1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건강생활실천율은 서울에서 54.3%로 가장 높게, 강원에서 2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건강생활실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7.4%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부산(3.0%p)이었다.

표 157. 2016-2025 시·도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40.1	44.3	49.2	45.2	40.4	43.3	47.7	48.4	52.4	54.3
부산	31.3	34.6	39.0	36.0	29.3	34.4	38.6	39.3	45.5	42.5
대구	27.3	31.7	34.1	32.6	29.1	31.5	33.9	38.1	36.5	39.5
인천	30.4	32.4	36.5	35.4	31.8	32.8	38.8	42.1	41.2	41.2
광주	29.4	33.4	33.9	32.2	25.5	32.7	36.5	35.2	40.6	43.3
대전	39.6	33.5	36.3	35.4	25.6	30.6	40.2	36.1	40.5	42.9
울산	23.4	28.2	32.1	29.8	28.2	29.4	33.7	37.7	39.4	36.6
세종	25.7	26.1	22.1	25.7	23.4	30.1	39.6	38.1	39.3	46.7
경기	30.3	30.5	35.8	32.5	29.9	34.7	37.0	38.5	40.7	38.9
강원	22.3	20.8	25.5	24.8	23.9	22.9	24.0	28.1	27.2	26.2
충북	26.3	25.7	28.9	22.3	21.8	27.8	31.2	35.0	34.9	32.3
충남	26.4	24.0	27.3	27.1	27.8	27.5	31.8	32.0	38.9	37.4
전북	24.3	27.1	27.7	27.4	23.7	27.0	33.8	33.5	35.1	36.4
전남	26.8	24.6	26.9	26.8	27.2	26.9	31.7	30.9	33.1	34.0
경북	21.3	23.5	25.9	23.6	21.9	24.1	27.5	29.9	33.5	31.1
경남	21.6	24.6	27.0	25.0	29.8	31.6	32.4	31.3	35.0	37.6
제주	25.2	25.0	26.0	24.3	26.5	28.9	24.9	29.2	34.9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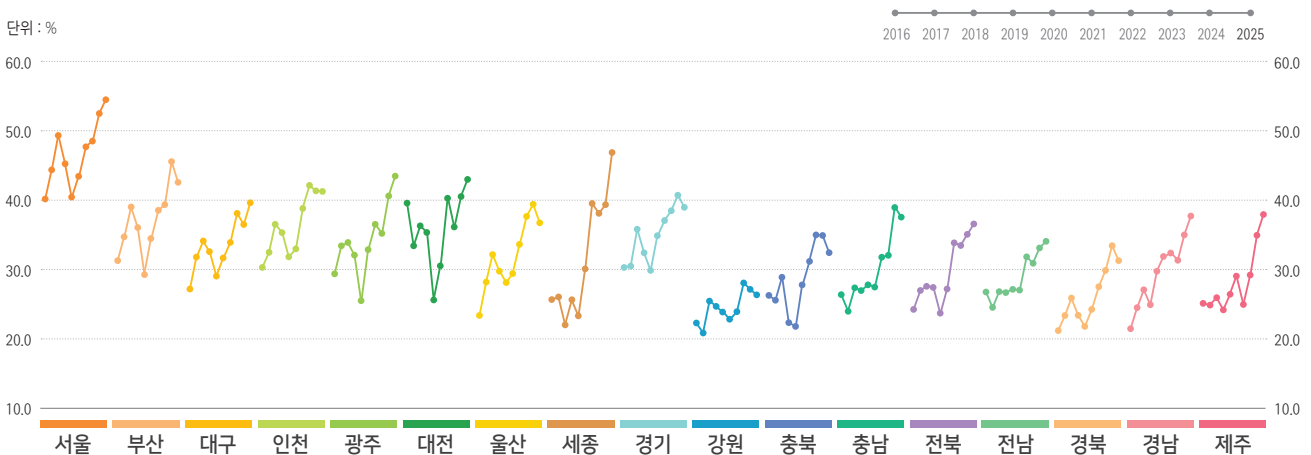


그림 65. 2016-2025 시·도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 ◆ 전년 대비 건강생활실천율이 증가한 시·도는 9개로 전체의 52.9%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7.4%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21.0%p)이었다.

표 158. 건강생활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9		7		17		-		
	(52.9)		(41.2)		(100.0)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7.4	부산	3.0	세종	21.0	-	-
	2위	대구	3.0	울산	2.8	경남	16.0	-	-
	3위	제주	2.9	충북	2.6	서울	14.2	-	-
	4위	광주	2.7	경북	2.4	광주	13.9	-	-
	5위	경남	2.6	경기	1.8	울산	13.2	-	-

- ◆ '25년 건강생활실천율의 시·도 간 격차는 28.1%p이며, '24년 25.2%p 대비 2.9%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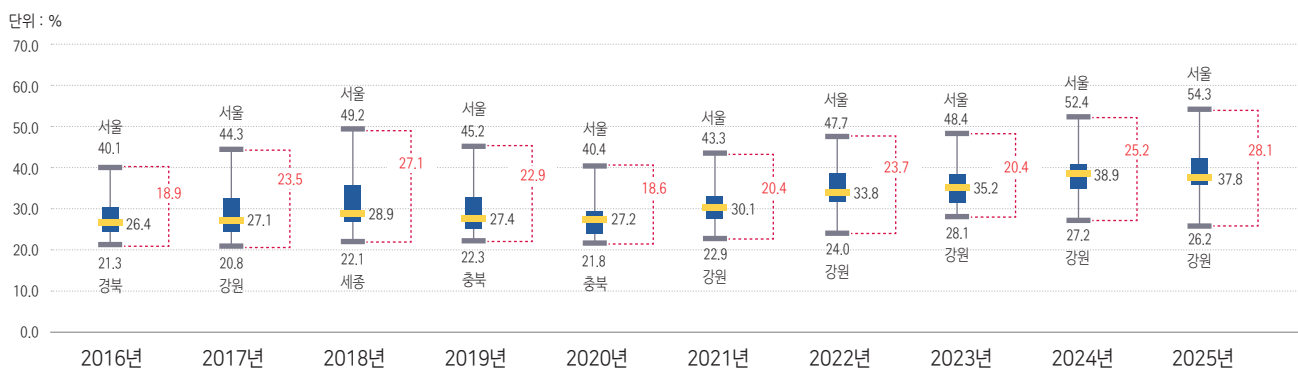


그림 66. 2016-2025 시·도 건강생활실천율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건강생활실천율은 광주 남구에서 64.3%로 가장 높게, 충북 보은군에서 1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59. 2025년 건강생활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광주 남구	64.3	충북 보은군	15.5
2위	서울 서초구	61.3	경남 합천군	16.4
3위	서울 용산구	60.2	강원 영월군	18.9
4위	서울 성동구	59.9	전남 장성군, 경북 예천군	21.7
5위	서울 강동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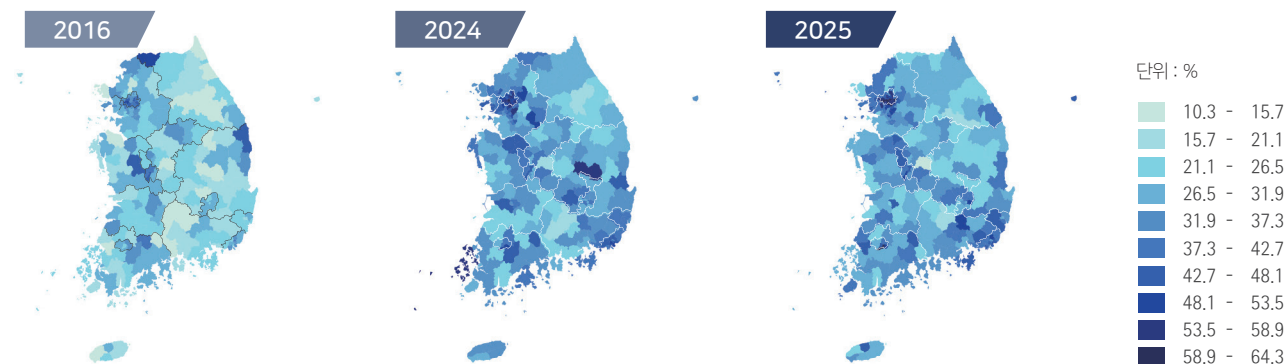


그림 67. 시·군·구별 건강생활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건강생활실천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16개로 전체의 45.0%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19.5%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26개로 전체의 89.7%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광주 남구(33.7%p)이었다.

표 160. 건강생활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16	(45.0)	140	(54.3)	226	(89.7)	25	(9.9)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남 의령군	19.5	전남 신안군	24.3	광주 남구	33.7	강원 철원군	29.0
	2위	경남 고성군	13.9	경북 의성군	18.5	전남 구례군	31.2	충남 공주시	14.5
	3위	전북 정읍시	13.5	전남 화순군	18.2	전남 함평군	29.9	경북 울진군	12.9
	4위	광주 남구	13.3	강원 철원군	17.8	경북 칠곡군	28.5	전남 곡성군	10.9
	5위	전북 고창군	12.4	전북 김제시	13.2	서울 노원구	27.1	부산 동래구	8.5

◆ '25년 건강생활실천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48.8%p이며, '24년 47.7%p 대비 1.1%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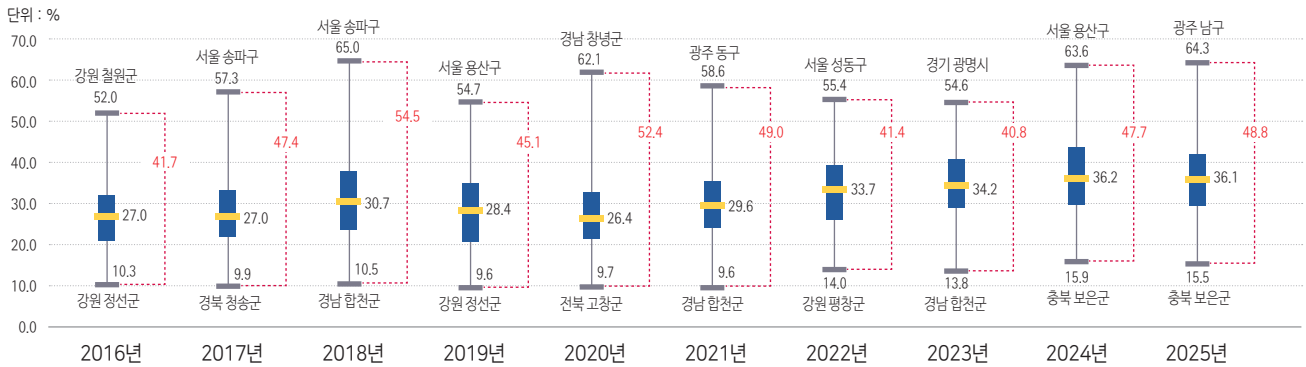


그림 68. 2016-2025 시·군·구 건강생활실천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건강생활실천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41), 가장 큰 지역은 경남(3.03)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0.46),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남(0.5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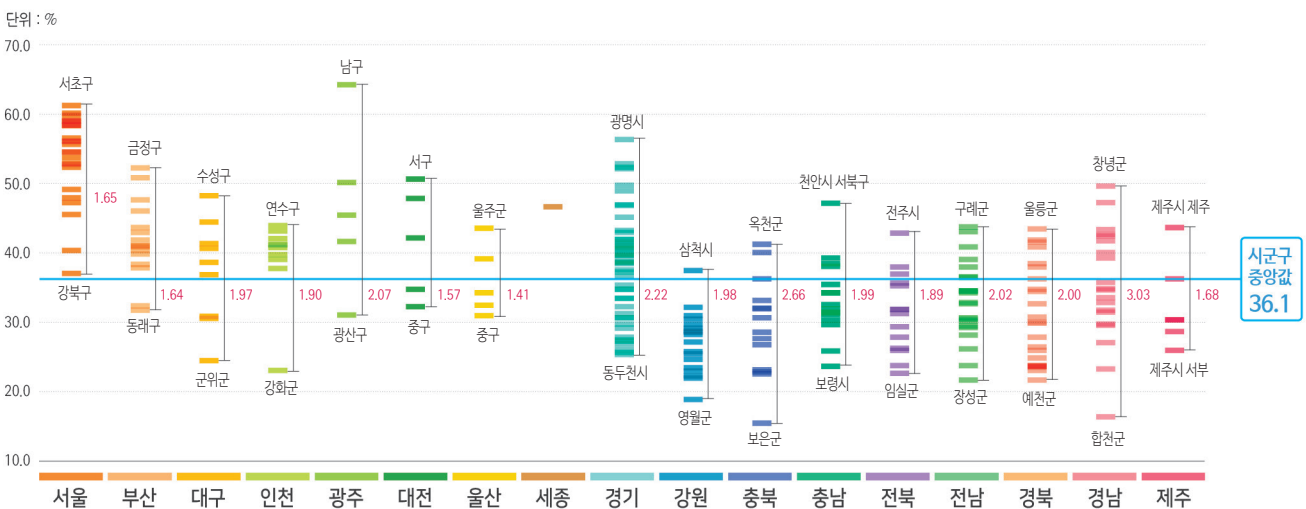


그림 6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건강생활실천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건강생활실천율은 특별시의 구에서 54.3%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23.2%p로 '24년 23.0%p 대비 0.2%p 증가하였다.

표 161.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7.7	23.0	24.8	25.3	20.0	21.1	20.7	19.3	23.0	23.2
특별시의 구	40.1	44.3	49.2	45.2	40.4	43.3	47.7	48.4	52.4	54.3
광역시의 구	29.3	30.8	34.8	32.2	28.9	33.2	36.9	38.3	40.6	40.0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30.7	32.3	36.1	32.5	27.5	29.6	33.9	34.1	37.6	36.9
도농복합형태의 시	24.5	23.6	25.9	25.9	26.5	27.6	29.9	31.0	33.8	32.7
일반 군	22.9	24.7	27.0	24.1	25.2	25.6	27.0	29.8	32.6	32.2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22.4	21.3	24.3	19.8	20.4	22.3	27.4	29.1	29.4	31.1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건강생활실천율은 수도권 지역 44.9%, 비수도권 지역 37.3%로 수도권 지역에서 7.6%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62.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7.8	8.5	10.7	9.1	7.6	8.5	8.3	8.7	8.0	7.6
수도권	34.2	36.2	41.1	37.8	34.1	37.8	41.2	42.6	45.1	44.9
비수도권	26.5	27.7	30.4	28.6	26.5	29.3	33.0	34.0	37.1	37.3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건강생활실천율은 중부 지역 43.0%, 남부 지역 37.9%로 중부 지역에서 5.1%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63.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7.3	5.6	7.7	6.5	5.1	5.6	6.2	6.3	5.7	5.1
중부	33.0	34.1	38.6	35.6	32.2	35.6	39.4	40.7	43.2	43.0
경기지방	34.2	36.2	41.1	37.8	34.1	37.8	41.2	42.6	45.1	44.9
영동지방	22.4	21.9	25.8	26.8	21.6	21.2	21.2	24.6	26.1	26.2
영서지방	22.3	20.3	25.3	23.7	25.1	23.9	25.4	29.8	27.9	26.2
호서지방	30.2	27.3	30.0	27.9	25.1	28.6	34.4	34.3	38.2	38.1
남부	25.7	28.4	30.9	29.1	27.1	30.0	33.2	34.4	37.5	37.9
호남지방	26.6	28.1	29.1	28.6	25.4	28.6	34.0	33.1	36.1	37.7
영남지방	25.4	28.8	31.8	29.6	27.8	30.6	33.5	35.1	38.2	38.0
제주지방	25.2	25.0	26.0	24.3	26.5	28.9	24.9	29.2	34.9	37.8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건강생활실천율은 동 지역 43.0%, 읍·면 지역 32.3%로 동 지역에서 10.8%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64.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건강생활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8.6	10.1	11.6	10.1	5.7	7.7	10.3	9.1	9.1	10.8
동	31.9	33.8	37.9	35.0	31.5	35.1	39.1	40.1	42.8	43.0
읍·면	23.3	23.7	26.3	25.0	25.8	27.3	28.8	30.9	33.7	32.3

13. 비만율(자가보고)^[29]

전국 결과

- ◆ '25년 비만율(자가보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35.4%로 '24년 34.4%에 비해 1.0%p 증가하였다.

표 165. 2016-2025 전국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7.9	28.6	31.8	-	31.3	32.2	32.5	33.7	34.4	35.4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비만율(자가보고)은 세종에서 29.4%로 가장 낮게, 울산에서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비만율(자가보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서울(0.8%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울산(3.5%p)이었다.

표 166. 2016-2025 시·도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25.5	25.5	28.6	-	28.5	29.2	30.2	28.8	31.0	30.2
부산	26.5	25.8	28.6	-	30.1	29.8	31.2	32.1	33.2	33.2
대구	24.8	26.5	28.2	-	29.6	29.4	28.8	32.0	32.8	32.3
인천	28.4	29.8	31.9	-	33.5	34.5	32.6	34.5	34.4	35.9
광주	26.2	27.3	29.5	-	29.7	31.6	31.0	29.2	32.2	32.0
대전	24.6	25.6	30.0	-	27.0	29.4	28.5	28.4	29.5	29.8
울산	26.0	26.7	28.5	-	30.4	31.0	33.4	33.2	34.7	38.2
세종	30.1	27.7	27.8	-	28.0	27.5	27.7	29.3	29.1	29.4
경기	27.5	28.2	30.7	-	31.6	31.6	31.9	33.0	33.3	34.5
강원	30.9	31.8	34.3	-	32.6	34.3	35.0	35.0	35.9	37.4
충북	28.7	29.0	32.1	-	32.4	31.0	32.9	34.5	34.7	34.3
충남	28.3	28.9	32.1	-	31.6	32.5	32.9	34.4	35.6	37.2
전북	28.1	27.9	32.2	-	29.2	32.1	33.4	34.1	32.2	32.3
전남	28.3	28.9	32.6	-	31.3	32.3	33.8	34.0	36.8	38.0
경북	26.5	29.9	31.4	-	30.8	32.0	32.7	33.9	33.2	34.9
경남	28.0	27.7	31.2	-	30.7	31.7	33.2	32.4	33.5	34.3
제주	28.2	29.5	32.6	-	35.0	36.0	36.5	36.1	36.8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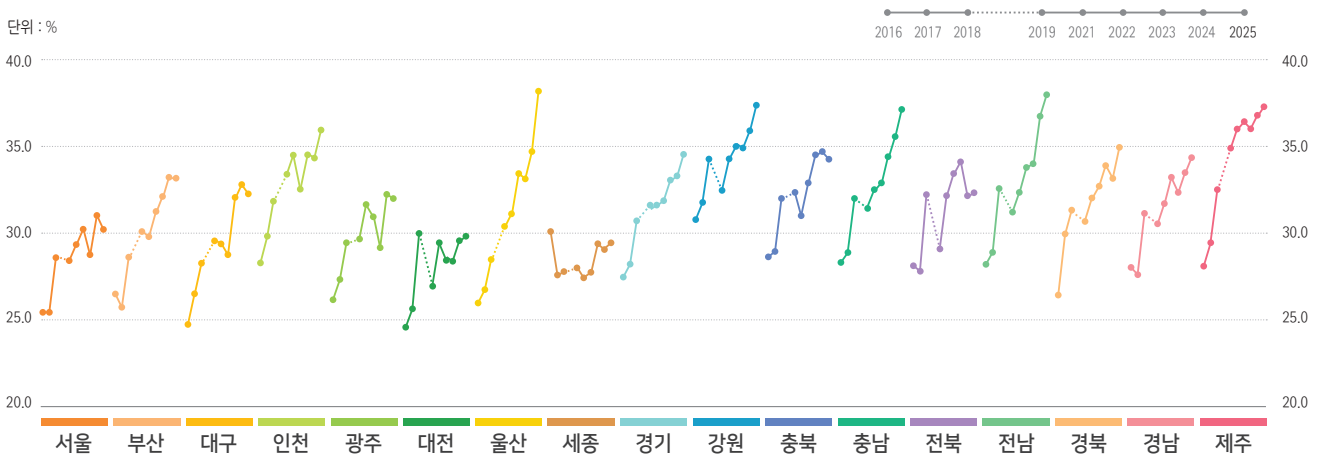


그림 70. 2016-2025 시·도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29] '18년 신체계측과 동시조사, '19년 조사 미 실시

- ◆ 전년 대비 비만율(자가보고)이 감소한 시·도는 4개로 전체의 23.5%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서울(0.8%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1개로 전체의 5.9%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0.7%p)이었다.

표 167. 비만율(자가보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2 (70.6)		4 (23.5)		16 (94.1)		1 (5.9)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울산	3.5	서울	0.8	울산	12.2	세종	0.7	
	2위	경북	1.7	대구	0.5	전남	9.7	-	-	
	3위	충남	1.6	충북	0.4	제주	9.1	-	-	
	4위	인천, 강원		1.5	광주	0.2	충남	8.9	-	-
	5위				-	-	경북	8.4	-	-

- ◆ '25년 비만율(자가보고)의 시·도 간 격차는 8.7%p이며, '24년 7.8%p 대비 0.9%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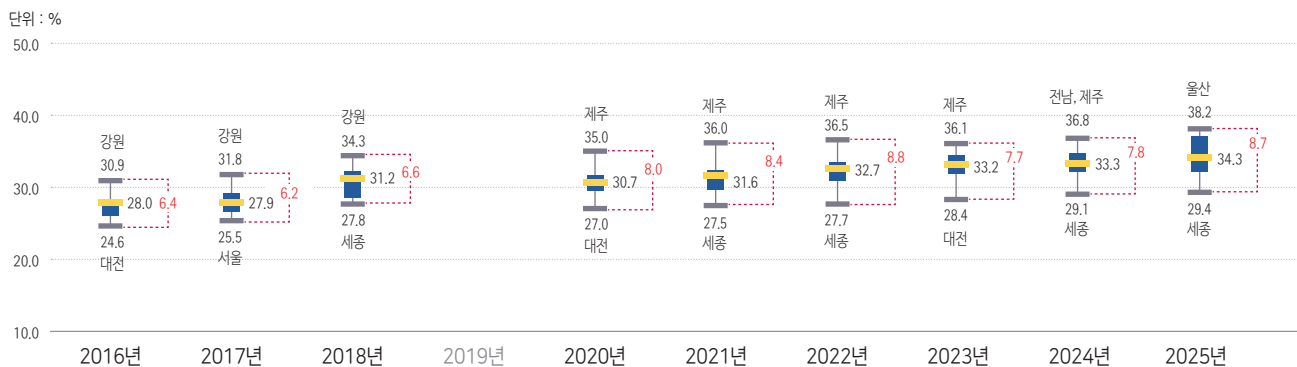


그림 71. 2016-2025 시·도 비만율(자가보고)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비만율(자가보고)은 서울 강남구에서 21.7%로 가장 낮게, 강원 철원군에서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68. 2025년 비만율(자가보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강원 철원군	46.6	서울 강남구	21.7
2위	전남 장성군	45.2	서울 용산구	23.0
3위	전북 부안군	44.8	서울 서초구	23.8
4위	경북 고령군	44.4	전북 전주시	24.4
5위	제주 제주시 서부	43.8	경기 용인시 수지구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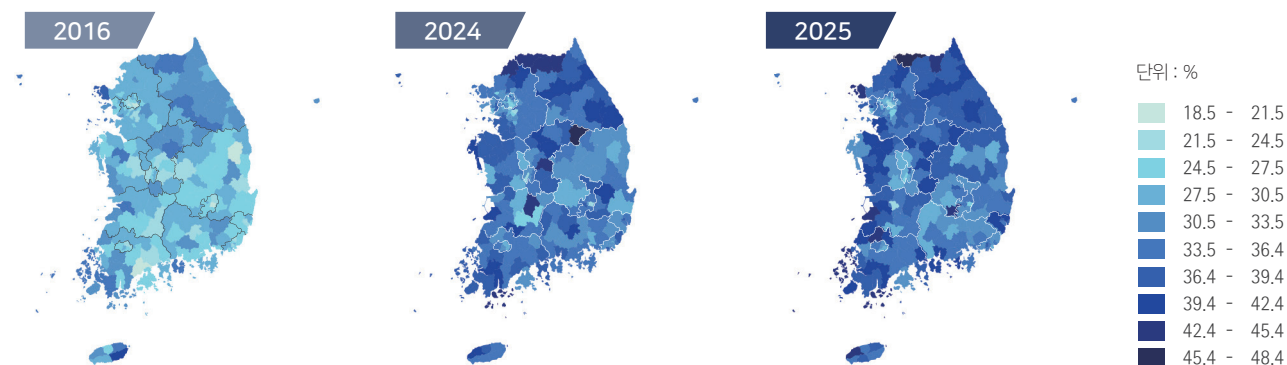


그림 72. 시·군·구별 비만율(자가보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비만율(자가보고)이 감소한 시·군·구는 99개로 전체의 38.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11.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7개로 전체의 2.8%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제주 서귀포시 동부(4.6%p)이었다.

표 169. 비만율(자가보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54	(59.7)	99	(38.4)	243	(96.4)	7	(2.8)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남 장성군	12.6	경남 의령군	11.9	전남 장성군	17.5	제주 서귀포시 동부	4.6
	2위	충남 보령시	11.5	전북 순창군	10.1	충북 보은군,	14.9	전북 전주시	3.5
	3위	인천 강화군	9.6	충북 단양군	7.9	충남 청양군		인천 옹진군	2.1
	4위	경북 고령군	9.0	경남 함양군	7.7	경북 고령군	14.8	세종 세종시	0.7
	5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7.7	경기 성남시 수정구	7.3	경남 통영시	14.7	경남 양산시,	0.5
						경남 함양군			

- ◆ '25년 비만율(자가보고)의 시·군·구 간 격차는 25.0%p이며, '24년 25.9%p 대비 0.9%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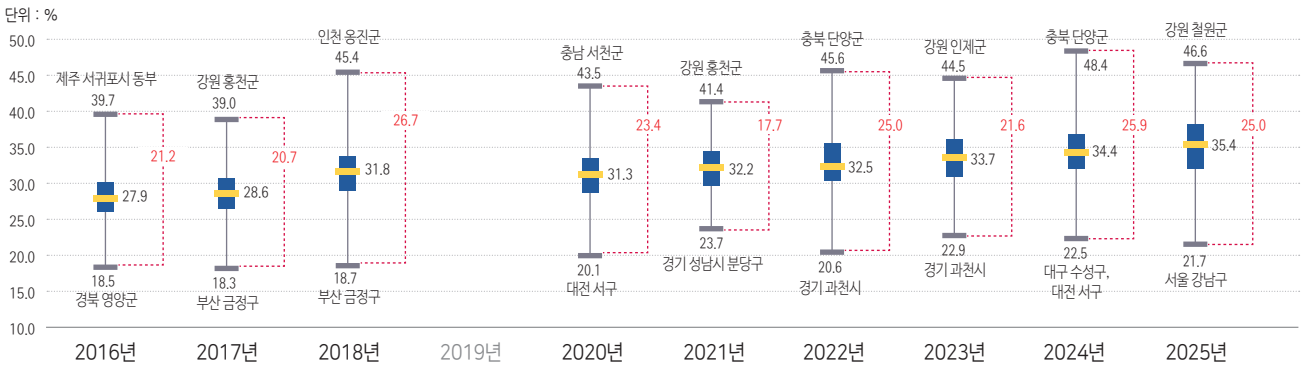


그림 73. 2016-2025 시·군·구 비만율(자가보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비만율(자가보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11), 가장 큰 지역은 전북(1.84)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구(0.26),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북(0.2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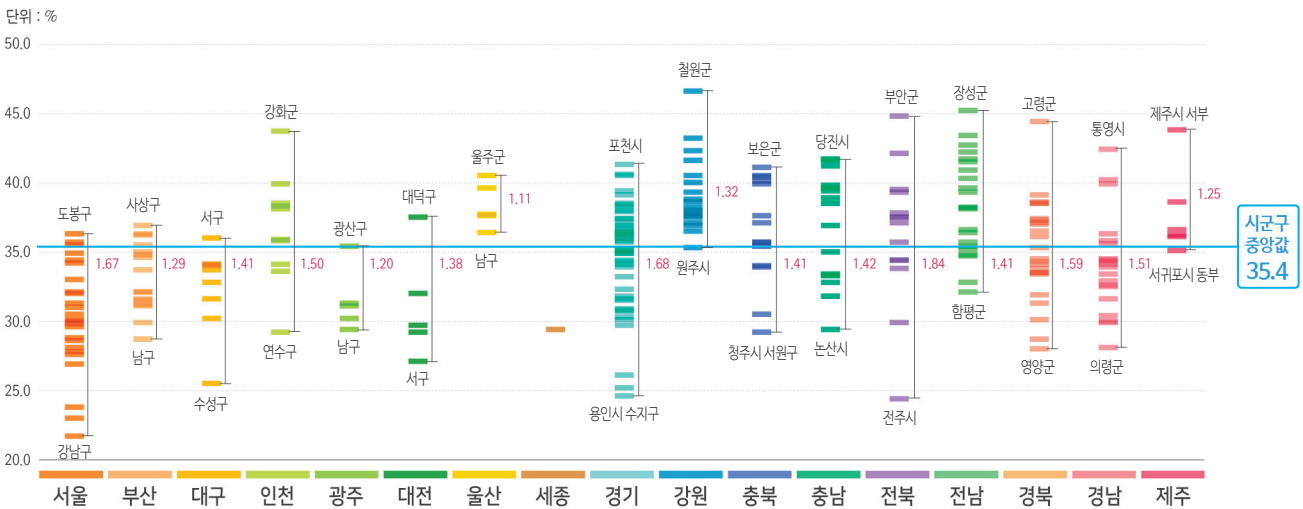


그림 7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비만율(자가보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비만율(자가보고)은 특별시의 구에서 30.2%로 가장 낮게, 일반 군에서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6.6%p로 '24년 6.1%p 대비 0.5%p 증가하였다.

표 170.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7	5.8	5.2	-	4.0	5.0	5.3	6.9	6.1	6.6
특별시의 구	25.5	25.5	28.6	-	28.5	29.2	30.2	28.8	31.0	30.2
광역시의 구	26.9	27.6	30.3	-	30.9	31.3	31.6	32.4	32.9	33.8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28.1	28.9	31.9	-	31.0	31.0	32.3	33.8	34.8	35.2
도농복합형태의 시	28.4	29.3	31.7	-	31.2	32.4	33.1	33.8	34.8	36.2
일반 군	29.2	29.2	32.8	-	32.5	33.6	34.1	35.2	35.7	36.8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28.5	31.3	33.8	-	32.5	34.1	35.5	35.7	37.1	36.6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비만율(자가보고)은 수도권 지역 33.1%, 비수도권 지역 34.2%로 수도권 지역에서 1.2%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71.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4	0.5	0.7	-	0.2	0.3	0.8	1.1	1.0	1.2
수도권	26.8	27.3	30.0	-	30.6	31.0	31.3	31.6	32.6	33.1
비수도권	27.2	27.8	30.7	-	30.5	31.3	32.2	32.7	33.6	34.2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비만율(자가보고)은 중부 지역 33.3%, 남부 지역 34.2%로 중부 지역에서 0.8%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72.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2	0.0	0.1	-	0.3	0.1	0.7	0.8	0.7	0.8
중부	27.1	27.6	30.4	-	30.6	31.1	31.4	31.8	32.8	33.3
경기지방	26.8	27.3	30.0	-	30.6	31.0	31.3	31.6	32.6	33.1
영동지방	30.9	31.1	33.7	-	34.3	33.2	35.1	34.4	38.3	37.9
영서지방	30.9	32.1	34.6	-	31.7	35.0	35.0	35.2	34.6	37.1
호서지방	27.4	27.9	31.3	-	30.3	30.9	31.3	32.4	33.2	33.8
남부	26.8	27.5	30.3	-	30.4	31.2	32.2	32.6	33.5	34.2
호남지방	27.6	28.0	31.5	-	30.0	32.0	32.8	32.5	33.8	34.1
영남지방	26.5	27.3	29.7	-	30.3	30.7	31.7	32.5	33.3	34.0
제주지방	28.2	29.5	32.6	-	35.0	36.0	36.5	36.1	36.8	37.3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비만율(자가보고)은 동 지역 32.9%, 읍·면 지역 37.5%로 동 지역에서 4.7%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173.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비만율(자가보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5	3.0	2.8	-	2.7	2.8	2.8	4.4	4.0	4.7
동	26.6	27.1	29.9	-	30.1	30.7	31.3	31.4	32.5	32.9
읍·면	29.1	30.1	32.7	-	32.8	33.6	34.1	35.8	36.4	37.5

14.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전국 결과

- ◆ '25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68.5%로 '24년 65.0%에 비해 3.5%p 증가하였다.

표 174. 2016-2025 전국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9.0	62.8	58.9	64.6	65.8	65.5	65.4	66.9	65.0	68.5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서울에서 74.5%로 가장 높게, 전남, 경북에서 6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7.1%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없었다.

표 175. 2016-2025 시·도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63.8	67.3	63.5	69.5	71.8	72.0	70.8	72.2	69.8	74.5
부산	60.1	66.1	62.0	64.1	68.2	67.0	67.1	69.3	64.3	69.7
대구	64.6	61.0	55.4	64.4	67.9	67.2	64.6	66.8	66.4	69.8
인천	62.4	64.6	63.9	66.0	68.6	67.1	63.7	68.8	66.2	70.1
광주	61.1	63.8	60.4	65.0	64.5	69.4	68.7	65.1	63.9	71.0
대전	60.2	67.1	66.3	69.8	69.6	71.7	70.5	71.9	64.8	71.0
울산	61.4	68.2	62.3	64.5	68.0	66.1	68.8	70.1	68.3	70.1
세종	63.3	68.8	60.7	66.3	63.9	66.5	67.2	73.5	66.5	72.3
경기	60.2	64.9	61.4	66.3	67.6	67.1	66.8	68.3	66.0	69.2
강원	58.5	64.1	63.7	64.0	65.9	64.4	66.2	68.0	67.5	72.7
충북	57.4	60.7	54.5	64.6	65.0	66.2	65.1	65.6	66.4	68.7
충남	61.9	64.0	55.1	61.8	66.1	65.4	63.7	65.2	64.8	69.3
전북	57.6	61.0	57.1	68.1	63.4	66.7	65.9	66.6	60.3	66.9
전남	57.0	62.2	55.4	56.3	61.3	63.9	62.9	63.3	63.9	64.7
경북	56.4	59.8	57.8	63.9	62.8	62.3	63.6	65.6	62.1	64.7
경남	59.8	61.5	60.2	64.1	65.9	64.5	66.0	65.4	66.6	67.3
제주	61.4	54.0	62.4	61.7	74.6	68.9	66.1	62.7	65.3	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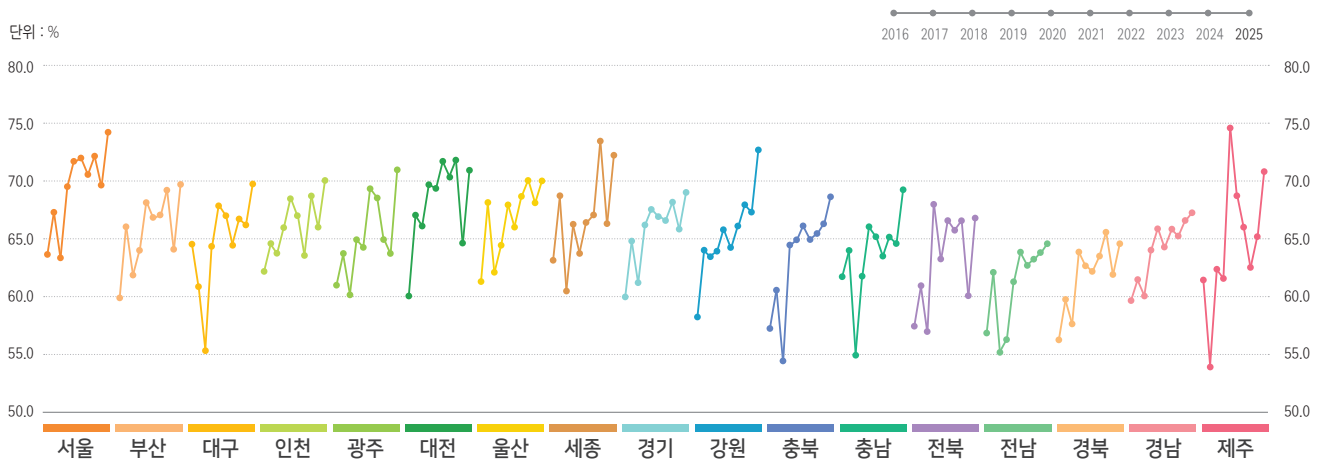


그림 75. 2016-2025 시·도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 ◆ 전년 대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광주(7.1%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강원(14.2%p)이었다.

표 176.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7 (100.0)		-		17 (100.0)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광주	7.1	-	-	강원	14.2	-	-
	2위	전북	6.6	-	-	충북	11.3	-	-
	3위	대전	6.2	-	-	대전	10.8	-	-
	4위	세종	5.8	-	-	서울	10.7	-	-
	5위	제주	5.6	-	-	광주	9.9	-	-

- ◆ '25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의 시·도 간 격차는 9.8%p이며, '24년 9.5%p 대비 0.3%p 증가하였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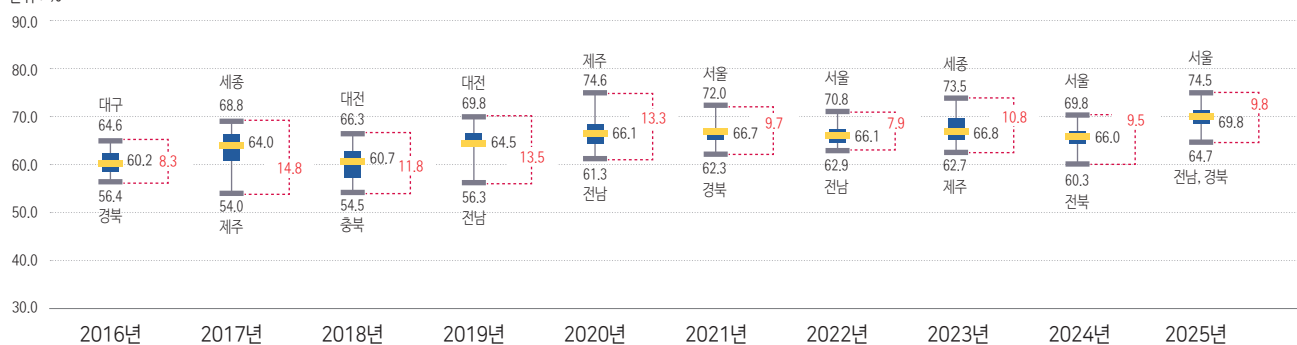


그림 76. 2016-2025 시·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서울 중구에서 81.8%로 가장 높게, 경북 문경시에서 4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77. 2025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서울 중구 81.8	경북 문경시 49.8
2위	대전 유성구 80.9	전북 진안군 50.1
3위	서울 송파구 79.9	전남 함평군 51.5
4위	서울 강동구 79.3	경북 상주시 53.0
5위	서울 노원구 79.0	전북 순창군 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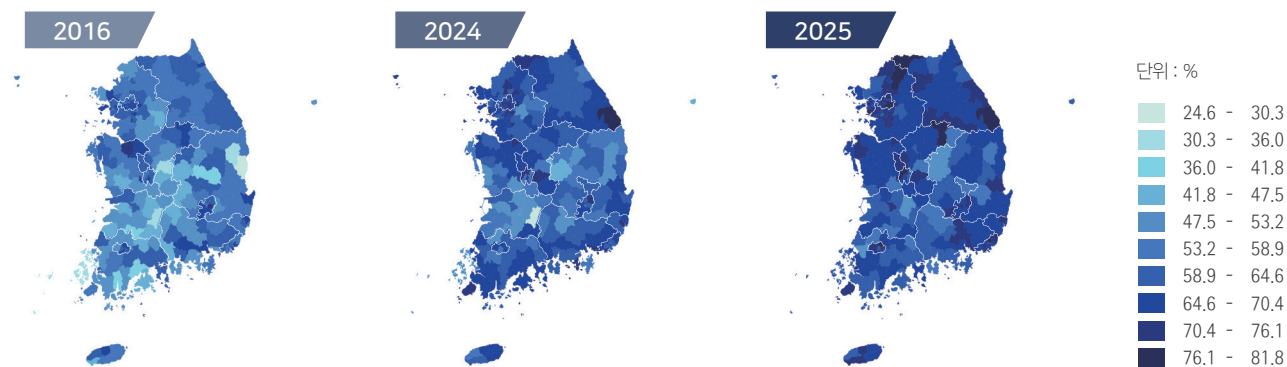


그림 77. 시·군·구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96개로 전체의 76.0%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전북 장수군(35.5%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41개로 전체의 95.6%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북 영덕군(43.5%p)이었다.

표 178.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96	(76.0)	58	(22.5)	241	(95.6)	11	(4.4)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북 장수군	35.5	경남 통영시	12.0	경북 영덕군	43.5	경북 문경시	11.6
	2위	부산 중구	18.2	전남 해남군	10.2	경북 의성군	31.1	경기 김포시	5.1
	3위	경북 울릉군	17.4	전남 함평군	9.1	전북 장수군	28.7	경북 구미시 구미	2.5
	4위	광주 남구	15.3	전남 영광군	7.1	전남 보성군	27.1	전남 광양시	2.4
	5위	충남 보령시	14.8	경남 남해군	6.6	충북 옥천군	26.8	광주 서구	1.6

- ◆ '25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32.0%p이며, '24년 48.6%p 대비 16.6%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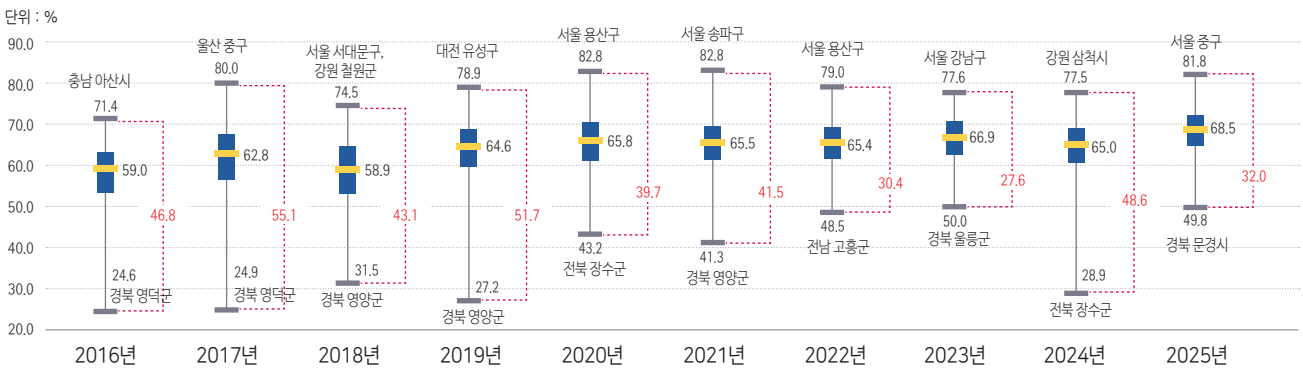


그림 78. 2016-2025 시·군·구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08), 가장 큰 지역은 경북(1.44)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0.86),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북(0.1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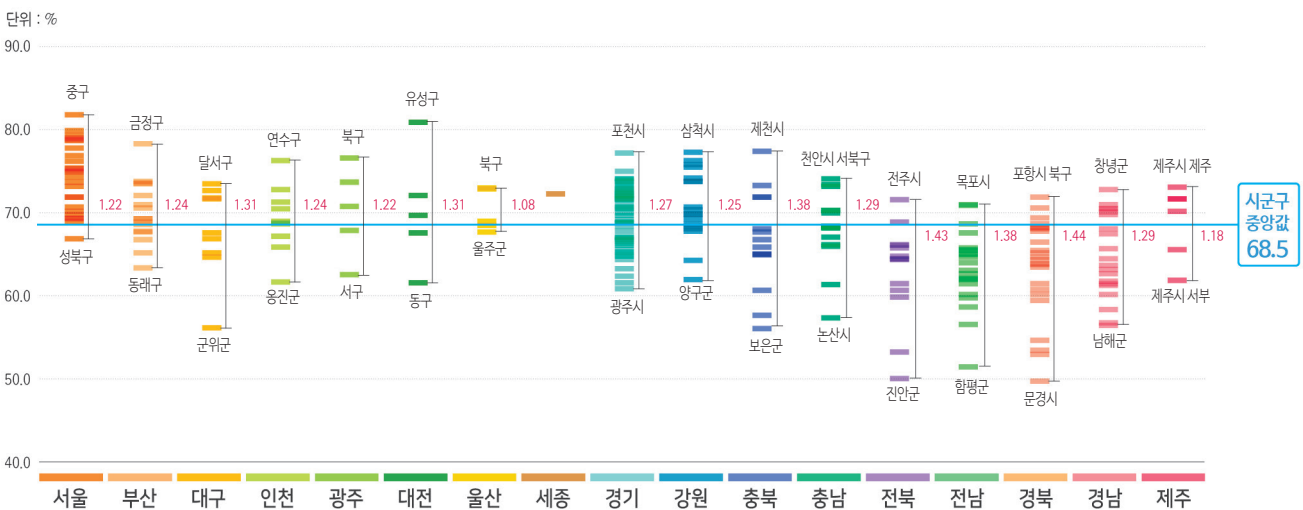


그림 7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4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특별시의 구에서 74.5%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6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9.5%p로 '24년 12.6%p 대비 3.1%p 감소하였다.

표 179.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2.8	13.0	13.5	15.0	13.6	12.7	12.1	11.4	12.6	9.5
특별시의 구	63.8	67.3	63.5	69.5	71.8	72.0	70.8	72.2	69.8	74.5
광역시의 구	61.5	65.0	61.6	66.1	67.9	67.7	66.8	68.4	66.2	69.8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61.6	66.9	64.0	64.2	70.2	67.8	65.4	68.1	66.6	70.5
도농복합형태의 시	58.4	61.6	58.0	63.8	64.7	64.3	65.3	65.8	63.6	67.4
일반 군	53.7	57.2	54.0	59.3	60.8	62.0	63.3	64.1	62.0	65.6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51.0	54.3	50.5	54.5	58.1	59.3	58.7	60.8	57.2	65.0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수도권 지역 71.3%, 비수도권 지역 68.7%로 수도권 지역에서 2.6%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80.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2	3.1	3.4	3.6	3.4	3.0	2.1	3.1	2.6	2.6
수도권	61.9	65.9	62.5	67.5	69.3	68.9	67.9	69.8	67.4	71.3
비수도권	59.7	62.8	59.1	63.9	65.9	66.0	65.8	66.7	64.8	68.7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중부 지역 71.1%, 남부 지역 68.0%로 중부 지역에서 3.1%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81.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7	3.1	2.9	3.2	3.0	2.7	1.8	3.0	2.6	3.1
중부	61.4	65.4	61.8	66.8	68.6	68.4	67.5	69.3	67.1	71.1
경기지방	61.9	65.9	62.5	67.5	69.3	68.9	67.9	69.8	67.4	71.3
영동지방	62.3	67.7	65.4	67.2	68.0	66.1	67.2	68.7	68.1	72.1
영서지방	56.5	62.0	62.7	62.2	64.8	63.4	65.6	67.6	67.2	73.0
호서지방	60.0	64.0	58.2	64.9	66.5	67.3	66.0	67.6	65.2	69.7
남부	59.7	62.3	59.0	63.7	65.7	65.7	65.7	66.3	64.4	68.0
호남지방	58.2	61.9	57.3	62.8	62.7	66.3	65.6	64.8	62.5	67.2
영남지방	60.2	62.8	59.5	64.1	66.4	65.4	65.8	67.1	65.2	68.1
제주지방	61.4	54.0	62.4	61.7	74.6	68.9	66.1	62.7	65.3	70.9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동 지역 71.0%, 읍·면 지역 65.8%로 동 지역에서 5.1%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82.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1	5.8	6.0	6.0	5.3	5.6	3.9	3.6	3.8	5.1
동	62.0	65.5	62.0	66.9	68.7	68.6	67.7	69.0	66.9	71.0
읍·면	55.9	59.7	56.0	60.9	63.4	63.0	63.8	65.4	63.1	65.8

15. 아침식사 실천율^[30]

전국 결과

- ◆ '25년 아침식사 실천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47.3%로 '24년 47.5%에 비해 0.2%p 감소하였다.

표 183. 2019-2025 전국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3.4	51.5	50.0	48.0	47.0	47.5	47.3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아침식사 실천율은 부산에서 49.2%로 가장 높게, 울산에서 4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아침식사 실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3.4%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구(2.7%p)이었다.

표 184. 2019-2025 시·도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50.1	49.4	47.7	45.8	45.0	44.9	44.9
부산	54.8	51.6	50.5	49.7	48.9	49.5	49.2
대구	54.0	52.7	49.1	46.0	46.0	49.1	46.4
인천	49.1	48.9	49.8	47.1	50.1	48.8	48.5
광주	48.2	47.1	47.1	45.7	47.4	47.5	49.0
대전	52.1	47.7	44.4	44.4	42.2	43.8	44.4
울산	51.0	48.7	48.0	46.2	46.9	44.5	43.2
세종	54.4	50.6	48.7	48.1	47.5	45.0	48.4
경기	50.2	47.4	47.3	46.0	45.2	46.0	45.7
강원	53.4	51.3	49.1	45.4	46.9	44.4	44.4
충북	52.2	51.3	47.7	47.4	47.0	46.0	45.4
충남	51.8	50.6	47.7	46.4	47.0	46.8	45.9
전북	50.8	49.0	48.3	44.9	44.3	44.0	45.7
전남	56.0	53.4	50.7	49.3	48.4	48.8	48.1
경북	51.6	52.6	50.4	48.7	47.0	47.4	47.5
경남	54.9	53.9	52.4	49.9	51.3	49.0	48.7
제주	47.9	49.3	47.3	46.3	44.4	44.8	46.9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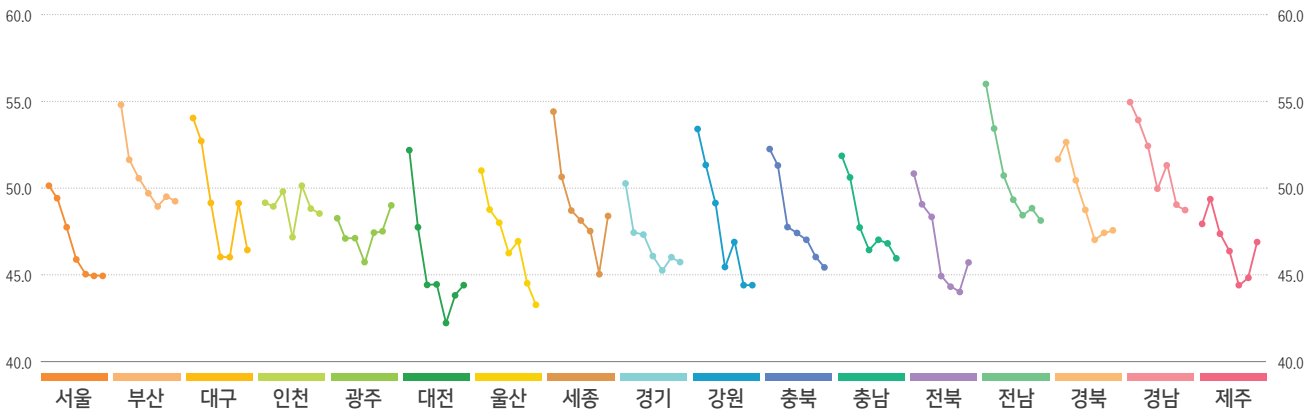


그림 80. 2019-2025 시·도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30] '19년 문항 변경으로 이전 연도 결과 미제시, '22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아침결식 예방인구비율')

- ◆ 전년 대비 아침식사 실천율이 증가한 시·도는 6개로 전체의 35.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3.4%p)이었다.
- ◆ 6년 전 대비 증가한 시·도는 1개로 전체의 5.9%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광주(0.8%p)이었다.

표 185. 아침식사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6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6 (35.3)		9 (52.9)		1 (5.9)		16 (94.1)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3.4	대구	2.7	광주	0.8	강원	9.0
	2위	제주	2.1	울산	1.3	-	-	전남	7.9
	3위	전북	1.7	충남	0.9	-	-	울산	7.8
	4위	광주	1.5	전남	0.7	-	-	대전	7.7
	5위	대전	0.6	충북	0.6	-	-	대구	7.6

- ◆ '25년 아침식사 실천율의 시·도 간 격차는 6.0%p이며, '24년 5.7%p 대비 0.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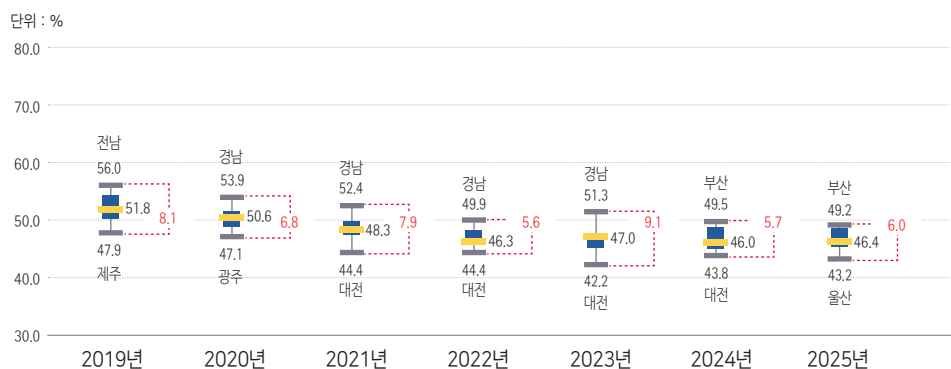


그림 81. 2019-2025 시·도 아침식사 실천율 분포

- ◆ '25년 시·군·구별 아침식사 실천율은 인천 강화군에서 67.3%로 가장 높게, 충북 진천군에서 3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86. 2025년 아침식사 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인천 강화군	67.3	충북 진천군	36.0
2위	경남 의령군	63.2	경북 울릉군	36.8
3위	경북 영덕군	62.0	대전 중구	36.9
4위	전남 담양군	61.2	대전 동구	37.5
5위	인천 동구	60.1	경기 연천군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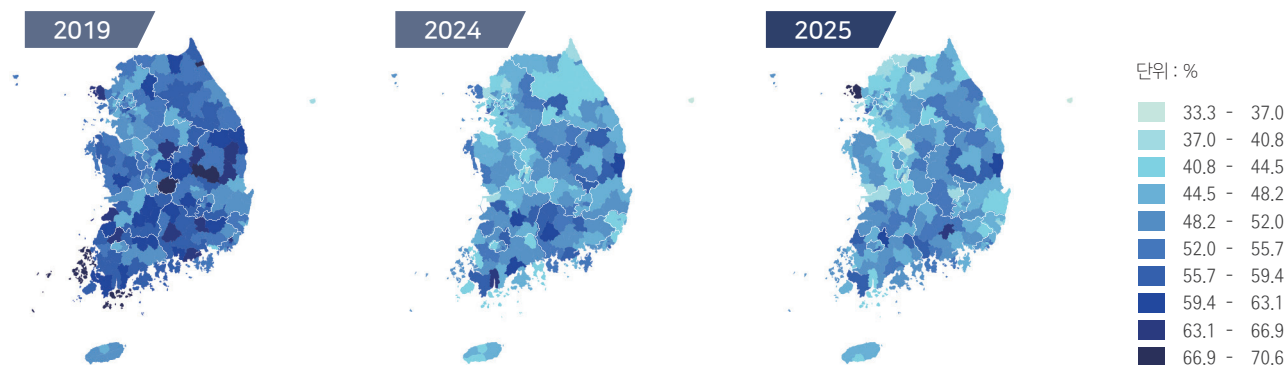


그림 82. 시·군·구별 아침식사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9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아침식사 실천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17개로 전체의 45.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인천 강화군(14.8%p)이었다.
- ◆ 6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30개로 전체의 11.8%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인천 동구(11.2%p)이었다.

표 187. 아침식사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6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17	(45.3)	137	(53.1)	30	(11.8)	224	(88.2)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인천 강화군	14.8	전남 강진군	21.8	인천 동구	11.2	강원 속초시	25.1
	2위	대전 대덕구, 전남 구례군	13.8	충북 진천군	11.5	경북 영덕군	8.0	전남 완도군	24.8
	3위	경남 의령군	12.2	강원 동해시	11.2	인천 부평구	6.6	충북 영동군	21.3
	4위	전남 영광군	10.4	경남 함양군	9.9	경남 의령군	6.4	전남 신안군	18.0
	5위	전남 영광군	10.4	경남 고성군	8.6	경기 의정부시	6.2	전북 부안군	16.6

- ◆ '25년 아침식사 실천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31.3%p이며, '24년 31.1%p 대비 0.2%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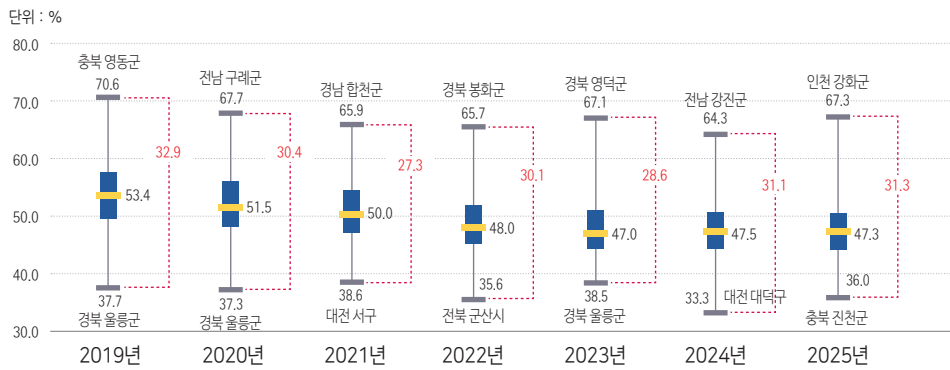


그림 83. 2019-2025 시·군·구 아침식사 실천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아침식사 실천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12), 가장 큰 지역은 경북(1.68)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0.25),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인천(0.2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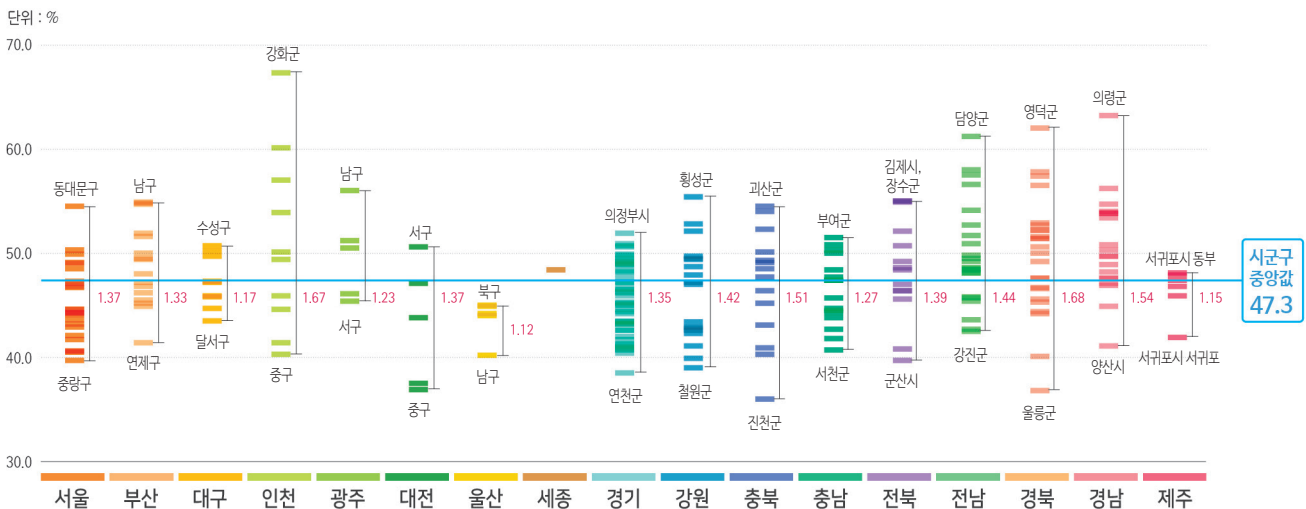


그림 8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아침식사 실천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아침식사 실천율은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48.8%로 가장 높고,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서 4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4.9%p로 '24년과 동일하였다.

표 188. 2019-2025 6개 도시유형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8.0	9.0	9.5	4.5	4.3	4.9	4.9
특별시의 구	50.1	49.4	47.7	45.8	45.0	44.9	44.9
광역시의 구	50.9	48.7	47.8	46.1	46.4	46.5	46.5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51.5	49.5	47.4	47.0	47.9	48.4	43.9
도농복합형태의 시	52.2	51.7	49.6	48.6	46.9	47.1	46.5
일반 군	56.7	54.5	52.4	50.2	48.9	49.1	48.5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58.2	57.7	56.9	50.3	49.2	49.8	48.8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아침식사 실천율은 수도권 지역 45.7%, 비수도권 지역 47.0%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1.3%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89. 2019-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8	2.9	1.5	1.4	1.6	1.3	1.3
수도권	50.0	48.3	47.7	46.1	45.7	45.9	45.7
비수도권	52.8	51.2	49.2	47.5	47.3	47.2	47.0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아침식사 실천율은 중부 지역 45.7%, 남부 지역 47.7%로 남부 지역에서 2.0%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90. 2019-2025 중부·남부 지역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5	2.9	2.2	1.9	2.0	2.1	2.0
중부	50.5	48.7	47.7	46.1	45.8	45.8	45.7
경기지방	50.0	48.3	47.7	46.1	45.7	45.9	45.7
영동지방	54.8	53.8	51.6	47.7	48.2	46.3	47.1
영서지방	52.8	50.0	47.9	44.2	46.2	43.4	43.0
호서지방	52.1	50.0	46.9	46.3	45.7	45.7	45.5
남부	53.0	51.6	49.9	48.0	47.8	47.9	47.7
호남지방	51.8	50.0	48.7	46.7	46.7	46.8	47.6
영남지방	53.8	52.4	50.5	48.6	48.4	48.5	47.7
제주지방	47.9	49.3	47.3	46.3	44.4	44.8	46.9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아침식사 실천율은 동 지역 46.1%, 읍·면 지역 47.0%로 읍·면 지역에서 0.9%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91. 2019-2025 동·읍·면 지역별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9	3.4	2.9	3.1	1.8	1.9	0.9
동	50.7	49.1	47.9	46.2	46.1	46.2	46.1
읍·면	54.6	52.5	50.8	49.3	47.9	48.1	47.0

16. 영양표시 활용률

전국 결과

- ◆ '25년 영양표시 활용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87.1%로 '24년 86.0%에 비해 1.1%p 증가하였다.

표 192. 2016-2025 전국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0.7	80.5	79.5	81.1	83.2	84.5	84.6	85.6	86.0	87.1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영양표시 활용률은 제주에서 92.1%로 가장 높게, 경남에서 8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영양표시 활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5.7%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남(1.9%p)이었다.

표 193. 2016-2025 시·도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84.1	84.1	85.8	84.7	86.1	85.0	88.2	88.5	87.9	88.9
부산	79.5	82.0	80.9	80.4	84.0	85.5	85.2	88.5	87.8	87.5
대구	80.7	81.9	80.3	82.1	85.9	86.7	86.6	86.4	87.6	87.4
인천	80.7	78.0	75.9	80.3	82.6	82.3	83.6	85.3	86.2	85.6
광주	80.3	80.6	76.3	78.0	77.5	80.4	82.1	85.1	84.5	88.0
대전	84.9	84.8	86.2	88.1	89.3	86.2	86.5	86.2	85.0	88.7
울산	80.1	82.4	83.0	80.8	83.7	83.2	80.7	82.4	85.6	86.8
세종	81.0	79.6	89.3	81.0	90.7	86.4	86.2	88.1	84.4	90.1
경기	82.5	81.0	82.1	81.4	83.6	85.2	85.4	86.1	86.5	87.4
강원	80.7	80.9	82.6	85.0	83.6	81.2	82.3	86.0	85.6	88.6
충북	81.4	83.0	79.5	81.7	82.2	83.6	84.3	87.1	87.9	91.1
충남	80.8	79.6	82.4	79.4	81.2	85.8	85.0	84.9	87.0	85.8
전북	81.0	80.6	74.8	81.5	82.8	83.8	82.3	86.3	82.6	86.0
전남	81.2	78.2	73.9	77.0	81.7	84.5	84.0	83.7	84.7	86.0
경북	80.5	78.7	75.6	80.0	79.3	82.2	80.0	84.4	85.3	86.3
경남	77.4	76.9	81.0	81.2	83.1	84.5	84.1	83.7	86.7	84.8
제주	80.0	75.0	79.4	82.9	87.3	89.7	88.5	85.5	87.4	92.1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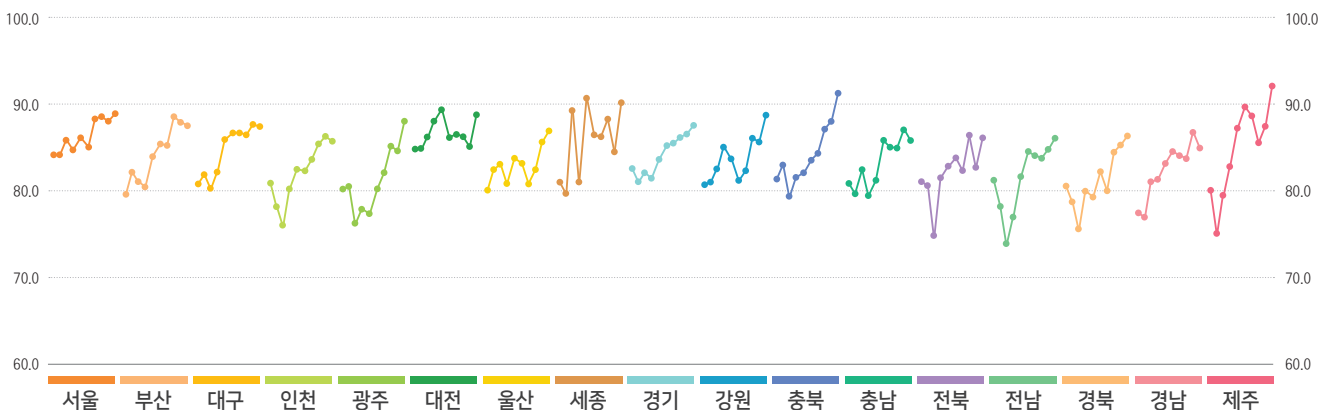


그림 85. 2016-2025 시·도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 ◆ 전년 대비 영양표시 활용률이 증가한 시·도는 12개로 전체의 70.6%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5.7%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12.1%p)이었다.

표 194. 영양표시 활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2 (70.6)		5 (29.4)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5.7	경남	1.9	제주	12.1	-	-
	2위	제주	4.7	충남	1.2	충북	9.7	-	-
	3위	대전	3.7	인천	0.6	세종	9.1	-	-
	4위	광주	3.5	부산	0.3	부산	8.0	-	-
	5위	전북	3.4	대구	0.2	강원	7.9	-	-

- ◆ '25년 영양표시 활용률의 시·도 간 격차는 7.3%p이며, '24년 5.3%p 대비 2.0%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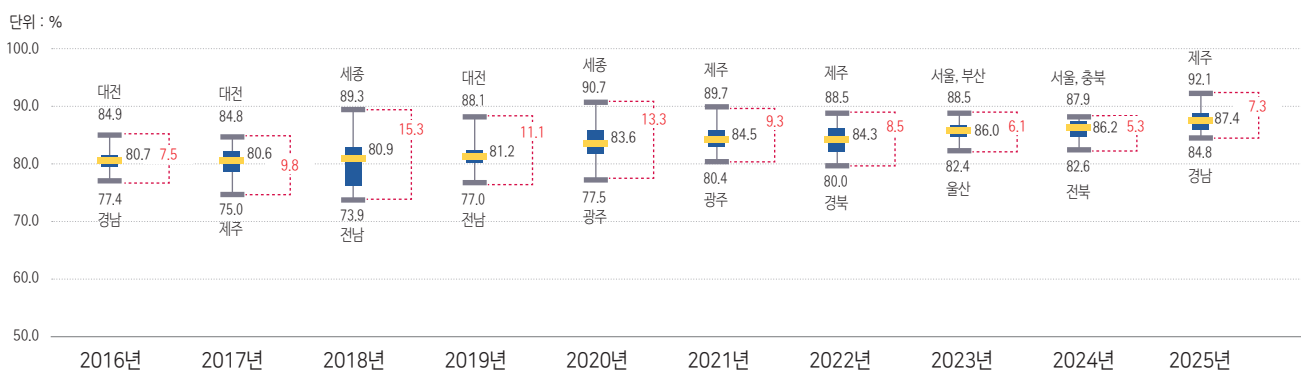


그림 86. 2016-2025 시·도 영양표시 활용률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영양표시 활용률은 경북 예천군에서 96.9%로 가장 높게, 전남 고흥군에서 6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95. 2025년 영양표시 활용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북 예천군	96.9	전남 고흥군	64.4
2위	충북 청주시 상당구	96.8	경남 의령군	70.4
3위	광주 동구	96.6	전북 장수군	70.6
4위	제주 제주시 제주	95.9	경북 영덕군	71.5
5위	경기 과천시	95.5	대구 남구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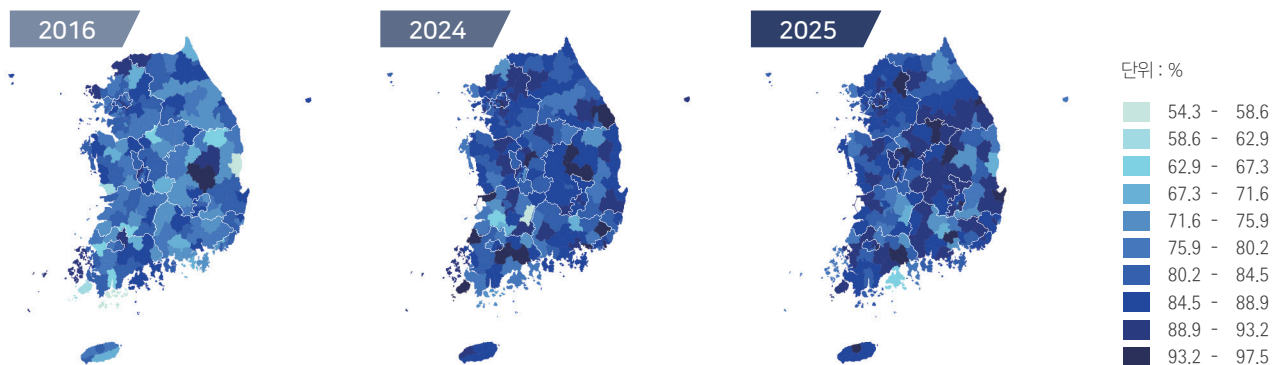


그림 87. 시·군·구별 영양표시 활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영양표시 활용률이 증가한 시·군·구는 151개로 전체의 58.5%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전북 김제시(19.5%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11개로 전체의 83.7%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충북 음성군(29.3%p)이었다.

표 196. 영양표시 활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51	(58.5)	106	(41.1)	211	(83.7)	41	(16.3)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북 김제시	19.5	전남 영광군	17.9	충북 음성군	29.3	전남 고흥군	20.2
	2위	전북 정읍시	16.9	경남 창원시 마산	16.7	경북 예천군	28.0	경북 안동시	17.3
	3위	경남 하동군	14.1	경남 의령군	15.6	전남 진도군	27.9	전북 장수군	16.3
	4위	전북 장수군	13.7	경북 영덕군	14.6	충남 서천군	27.3	강원 인제군, 전남 담양군	12.7
	5위	대전 서구, 충북 단양군	12.4	경북 울릉군	14.3	전남 완도군	26.3		

- ◆ '25년 영양표시 활용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32.6%p이며, '24년 40.6%p 대비 8.0%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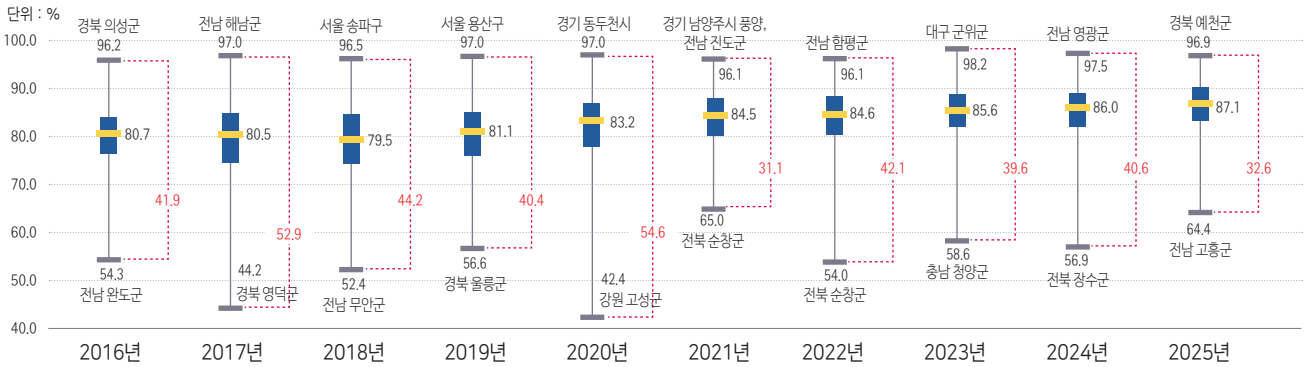


그림 88. 2016-2025 시·군·구 영양표시 활용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영양표시 활용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부산(1.07), 가장 큰 지역은 전남(1.48)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0.36),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0.1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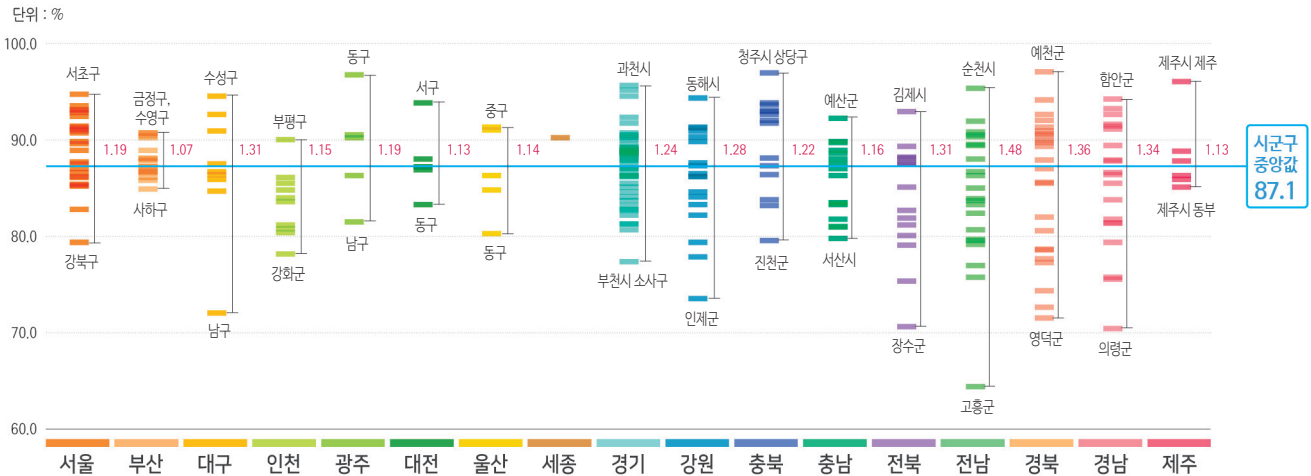


그림 8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영양표시 활용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영양표시 활용률은 특별시의 구에서 88.9%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8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4.0%p로 '24년 6.5%p 대비 2.5%p 감소하였다.

표 197.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5.6	9.2	8.5	7.5	7.5	2.7	10.9	6.4	6.5	4.0
특별시의 구	84.1	84.1	85.8	84.7	86.1	85.0	88.2	88.5	87.9	88.9
광역시의 구	81.5	80.8	80.5	81.4	83.7	85.0	84.8	85.9	86.6	87.4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81.2	82.9	81.1	79.5	78.5	83.7	82.5	84.1	83.9	88.3
도농복합형태의 시	79.2	78.8	80.8	81.8	83.0	83.9	84.3	86.2	86.4	86.5
일반 군	80.3	79.1	77.3	81.2	82.4	82.4	83.1	84.7	84.4	86.1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78.5	74.9	79.1	77.2	81.9	82.9	77.3	82.1	81.4	84.9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영양표시 활용률은 수도권 지역 87.8%, 비수도권 지역 87.3%로 수도권 지역에서 0.5%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98.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7	1.6	3.2	1.3	1.4	0.4	2.4	1.4	0.8	0.5
수도권	83.0	82.0	83.1	82.7	84.6	84.8	86.3	87.0	87.0	87.8
비수도권	80.3	80.4	79.9	81.4	83.2	84.4	84.0	85.6	86.2	87.3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영양표시 활용률은 중부 지역 87.9%, 남부 지역 86.8%로 중부 지역에서 1.2%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99.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0	2.1	4.2	2.3	1.7	0.4	2.3	1.4	0.7	1.2
중부	82.8	82.0	83.1	82.8	84.5	84.8	86.0	86.8	86.9	87.9
경기지방	83.0	82.0	83.1	82.7	84.6	84.8	86.3	87.0	87.0	87.8
영동지방	78.0	86.2	81.0	87.9	81.6	81.8	85.5	86.6	84.1	87.7
영서지방	82.1	78.1	83.3	83.1	84.7	81.0	81.0	85.7	86.4	89.1
호서지방	82.2	81.9	83.0	83.0	84.5	85.2	85.2	86.3	86.5	88.5
남부	79.8	79.9	78.9	80.6	82.8	84.4	83.7	85.4	86.2	86.8
호남지방	80.8	79.8	75.2	79.0	80.6	83.0	82.7	85.0	83.9	86.7
영남지방	79.4	80.1	80.1	81.0	83.3	84.6	83.8	85.5	86.9	86.5
제주지방	80.0	75.0	79.4	82.9	87.3	89.7	88.5	85.5	87.4	92.1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영양표시 활용률은 동 지역 87.8%, 읍·면 지역 86.1%로 동 지역에서 1.7%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00.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영양표시 활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9	4.3	2.8	1.0	2.2	1.6	1.9	1.9	0.8	1.7
동	82.1	81.9	82.0	82.2	84.3	84.9	85.5	86.7	86.8	87.8
읍·면	79.2	77.6	79.2	81.3	82.0	83.2	83.7	84.7	86.0	86.1

17. 스트레스 인지율

전국 결과

- ◆ '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23.9%로 '24년 23.7%에 비해 0.2%p 증가하였다.

표 201. 2016-2025 전국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8.0	26.9	26.4	25.2	26.2	26.2	23.9	25.7	23.7	23.9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북, 경북에서 21.7%로 가장 낮게, 서울에서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제주(4.0%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구(2.4%p)이었다.

표 202. 2016-2025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30.1	28.1	27.7	27.2	29.5	28.0	25.7	27.1	25.9	26.3
부산	27.0	25.8	24.4	23.7	25.8	25.7	22.8	23.9	22.6	22.2
대구	26.6	25.5	23.3	25.1	23.1	24.2	22.6	23.8	21.9	24.3
인천	30.5	28.6	31.7	29.9	32.8	29.5	26.3	27.0	25.5	25.6
광주	28.7	28.4	26.4	28.1	27.4	27.7	25.9	24.7	24.7	22.1
대전	31.5	25.6	27.9	25.2	23.9	24.0	24.5	28.3	25.4	24.4
울산	24.9	24.4	25.2	23.9	25.6	24.8	21.9	25.8	22.2	24.5
세종	25.0	29.5	30.1	29.2	24.1	25.5	20.1	25.8	23.8	24.7
경기	30.3	30.1	28.4	27.7	29.0	28.1	24.6	27.7	24.9	25.7
강원	26.6	28.9	27.0	24.9	28.3	28.3	25.5	27.2	24.4	24.7
충북	28.4	29.7	27.1	26.2	26.2	27.2	25.2	26.3	21.9	24.2
충남	29.3	30.8	26.9	29.7	27.5	27.0	25.4	27.7	24.6	24.2
전북	24.3	23.6	28.7	26.1	27.0	26.2	24.9	26.5	24.8	21.7
전남	25.5	25.4	25.4	24.2	21.7	23.7	21.5	25.6	21.9	22.3
경북	25.4	24.7	24.5	24.3	25.2	24.7	23.4	23.9	21.6	21.7
경남	25.6	22.3	25.0	24.0	26.4	24.9	23.1	24.5	20.5	21.9
제주	30.4	24.5	27.3	23.2	25.8	25.3	25.0	23.5	25.8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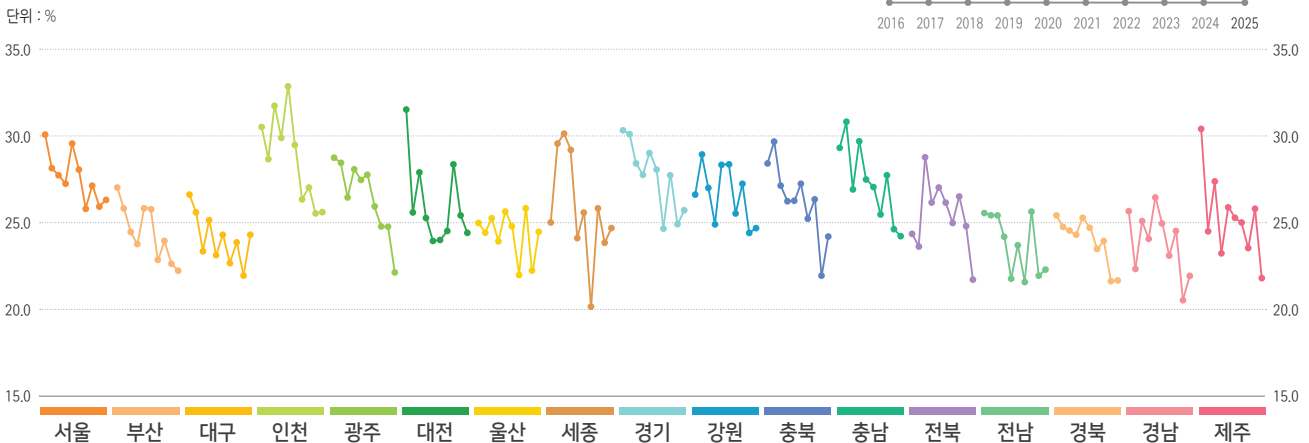


그림 90. 2016-2025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 ◆ 전년 대비 스트레스 인지율이 감소한 시·도는 6개로 전체의 35.3%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4.0%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8.6%p)이었다.

표 203. 스트레스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1 (64.7)		6 (35.3)		- (-)		1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대구	2.4	제주	4.0	-	-	제주	8.6
	2위	울산, 충북	2.3	전북	3.1	-	-	대전	7.1
	3위			광주	2.6	-	-	광주	6.6
	4위	경남	1.4	대전	1.0	-	-	충남	5.1
	5위	세종	0.9	부산, 충남	0.4	-	-	인천	4.9

- ◆ '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의 시·도 간 격차는 4.5%p이며, '24년 5.4%p 대비 0.9%p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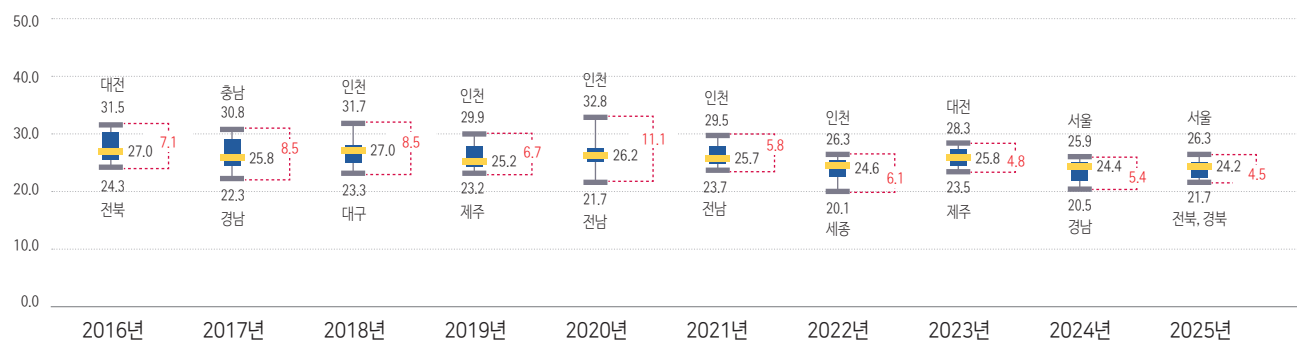


그림 91. 2016-2025 시·도 스트레스 인지율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스트레스 인지율은 경북 영덕군에서 12.8%로 가장 낮게, 대구 중구에서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04. 2025년 스트레스 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대구 중구 33.1	경북 영덕군 12.8
2위	서울 마포구 32.0	광주 남구 13.1
3위	전남 장흥군 30.5	서울 용산구 13.8
4위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30.4	전남 고흥군 14.4
5위		경북 의성군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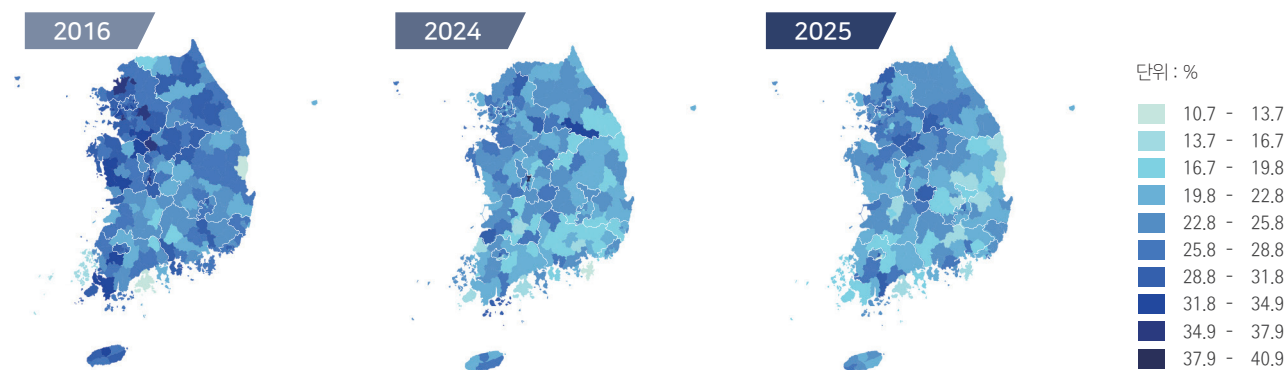


그림 92. 시·군·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스트레스 인지율이 감소한 시·군·구는 120개로 전체의 46.5%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대전 대덕구(13.1%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199개로 전체의 79.0%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16.3%p)이었다.

표 205. 스트레스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32	(51.2)	120	(46.5)	52	(20.6)	199	(79.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충북 청주시 서원구	9.1	대전 대덕구	13.1	충북 영동군	9.5	서울 용산구	16.3
	2위	전북 임실군	8.8	경북 영덕군	12.4	전남 장흥군	6.2	광주 남구	15.6
	3위	부산 영도구	8.4	강원 영월군	11.5	부산 서구, 강원 철원군	4.6	경남 창녕군	14.1
	4위	전남 목포시	8.2	경북 영천시	10.2	전남 신안군	4.4	경남 의령군	13.2
	5위	경북 문경시	7.7	전북 전주시	8.2			경북 의성군	13.1

- ◆ '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20.3%p이며, '24년 27.6%p 대비 7.3%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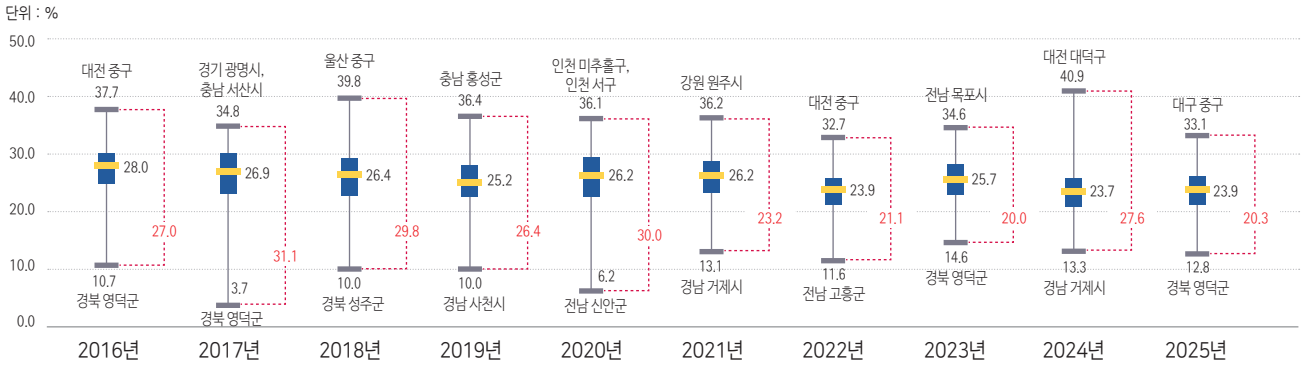


그림 93. 2016-2025 시·군·구 스트레스 인지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05), 가장 큰 지역은 서울(2.32)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전(0.83),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서울(0.5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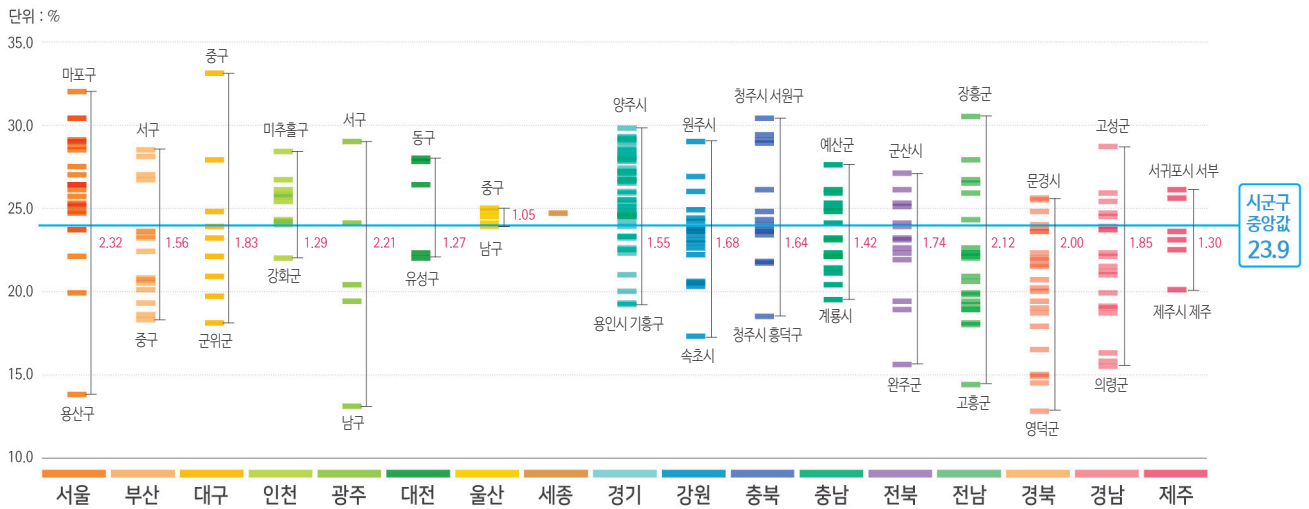


그림 9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스트레스 인지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일반 군에서 22.4%로 가장 낮게, 특별시의 구에서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3.9%p로 '24년 3.4%p 대비 0.5%p 증가하였다.

표 206.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4.7	3.5	7.4	5.7	5.8	4.0	3.1	3.0	3.4	3.9
특별시의 구	30.1	28.1	27.7	27.2	29.5	28.0	25.7	27.1	25.9	26.3
광역시의 구	28.7	27.8	27.7	27.0	28.2	27.2	24.5	26.5	24.0	24.3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28.9	28.2	29.2	24.4	26.2	26.6	24.7	27.3	23.6	25.5
도농복합형태의 시	27.1	27.1	25.5	25.3	25.5	26.0	23.6	25.8	23.2	23.5
일반 군	26.5	24.7	24.0	23.8	23.8	24.0	22.5	25.2	22.5	22.4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25.4	25.4	21.8	21.4	23.8	24.5	23.1	24.3	23.7	23.8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수도권 지역 25.9%, 비수도권 지역 23.0%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2.9%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07.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3	3.2	2.8	2.5	4.0	2.7	1.5	2.2	2.5	2.9
수도권	30.3	29.1	28.5	27.7	29.7	28.2	25.2	27.4	25.4	25.9
비수도권	26.9	25.9	25.8	25.3	25.6	25.5	23.7	25.3	22.9	23.0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중부 지역 25.6%, 남부 지역 22.5%로 남부 지역에서 3.1%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08.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8	4.3	3.1	3.0	3.7	2.7	1.9	2.8	2.7	3.1
중부	30.0	29.1	28.3	27.6	29.0	27.9	25.1	27.4	25.1	25.6
경기지방	30.3	29.1	28.5	27.7	29.7	28.2	25.2	27.4	25.4	25.9
영동지방	25.8	26.3	24.7	22.0	25.1	23.3	22.8	24.0	22.6	22.2
영서지방	27.0	30.4	28.2	26.5	30.0	30.9	26.9	28.8	25.3	26.0
호서지방	29.5	29.0	27.4	27.5	25.9	26.1	24.7	27.2	23.9	24.3
남부	26.2	24.8	25.2	24.6	25.3	25.2	23.3	24.5	22.4	22.5
호남지방	26.0	25.7	26.8	26.1	25.3	25.9	24.1	25.6	23.8	22.0
영남지방	26.1	24.5	24.4	24.2	25.3	24.9	22.8	24.2	21.7	22.6
제주지방	30.4	24.5	27.3	23.2	25.8	25.3	25.0	23.5	25.8	21.8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동 지역 24.7%, 읍·면 지역 24.0%로 읍·면 지역에서 0.7%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09.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7	1.1	2.2	2.8	2.3	0.7	1.1	0.3	0.7	0.7
동	28.9	27.7	27.5	27.0	28.1	27.0	24.7	26.5	24.3	24.7
읍·면	27.2	26.7	25.3	24.1	25.8	26.3	23.5	26.2	23.6	24.0

18. 연간 우울감 경험률^[31]

전국 결과

- ◆ '25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5.9%로 '24년 6.2%에 비해 0.3%p 감소하였다.

표 210. 2016-2025 전국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5	5.8	5.0	5.5	5.7	6.7	6.8	7.3	6.2	5.9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광주에서 3.4%로 가장 낮게, 서울, 충남에서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1.9%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구, 강원(0.6%p)이었다.

표 211. 2016-2025 시·도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6.9	7.1	4.9	6.5	6.3	6.8	7.1	8.3	7.3	7.0
부산	5.8	6.0	6.0	5.5	5.7	6.9	7.5	7.7	6.3	5.5
대구	4.9	4.6	3.4	5.4	5.4	5.8	6.1	6.7	5.4	6.0
인천	6.9	7.2	8.1	7.6	7.9	8.8	8.0	6.5	6.4	6.4
광주	4.6	5.4	4.5	5.4	4.5	6.3	6.3	7.0	5.0	3.4
대전	7.4	5.6	4.7	4.2	4.8	6.5	6.7	7.9	5.9	6.4
울산	3.8	4.4	4.8	5.4	5.5	6.3	7.8	8.6	7.2	6.6
세종	4.9	7.7	6.1	4.9	6.1	6.6	4.1	8.8	7.4	5.5
경기	6.5	6.9	6.2	6.5	6.3	7.1	7.1	7.7	6.9	6.6
강원	5.3	6.8	5.3	5.7	5.7	7.2	7.1	8.6	6.3	6.9
충북	5.8	5.7	5.7	6.4	5.9	7.3	7.8	7.5	6.5	5.9
충남	6.4	7.6	6.8	6.5	6.0	8.1	7.9	8.3	7.6	7.0
전북	5.9	6.4	8.7	6.7	4.8	7.6	7.8	9.4	6.1	6.2
전남	4.5	5.1	4.4	4.2	4.2	5.1	5.8	5.8	5.0	4.4
경북	5.8	5.1	5.3	6.5	6.1	6.0	6.8	7.5	6.8	5.4
경남	4.1	5.0	5.2	4.8	6.4	7.1	6.9	7.6	5.6	5.0
제주	6.6	6.4	4.5	4.6	4.3	5.8	5.7	5.1	4.9	3.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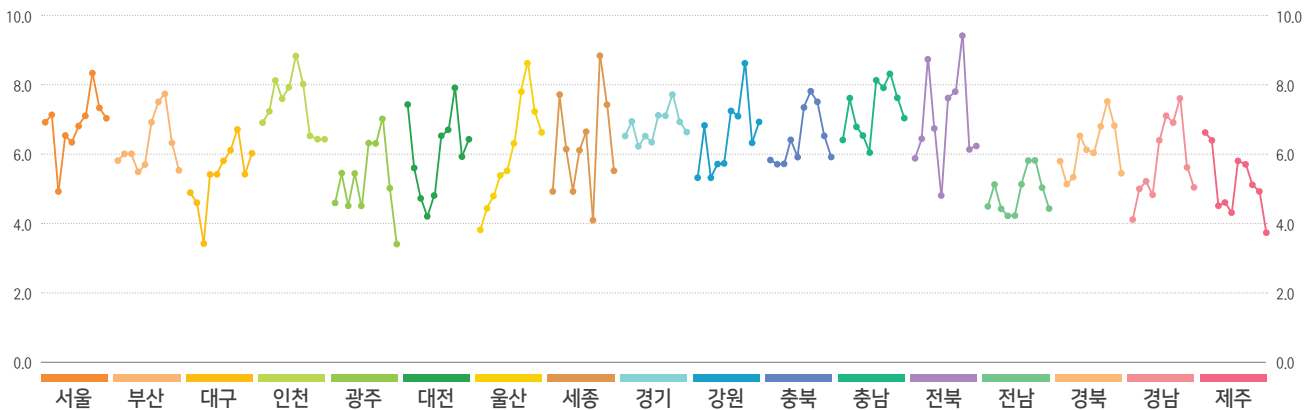


그림 95. 2016-2025 시·도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31] '25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우울감 경험률')

- ◆ 전년 대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도는 12개로 전체의 70.6%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1.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7개로 전체의 41.2%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2.9%p)이었다.

표 212. 연간 우울감 경험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4 (23.5)		12 (70.6)		10 (58.8)		7 (41.2)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대구, 강원 0.6		세종 1.9	울산 2.8	제주 2.9		
	2위	대전 0.5		광주 1.6	강원 1.6	광주 1.2		
	3위	전북 0.1		경북 1.4	대구 1.1	대전 1.0		
	4위	-		제주 1.2	경남 0.9	인천 0.5		
	5위	-		부산 0.8	세종, 충남 0.6	경북 0.4		

- ◆ '25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의 시·도 간 격차는 3.6%p이며, '24년 2.7%p 대비 0.9%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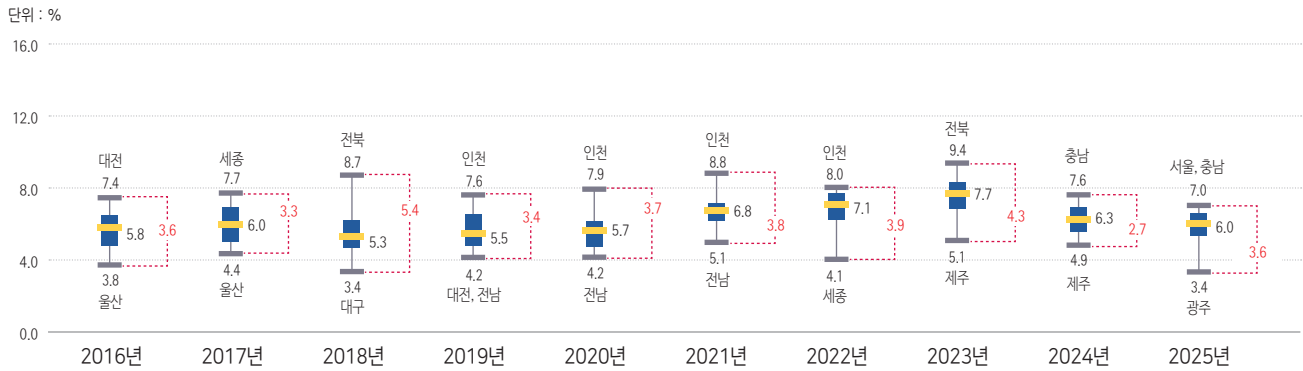


그림 96. 2016-2025 시·도 연간 우울감 경험률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경북 예천군, 경남 창녕군에서 1.1%로 가장 낮게, 충남 아산시에서 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3. 2025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충남 아산시	12.2	경북 예천군, 경남 창녕군	1.1
2위	경기 성남시 수정구	10.1	충남 청양군	1.2
3위	인천 서구	9.7	경북 상주시	1.5
4위	서울 관악구, 대전 중구, 강원 평창군	9.6	부산 중구, 경북 봉화군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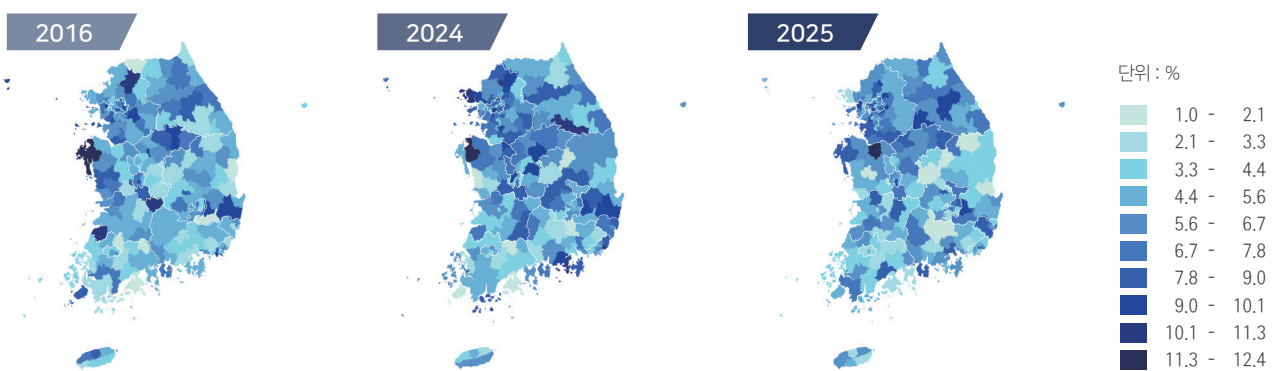


그림 97. 시·군·구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151개로 전체의 58.5%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인천 강화군(8.1%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122개로 전체의 48.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남 청양군(7.5%p)이었다.

표 214. 연간 우울감 경험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02		151		126		122		
시·군·구	(39.5)		(58.5)		(50.0)		(48.4)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충남 아산시	5.9	인천 강화군	8.1	충남 아산시	7.9	충남 청양군	7.5
	2위	강원 평창군	4.9	경북 구미시 선산, 경북 봉화군, 경북 영천시, 경남 통영시	4.8	경북 청도군	6.6	충남 계룡시	6.9
	3위	경남 창원시 마산	4.5			경남 창원시 마산	6.3	경기 광명시	6.8
	4위	인천 서구	4.4			전북 진안군	5.8	전북 무주군	6.7
	5위	전남 보성군	4.2	강원 원주시	5.2	인천 계양구	6.4		

- ◆ '25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11.0%p이며, '24년 10.4%p 대비 0.6%p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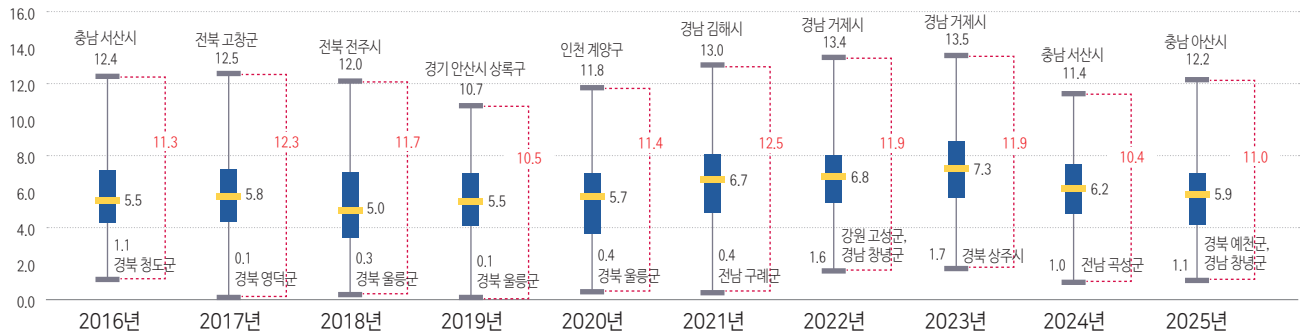


그림 98. 2016-2025 시·군·구 연간 우울감 경험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대전(1.85), 가장 큰 지역은 충남(10.17)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5.46),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남(4.17)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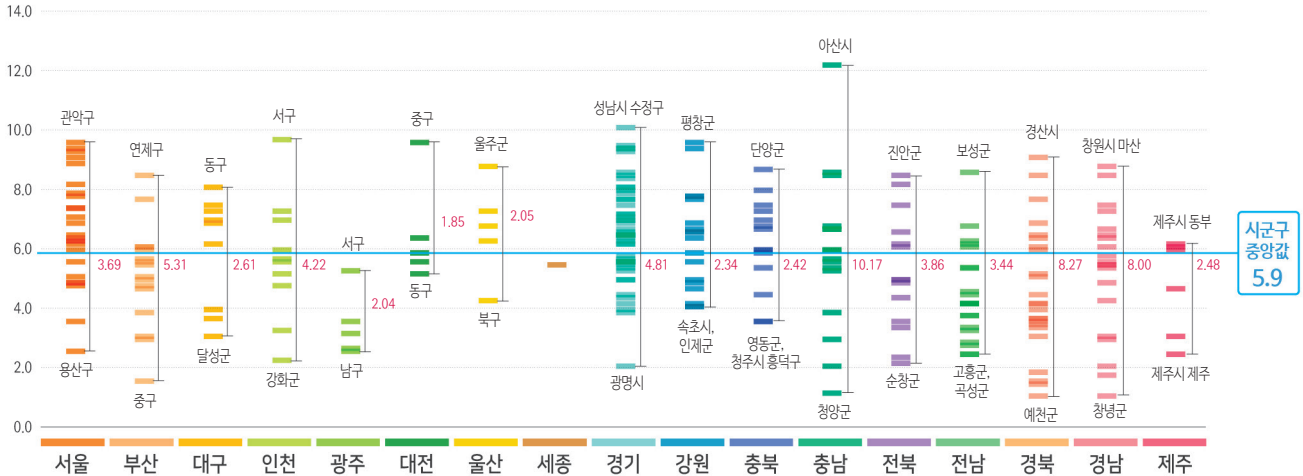


그림 9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우울감 경험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일반 군에서 5.2%로 가장 낮게, 특별시의 구에서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1.8%p로 '24년과 동일하였다.

표 215.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0	1.9	2.0	2.5	1.9	1.2	1.0	1.9	1.8	1.8
특별시의 구	6.9	7.1	4.9	6.5	6.3	6.8	7.1	8.3	7.3	7.0
광역시의 구	5.9	6.3	6.1	6.1	6.1	7.2	7.2	7.6	6.4	6.1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5.8	7.0	6.0	5.5	4.4	6.2	7.1	7.1	7.4	5.9
도농복합형태의 시	6.2	6.0	5.7	6.2	6.1	6.8	7.2	7.6	6.7	5.8
일반 군	4.9	5.2	4.5	4.9	5.1	5.9	6.3	7.1	5.6	5.2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5.9	5.9	4.1	3.9	4.6	6.0	6.2	6.4	5.6	5.4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수도권 지역 6.7%, 비수도권 지역 5.6%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1.1%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16.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3	1.3	0.5	1.1	1.0	0.5	0.3	0.2	0.9	1.1
수도권	6.7	7.0	5.9	6.6	6.5	7.2	7.2	7.8	7.0	6.7
비수도권	5.4	5.7	5.4	5.5	5.5	6.6	6.9	7.6	6.1	5.6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중부 지역 6.7%, 남부 지역 5.3%로 남부 지역에서 1.4%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17.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5	1.6	0.6	1.0	0.9	0.8	0.4	0.5	1.1	1.4
중부	6.6	6.9	5.9	6.4	6.3	7.2	7.2	7.9	7.0	6.7
경기지방	6.7	7.0	5.9	6.6	6.5	7.2	7.2	7.8	7.0	6.7
영동지방	6.2	7.0	5.6	6.0	5.0	5.7	6.8	6.9	6.3	5.9
영서지방	4.9	6.6	5.1	5.6	6.1	8.0	7.4	9.4	6.4	7.4
호서지방	6.4	6.5	5.8	5.8	5.6	7.3	7.3	8.0	6.8	6.4
남부	5.1	5.4	5.3	5.4	5.5	6.4	6.8	7.4	5.9	5.3
호남지방	5.0	5.6	6.0	5.4	4.5	6.3	6.6	7.4	5.3	4.7
영남지방	5.1	5.2	5.1	5.5	5.9	6.5	6.9	7.5	6.1	5.5
제주지방	6.6	6.4	4.5	4.6	4.3	5.8	5.7	5.1	4.9	3.7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동 지역 6.3%, 읍·면 지역 6.1%로 읍·면 지역에서 0.2%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18.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우울감 경험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5	0.6	0.4	0.7	0.3	0.6	0.4	0.2	0.3	0.2
동	6.1	6.5	5.8	6.2	6.1	7.0	7.2	7.7	6.6	6.3
읍·면	5.6	5.9	5.4	5.5	5.7	6.4	6.8	7.6	6.3	6.1

19. 우울증상유병률^[32]

전국 결과

- ◆ '25년 우울증상유병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3.4%로 '24년 3.5%에 비해 0.1%p 감소하였다.

표 219. 2017-2025 전국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7	2.8	2.7	2.6	3.1	3.5	3.4	3.5	3.4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우울증상유병률은 광주, 전북에서 2.3%로 가장 낮게, 울산에서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우울증상유병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2.1%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전(0.9%p)이었다.

표 220. 2017-2025 시·도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3.6	3.5	3.7	3.2	3.5	4.0	4.5	4.2	3.8
부산	2.8	3.5	2.7	2.6	3.0	4.1	4.2	4.0	3.0
대구	2.4	1.9	2.6	2.1	2.7	3.1	3.6	3.0	3.0
인천	3.8	4.8	3.5	3.7	3.8	4.7	4.6	5.1	4.2
광주	4.1	3.2	3.0	2.7	3.6	3.6	4.3	2.9	2.3
대전	3.0	2.1	2.1	2.0	3.1	3.5	2.9	3.3	4.2
울산	1.6	2.9	2.5	2.7	2.8	4.6	4.3	4.1	4.9
세종	2.8	3.6	2.3	4.1	2.4	1.6	5.2	5.8	3.7
경기	3.1	3.2	3.2	3.3	3.6	3.9	3.9	4.2	4.1
강원	3.0	2.9	3.8	3.4	3.6	3.9	3.9	4.2	4.0
충북	2.8	3.4	3.7	2.6	3.0	3.6	3.6	3.3	3.2
충남	5.2	4.3	3.6	2.4	4.0	4.8	5.1	4.8	4.4
전북	3.0	3.9	2.8	3.0	3.4	3.6	3.2	3.3	2.3
전남	2.6	2.7	2.6	2.0	2.1	2.8	3.1	3.1	3.4
경북	2.9	3.4	3.5	3.3	3.3	4.2	4.1	3.7	3.6
경남	2.1	2.8	2.6	2.8	3.6	4.3	3.6	3.3	3.0
제주	2.5	2.0	2.1	2.0	2.3	2.4	3.8	4.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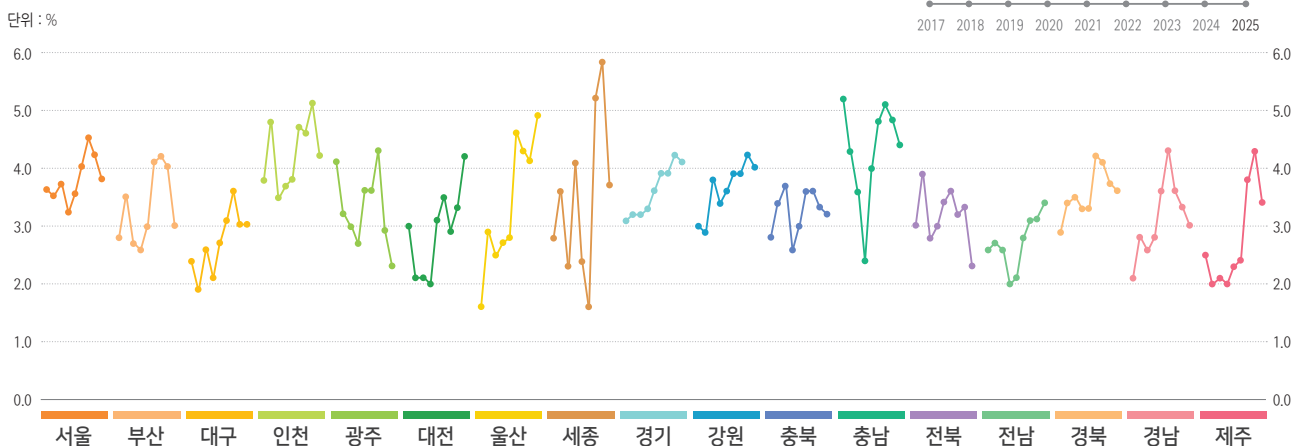


그림 100. 2017-2025 시·도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32] '17년 신규 도입

- ◆ 전년 대비 우울증상유병률이 감소한 시·도는 13개로 전체의 76.5%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2.1%p)이었다.
- ◆ 8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3개로 전체의 17.6%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광주(1.8%p)이었다.

표 221. 우울증상유병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8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3 (17.6)		13 (76.5)		14 (82.4)		3 (17.6)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대전	0.9	세종	2.1	울산	3.3	광주	1.8
	2위	울산	0.8	부산, 전북	1.0	대전	1.2	충남	0.8
	3위	전남	0.3			경기, 강원	1.0	전북	0.7
	4위	-	-	인천, 제주	0.9	-	-	-	-
	5위	-	-	-	-	세종	0.9	-	-

- ◆ '25년 우울증상유병률의 시·도 간 격차는 2.6%p이며, '24년 2.8%p 대비 0.2%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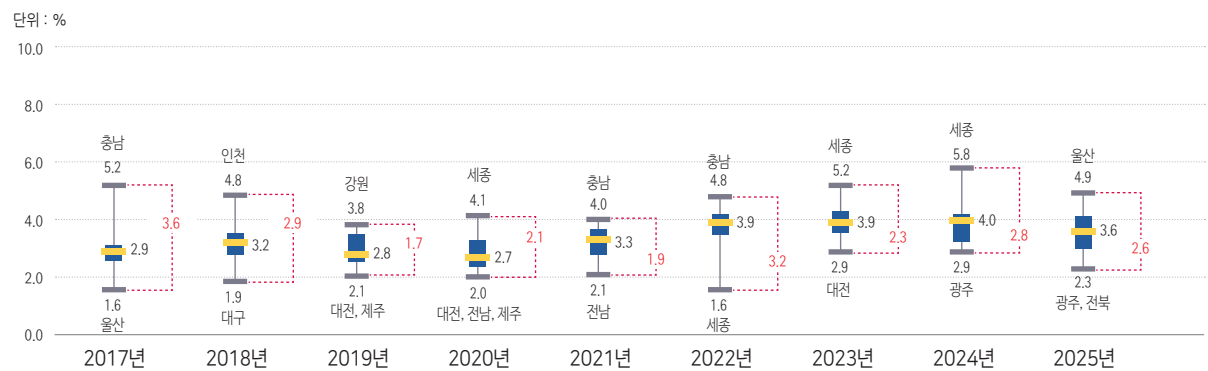


그림 101. 2017-2025 시·도 우울증상유병률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우울증상유병률은 경남 창녕군에서 0.3%로 가장 낮게,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2. 2025년 우울증상유병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기 안산시 상록구	7.7	경남 창녕군	0.3
2위	경남 남해군	7.4	경남 의령군	0.5
3위	경북 구미시 구미	7.3	경북 울진군	0.7
4위	인천 미추홀구	7.2	경북 예천군	0.8
5위	경기 성남시 수정구	6.2	경남 양산시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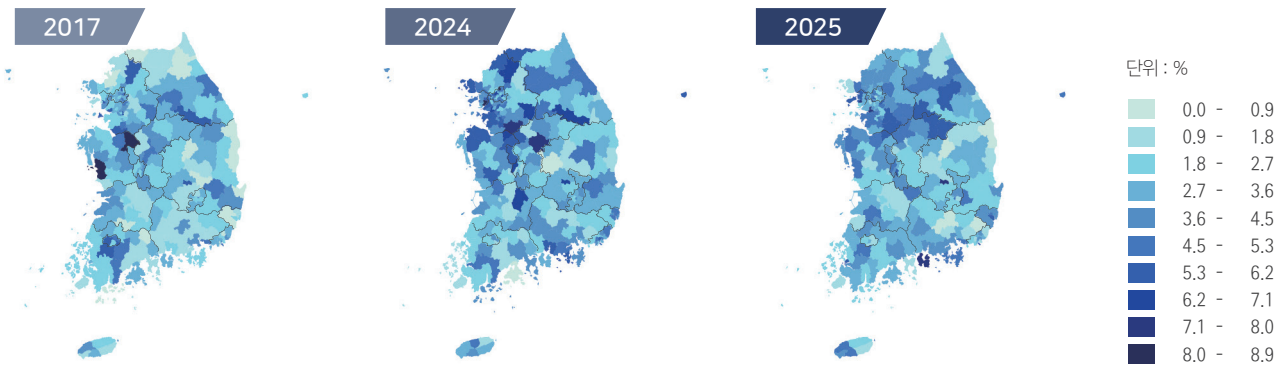


그림 102. 시·군·구별 우울증상유병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7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우울증상유병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143개로 전체의 55.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인천 남동구(5.5%p)이었다.
- ◆ 8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95개로 전체의 37.7%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4.6%p)이었다.

표 223. 우울증상유병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8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07 (41.5)		143 (55.4)		149 (59.1)		95 (37.7)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남 남해군	4.0	인천 남동구	5.5	경기 안산시 상록구	4.9	경남 의령군	4.6
	2위	서울 동작구	3.6	전북 진안군	5.0	인천 중구	4.8	광주 동구	4.2
	3위	충북 음성군	3.5	충북 괴산군	4.7	울산 중구,	4.0	충남 보령시	3.7
	4위	전남 목포시	3.2	인천 강화군	4.3	경남 남해군		광주 광산구,	3.2
	5위	강원 평창군	3.0	강원 영월군	3.9	충북 진천군	3.8	강원 영월군	

- ◆ '25년 우울증상유병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7.4%p이며, '24년 8.4%p 대비 1.0%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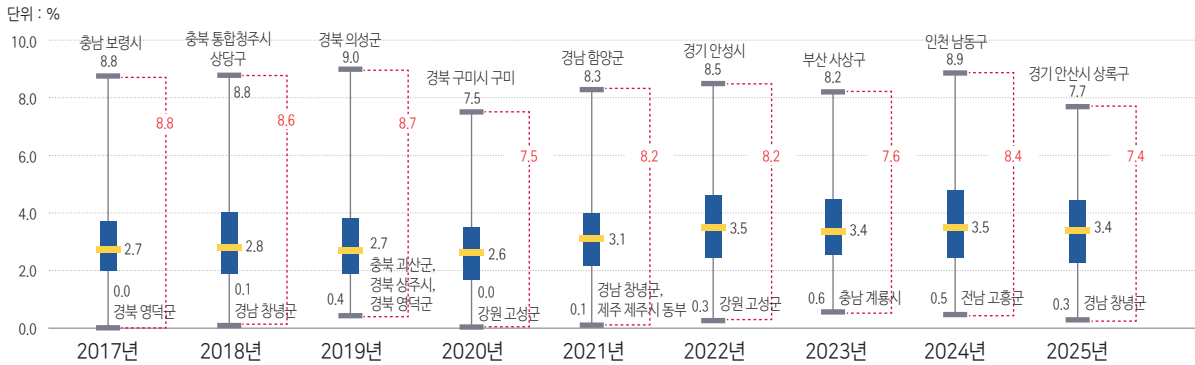


그림 103. 2017-2025 시·군·구 우울증상유병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우울증상유병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28), 가장 큰 지역은 경남(24.67)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6.44),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남(19.0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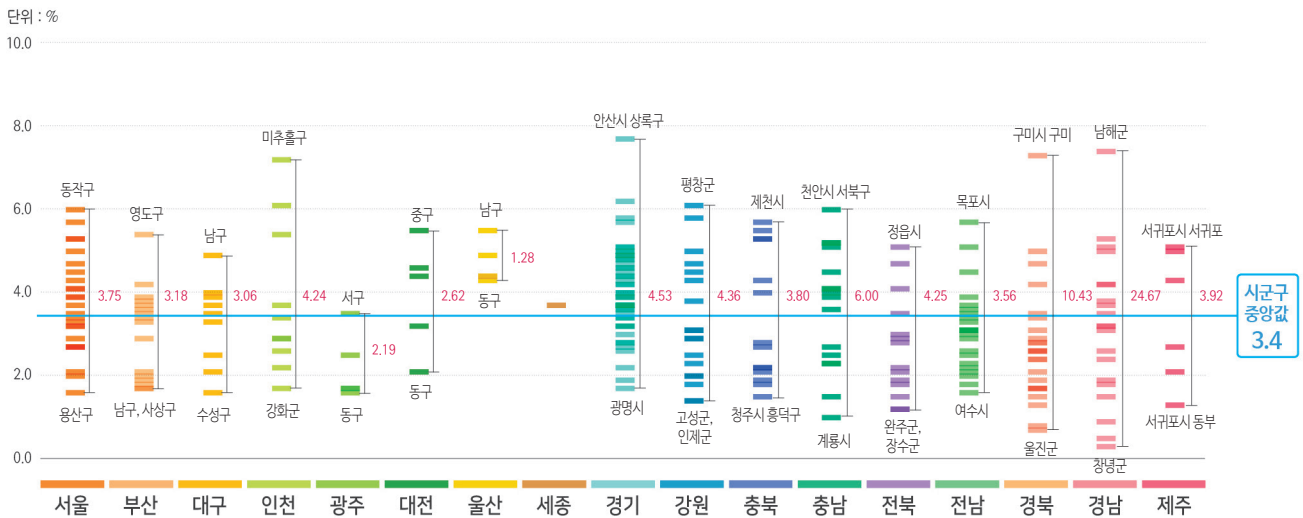


그림 10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우울증상유병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우울증상유병률은 일반 군에서 2.8%로 가장 낮게,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서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1.2%p로 '24년 1.1%p 대비 0.1%p 증가하였다.

표 224. 2017-2025 6개 도시유형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2	1.3	1.3	1.3	0.9	1.6	1.8	1.1	1.2
특별시의 구	3.6	3.5	3.7	3.2	3.5	4.0	4.5	4.2	3.8
광역시의 구	3.2	3.4	3.1	3.0	3.5	4.1	4.1	4.0	3.7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2.6	3.2	2.3	1.9	2.6	3.3	2.9	4.1	4.1
도농복합형태의 시	3.0	2.9	3.0	3.0	3.2	3.9	3.6	4.0	3.8
일반 군	2.6	2.6	2.6	2.1	2.8	2.9	3.4	3.1	2.8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2.3	2.2	2.4	2.2	2.7	2.4	2.7	3.3	3.3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우울증상유병률은 수도권 지역 4.0%, 비수도권 지역 3.4%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0.6%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25. 2017-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4	0.4	0.5	0.7	0.4	0.2	0.4	0.6	0.6
수도권	3.4	3.5	3.4	3.3	3.6	4.0	4.2	4.3	4.0
비수도권	2.9	3.1	2.9	2.6	3.2	3.8	3.9	3.6	3.4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우울증상유병률은 중부 지역 4.0%, 남부 지역 3.1%로 남부 지역에서 0.9%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26. 2017-2025 중부·남부 지역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8	0.5	0.6	0.5	0.5	0.2	0.4	0.8	0.9
중부	3.4	3.4	3.4	3.2	3.6	4.0	4.2	4.2	4.0
경기지방	3.4	3.5	3.4	3.3	3.6	4.0	4.2	4.3	4.0
영동지방	3.5	2.5	2.7	2.8	2.9	3.3	3.1	3.6	3.1
영서지방	2.8	3.2	4.3	3.7	4.0	4.2	4.3	4.6	4.5
호서지방	3.8	3.4	3.2	2.5	3.3	3.9	4.0	4.0	3.9
남부	2.7	3.0	2.8	2.6	3.1	3.8	3.8	3.5	3.1
호남지방	3.2	3.2	2.8	2.5	3.0	3.3	3.5	3.1	2.7
영남지방	2.5	2.9	2.8	2.7	3.1	4.0	3.9	3.6	3.3
제주지방	2.5	2.0	2.1	2.0	2.3	2.4	3.8	4.3	3.4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우울증상유병률은 동 지역, 읍·면 지역 3.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227. 2017-2025 동·읍·면 지역별 우울증상유병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4	0.4	0.4	0.2	0.2	0.5	0.6	0.4	0.0
동	3.2	3.3	3.2	3.0	3.4	4.0	4.2	4.0	3.7
읍·면	2.8	3.0	2.8	2.8	3.2	3.5	3.6	3.7	3.7

20.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전국 결과

- ◆ '25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26.6%로 '24년 27.7%에 비해 1.1%p 감소하였다.

표 228. 2016-2025 전국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4.1	39.5	38.0	35.7	31.6	34.2	31.5	30.2	27.7	26.6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은 제주에서 17.8%로 가장 낮게, 전남에서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5.9%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강원(0.7%p)이었다.

표 229. 2016-2025 시·도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35.9	31.4	31.0	29.5	25.5	27.5	24.1	23.2	21.7	20.1
부산	43.1	39.0	36.8	35.0	31.3	33.5	31.8	30.5	27.2	25.5
대구	37.1	31.0	31.2	32.0	29.5	31.0	28.1	27.6	25.4	24.5
인천	44.0	35.3	37.5	37.0	33.2	34.3	32.3	29.8	28.9	24.5
광주	42.3	42.4	33.3	34.8	29.4	36.1	33.4	31.8	28.1	24.8
대전	36.0	30.4	33.0	30.2	35.1	27.8	26.7	27.6	23.2	23.3
울산	44.0	36.3	35.9	32.9	31.4	30.6	31.7	30.0	30.0	28.9
세종	38.7	34.0	26.3	32.3	30.7	34.7	30.5	33.3	28.4	22.5
경기	38.9	36.2	33.3	33.4	26.6	30.1	28.5	27.1	26.1	24.0
강원	43.6	40.1	39.0	35.1	33.4	37.1	31.7	31.5	28.1	28.8
충북	46.7	40.6	39.0	36.1	33.3	34.0	30.6	31.3	27.2	26.7
충남	47.3	43.1	42.5	36.2	30.8	34.2	34.4	31.2	28.4	27.4
전북	45.1	41.8	40.0	38.6	34.6	34.3	33.1	34.0	29.9	27.3
전남	49.3	43.8	43.9	38.4	33.2	36.0	33.1	30.9	31.0	29.5
경북	44.9	42.9	39.3	37.5	34.0	35.3	34.0	32.6	31.3	29.3
경남	45.1	42.7	39.5	36.4	35.1	38.5	31.6	31.2	27.7	25.9
제주	45.7	40.2	34.1	34.3	28.8	27.1	30.3	28.9	21.4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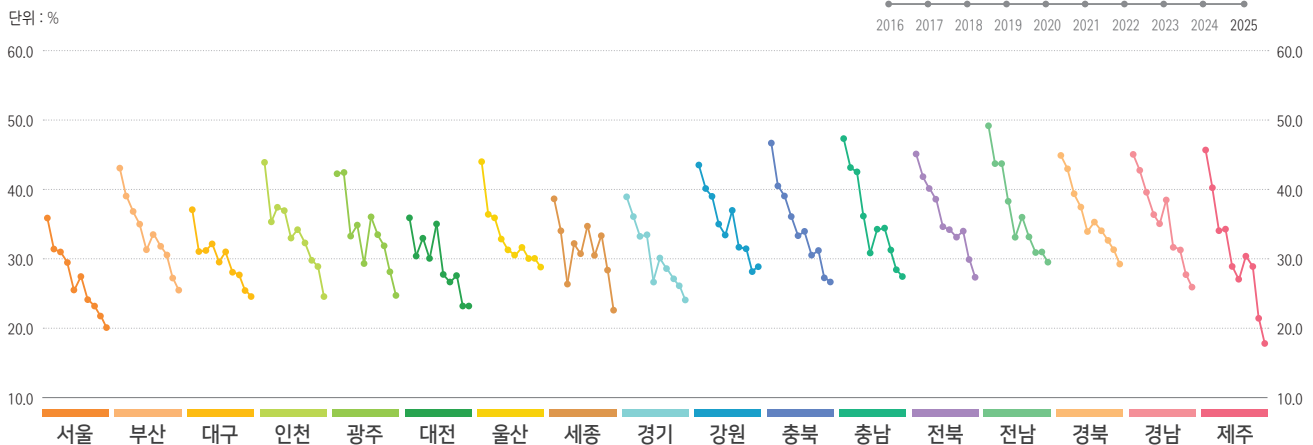


그림 105. 2016-2025 시·도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 ◆ 전년 대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이 감소한 시·도는 15개로 전체의 88.2%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5.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27.9%p)이었다.

표 230.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2 (11.8)		15 (88.2)		- (-)		1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강원	0.7	세종	5.9	-	-	제주	27.9
	2위	대전	0.1	인천	4.4	-	-	충북	20.0
	3위	-	-	제주	3.6	-	-	충남	19.9
	4위	-	-	광주	3.3	-	-	전남	19.8
	5위	-	-	전북	2.6	-	-	인천	19.5

- ◆ '25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의 시·도 간 격차는 11.7%p이며, '24년 10.0%p 대비 1.7%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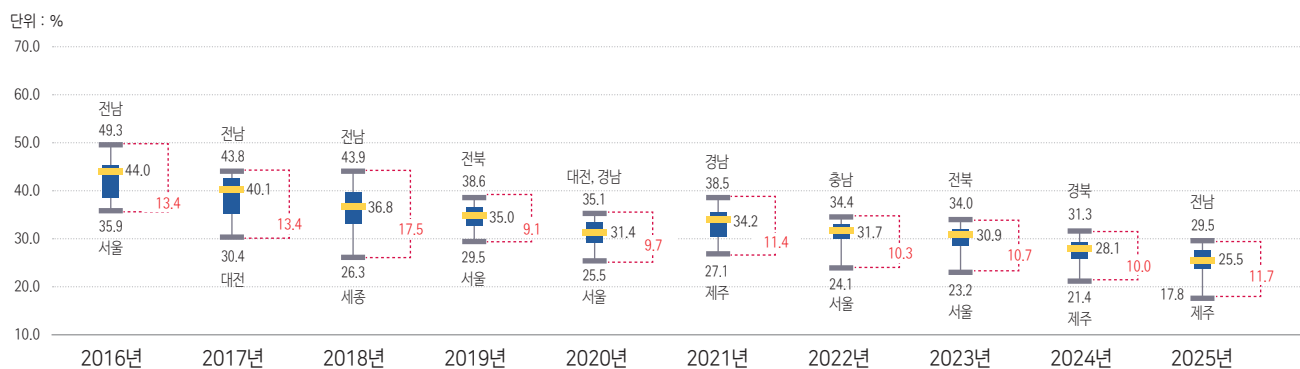


그림 106. 2016-2025 시·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10.0%로 가장 낮게, 강원 동해시에서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31. 2025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강원 동해시	37.9	경기 수원시 영통구	10.0
2위	경기 시흥시,	37.6	제주 제주시 제주	10.4
3위	전남 목포시		서울 송파구	12.5
4위	전남 장흥군	36.9	서울 강남구	14.5
5위	전남 영암군	36.6	서울 성북구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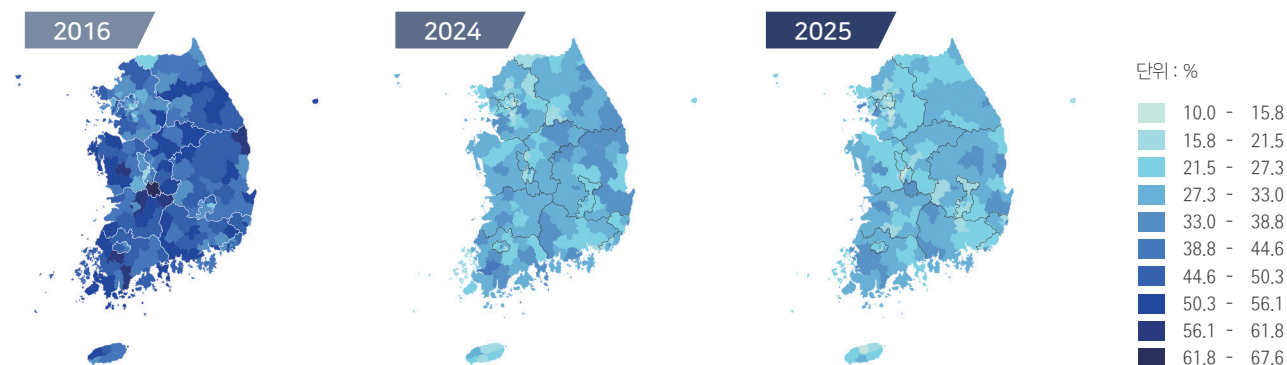


그림 107. 시·군·구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이 감소한 시·군·구는 166개로 전체의 64.3%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북 김천시(13.8%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250개로 전체의 99.2%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제주 제주시 제주(39.1%p)이었다.

표 232.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8	(34.1)	166	(64.3)	2	(0.8)	250	(99.2)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남 목포시	12.4	경북 김천시	13.8	대구 남구	6.1	제주 제주시 제주	39.1
	2위	경기 시흥시	10.3	서울 성북구	13.1	강원 철원군	0.3	충남 금산군	33.5
	3위	인천 중구	9.8	울산 북구	12.5	-	-	경북 울진군	32.3
	4위	경남 창원시 진해	8.7	전남 여수시	11.6	-	-	경북 울릉군	31.6
	5위	경북 영덕군	7.7	경기 화성시 서부	11.4	-	-	경남 창원시 창원	31.2

- ◆ '25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의 시·군·구 간 격차는 27.9%p이며, '24년 28.4%p 대비 0.5%p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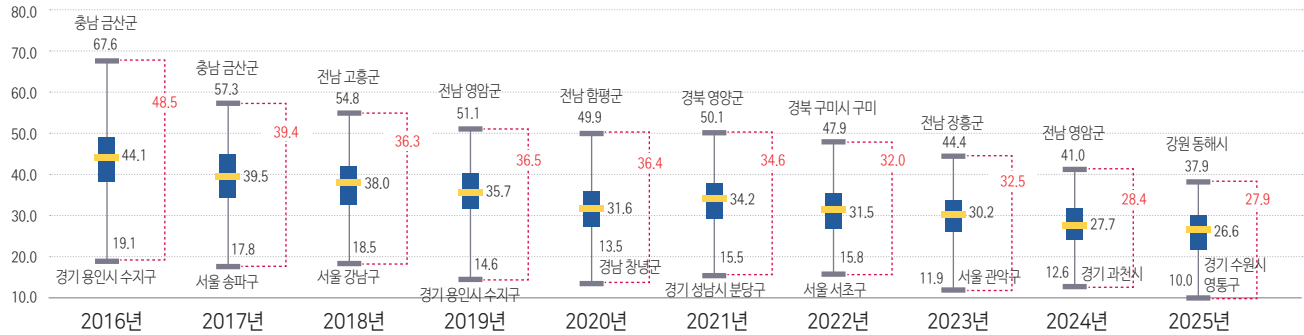


그림 108. 2016-2025 시·군·구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분포

지역 격차비

- ◆ '24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광주(1.53), 가장 큰 지역은 경기(3.76)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0.38),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1.15)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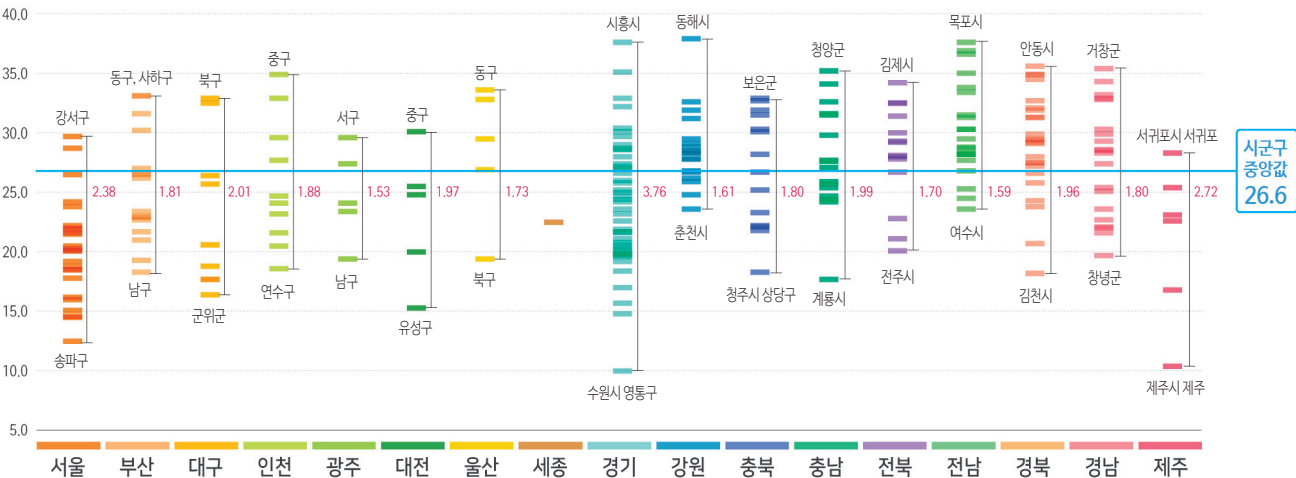


그림 10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은 특별시의 구에서 20.1%로 가장 낮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8.4%p로 '24년 9.5%p 대비 1.1%p 감소하였다.

표 233.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4.7	13.5	12.0	12.3	9.8	9.2	10.7	9.0	9.5	8.4
특별시의 구	35.9	31.4	31.0	29.5	25.5	27.5	24.1	23.2	21.7	20.1
광역시의 구	40.7	37.1	34.8	33.7	30.1	32.1	29.9	29.0	26.4	24.6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42.6	37.7	33.5	31.8	26.7	28.4	29.8	28.2	24.7	26.1
도농복합형태의 시	44.4	40.3	39.2	36.8	33.1	34.7	32.5	31.4	30.9	27.7
일반 군	47.8	42.6	41.9	38.4	33.5	36.8	33.6	31.0	28.9	27.9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50.6	44.8	43.0	41.8	35.3	36.7	34.8	32.2	31.1	28.5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은 수도권 지역 22.5%, 비수도권 지역 26.6%로 수도권 지역에서 4.1%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34.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0	6.1	5.4	3.5	5.8	4.9	4.8	5.1	3.5	4.1
수도권	38.2	33.9	32.8	32.1	26.9	29.5	27.1	25.8	24.7	22.5
비수도권	44.2	40.0	38.2	35.6	32.7	34.4	31.9	31.0	28.2	26.6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은 중부 지역 23.5%, 남부 지역 26.6%로 중부 지역에서 3.1%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35.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4.4	5.0	3.8	3.2	4.3	4.0	3.9	3.9	3.2	3.1
중부	39.8	35.3	34.2	32.7	28.3	30.6	28.2	27.1	25.3	23.5
경기지방	38.2	33.9	32.8	32.1	26.9	29.5	27.1	25.8	24.7	22.5
영동지방	46.5	42.4	40.0	36.6	36.0	37.6	31.1	33.0	30.4	30.4
영서지방	41.8	38.8	38.4	34.1	31.6	36.4	32.1	30.5	26.7	27.7
호서지방	44.4	39.2	38.6	34.5	32.5	32.7	31.3	30.5	26.9	25.9
남부	44.2	40.3	38.0	36.0	32.6	34.6	32.1	31.0	28.5	26.6
호남지방	46.4	42.8	40.4	37.7	33.0	35.5	33.2	32.2	30.0	27.6
영남지방	43.1	39.2	37.1	35.3	32.6	34.5	31.7	30.6	28.2	26.5
제주지방	45.7	40.2	34.1	34.3	28.8	27.1	30.3	28.9	21.4	17.8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은 동 지역 23.6%, 읍·면 지역 28.0%로 동 지역에서 4.4%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36.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4	7.1	6.8	4.7	4.1	4.6	4.3	3.8	4.2	4.4
동	39.7	35.4	33.9	32.8	29.0	31.0	28.6	27.6	25.5	23.6
읍·면	46.2	42.5	40.7	37.5	33.1	35.6	32.9	31.4	29.7	28.0

21.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33]

전국 결과

- ◆ '25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71.6%로 '24년 71.1%에 비해 0.5%p 증가하였다.

표 237. 2016-2025 전국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4.6	57.5	56.7	58.0	71.7	69.8	68.3	68.1	71.1	71.6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광주에서 79.2%로 가장 높게, 제주에서 6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3.9%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2.0%p)이었다.

표 238. 2016-2025 시·도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56.3	59.4	60.0	60.3	74.4	71.8	69.9	69.7	72.8	73.4
부산	54.9	59.5	56.5	58.1	73.1	71.1	68.6	68.2	71.4	71.5
대구	55.6	59.8	58.1	59.0	73.1	69.3	67.7	68.4	71.6	72.9
인천	54.8	56.0	56.1	55.8	68.6	70.1	68.1	67.8	72.6	72.3
광주	64.5	63.0	62.4	62.0	75.5	73.7	69.9	73.4	75.8	79.2
대전	64.3	66.6	66.7	66.4	76.8	77.3	78.9	74.9	76.0	76.0
울산	54.0	60.6	62.7	63.2	74.9	71.7	71.0	67.7	71.6	72.8
세종	58.8	66.8	66.0	74.4	79.7	76.8	77.3	71.6	77.1	77.8
경기	55.1	58.1	58.3	57.6	71.3	69.6	68.5	67.8	71.2	71.7
강원	54.9	56.8	56.6	56.1	71.1	68.0	67.7	67.3	70.2	69.9
충북	56.4	62.0	62.8	60.3	75.7	72.4	70.0	70.6	72.8	73.4
충남	57.4	56.4	58.2	58.0	74.2	71.8	70.4	70.6	71.5	72.1
전북	58.7	61.9	58.7	63.4	74.2	74.0	71.1	71.2	73.9	72.7
전남	55.9	59.3	59.6	60.0	72.9	71.5	68.0	69.7	72.7	70.7
경북	54.6	57.4	55.6	57.4	71.4	70.0	68.3	69.0	71.5	74.1
경남	56.9	58.8	57.7	59.7	74.5	71.5	69.7	66.9	71.4	70.7
제주	53.2	58.2	58.2	55.8	66.1	63.6	60.9	65.7	63.9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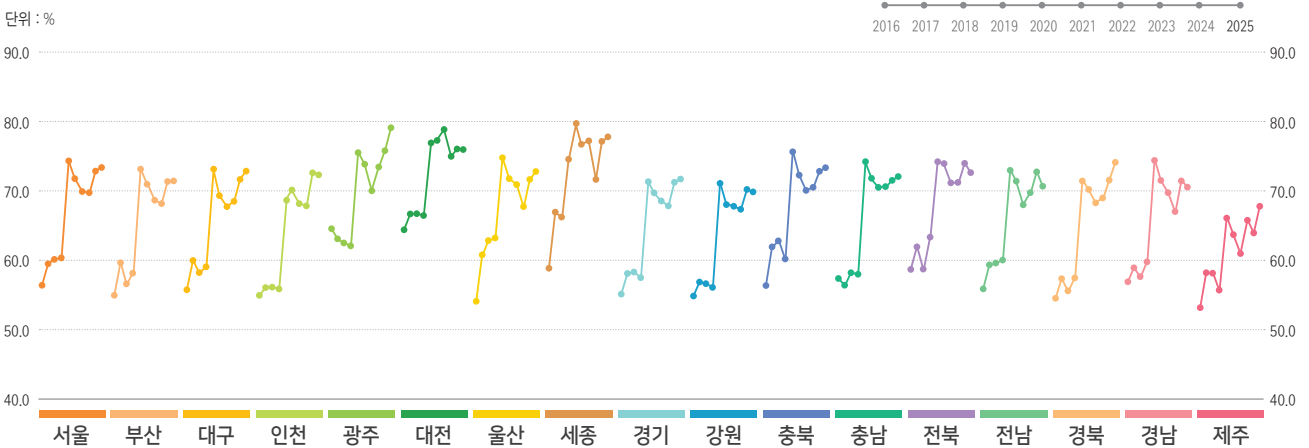


그림 110. 2016-2025 시·도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33] '19년까지는 모든 끼니마다 양치질 실천 여부를 설문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점심식사 후 양치질 실천 여부를 단독으로 설문하였으므로 연도 비교 시 주의

- ◆ 전년 대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증가한 시·도는 11개로 전체의 64.7%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3.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경북(19.5%p)이었다.

표 239.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1 (64.7)		5 (29.4)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제주	3.9	전남	2.0	경북	19.5	-	-
	2위	광주	3.4	전북	1.2	세종	19.0	-	-
	3위	경북	2.6	경남	0.7	울산	18.8	-	-
	4위	대구	1.3	인천, 강원	0.3	인천	17.5	-	-
	5위	울산	1.2			대구	17.3	-	-

- ◆ '25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의 시·도 간 격차는 11.4%p이며, '24년 13.2%p 대비 1.8%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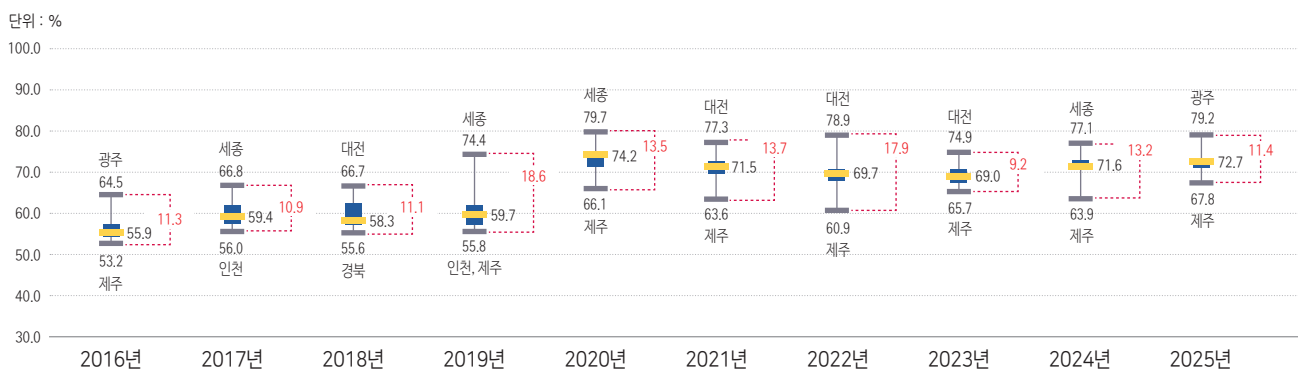


그림 111. 2016-2025 시·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광주 남구에서 91.2%로 가장 높게, 전남 완도군에서 5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40. 2025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광주 남구	91.2	전남 완도군	57.7
2위	경남 의령군	87.9	강원 평창군	60.0
3위	경북 영덕군	83.4	전남 장성군	60.1
4위	서울 중구	82.8	전북 김제시	60.5
5위	광주 북구	82.0	전남 해남군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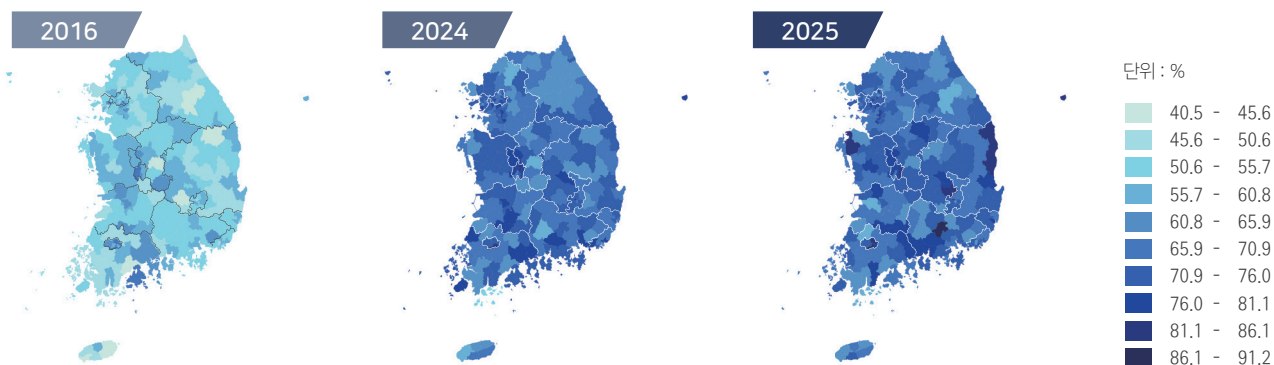


그림 112. 시·군·구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51개로 전체의 58.5%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충남 서산시, 경남 의령군(16.4%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51개로 전체의 99.6%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37.1%p)이었다.

표 241.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51	(58.5)	106	(41.1)	251	(99.6)	1	(0.4)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충남 서산시, 경남 의령군	16.4	전북 임실군	9.5	경남 의령군	37.1	전남 고흥군	1.8
	2위	경북 영덕군	15.1	충남 당진시	8.9	경북 성주군	32.5	-	-
	3위	경북 의성군	11.4	경남 창원시 진해	7.8	경남 하동군	31.9	-	-
	4위	경북 의성군	11.4	경남 창원시 진해	7.8	대구 서구	31.2	-	-
	5위	경기 광주시	10.8	경기 하남시	7.3	서울 도봉구, 제주 서귀포시 동부	30.2	-	-

- ◆ '25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33.5%p이며, '24년 30.7%p 대비 2.8%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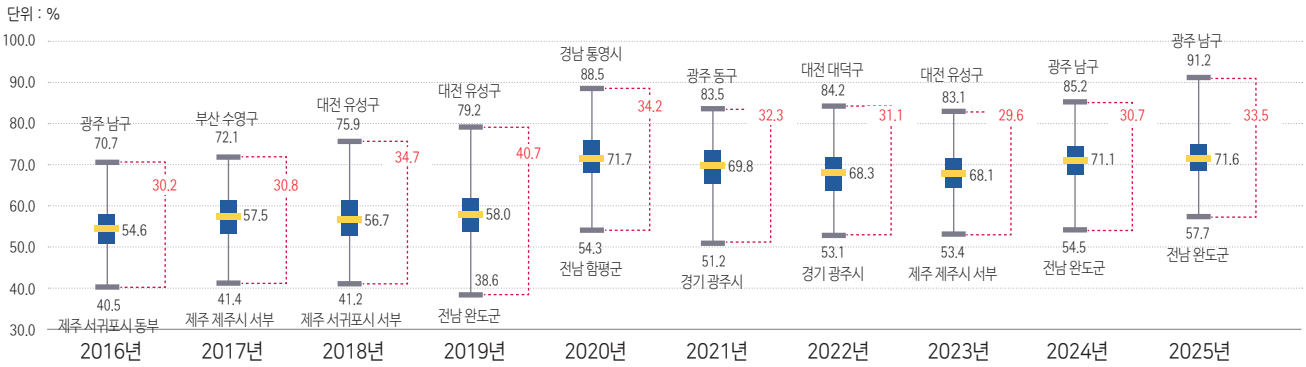


그림 113. 2016-2025 시·군·구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대전 (1.17), 가장 큰 지역은 전남, 경남(1.39)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0.09),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북(0.0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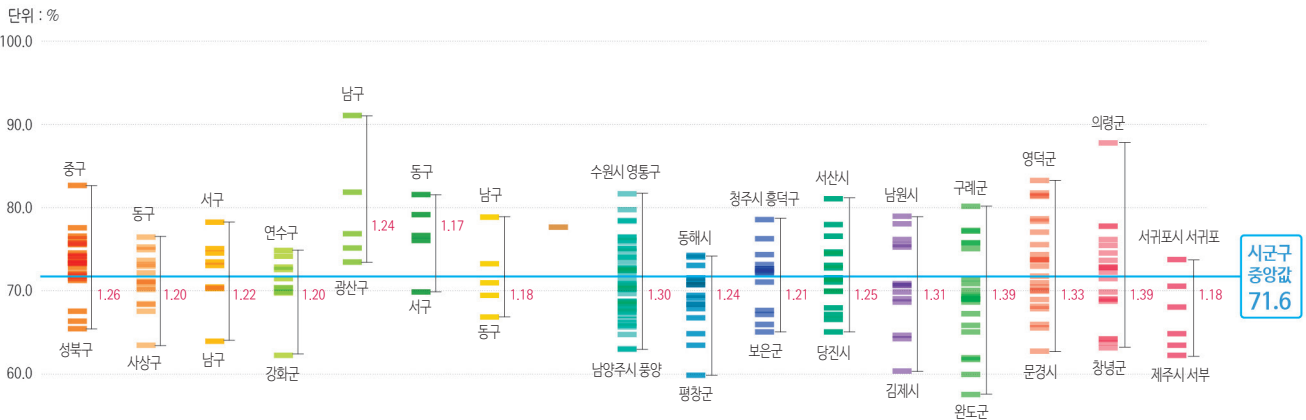


그림 11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특별시의 구에서 73.4%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6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4.8%p로 '24년 6.1%p 대비 1.3%p 감소하였다.

표 242.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5.4	8.4	11.1	7.9	7.9	7.6	6.4	7.5	6.1	4.8
특별시의 구	56.3	59.4	60.0	60.3	74.4	71.8	69.9	69.7	72.8	73.4
광역시의 구	57.1	59.7	59.2	59.3	72.9	71.4	70.2	69.3	72.5	72.8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56.2	61.8	61.1	60.3	71.6	71.7	68.1	71.2	71.8	71.0
도농복합형태의 시	55.0	57.8	58.0	59.3	72.8	70.3	67.3	67.5	70.9	72.1
일반 군	52.4	55.8	55.4	55.9	70.2	67.2	66.0	66.6	69.0	70.6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51.7	53.4	50.1	52.4	66.5	64.2	63.7	63.7	66.7	68.6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수도권 지역 72.4%, 비수도권 지역 72.7%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0.3%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43.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3	1.4	0.2	1.4	1.4	1.0	0.6	0.8	0.2	0.3
수도권	55.5	58.4	58.7	58.4	72.2	70.5	69.0	68.5	71.9	72.4
비수도권	56.8	59.8	58.9	59.9	73.6	71.5	69.6	69.3	72.1	72.7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중부 지역 72.5%, 남부 지역 72.5%로 남부 지역에서 0.1%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44.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3	0.8	1.0	0.7	0.5	0.1	0.9	0.2	0.3	0.1
중부	56.0	58.8	59.2	58.9	72.6	70.9	69.6	68.9	72.1	72.5
경기지방	55.5	58.4	58.7	58.4	72.2	70.5	69.0	68.5	71.9	72.4
영동지방	54.5	58.8	54.1	55.0	70.2	68.6	66.7	63.1	70.4	68.5
영서지방	55.1	55.8	57.9	56.8	71.7	67.8	68.2	69.5	70.1	70.6
호서지방	59.1	61.3	62.3	61.9	75.6	73.8	73.0	71.8	73.4	73.9
남부	56.3	59.6	58.1	59.5	73.2	71.0	68.7	68.8	71.8	72.5
호남지방	59.2	61.2	59.9	61.5	74.0	72.9	69.5	71.2	73.9	73.9
영남지방	55.4	59.0	57.5	59.0	73.2	70.7	68.8	68.0	71.5	72.2
제주지방	53.2	58.2	58.2	55.8	66.1	63.6	60.9	65.7	63.9	67.8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동 지역 73.2%, 읍·면 지역 69.7%로 동 지역에서 3.5%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45.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5.4	5.7	5.2	4.9	4.6	5.1	5.0	4.0	4.3	3.5
동	57.2	60.1	59.8	60.0	73.7	71.9	70.2	69.6	72.8	73.2
읍·면	51.8	54.4	54.6	55.1	69.1	66.8	65.2	65.6	68.5	69.7

22. 주관적 건강인지율^[34]

전국 결과

- ◆ '25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48.7%로 '24년 48.2%에 비해 0.5%p 증가하였다.

표 246. 2016-2025 전국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4.6	44.9	42.4	41.3	55.6	47.6	49.7	47.6	48.2	48.7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대전에서 61.2%로 가장 높게, 울산에서 4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5.7%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울산(2.7%p)이었다.

표 247. 2016-2025 시·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46.9	48.1	45.8	44.5	60.2	52.9	54.5	53.7	51.6	52.8
부산	43.3	42.8	40.4	40.4	54.1	46.9	49.5	47.0	47.9	47.0
대구	42.4	41.9	40.5	41.6	57.7	47.4	50.0	48.3	54.1	53.7
인천	44.4	43.3	36.5	38.2	50.3	45.6	46.8	47.4	45.1	49.7
광주	45.7	46.5	40.9	41.3	60.7	48.6	48.2	50.8	56.7	57.6
대전	51.5	51.0	48.0	52.4	63.4	55.2	58.3	59.6	59.7	61.2
울산	43.6	46.1	47.0	43.8	54.6	48.6	48.2	45.1	46.1	43.4
세종	49.2	48.8	43.6	44.7	50.5	48.9	62.1	49.8	48.1	53.8
경기	44.4	44.0	41.6	40.8	55.9	48.6	50.5	47.4	49.0	48.5
강원	43.7	45.4	45.2	43.8	54.3	48.0	48.0	46.9	44.4	47.9
충북	45.9	46.7	43.7	40.8	56.6	47.8	50.9	48.6	49.9	49.2
충남	45.5	43.3	40.5	40.0	55.2	48.4	48.7	46.2	45.4	47.0
전북	43.7	44.5	38.1	41.2	52.7	43.9	48.8	45.6	48.5	50.3
전남	45.9	46.8	43.8	45.1	57.0	48.7	53.5	47.2	49.0	47.8
경북	40.1	42.4	38.8	37.8	52.2	47.4	46.1	45.9	46.5	46.4
경남	41.6	41.3	38.1	39.4	54.0	45.6	46.3	45.4	47.3	47.2
제주	44.8	46.4	41.6	40.7	59.8	52.5	49.5	51.9	56.5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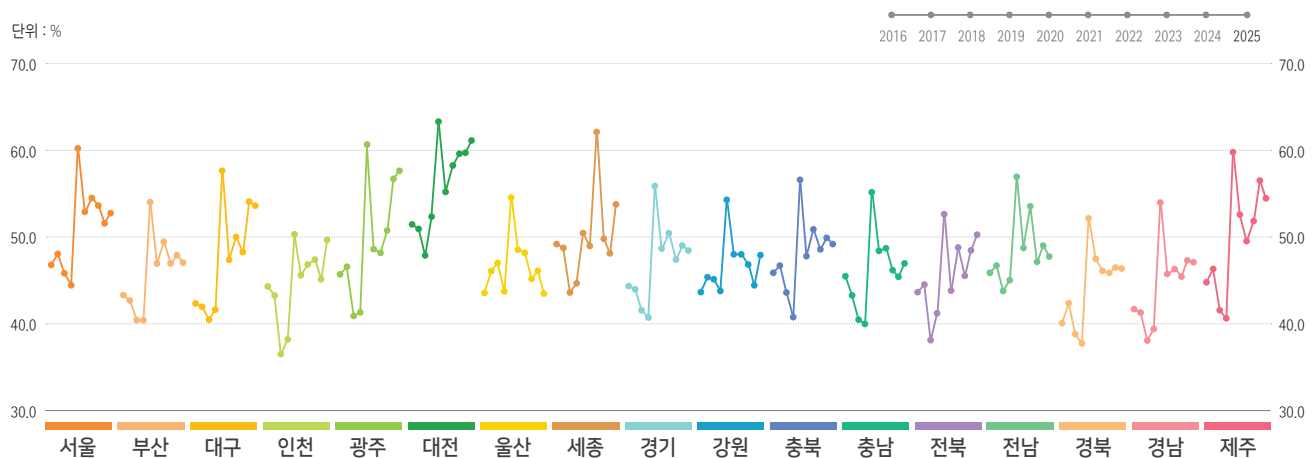


그림 115. 2016-2025 시·도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34] '20년 지표명 변경(이전 지표명: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 전년 대비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증가한 시·도는 8개로 전체의 47.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5.7%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도는 16개로 전체의 94.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광주(11.9%p)이었다.

표 248. 주관적 건강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 (47.1)		9 (52.9)		16 (94.1)		1 (5.9)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5.7	울산	2.7	광주	11.9	울산	0.2
	2위	인천	4.6	제주	2.0	대구	11.3	-	-
	3위	강원	3.5	전남	1.2	대전, 제주	9.7	-	-
	4위	전북	1.8	부산	0.9	-	-	-	-
	5위	충남	1.6	충북	0.7	전북	6.6	-	-

- ◆ '25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시·도 간 격차는 17.9%p이며, '24년 15.2%p 대비 2.7%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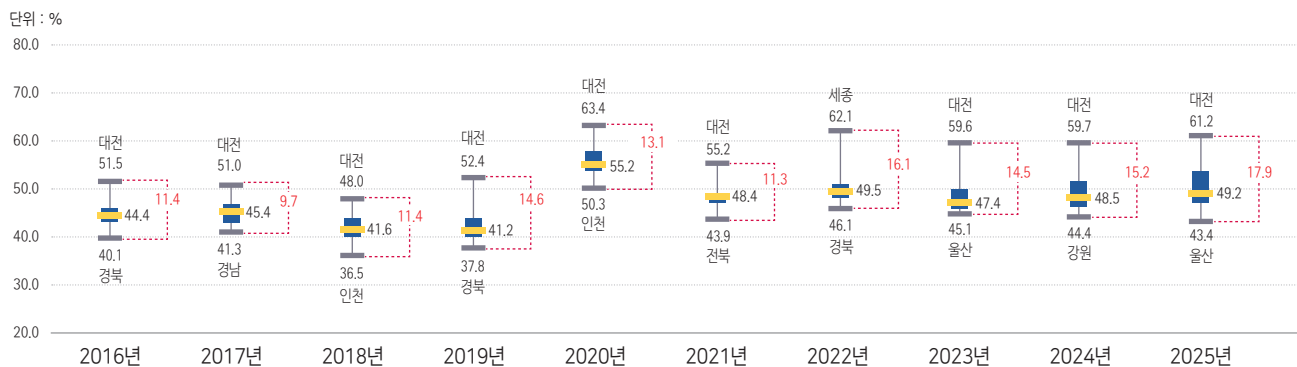


그림 116. 2016-2025 시·도 주관적 건강인지율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광주 남구에서 69.6%로 가장 높게, 경북 고령군에서 3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49. 2025년 주관적 건강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광주 남구	69.6	경북 고령군	32.9
2위	광주 북구	68.1	부산 사상구	36.4
3위	강원 화천군	66.6	강원 평창군	37.6
4위	대전 서구	66.5	경북 구미시 구미	38.1
5위	서울 용산구	66.1	충북 증평군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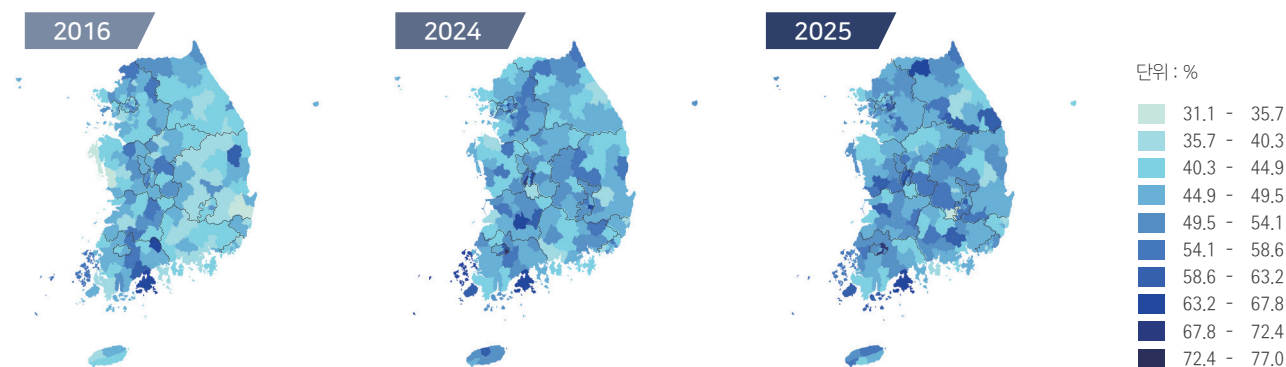


그림 117. 시·군·구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43개로 전체의 55.4%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충남 부여군(18.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193개로 전체의 76.6%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광주 남구(24.3%p)이었다.

표 250. 주관적 건강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43		114		193		59		
시·군·구	(55.4)		(44.2)		(76.6)		(23.4)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충남 부여군	18.9	광주 동구	24.3	광주 남구	24.3	전남 구례군	20.2
	2위	경남 의령군	17.6	경북 고령군	15.4	대구 북구	24.1	전남 보성군	13.1
	3위	대전 대덕구	13.1	전북 임실군	12.8	대전 대덕구	22.9	충북 보은군	12.3
	4위	강원 영월군	13.0	경남 밀양시	11.0	광주 북구	20.4	충남 아산시	10.0
	5위	강원 삼척시	12.5	부산 서구	10.7	경기 용인시 수지구	18.6	서울 서대문구	9.8

- ◆ '25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36.7%p이며, '24년 40.3%p 대비 3.6%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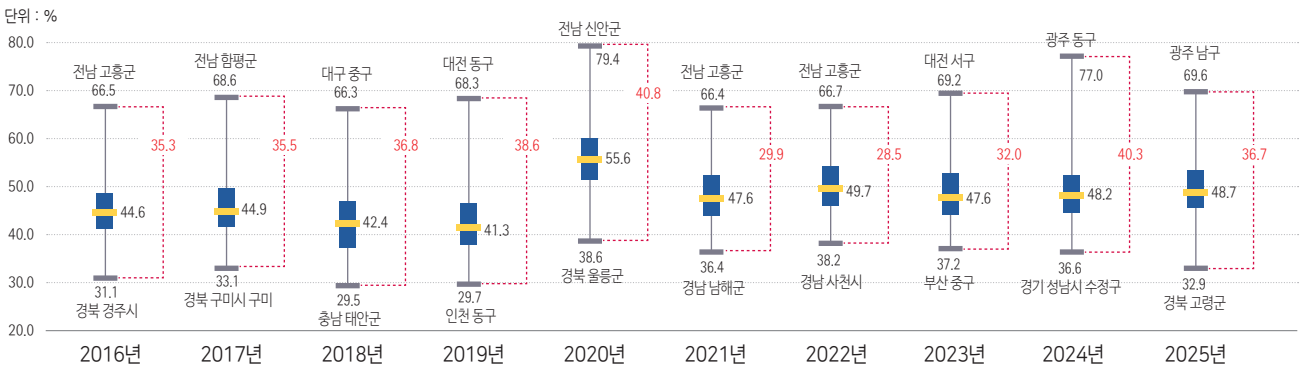


그림 118. 2016-2025 시·군·구 주관적 건강인지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17), 가장 큰 지역은 강원(1.77)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0.37),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강원(0.2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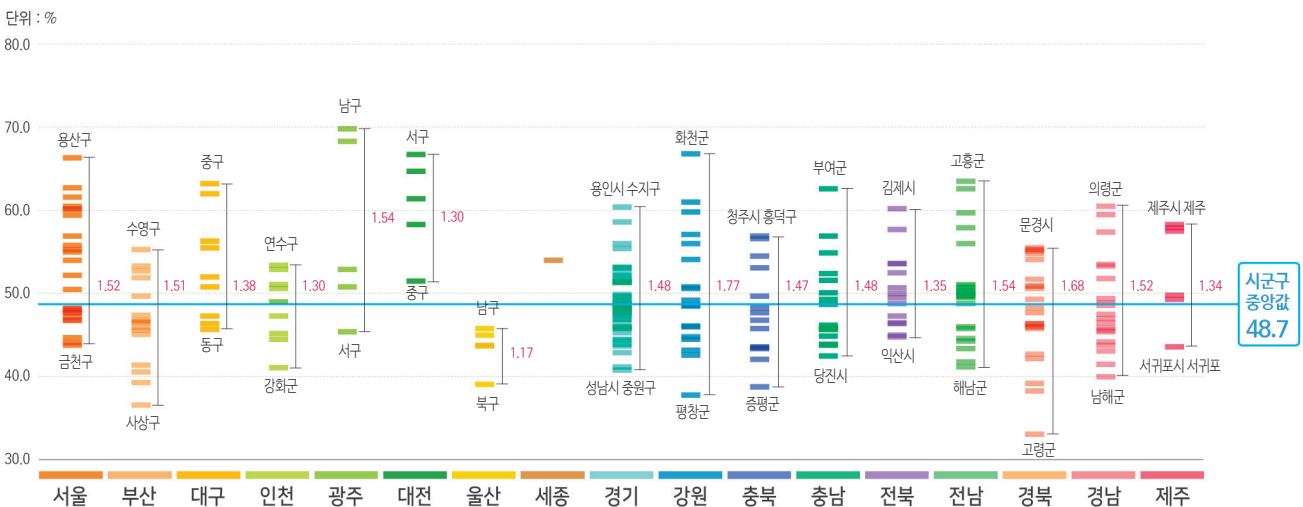


그림 11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주관적 건강인지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특별시의 구에서 52.8%로 가장 높고,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서 4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5.5%p로 '24년 4.5%p 대비 1.0%p 증가하였다.

표 251.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9	6.5	6.1	3.8	5.3	6.1	5.2	6.4	4.5	5.5
특별시의 구	46.9	48.1	45.8	44.5	60.2	52.9	54.5	53.7	51.6	52.8
광역시의 구	44.0	43.5	40.3	40.8	55.0	47.9	49.3	47.6	49.5	49.6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45.0	46.1	43.4	41.7	57.9	52.0	51.5	48.2	47.1	47.3
도농복합형태의 시	43.9	44.3	41.8	41.3	55.9	46.9	50.4	47.8	47.5	48.0
일반 군	45.1	47.4	44.4	43.3	56.1	47.9	50.6	47.7	48.1	49.6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46.5	50.0	46.4	44.6	57.0	47.9	49.3	47.3	49.9	49.7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수도권 지역 50.2%, 비수도권 지역 49.8%로 수도권 지역에서 0.5%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52.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4	1.3	1.3	0.3	1.2	2.1	2.0	1.9	0.1	0.5
수도권	45.4	45.6	42.6	42.0	56.9	49.9	51.6	49.8	49.5	50.2
비수도권	44.0	44.3	41.3	41.7	55.7	47.8	49.6	47.9	49.6	49.8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중부 지역 50.4%, 남부 지역 49.2%로 중부 지역에서 1.2%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53.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7	2.2	2.5	1.5	1.6	2.7	3.0	2.7	0.1	1.2
중부	45.6	45.7	42.9	42.3	56.9	49.8	51.6	49.8	49.4	50.4
경기지방	45.4	45.6	42.6	42.0	56.9	49.9	51.6	49.8	49.5	50.2
영동지방	44.3	47.2	45.4	45.0	55.5	49.6	48.1	46.3	45.1	47.4
영서지방	43.4	44.4	45.1	43.3	53.9	47.3	48.0	47.4	44.2	48.1
호서지방	47.5	46.7	43.7	44.0	57.6	50.1	53.0	50.8	50.8	52.0
남부	43.0	43.5	40.4	40.8	55.3	47.1	48.6	47.0	49.6	49.2
호남지방	45.0	45.8	40.9	42.5	56.6	46.8	50.2	47.8	51.3	51.8
영남지방	42.1	42.5	40.1	40.2	54.5	46.9	48.0	46.5	48.6	47.9
제주지방	44.8	46.4	41.6	40.7	59.8	52.5	49.5	51.9	56.5	54.5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동 지역 50.2%, 읍·면 지역 48.6%로 동 지역에서 1.7%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54.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2	0.7	0.8	0.3	0.8	1.9	0.9	3.0	2.4	1.7
동	44.7	44.8	41.9	41.8	56.4	49.2	50.8	49.3	49.9	50.2
읍·면	44.8	45.5	42.7	42.1	55.6	47.3	49.9	46.3	47.4	48.6

23.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35]

전국 결과

- ◆ '25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92.2%로 '23년 91.4%에 비해 0.8%p 증가하였다.

표 255. 2017-2025 전국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4.1	-	85.5	97.6	94.5	-	91.4	-	92.2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은 서울에서 95.4%로 가장 높게, 경남에서 8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2년 전 대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5.1%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인천(1.8%p)이었다.

표 256. 2017-2025 시·도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90.3	-	90.3	98.5	97.9	-	95.8	-	95.4
부산	82.7	-	84.1	97.4	94.7	-	91.6	-	92.8
대구	88.3	-	87.8	98.6	96.6	-	94.5	-	95.1
인천	85.3	-	86.0	97.3	94.1	-	91.5	-	89.7
광주	68.8	-	85.1	97.0	92.3	-	89.6	-	89.3
대전	89.3	-	90.9	98.8	96.6	-	95.5	-	95.1
울산	85.4	-	88.1	98.0	95.1	-	89.0	-	89.0
세종	89.3	-	88.4	97.0	96.4	-	93.4	-	93.4
경기	86.2	-	88.0	98.2	96.2	-	93.8	-	93.3
강원	84.2	-	82.8	95.2	92.5	-	89.5	-	90.3
충북	86.2	-	86.4	97.7	94.4	-	92.3	-	92.4
충남	83.8	-	82.1	96.3	93.2	-	90.6	-	92.0
전북	84.3	-	83.4	96.3	92.6	-	91.0	-	92.8
전남	77.8	-	82.7	96.6	91.6	-	88.8	-	89.1
경북	81.2	-	82.9	95.9	93.3	-	91.8	-	92.7
경남	65.6	-	75.6	96.3	91.0	-	82.3	-	86.0
제주	77.4	-	80.5	94.4	91.4	-	88.7	-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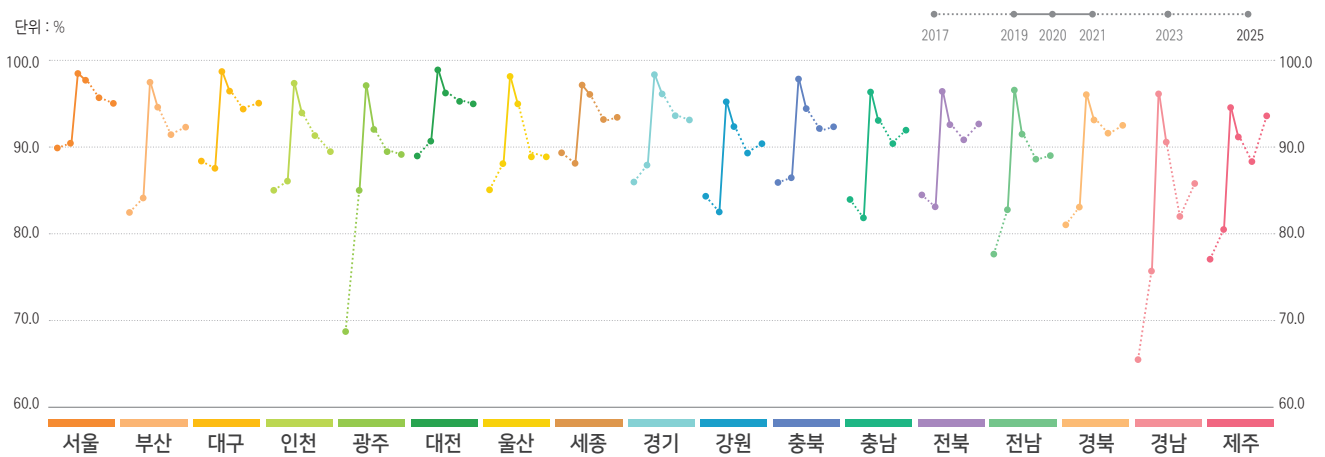


그림 120. 2017-2025 시·도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35] 2년 주기 문항이나 '20년 코로나19 유행 관련으로 조사 실시

- ◆ 2년 전 대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이 증가한 시·도는 10개로 전체의 58.8%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5.1%p)이었다.
- ◆ 8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광주(20.5%p)이었다.

표 257.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2년 전 대비				8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0		5		17		-		
시·도	(58.8)		(29.4)		(100.0)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제주	5.1	인천	1.8	광주	20.5	-	-
	2위	경남	3.7	경기	0.5	경남	20.4	-	-
	3위	전북	1.8	서울, 대전	0.4	제주	16.4	-	-
	4위	충남	1.4			경북	11.5	-	-
	5위	부산	1.2	광주	0.3	전남	11.3	-	-

- ◆ '25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의 시·도간 격차는 9.5%p이며 '23년 13.4%p 대비 3.9%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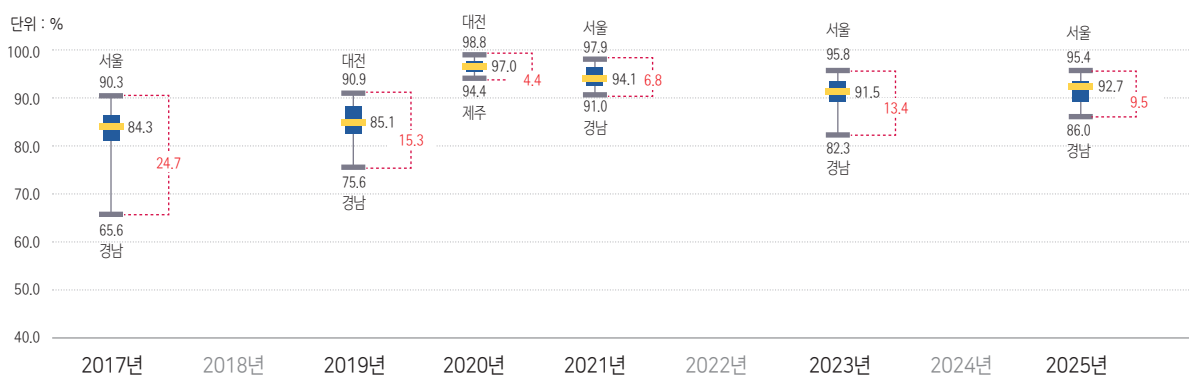


그림 121. 2017-2025 시·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98.2%로 가장 높게, 경남 함양군에서 6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58. 2025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기 용인시 수지구 98.2	경남 함양군 63.7
2위	대구 수성구, 98.1	경남 합천군 70.3
3위	대구 군위군, 98.1	전남 담양군 72.5
4위	광주 남구 98.0	경남 고성군 76.0
5위	서울 중구, 경북 김천시 98.0	경남 산청군 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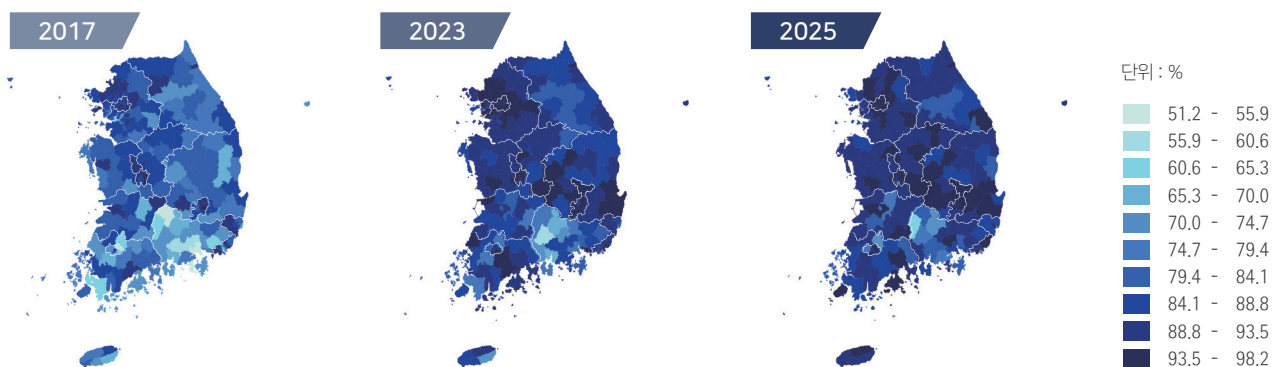


그림 122. 시·군·구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7년, 2023년, 2025년)

- ◆ 2년 전 대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50개로 전체의 58.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산청군(18.3%p)이었다.
- ◆ 8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40개로 전체의 95.2%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통영시(40.7%p)이었다.

표 259.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2년 전 대비				8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50	(58.1)	103	(39.9)	240	(95.2)	12	(4.8)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남 산청군	18.3	경남 함양군	13.7	경남 통영시	40.7	전북 완주군	7.7
	2위	경남 의령군	17.7	경남 고성군	12.8	광주 북구	39.9	인천 미추홀구	5.3
	3위	제주 서귀포시 동부	17.0	경북 영덕군	9.0	경남 함안군	36.2	전남 보성군	4.7
	4위	경남 하동군	15.8	전남 보성군	8.6	경남 김해시	32.2	울산 울주군	4.6
	5위	전남 나주시	14.0	전남 화순군	7.8	광주 동구	31.8	강원 평창군	2.4

- ◆ '25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34.5%p이며, '23년 40.4%p 대비 5.9%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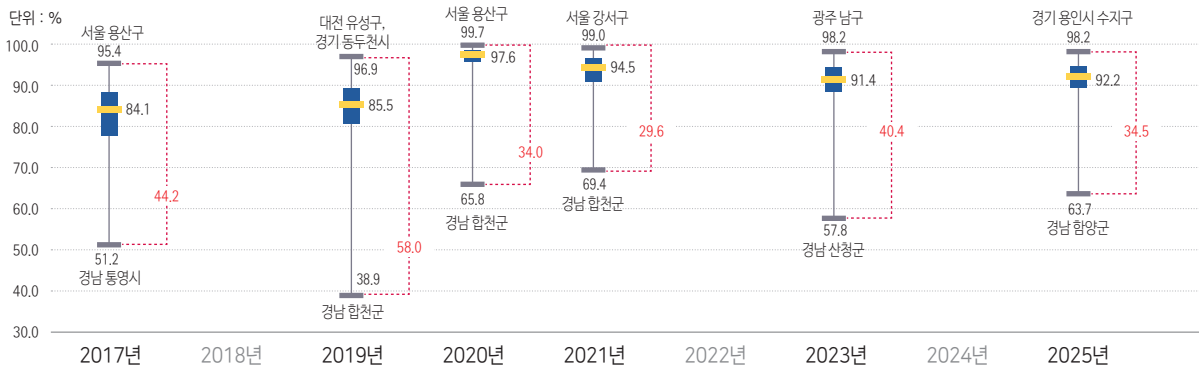


그림 123. 2017-2025 시·군·구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대전(1.05), 가장 큰 지역은 경남(1.50)으로 나타났다.
- ◆ 2년 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제주(0.18),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0.09)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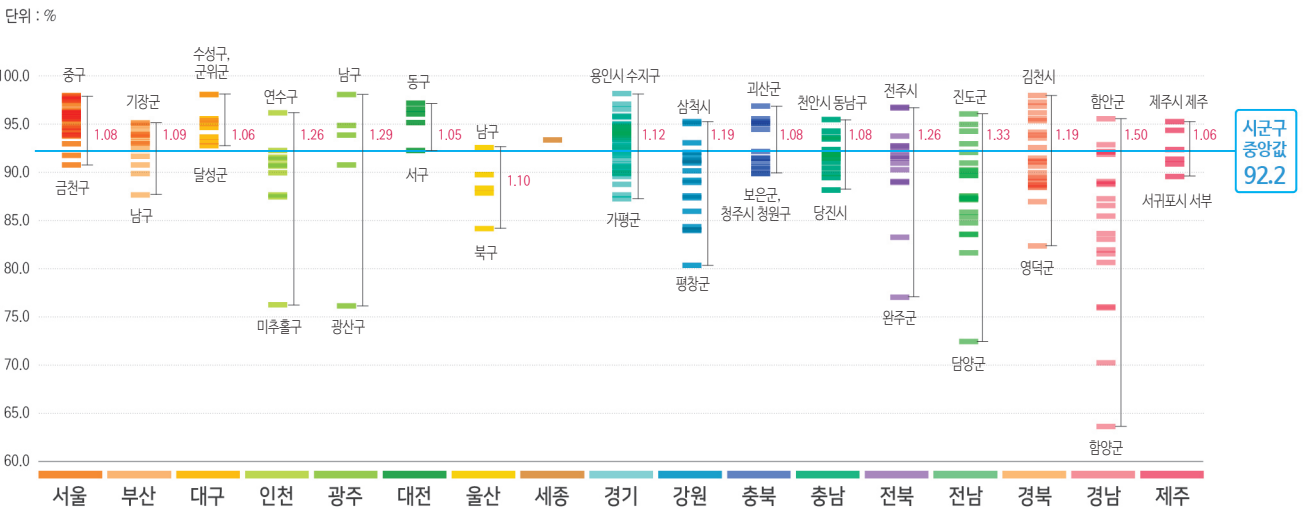


그림 12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은 특별시의 구에서 95.4%로 가장 높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88.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7.5%p로, '23년 10.2%p 대비 2.7%p 감소하였다.

표 260. 2017-2025 6개 도시유형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0.4	-	11.5	3.0	6.7	-	10.2	-	7.5
특별시의 구	90.3	-	90.3	98.5	97.9	-	95.8	-	95.4
광역시의 구	83.6	-	85.8	97.7	95.2	-	92.2	-	92.3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84.5	-	88.3	97.7	95.8	-	93.8	-	92.5
도농복합형태의 시	79.9	-	83.6	96.7	93.1	-	90.0	-	91.8
일반 군	80.8	-	82.7	95.6	91.2	-	88.6	-	89.5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79.8	-	78.8	95.6	92.3	-	85.6	-	88.0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은 수도권 지역 93.7%, 비수도권 지역 91.4%로, 수도권 지역에서 2.2%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61. 2017-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7.0	-	5.1	1.4	3.0	-	4.1	-	2.2
수도권	87.7	-	88.6	98.3	96.6	-	94.3	-	93.7
비수도권	80.7	-	83.6	96.9	93.5	-	90.2	-	91.4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은 중부 지역 93.4%, 남부 지역 91.0%로, 중부 지역에서 2.4%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62. 2017-2025 중부·남부 지역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8.5	-	5.0	1.1	2.8	-	4.2	-	2.4
중부	87.3	-	87.9	98.0	96.1	-	93.8	-	93.4
경기지방	87.7	-	88.6	98.3	96.6	-	94.3	-	93.7
영동지방	82.4	-	83.9	94.8	90.8	-	89.1	-	89.6
영서지방	85.1	-	82.2	95.5	93.3	-	89.7	-	90.7
호서지방	86.3	-	86.2	97.4	94.7	-	92.6	-	93.0
남부	78.8	-	82.9	96.8	93.3	-	89.6	-	91.0
호남지방	77.6	-	83.6	96.6	92.1	-	89.7	-	90.4
영남지방	79.3	-	82.8	97.1	93.8	-	89.6	-	91.1
제주지방	77.4	-	80.5	94.4	91.4	-	88.7	-	93.8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은 동 지역 93.1%, 읍·면 지역 90.4%로, 동 지역에서 2.8%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63. 2017-2025 동·읍·면 지역별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4.4	-	4.4	1.8	3.7	-	4.2	-	2.8
동	85.0	-	87.0	97.9	95.8	-	93.1	-	93.1
읍·면	80.6	-	82.6	96.1	92.1	-	88.9	-	90.4

24.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36]

전국 결과

- ◆ '25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88.5%로 '23년 86.9%에 비해 1.6%p 증가하였다.

표 264. 2017-2025 전국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0.1	-	81.3	93.2	89.3	-	86.9	-	88.5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은 서울에서 93.0%로 가장 높게, 전남에서 8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2년 전 대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4.2%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인천(2.5%p)이었다.

표 265. 2017-2025 시·도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86.4	-	86.0	95.8	94.1	-	92.3	-	93.0
부산	82.7	-	82.1	93.6	90.0	-	89.8	-	90.4
대구	81.5	-	79.4	95.6	90.8	-	89.9	-	90.5
인천	85.0	-	83.3	94.0	90.4	-	89.9	-	87.4
광주	79.4	-	79.5	92.1	87.5	-	84.9	-	88.0
대전	83.9	-	86.8	95.6	94.5	-	91.4	-	91.6
울산	82.0	-	83.4	93.4	90.6	-	86.4	-	87.8
세종	81.7	-	82.1	92.4	91.5	-	88.1	-	88.5
경기	84.3	-	84.8	94.6	92.4	-	90.4	-	90.6
강원	80.4	-	80.8	91.7	86.9	-	85.8	-	86.6
충북	80.9	-	81.9	92.6	88.7	-	85.6	-	87.0
충남	80.2	-	79.2	92.3	88.3	-	86.6	-	86.7
전북	79.0	-	77.2	90.1	85.6	-	82.0	-	85.5
전남	74.0	-	76.6	91.0	83.0	-	82.0	-	83.2
경북	76.0	-	76.1	90.6	86.8	-	85.8	-	86.7
경남	74.3	-	78.3	91.8	87.9	-	83.2	-	84.8
제주	76.3	-	83.1	92.4	89.0	-	87.3	-	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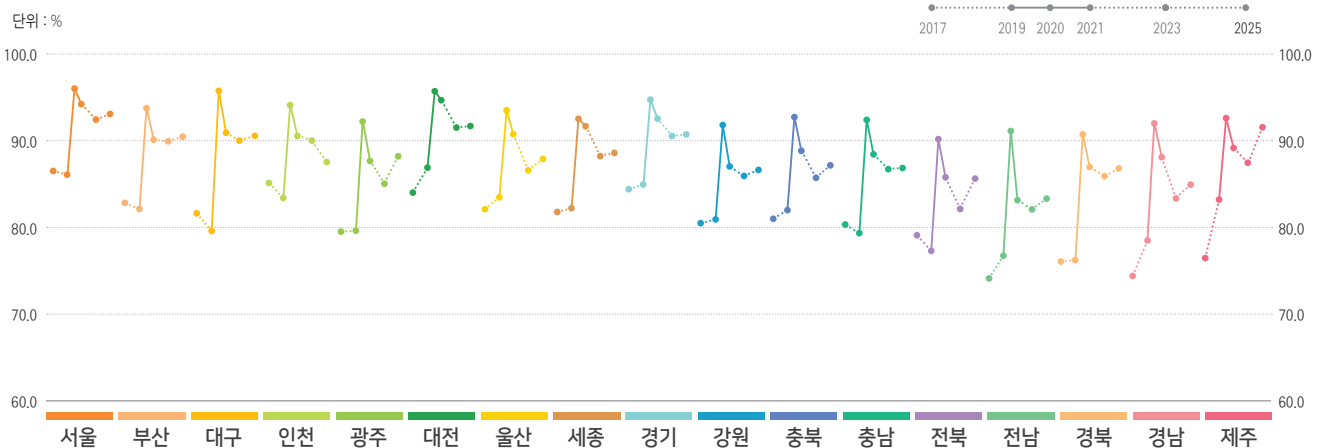


그림 125. 2017-2025 시·도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36] 2년 주기 문항이나 '20년 코로나19 유행 관련으로 조사 실시

- ◆ 2년 전 대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이 증가한 시·도는 16개로 전체의 94.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4.2%p)이었다.
- ◆ 8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15.2%p)이었다.

표 266.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2년 전 대비				8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6 (94.1)		1 (5.9)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제주	4.2	인천	2.5	제주	15.2	-	-
	2위	전북	3.5	-	-	경북	10.7	-	-
	3위	광주	3.1	-	-	경남	10.5	-	-
	4위	경남	1.6	-	-	전남	9.2	-	-
	5위	충북	1.4	-	-	대구	9.0	-	-

- ◆ '25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의 시·도간 격차는 9.8%p이며 '23년 10.4%p 대비 0.6%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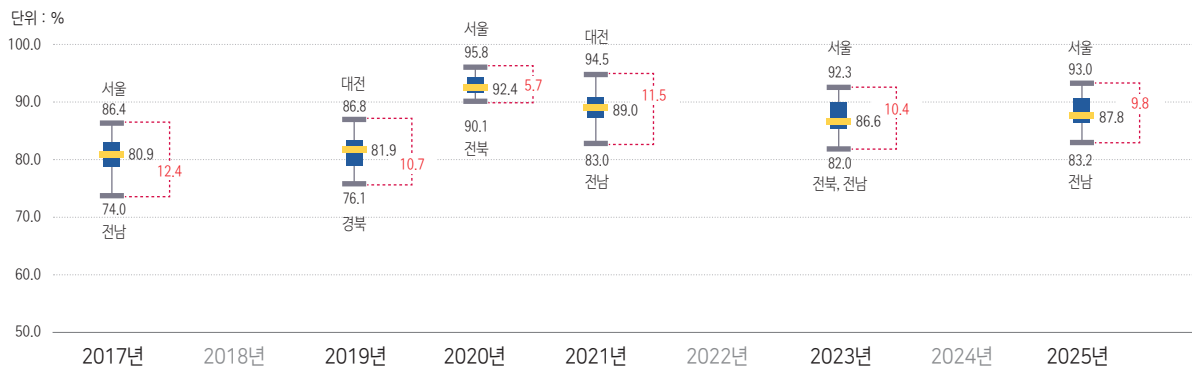


그림 126. 2017-2025 시·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은 서울 용산구, 광주 남구에서 97.2%로 가장 높게, 경남 함양군에서 6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67. 2025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서울 용산구, 광주 남구 97.2	경남 함양군 66.6
2위	서울 은평구 96.8	전북 장수군 74.1
3위	서울 강남구 95.8	전남 장성군 74.3
4위	경기 성남시 분당구 95.4	경북 고령군 74.8
5위	-	경기 연천군 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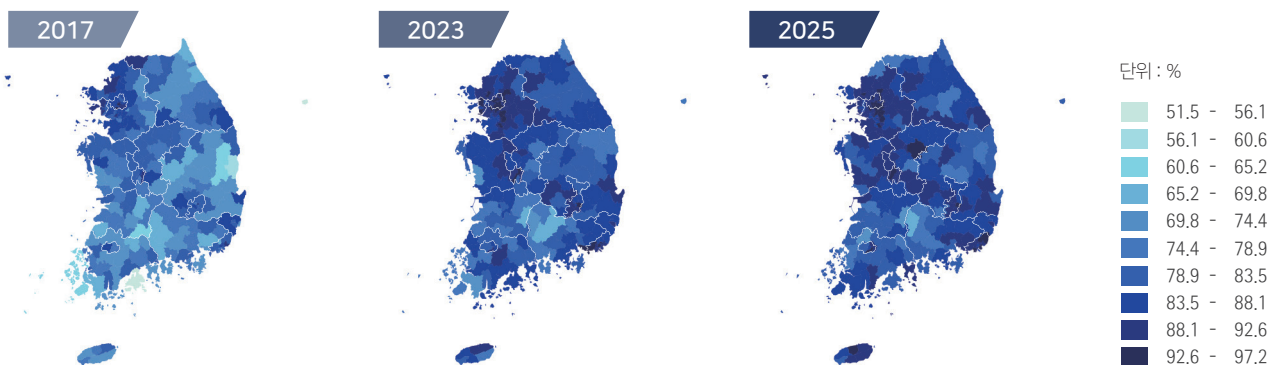


그림 127. 시·군·구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7년, 2023년, 2025년)

- ◆ 2년 전 대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이 증가한 시·군·구는 157개로 전체의 60.9%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충남 보령시(16.6%p)이었다.
- ◆ 8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32개로 전체의 92.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31.0%p)이었다.

표 268.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2년 전 대비				8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57	(60.9)	100	(38.8)	232	(92.1)	19	(7.5)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충남 보령시	16.6	경기 연천군	10.5	경북 울릉군	31.0	강원 철원군	14.3
	2위	충북 괴산군	15.5	경북 고령군	10.3	전남 고흥군	27.2	경기 연천군	8.3
	3위	제주 서귀포시 동부	13.4	전남 함평군	9.9	경북 청송군	24.3	경북 고령군	6.7
	4위	전남 해남군	13.3	경북 포항시 남구	8.6	전남 진도군	24.2	광주 광산구	3.1
	5위	대전 중구	11.4	강원 속초시	8.3	경북 영덕군	22.8	경북 포항시 남구	2.8

- ◆ '25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30.6%p이며, '23년 29.0%p 대비 1.6%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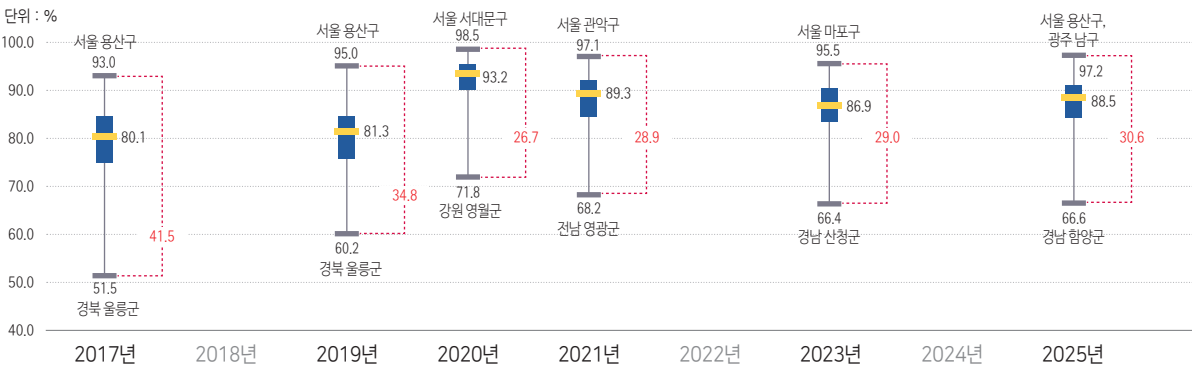


그림 128. 2017-2025 시·군·구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대전(1.05), 가장 큰 지역은 경남(1.39)으로 나타났다.
- ◆ 2년 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전(0.13),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기(0.1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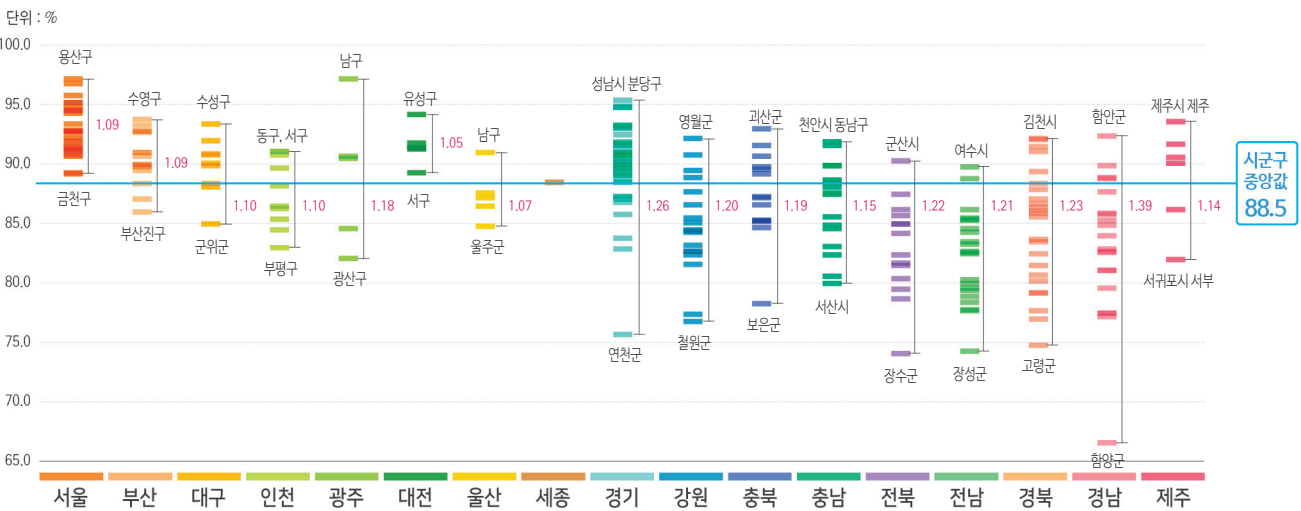


그림 12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은 특별시의 구에서 93.0%로 가장 높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8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11.4%p로, '23년 11.9%p 대비 0.5%p 감소하였다.

표 269. 2017-2025 6개 도시유형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2.2	-	13.2	6.9	9.6	-	11.9	-	11.4
특별시의 구	86.4	-	86.0	95.8	94.1	-	92.3	-	93.0
광역시의 구	82.5	-	82.7	93.9	91.0	-	89.1	-	89.3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84.5	-	83.8	94.4	90.2	-	89.9	-	89.2
도농복합형태의 시	77.9	-	80.1	92.2	87.9	-	85.3	-	86.8
일반 군	76.3	-	77.0	90.6	84.9	-	83.7	-	85.5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74.2	-	72.8	88.9	84.5	-	80.4	-	81.6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은 수도권 지역 91.1%, 비수도권 지역 87.5%로, 수도권 지역에서 3.6%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70. 2017-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1	-	5.2	2.5	4.4	-	4.8	-	3.6
수도권	85.2	-	85.1	95.0	92.8	-	91.1	-	91.1
비수도권	79.1	-	79.8	92.5	88.4	-	86.3	-	87.5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은 중부 지역 90.4%, 남부 지역 87.4%로, 중부 지역에서 3.0%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71. 2017-2025 중부·남부 지역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0	-	5.3	2.2	4.2	-	4.4	-	3.0
중부	84.3	-	84.4	94.5	92.1	-	90.3	-	90.4
경기지방	85.2	-	85.1	95.0	92.8	-	91.1	-	91.1
영동지방	79.0	-	80.4	90.6	83.0	-	83.3	-	84.9
영서지방	81.2	-	81.1	92.2	89.0	-	87.1	-	87.4
호서지방	81.4	-	82.2	93.3	90.3	-	87.7	-	88.2
남부	78.3	-	79.1	92.3	87.9	-	85.9	-	87.4
호남지방	77.2	-	77.6	91.0	85.2	-	82.8	-	85.4
영남지방	78.9	-	79.5	92.9	89.0	-	87.0	-	88.0
제주지방	76.3	-	83.1	92.4	89.0	-	87.3	-	91.5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은 동 지역 90.1%, 읍·면 지역 86.2%로, 동 지역에서 3.8%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72. 2017-2025 동·읍·면 지역별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5.5	-	5.4	3.2	5.4	-	4.4	-	3.8
동	83.2	-	83.5	94.4	91.6	-	89.6	-	90.1
읍·면	77.7	-	78.0	91.1	86.2	-	85.1	-	86.2

25.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전국 결과

- ◆ '25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90.5%로 '24년 90.7%에 비해 0.2%p 감소하였다.

표 273. 2016-2025 전국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4.1	85.7	88.5	89.7	92.0	89.5	91.2	90.5	90.7	90.5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서울에서 96.7%로 가장 높게, 강원, 충남에서 8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북(2.8%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0.9%p)이었다.

표 274. 2016-2025 시·도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92.1	94.5	96.6	96.7	96.6	95.8	95.7	96.0	96.5	96.7
부산	92.5	93.8	95.7	96.3	95.8	96.0	97.2	95.3	95.6	96.6
대구	91.3	93.0	94.6	94.7	95.3	95.3	96.4	94.5	95.4	96.2
인천	92.1	92.1	91.7	94.9	94.7	95.4	95.6	96.2	95.5	95.4
광주	83.6	83.6	86.6	89.7	93.8	89.4	90.5	90.7	93.7	94.2
대전	87.7	89.7	91.8	90.7	94.6	92.7	94.5	93.4	90.2	90.2
울산	87.2	91.8	93.3	93.5	95.2	92.5	90.4	91.3	89.7	90.5
세종	87.3	83.7	86.9	93.7	92.0	95.8	96.5	90.8	92.9	92.0
경기	88.4	90.2	92.1	93.4	94.5	94.2	94.4	94.3	94.3	94.4
강원	82.5	84.3	86.3	87.8	89.2	86.1	88.7	88.0	86.6	86.1
충북	84.4	85.6	88.8	87.9	91.9	88.4	89.6	88.9	88.8	89.0
충남	76.2	75.5	76.3	82.1	88.7	86.2	86.7	83.9	86.2	86.1
전북	73.8	75.9	77.0	81.5	81.9	80.6	83.1	82.9	84.5	87.3
전남	79.1	80.9	83.1	85.4	90.7	86.4	88.7	88.1	87.9	88.1
경북	79.0	79.1	81.9	83.7	86.3	85.0	86.3	85.3	86.6	86.8
경남	86.3	85.9	88.4	89.5	90.5	88.6	88.9	89.7	91.1	90.5
제주	72.8	78.7	83.1	80.9	85.0	80.6	84.7	81.9	86.1	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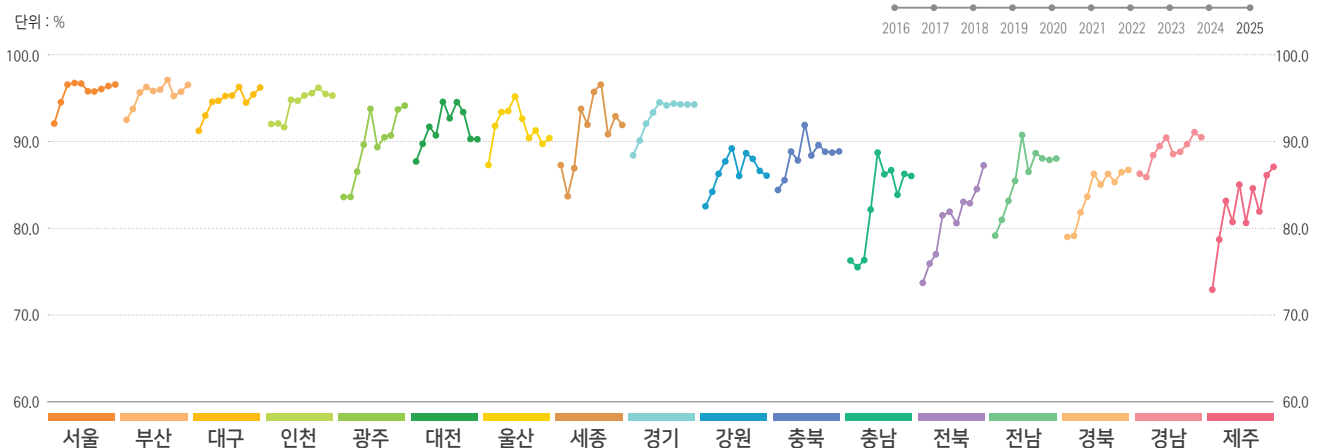


그림 130. 2016-2025 시·도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 ◆ 전년 대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증가한 시·도는 11개로 전체의 64.7%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전북(2.8%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14.3%p)이었다.

표 275.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1 (64.7)		5 (29.4)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북	2.8	세종	0.9	제주	14.3	-	-
	2위	부산, 제주	1.0	경남	0.6	전북	13.5	-	-
	3위			강원	0.5	광주	10.6	-	-
	4위	대구, 울산	0.8	인천, 충남	0.1	충남	9.9	-	-
	5위					전남	9.0	-	-

- ◆ '25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시·도 간 격차는 10.6%p이며, '24년 12.0%p 대비 1.4%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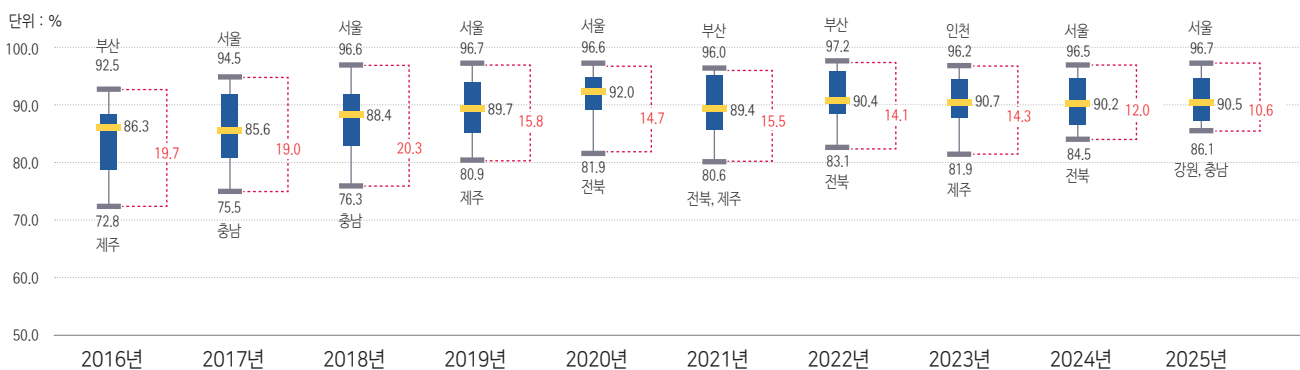


그림 131. 2016-2025 시·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전남 여수시에서 99.6%로 가장 높게, 경북 울릉군에서 4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76. 2025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전남 여수시	99.6	경북 울릉군	45.7
2위	서울 마포구	99.3	전남 신안군	56.3
3위	서울 도봉구	99.1	인천 옹진군	60.1
4위	부산 금정구	98.6	전북 무주군	67.2
5위	부산 부산진구	98.6	경남 산청군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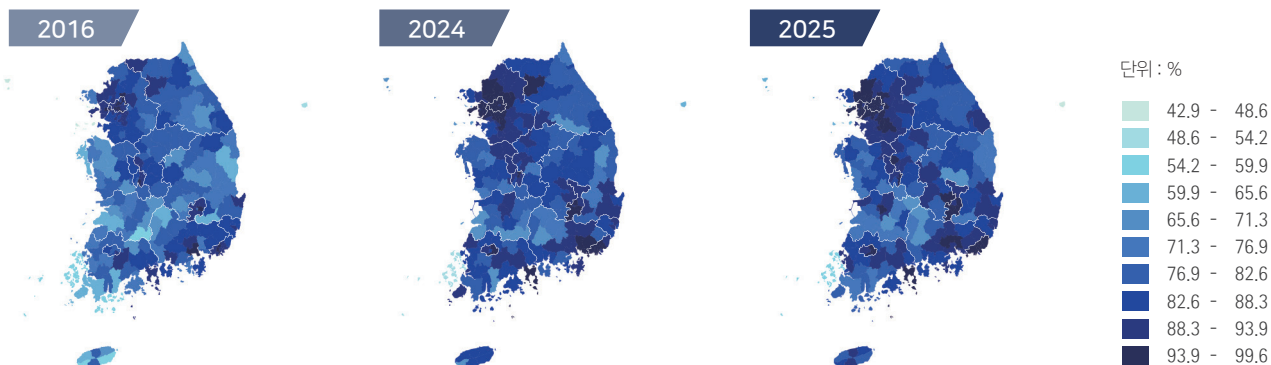


그림 132. 시·군·구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증가한 시·군·구는 130개로 전체의 50.4%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의령군(15.3%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20개로 전체의 87.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제주 서귀포시 서부(29.4%p)이었다.

표 277.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30	(50.4)	127	(49.2)	220	(87.3)	32	(12.7)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남 의령군	15.3	경북 울릉군	15.6	제주 서귀포시 서부	29.4	경남 산청군	17.4
	2위	제주 서귀포시 서부	15.1	경북 의성군	15.1	제주 서귀포시 동부	26.0	강원 철원군	8.9
	3위	강원 영월군	14.8	전북 임실군	14.2	경북 칠곡군	23.0	대전 중구	7.8
	4위	전북 장수군	12.6	전남 진도군	11.4	전남 완도군	22.2	전북 임실군	6.9
	5위	경북 영천시	10.7	전북 무주군	11.0	대구 남구	21.1	경북 포항시 남구	5.5

- ◆ '25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54.0%p이며, '24년 47.6%p 대비 6.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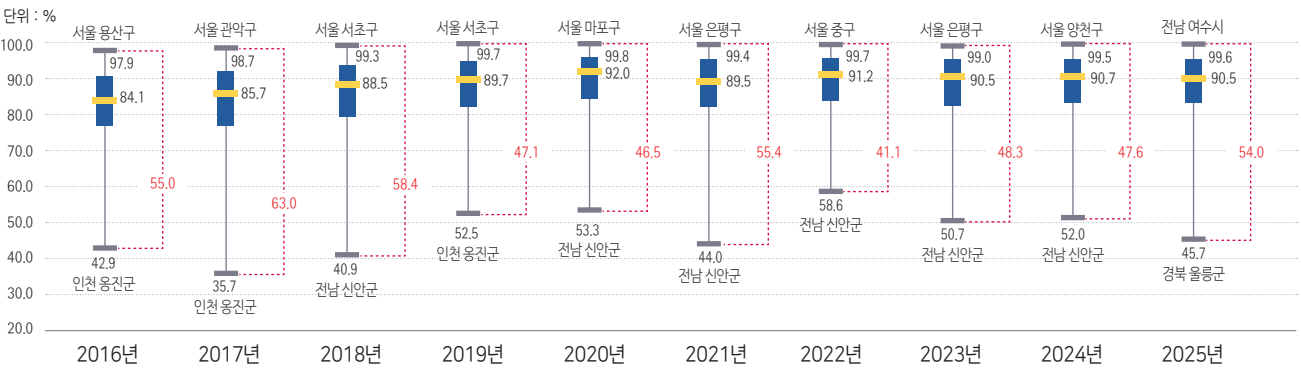


그림 133. 2016-2025 시·군·구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1.06), 가장 큰 지역은 경북(2.14)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강원(0.17),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북(0.6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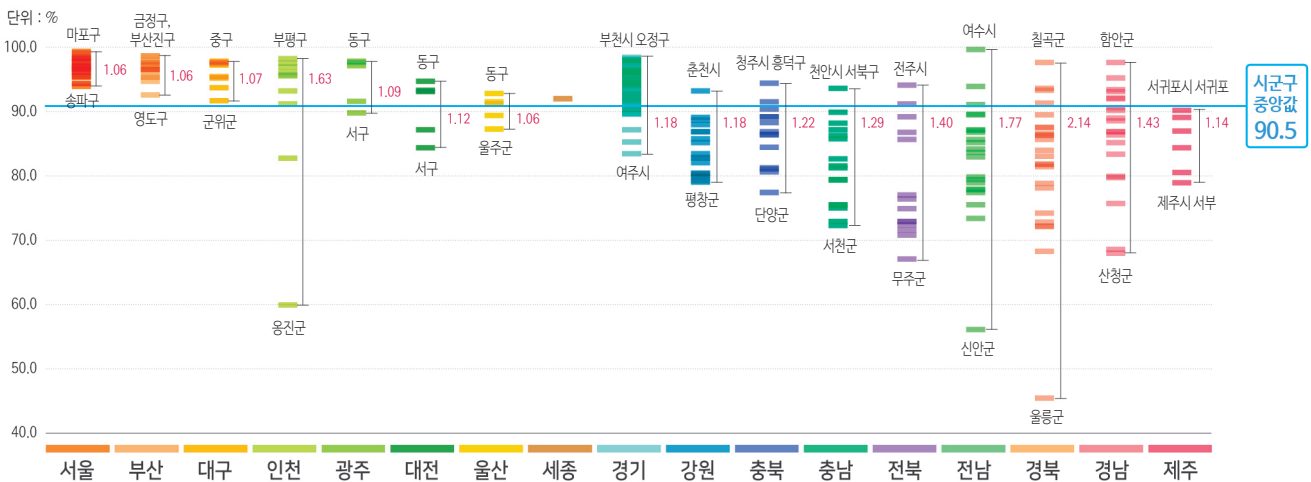


그림 13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특별시의 구에서 96.7%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7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18.1%p로 '24년 15.5%p 대비 2.6%p 증가하였다.

표 278.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0.8	22.1	21.2	19.0	15.9	18.1	17.8	18.3	15.5	18.1
특별시의 구	92.1	94.5	96.6	96.7	96.6	95.8	95.7	96.0	96.5	96.7
광역시의 구	88.5	89.8	91.4	92.6	93.9	93.0	93.6	93.3	93.8	93.9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85.0	87.9	90.4	92.5	95.2	92.6	93.1	93.5	92.8	92.9
도농복합형태의 시	80.7	81.2	84.1	86.2	89.3	87.9	88.8	88.1	87.8	88.0
일반 군	77.3	79.0	81.3	83.7	86.5	84.2	85.8	83.6	84.9	85.0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71.3	72.4	75.4	77.6	80.7	77.7	77.9	77.7	81.0	78.6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수도권 지역 95.2%, 비수도권 지역 90.3%로 수도권 지역에서 4.9%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79.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4	7.0	6.6	6.1	4.3	5.9	4.7	5.8	5.2	4.9
수도권	90.2	92.0	93.7	94.7	95.2	94.9	94.9	95.1	95.2	95.2
비수도권	83.8	85.0	87.0	88.6	90.9	89.0	90.2	89.3	89.9	90.3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중부 지역 93.6%, 남부 지역 91.3%로 중부 지역에서 2.3%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80.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4.0	4.2	3.9	3.7	3.3	4.3	3.4	3.8	2.9	2.3
중부	88.4	89.9	91.7	93.0	94.2	93.5	93.8	93.6	93.6	93.6
경기지방	90.2	92.0	93.7	94.7	95.2	94.9	94.9	95.1	95.2	95.2
영동지방	78.6	81.1	81.0	86.2	87.9	84.2	85.1	85.1	81.3	84.7
영서지방	84.7	86.1	88.9	88.6	89.8	87.1	90.5	89.4	89.2	86.8
호서지방	82.3	82.7	84.7	86.9	91.4	89.2	90.2	88.2	88.5	88.4
남부	84.4	85.7	87.8	89.2	91.0	89.2	90.4	89.7	90.7	91.3
호남지방	78.5	79.9	81.9	85.3	88.5	85.3	87.3	87.1	88.4	89.6
영남지방	87.2	88.3	90.3	91.2	92.2	91.2	91.9	91.2	91.9	92.3
제주지방	72.8	78.7	83.1	80.9	85.0	80.6	84.7	81.9	86.1	87.1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동 지역 94.2%, 읍·면 지역 86.8%로 동 지역에서 7.4%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81.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9.4	10.2	9.2	7.4	6.0	7.1	6.9	7.4	7.2	7.4
동	88.7	90.3	91.9	93.0	94.2	93.2	93.8	93.6	93.9	94.2
읍·면	79.3	80.1	82.8	85.5	88.2	86.1	86.9	86.2	86.7	86.8

26.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전국 결과

- ◆ '25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29.5%로 '24년 30.2%에 비해 0.7%p 감소하였다.

표 282. 2016-2025 전국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2.6	13.7	18.2	28.4	33.1	31.3	32.9	28.1	30.2	29.5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경기에서 35.4%로 가장 높게, 제주에서 22.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2.6%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3.1%p)이었다.

표 283. 2016-2025 시·도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3.4	15.8	26.3	32.7	38.8	36.3	39.3	34.1	34.3	34.4
부산	10.8	13.1	16.8	24.1	29.3	27.9	30.0	25.5	28.2	28.3
대구	10.4	11.7	14.9	27.7	33.1	28.5	27.3	25.4	24.4	23.4
인천	13.3	14.3	19.2	27.3	36.5	36.6	35.6	29.2	32.4	32.5
광주	12.3	9.7	11.1	21.2	23.6	23.2	22.6	22.0	23.8	25.2
대전	20.3	23.6	28.9	39.6	29.8	35.8	28.7	23.4	28.8	27.4
울산	12.5	13.7	22.2	31.1	30.4	28.4	25.9	24.6	26.5	27.1
세종	19.5	21.3	26.6	32.6	32.2	30.0	32.5	27.9	30.8	27.7
경기	14.8	17.6	24.5	33.9	38.5	37.4	38.7	33.4	35.1	35.4
강원	15.8	13.5	20.4	26.3	30.6	26.0	27.5	25.8	26.7	25.4
충북	13.2	15.4	21.1	30.5	32.7	29.2	29.3	24.0	25.2	25.0
충남	12.7	13.2	16.3	23.8	36.1	35.0	35.3	27.6	30.2	29.6
전북	9.6	10.6	15.6	25.2	29.4	26.2	27.6	23.7	27.8	25.7
전남	12.1	11.9	16.7	25.8	31.9	26.7	30.6	25.7	28.8	28.4
경북	10.5	12.3	16.1	23.8	29.1	29.3	31.1	27.0	26.6	28.8
경남	12.7	12.2	16.1	25.5	30.1	30.6	26.3	23.7	27.7	24.7
제주	8.2	8.9	9.9	10.5	12.6	16.7	17.3	15.5	19.7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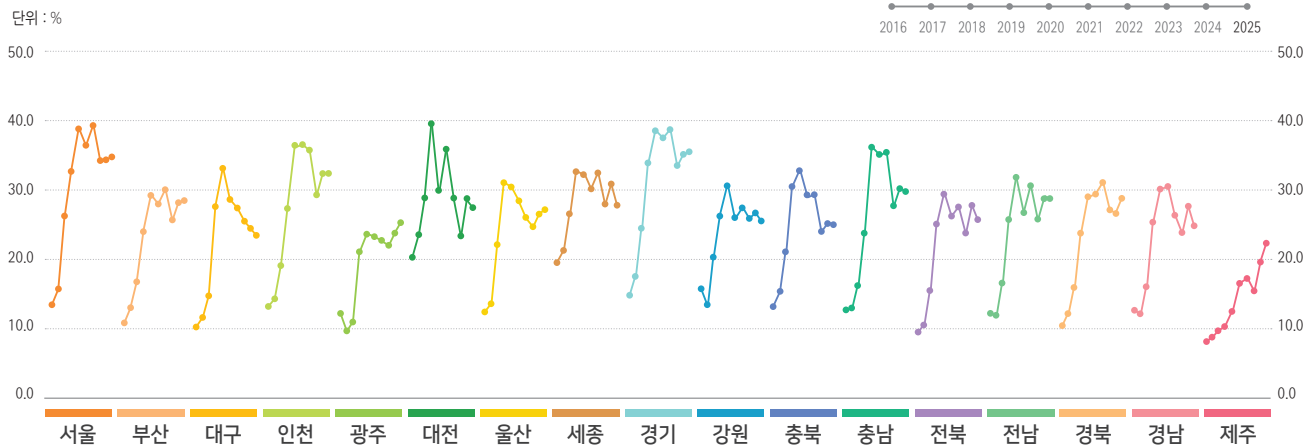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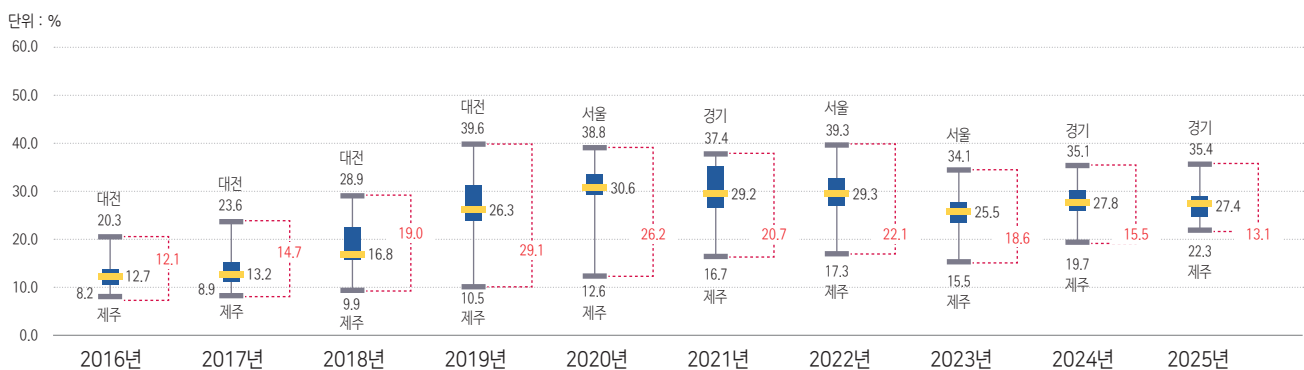
그림 135. 2016-2025 시·도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 ◆ 전년 대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증가한 시·도는 8개로 전체의 47.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2.6%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서울(21.0%p)이었다.

표 284.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 (47.1)		9 (52.9)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제주	2.6	세종	3.1	서울	21.0	-	-
	2위	경북	2.2	경남	3.0	경기	20.6	-	-
	3위	광주	1.4	전북	2.1	인천	19.2	-	-
	4위	울산	0.6	대전	1.4	경북	18.3	-	-
	5위	경기	0.3	강원	1.3	부산	17.5	-	-

- ◆ '25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시·도 간 격차는 13.1%p이며, '24년 15.5%p 대비 2.4%p 감소하였다.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경남 창녕군에서 60.3%로 가장 높게, 경북 울릉군에서 8.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85. 2025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남 창녕군	60.3	경북 울릉군	8.0
2위	경남 함안군	48.4	대구 수성구	15.2
3위	강원 양구군	45.3	경북 영주시	16.4
4위	경기 용인시 수지구	45.0	충남 보령시	16.8
5위	경기 파주시	43.0	제주 제주시 제주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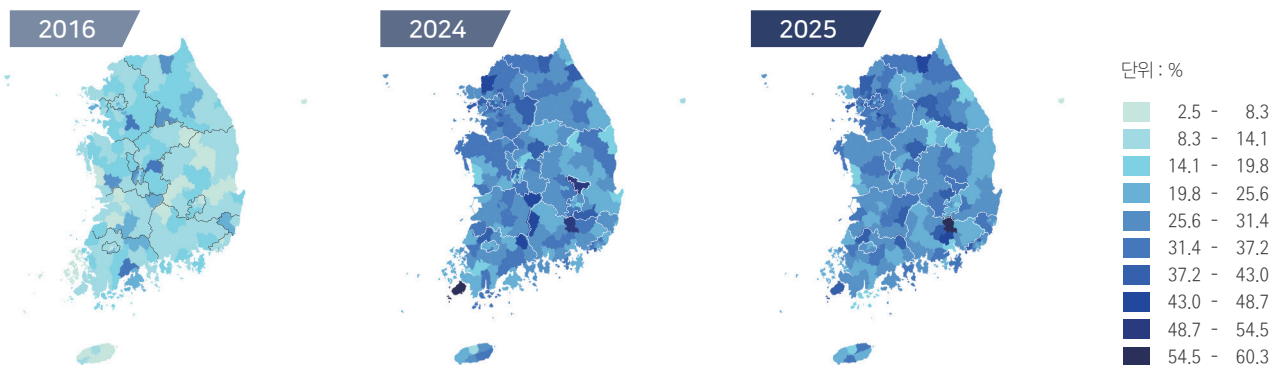


그림 137. 시·군·구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증가한 시·군·구는 128개로 전체의 49.6%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함안군(16.1%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49개로 전체의 98.8%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창녕군(42.9%p)이었다.

표 286.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28	(49.6)	125	(48.4)	249	(98.8)	3	(1.2)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남 함안군	16.1	대구 군위군	21.1	경남 창녕군	42.9	서울 용산구	6.3
	2위	경남 의령군	15.4	경남 함양군	16.3	경남 함안군	35.5	전남 보성군	5.0
	3위	강원 영월군	11.6	전남 완도군	15.5	경기 용인시 수지구	31.9	대전 서구	4.0
	4위	서울 금천구	11.4	대전 대덕구	14.6	부산 금정구	31.7	-	-
	5위	경북 예천군	10.9	전남 진도군	13.9	전남 진도군	31.5	-	-

- ◆ '25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52.3%p이며, '24년 43.2%p 대비 9.1%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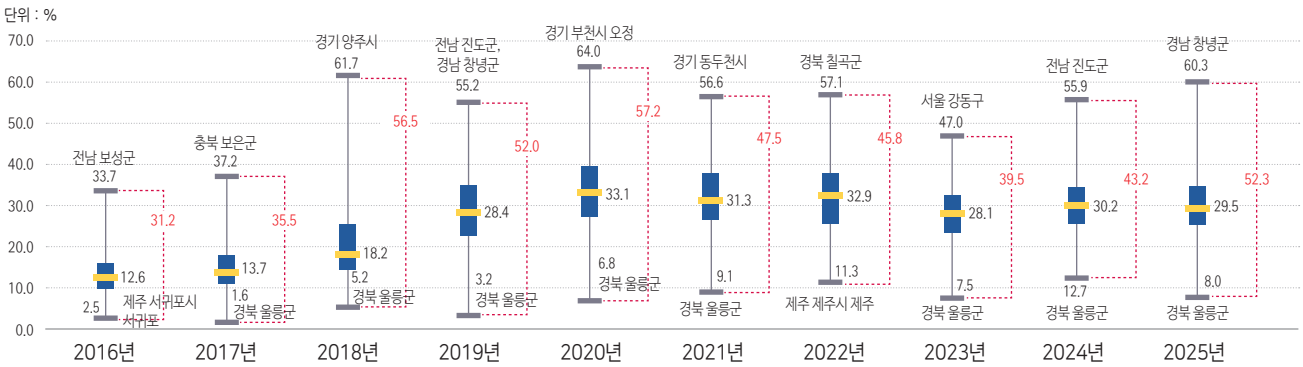


그림 138. 2016-2025 시·군·구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광주(1.38), 가장 큰 지역은 경북(5.24)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구(0.84),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북(1.9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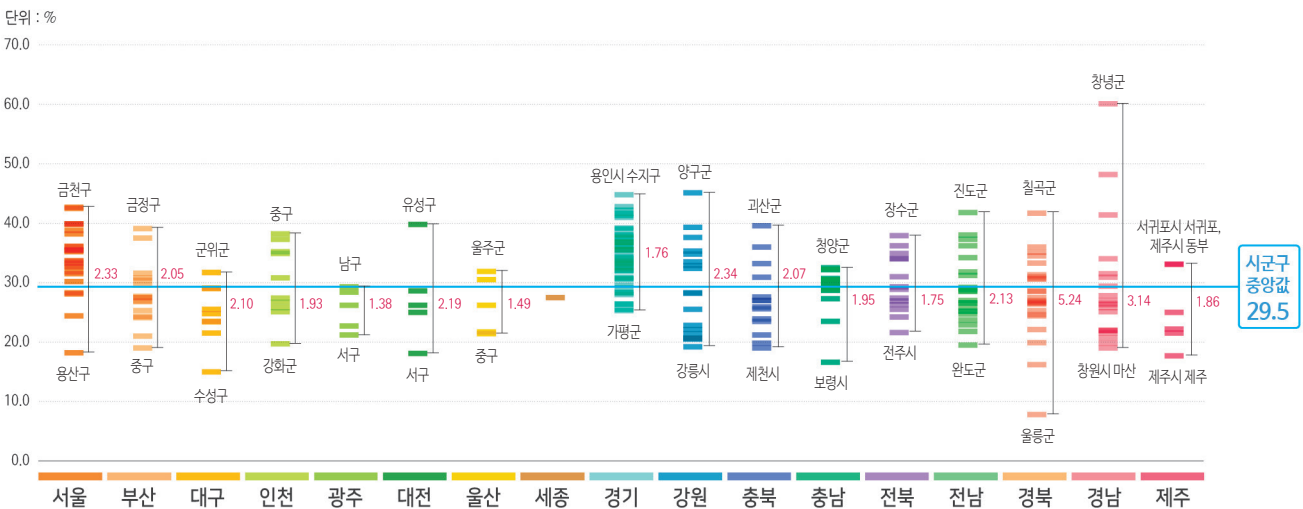


그림 13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특별시의 구에서 34.4%로 가장 높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2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6.9%p로 '24년 5.8%p 대비 1.1%p 증가하였다.

표 287.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4.4	3.0	7.2	6.7	7.5	7.0	7.2	6.9	5.8	6.9
특별시의 구	13.4	15.8	26.3	32.7	38.8	36.3	39.3	34.1	34.3	34.4
광역시의 구	13.2	14.4	19.2	29.0	33.4	32.7	32.2	28.0	30.5	30.3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13.1	15.9	23.1	31.1	33.8	32.1	34.2	29.1	30.8	31.5
도농복합형태의 시	11.9	13.8	19.4	26.0	31.3	29.3	32.6	27.3	28.5	27.6
일반군	14.8	16.8	23.2	30.0	35.3	33.0	33.2	29.5	30.3	30.1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16.3	15.9	19.1	26.9	35.9	32.5	33.6	28.5	31.0	30.1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수도권 지역 34.7%, 비수도권 지역 26.5%로 수도권 지역에서 8.2%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88.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8	3.4	7.3	6.5	8.3	8.1	10.1	8.4	7.4	8.2
수도권	14.1	16.5	24.6	32.6	38.4	36.9	38.6	33.2	34.5	34.7
비수도권	12.3	13.1	17.3	26.1	30.1	28.8	28.5	24.8	27.0	26.5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중부 지역 33.1%, 남부 지역 26.2%로 중부 지역에서 6.9%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89.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1	4.5	8.1	7.3	8.0	8.2	9.4	7.2	6.6	6.9
중부	14.3	16.4	23.9	32.0	37.1	35.8	37.0	31.6	33.2	33.1
경기지방	14.1	16.5	24.6	32.6	38.4	36.9	38.6	33.2	34.5	34.7
영동지방	11.3	10.8	19.5	21.9	24.4	19.5	19.8	24.0	22.5	21.2
영서지방	18.3	15.2	20.9	28.9	34.1	29.6	31.7	26.8	28.8	27.6
호서지방	15.3	17.2	21.7	30.8	33.1	33.4	31.7	25.5	28.6	27.5
남부	11.2	11.9	15.8	24.7	29.1	27.6	27.6	24.5	26.5	26.2
호남지방	11.2	10.7	14.6	24.1	28.4	25.5	27.0	23.8	26.9	26.3
영남지방	11.3	12.5	16.6	25.7	30.2	29.0	28.4	25.2	26.8	26.4
제주지방	8.2	8.9	9.9	10.5	12.6	16.7	17.3	15.5	19.7	22.3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동 지역 31.0%, 읍·면 지역 29.9%로 동 지역에서 1.1%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90.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5	1.8	0.2	0.7	0.2	0.0	0.1	0.6	0.5	1.1
동	12.9	14.5	21.1	29.4	34.4	33.0	33.8	29.1	31.0	31.0
읍·면	14.4	16.3	20.9	30.0	34.2	33.0	33.7	29.7	30.5	29.9

27.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전국 결과

- ◆ '25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1.4%로 '24년 1.7%에 비해 0.3%p 감소하였다.

표 291. 2016-2025 전국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0.1	8.8	7.3	5.2	1.9	2.0	1.8	2.0	1.7	1.4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서울에서 0.4%로 가장 낮게, 전남에서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1.9%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강원(0.2%p)이었다.

표 292. 2016-2025 시·도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7.3	5.8	3.2	3.2	0.9	1.0	1.0	0.9	0.9	0.4
부산	7.5	6.4	4.9	3.1	1.3	1.4	1.1	1.5	0.9	0.7
대구	8.7	6.6	4.2	4.6	1.1	1.9	1.7	1.3	1.3	0.7
인천	6.9	5.9	5.4	4.1	1.3	1.3	1.2	1.5	1.3	1.2
광주	11.8	10.2	6.3	5.3	1.6	2.6	1.6	1.3	0.9	0.6
대전	6.8	5.6	4.7	2.5	1.5	1.1	0.8	1.4	1.0	1.0
울산	11.3	7.1	7.5	4.5	1.4	1.6	1.0	2.1	1.3	1.3
세종	12.3	11.6	7.2	2.5	1.8	1.3	1.2	2.7	2.8	0.9
경기	8.7	7.5	5.7	4.4	1.6	1.5	1.2	1.6	1.5	1.1
강원	8.2	9.6	7.2	6.2	2.4	2.9	3.0	2.7	1.9	2.1
충북	12.0	10.3	8.5	6.5	2.1	2.5	2.6	3.1	2.3	2.1
충남	13.5	15.0	14.5	8.6	3.4	3.0	2.9	4.1	2.6	2.1
전북	9.9	9.4	9.4	6.5	2.8	2.7	3.4	2.9	2.2	1.7
전남	14.7	12.3	10.7	6.9	2.8	3.6	2.3	2.7	2.5	2.4
경북	13.6	11.3	10.6	6.9	3.9	3.5	2.7	3.3	2.4	2.0
경남	11.5	11.8	8.9	7.0	3.3	3.2	2.4	2.7	1.8	1.5
제주	8.7	8.5	9.9	5.9	2.7	2.9	2.5	3.1	1.7	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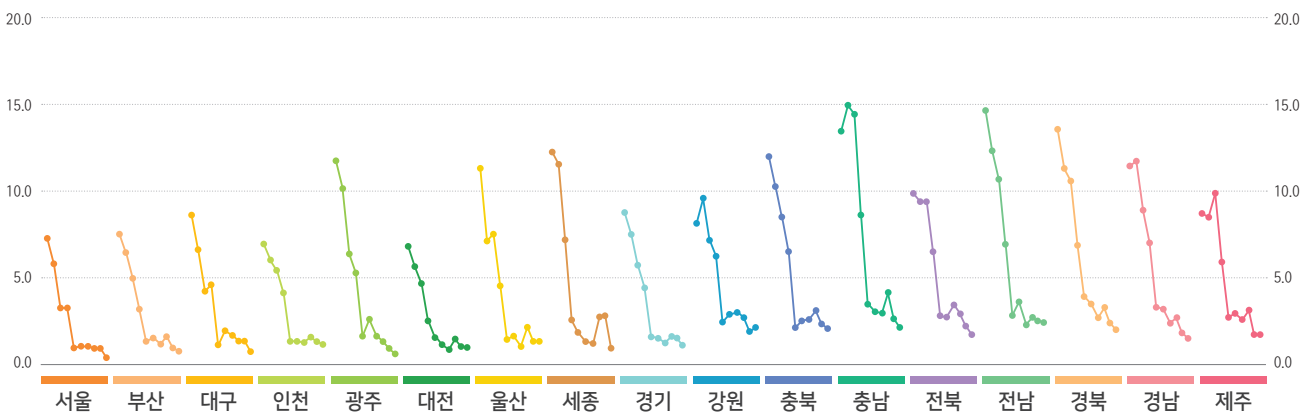


그림 140. 2016-2025 시·도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 ◆ 전년 대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이 감소한 시·도는 13개로 전체의 76.5%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1.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남(12.3%p)이었다.

표 293.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 (5.9)		13 (76.5)		- (-)		1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강원	0.2	세종	1.9	-	-	전남	12.3
	2위	-	-	대구	0.6	-	-	경북	11.6
	3위	-	-	서울, 충남, 전북	0.5	-	-	세종, 충남	11.4
	4위	-	-			-	-	-	-
	5위	-	-	-	-	-	-	광주	11.2

- ◆ '25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의 시·도 간 격차는 1.9%p이며, '24년과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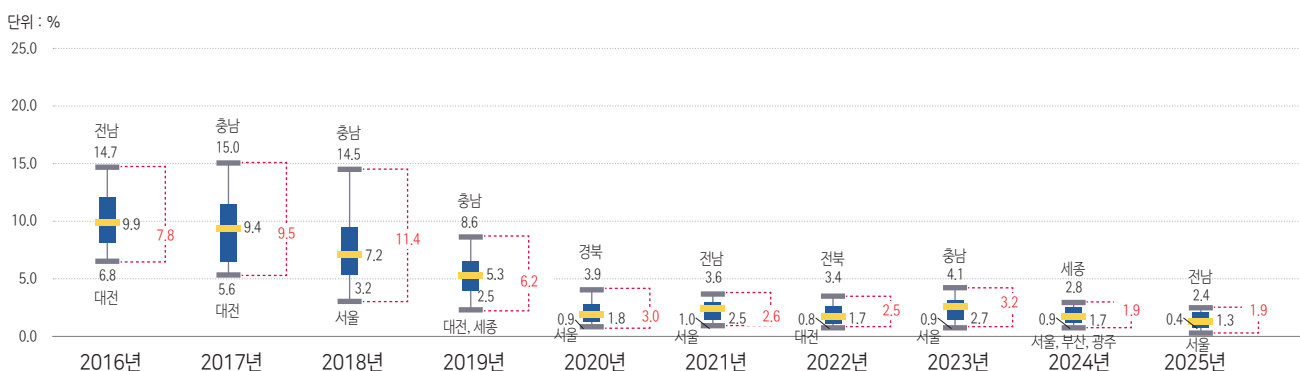


그림 141. 2016-2025 시·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부산 서구, 대구 서구에서 0.0%로 가장 낮게, 경북 의성군에서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94. 2025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북 의성군	15.8	부산 서구, 대구 서구	0.0
2위	전남 신안군	8.9		
3위	전남 해남군	8.3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동대문구	0.1
4위	전북 장수군	7.9		
5위	전남 곡성군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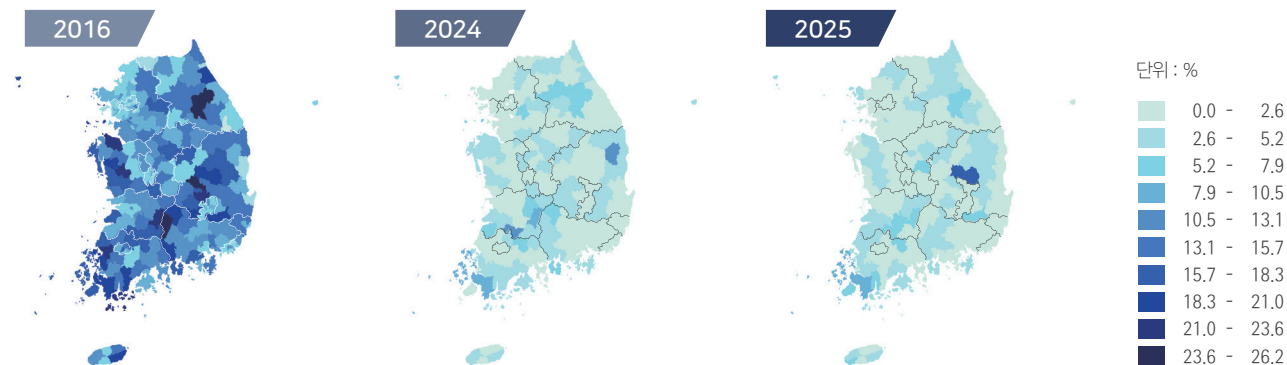


그림 142. 시·군·구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148개로 전체의 59.7%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전북 순창군(7.5%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군·구가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경남 함양군(22.9%p)이었다.

표 295.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94	(37.9)	148	(59.7)	-	(-)	24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북 의성군	14.6	전북 순창군	7.5	-	-	경남 함양군	22.9
	2위	전남 진도군	5.0	경북 영양군	7.1	-	-	경북 칠곡군	22.2
	3위	전북 임실군	3.6	경남 거창군	6.2	-	-	경북 구미시 선산	20.4
	4위	충남 홍성군	3.1	경기 광주시	4.1	-	-	충남 당진시	19.6
	5위	강원 정선군	3.0	강원 횡성군	3.6	-	-	전남 함평군	19.4

- ◆ '25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15.8%p이며, '24년 12.7%p 대비 3.1%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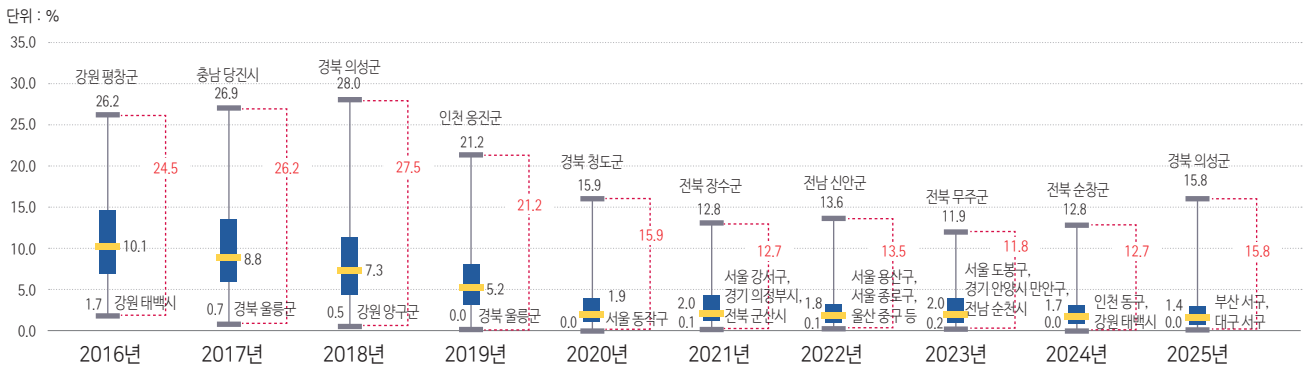


그림 143. 2016-2025 시·군·구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3.17), 가장 큰 지역은 전남(89.00)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기(41.50),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북(39.1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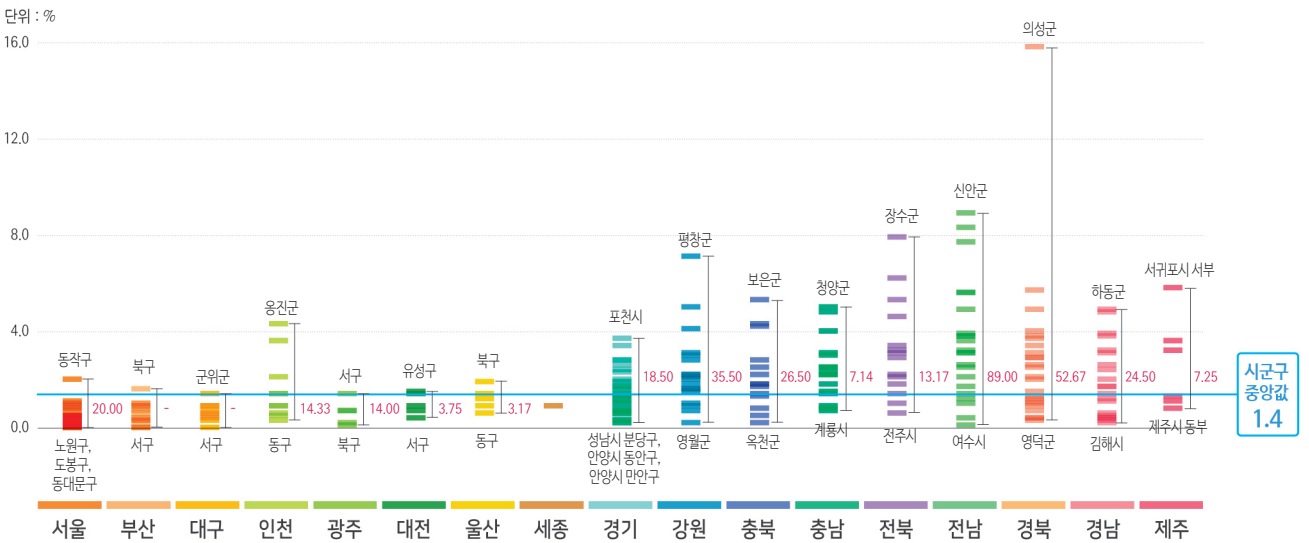


그림 14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특별시의 구에서 0.4%로 가장 낮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3.9%p로 '24년 4.1%p 대비 0.2%p 감소하였다.

표 296.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9.1	10.8	10.4	7.3	4.1	4.0	4.5	4.3	4.1	3.9
특별시의 구	7.3	5.8	3.2	3.2	0.9	1.0	1.0	0.9	0.9	0.4
광역시시의 구	8.7	7.5	6.0	4.5	1.6	1.6	1.4	1.7	1.3	1.1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7.6	6.4	6.0	3.8	1.1	1.8	1.0	1.4	1.3	1.2
도농복합형태의 시	12.0	11.8	10.1	6.4	3.0	2.9	2.5	2.8	2.4	1.8
일반 군	14.6	12.4	10.6	8.0	3.6	4.2	3.1	4.0	3.1	2.5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16.4	16.6	13.6	10.5	5.0	5.0	5.5	5.2	5.0	4.4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수도권 지역 0.9%, 비수도권 지역 1.5%로 수도권 지역에서 0.6%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97.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8	3.1	3.4	1.8	1.1	1.3	1.0	1.1	0.6	0.6
수도권	8.0	6.7	4.8	3.9	1.4	1.3	1.1	1.4	1.2	0.9
비수도권	10.8	9.8	8.2	5.7	2.4	2.5	2.2	2.5	1.8	1.5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중부 지역 1.1%, 남부 지역 1.4%로 중부 지역에서 0.3%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98.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3	1.9	2.0	1.2	0.8	1.1	0.7	0.6	0.3	0.3
중부	8.6	7.6	5.8	4.4	1.6	1.6	1.4	1.7	1.4	1.1
경기지방	8.0	6.7	4.8	3.9	1.4	1.3	1.1	1.4	1.2	0.9
영동지방	7.6	8.5	4.9	4.3	1.9	1.9	2.8	2.9	1.8	1.7
영서지방	8.6	10.3	8.5	7.2	2.7	3.4	3.2	2.6	2.0	2.3
호서지방	11.3	11.0	9.8	6.0	2.4	2.2	2.2	3.0	2.2	1.7
남부	10.9	9.4	7.8	5.6	2.4	2.6	2.1	2.3	1.7	1.4
호남지방	12.2	10.7	8.9	6.3	2.5	3.0	2.5	2.3	1.9	1.6
영남지방	10.5	9.0	7.3	5.4	2.4	2.4	1.9	2.2	1.6	1.2
제주지방	8.7	8.5	9.9	5.9	2.7	2.9	2.5	3.1	1.7	1.7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동 지역 0.9%, 읍·면 지역 2.4%로 동 지역에서 1.5%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299.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5.0	5.3	4.8	2.8	2.1	2.0	1.7	1.9	1.4	1.5
동	8.5	7.2	5.7	4.3	1.5	1.5	1.3	1.5	1.3	0.9
읍·면	13.4	12.5	10.4	7.1	3.6	3.5	3.0	3.5	2.7	2.4

28. 혈압수치 인지율

전국 결과

- ◆ '25년 혈압수치 인지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62.8%로 '24년 61.2%에 비해 1.6%p 증가하였다.

표 300. 2016-2025 전국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2.4	54.7	43.1	54.5	60.6	61.6	62.9	62.8	61.2	62.8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혈압수치 인지율은 세종에서 76.5%로 가장 높게, 인천에서 5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혈압수치 인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13.9%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남(4.4%p)이었다.

표 301. 2016-2025 시·도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52.5	57.9	45.8	58.9	64.8	63.3	64.7	64.9	61.0	59.7
부산	54.6	56.6	44.3	54.5	58.1	58.9	57.9	62.6	57.3	59.2
대구	52.8	51.2	44.0	50.1	61.1	61.1	61.7	64.7	64.7	66.5
인천	58.7	62.2	40.7	52.7	61.6	55.6	55.1	56.6	50.6	53.6
광주	52.0	53.8	33.8	52.0	52.7	63.2	60.2	57.8	54.8	54.8
대전	50.0	60.7	58.9	58.1	64.2	69.4	72.6	74.7	73.8	75.3
울산	51.0	45.7	38.8	52.6	55.8	57.7	56.5	58.2	57.7	62.1
세종	65.1	62.1	50.6	60.7	65.8	71.2	67.2	67.1	62.6	76.5
경기	53.3	52.7	42.5	51.7	58.5	61.9	62.4	62.1	57.9	60.5
강원	55.3	59.0	48.6	58.6	66.4	66.4	66.1	63.0	64.8	67.0
충북	54.6	55.0	53.4	61.6	65.0	66.9	68.0	68.9	69.4	67.0
충남	55.8	57.2	45.0	56.3	69.1	69.4	68.1	69.0	67.8	71.0
전북	53.8	56.7	50.6	64.3	62.2	63.9	64.3	61.4	55.7	55.5
전남	53.9	53.4	40.5	48.0	57.6	60.3	62.1	60.7	60.7	60.5
경북	51.6	56.6	48.5	58.2	60.1	65.1	66.2	68.5	70.5	69.9
경남	52.5	53.5	39.4	49.0	64.1	63.9	63.6	59.7	62.9	58.5
제주	35.3	54.6	47.9	59.2	61.9	61.5	66.5	61.1	63.7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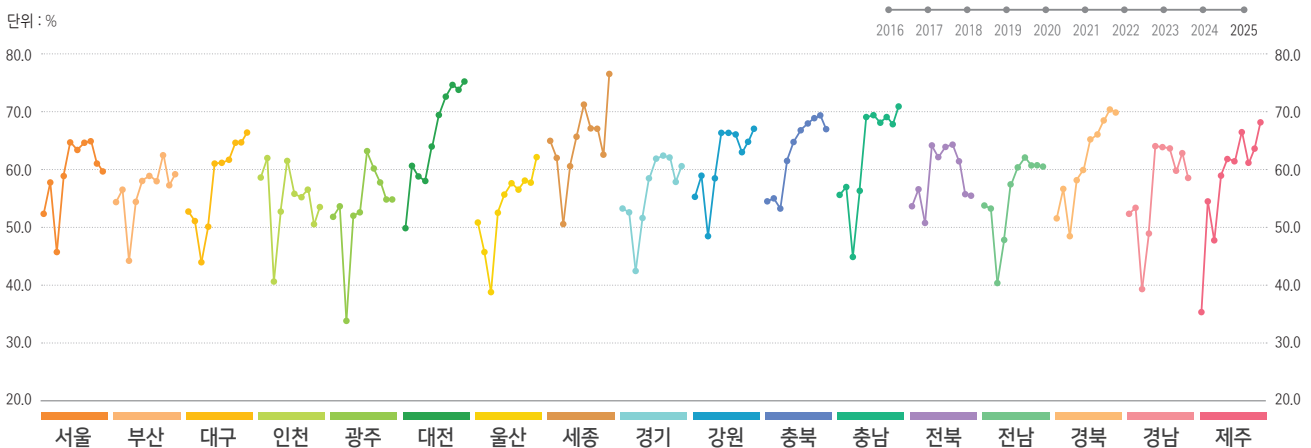


그림 145. 2016-2025 시·도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 ◆ 전년 대비 혈압수치 인지율이 증가한 시·도는 10개로 전체의 58.8%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13.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도는 16개로 전체의 94.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32.9%p)이었다.

표 302. 혈압수치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0	(58.8)	6	(35.3)	16	(94.1)	1	(5.9)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13.9	경남	4.4	제주	32.9	인천	5.1
	2위	제주	4.5	충북	2.4	대전	25.3	-	-
	3위	울산	4.4	서울	1.3	경북	18.3	-	-
	4위	충남	3.2	경북	0.6	충남	15.2	-	-
	5위	인천	3.0	전북, 전남	0.2	대구	13.7	-	-

- ◆ '25년 혈압수치 인지율의 시·도 간 격차는 22.9%p이며, '24년 23.2%p 대비 0.3%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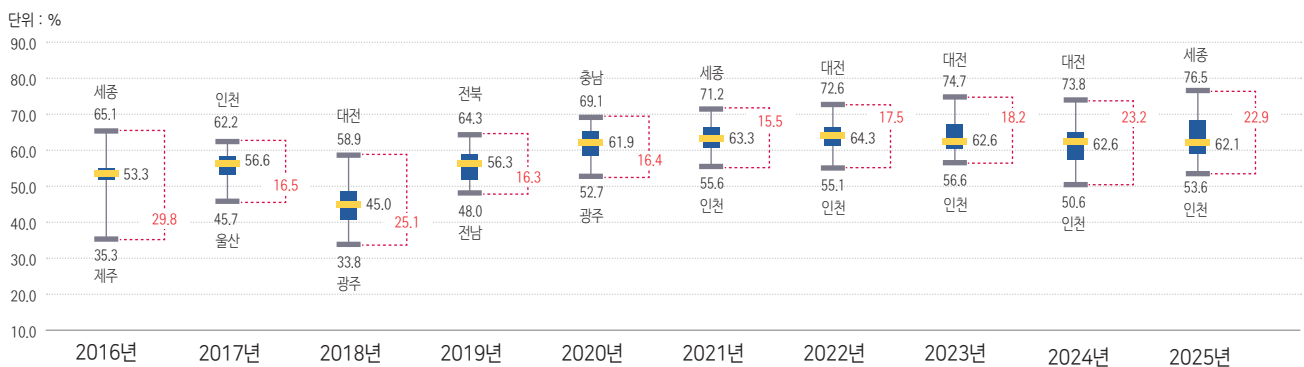


그림 146. 2016-2025 시·도 혈압수치 인지율 분포

- ◆ '25년 시·군·구별 혈압수치 인지율은 경북 봉화군, 경북 울진군에서 84.4%로 가장 높게, 전북 완주군에서 4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03. 2025년 혈압수치 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북 봉화군	84.4	전북 완주군	41.0
2위	경북 울진군	84.4	서울 마포구	42.2
3위	부산 금정구	81.7	경기 부천시 오정구	42.8
4위	대전 유성구	81.3	대구 수성구	43.3
5위	대구 군위군	80.8	전남 완도군, 경남 산청군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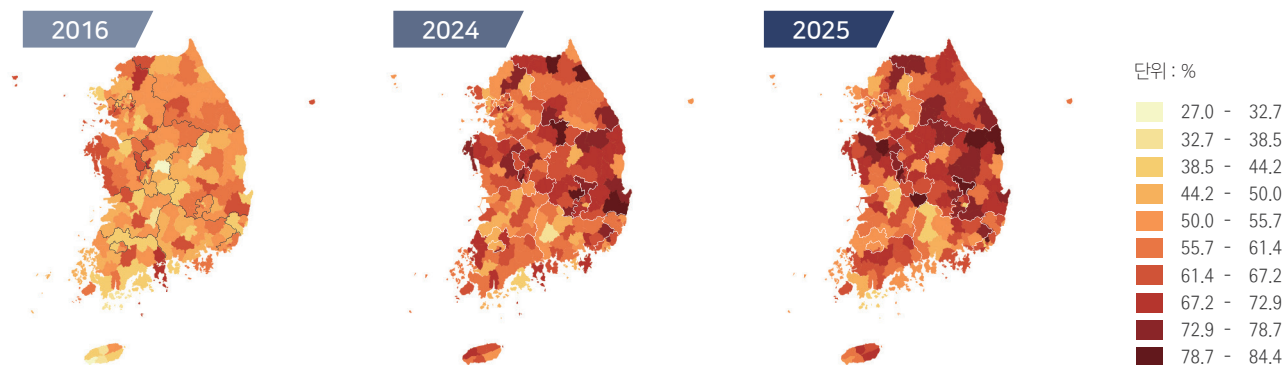


그림 147. 시·군·구별 혈압수치 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혈압수치 인지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47개로 전체의 57.0%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부산 동구(23.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11개로 전체의 83.7%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제주 제주시 제주(39.1%p)이었다.

표 304. 혈압수치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47	(57.0)	110	(42.6)	211	(83.7)	41	(16.3)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부산 동구	23.9	경남 사천시	17.8	제주 제주시 제주	39.1	경기 이천시	19.5
	2위	강원 고성군	19.2	전남 영광군	16.5	대구 서구	38.7	인천 남동구	18.2
	3위	경기 수원시 영통구	19.1	강원 양구군	16.4	충남 아산시	36.3	전남 여수시	16.4
	4위	전북 무주군	17.9	전남 여수시	16.3	경북 포항시 남구	35.4	부산 부산진구	13.2
	5위	부산 중구	17.5	광주 남구	16.2	경북 봉화군	34.9	인천 연수구	11.3

- ◆ '25년 혈압수치 인지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43.4%p이며, '24년 46.4%p 대비 3.0%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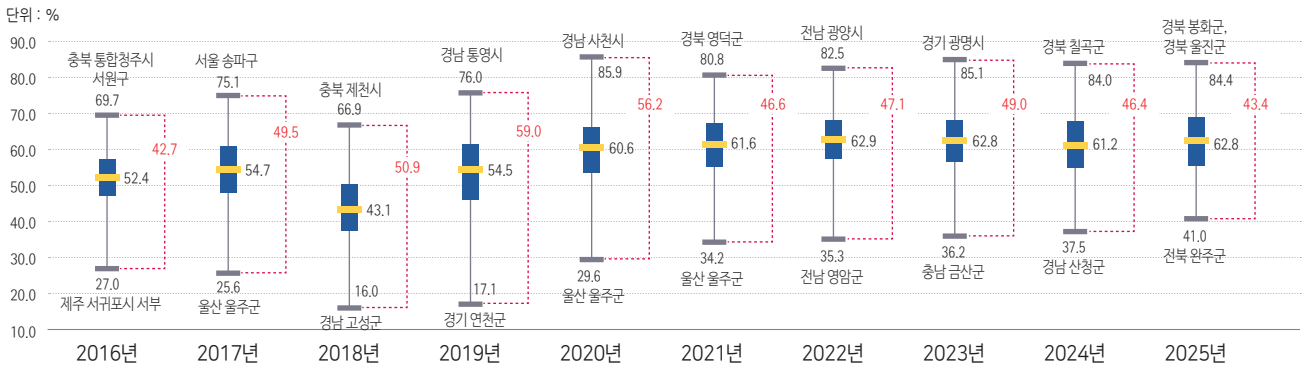


그림 148. 2016-2025 시·군·구 혈압수치 인지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혈압수치 인지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17), 가장 큰 지역은 전북(1.93)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광주(0.39),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북(0.4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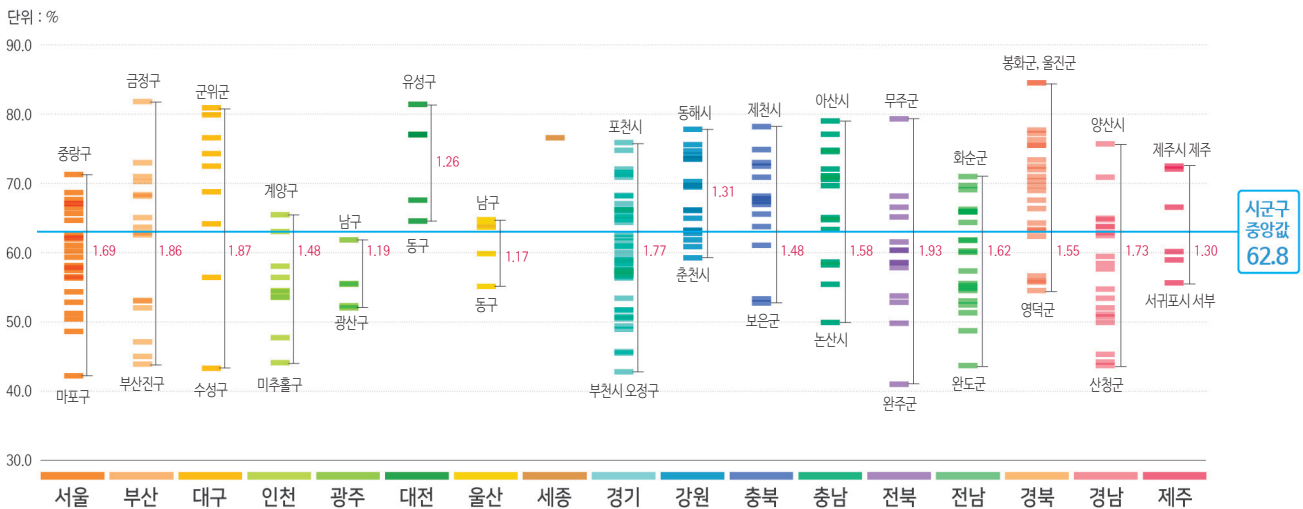


그림 14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혈압수치 인지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혈압수치 인지율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64.8%로 가장 높고, 특별시의 구에서 5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5.1%p로 '24년 7.1%p 대비 2.0%p 감소하였다.

표 305.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9	7.2	7.2	12.2	8.3	5.8	5.4	6.7	7.1	5.1
특별시의 구	52.5	57.9	45.8	58.9	64.8	63.3	64.7	64.9	61.0	59.7
광역시의 구	53.8	55.4	44.4	54.0	60.4	62.8	62.2	62.2	59.6	61.3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50.9	55.7	43.5	49.6	61.2	60.7	66.9	64.4	57.2	63.0
도농복합형태의 시	54.7	54.6	45.5	56.4	63.3	64.2	64.4	65.2	64.3	64.8
일반 군	50.8	50.7	40.8	50.2	56.5	58.5	61.5	63.2	62.3	63.4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51.2	52.0	38.7	46.7	59.6	58.7	61.4	58.4	59.5	61.2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혈압수치 인지율은 수도권 지역 59.4%, 비수도권 지역 64.0%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4.6%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06.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8	0.9	1.6	0.3	0.2	1.9	1.2	1.5	5.1	4.6
수도권	53.6	55.8	43.6	54.6	61.3	61.7	62.5	62.5	58.2	59.4
비수도권	52.9	55.0	45.2	54.9	61.5	63.6	63.7	64.0	63.3	64.0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혈압수치 인지율은 중부 지역 61.6%, 남부 지역 61.4%로 중부 지역에서 0.3%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07.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4	2.3	2.0	1.8	2.6	1.2	1.8	1.7	0.9	0.3
중부	53.7	56.2	45.1	55.4	62.3	63.0	63.6	63.8	60.2	61.6
경기지방	53.6	55.8	43.6	54.6	61.3	61.7	62.5	62.5	58.2	59.4
영동지방	55.0	56.5	44.7	54.8	63.8	61.6	64.5	62.6	62.1	66.1
영서지방	55.5	60.3	50.8	60.7	67.8	68.9	66.9	63.1	66.1	67.3
호서지방	54.1	57.6	51.5	58.5	66.2	68.8	69.1	70.4	69.4	71.4
남부	52.3	53.9	43.1	53.5	59.7	61.9	61.9	62.1	61.2	61.4
호남지방	53.2	54.4	41.9	54.7	57.6	62.4	62.1	60.0	56.9	56.8
영남지방	52.8	53.7	43.3	52.8	60.4	61.7	61.6	63.0	62.7	62.8
제주지방	35.3	54.6	47.9	59.2	61.9	61.5	66.5	61.1	63.7	68.2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혈압수치 인지율은 동 지역 61.1%, 읍·면 지역 63.9%로 읍·면 지역에서 2.8%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08.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혈압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0	3.9	3.2	4.0	2.6	2.4	1.6	0.1	1.8	2.8
동	53.9	56.2	45.1	55.5	61.9	63.1	63.4	63.3	60.3	61.1
읍·면	50.9	52.3	41.8	51.5	59.3	60.7	61.7	63.1	62.1	63.9

29.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전국 결과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21.2%로 '24년 21.1%에 비해 0.1%p 증가하였다.

표 309.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9.6	19.8	19.4	19.4	19.2	20.0	19.8	20.6	21.1	21.2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경남에서 18.8%로 가장 낮게, 충남에서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2.9%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1.3%p)이었다.

표 310.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9.0	20.0	18.9	19.7	19.2	18.6	19.7	20.2	20.2	20.7
부산	18.0	17.8	17.7	18.2	18.0	17.9	18.5	19.0	19.5	19.3
대구	17.4	18.5	17.5	17.5	17.0	18.1	18.9	19.2	20.1	19.1
인천	20.0	21.3	20.7	20.5	21.4	22.3	21.1	21.8	22.0	21.9
광주	17.3	18.1	16.4	17.7	16.3	17.1	17.3	16.7	17.8	19.1
대전	19.3	18.3	19.2	19.1	18.6	19.5	19.9	19.6	20.6	20.5
울산	18.4	18.2	18.0	17.2	17.1	18.6	17.6	18.7	19.3	19.9
세종	17.0	20.2	17.8	17.9	18.5	20.5	18.9	19.3	22.1	19.2
경기	20.6	20.4	20.3	19.5	19.7	20.1	20.5	20.7	21.2	21.1
강원	21.8	21.9	21.5	21.3	21.4	22.0	21.7	22.8	23.9	22.2
충북	19.9	20.9	20.3	20.4	19.6	20.5	21.0	20.0	20.9	21.8
충남	21.3	21.1	19.5	20.3	20.5	21.5	22.2	22.0	23.1	24.1
전북	19.3	18.6	19.3	18.8	19.7	19.9	20.3	22.4	21.5	20.2
전남	18.1	18.3	18.4	18.7	17.8	18.2	18.5	19.7	20.6	20.6
경북	18.0	19.9	19.1	19.1	19.2	19.1	19.1	19.6	20.3	20.9
경남	17.9	18.1	17.5	17.1	17.8	18.7	18.6	18.5	18.7	18.8
제주	19.7	19.7	18.2	18.1	19.4	18.6	20.5	18.6	20.4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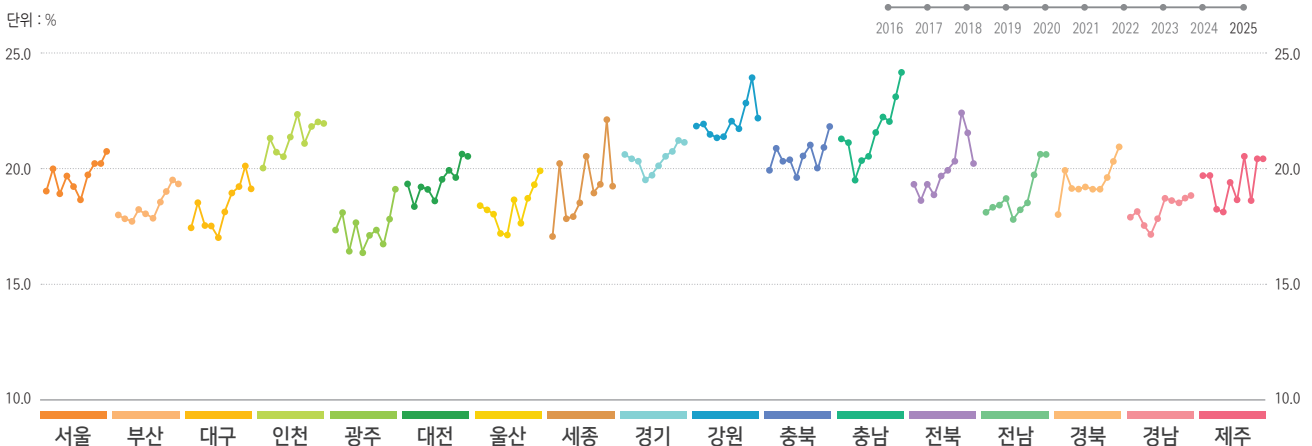


그림 150.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이 감소한 시·도는 8개로 전체의 47.1%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2.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없었다.

표 311.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7 (41.2)		8 (47.1)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광주	1.3	세종	2.9	경북	2.9	-	-
	2위	충남	1.0	강원	1.7	충남	2.8	-	-
	3위	충북	0.9	전북	1.3	전남	2.5	-	-
	4위	울산, 경북		0.6		대구	1.0	-	-
	5위					부산	0.2	-	-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시·도 간 격차는 5.3%p이며, '24년 6.1%p 대비 0.8%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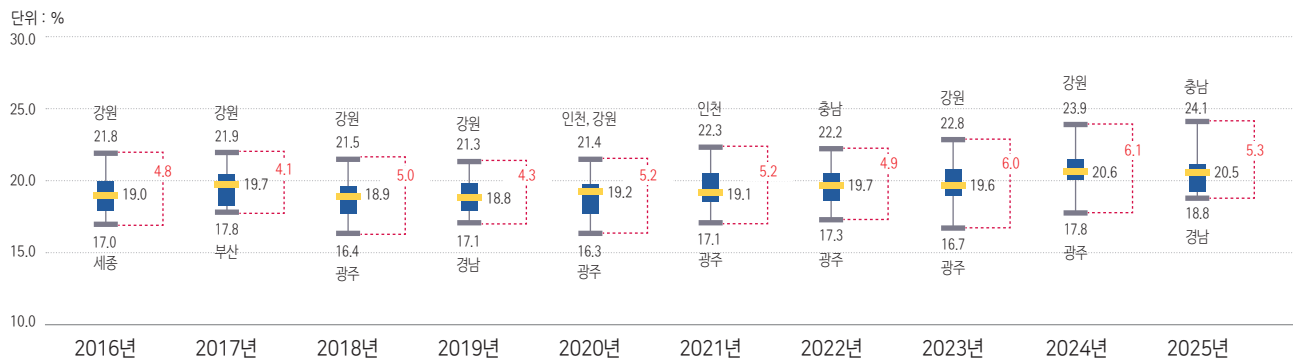


그림 151. 2016-2025 시·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경기 과천시에서 14.4%로 가장 낮게, 강원 고성군에서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12. 2025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강원 고성군	28.2	경기 과천시	14.4
2위	전남 신안군	27.8	서울 종로구	15.0
3위	경기 용인시 처인구,	27.5	경기 성남시 분당구	15.1
4위	충북 단양군		전남 영광군	15.4
5위	충남 당진시	27.3	제주 제주시 동부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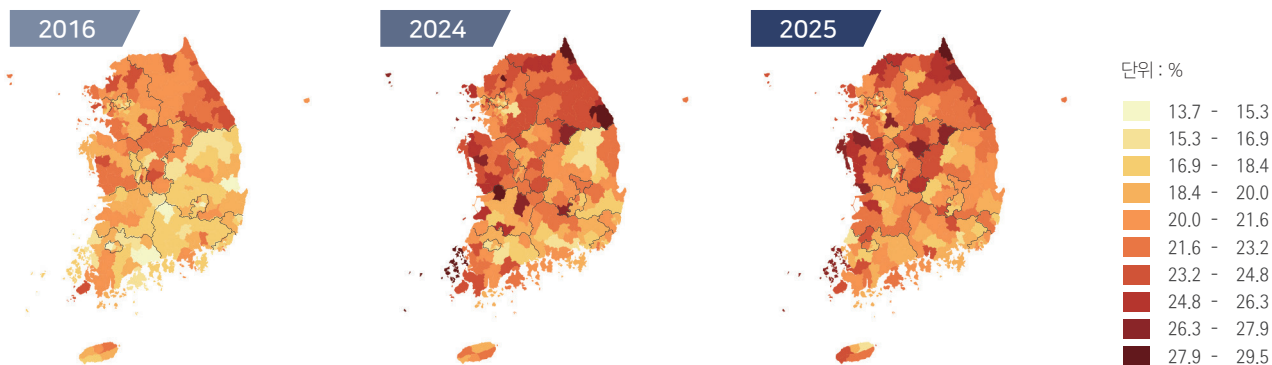


그림 152. 시·군·구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이 감소한 시·군·구는 127개로 전체의 49.2%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전북 익산시(8.5%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61개로 전체의 24.2%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제주 제주시 동부(7.3%p)이었다.

표 313.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28 (49.6)		127 (49.2)		188 (74.6)		61 (24.2)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광주 광산구	5.6	전북 익산시	8.5	전남 신안군	10.0	제주 제주시 동부	7.3
	2위	전북 김제시,		전북 진안군	6.3	경남 거창군	8.6	대전 중구	4.4
	3위	전남 목포시,	5.5	전남 영광군	5.8	경기 용인시 처인구	8.0	서울 종로구	4.1
	4위	제주 서귀포시 서부		강원 삼척시	5.6	경북 상주시	7.7	경기 과천시,	2.6
	5위	경북 봉화군	5.4	대전 유성구	5.0	충남 태안군	7.4	전북 임실군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시·군·구 간 격차는 13.8%p이며, '24년 14.0%p 대비 0.2%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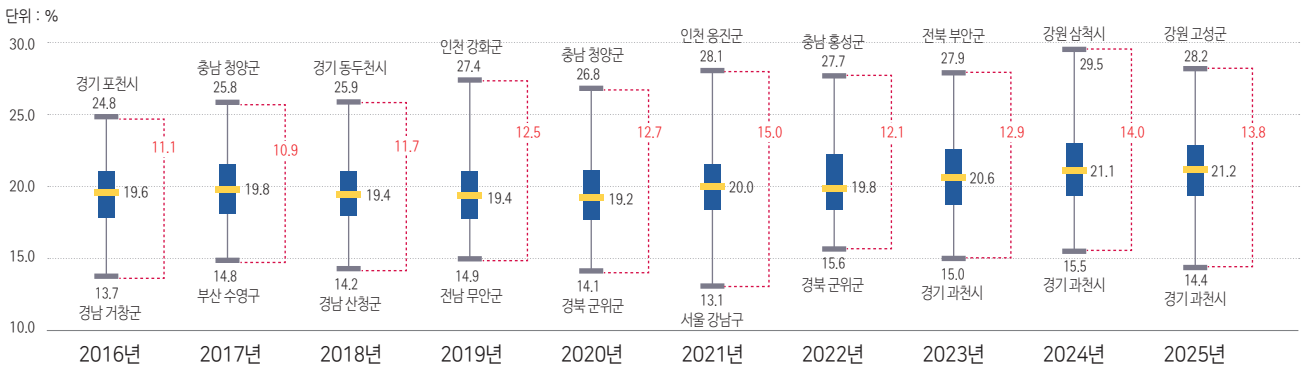


그림 153. 2016-2025 시·군·구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광주(1.23), 가장 큰 지역은 경기(1.91)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북(0.36),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전, 제주(0.3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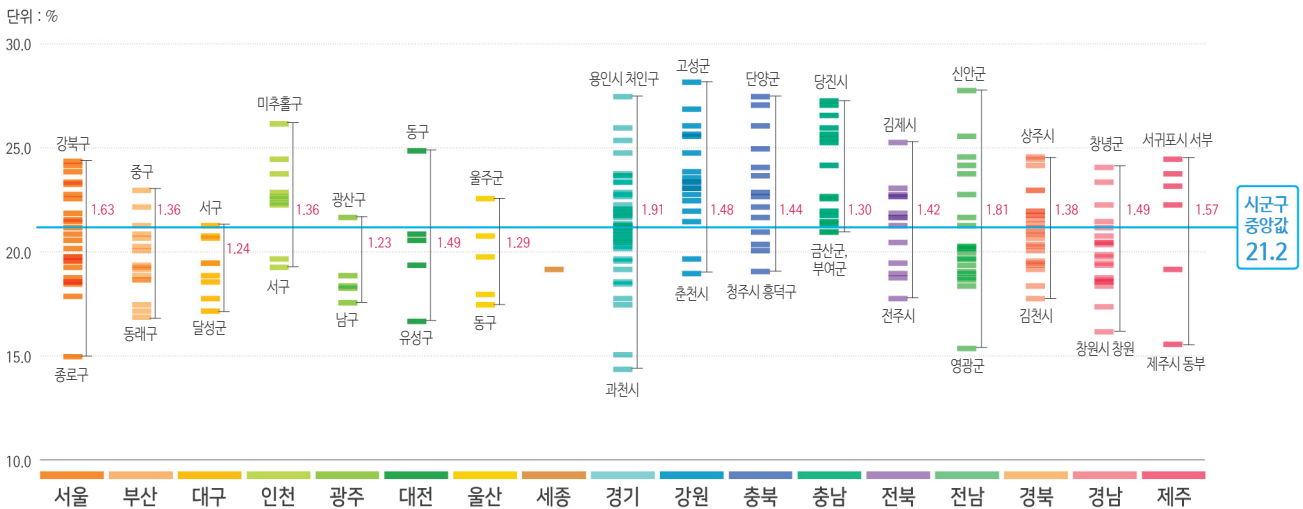


그림 154.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광역시의 구에서 20.3%로 가장 낮게,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1.8%p로 '24년 1.9%p 대비 0.1%p 감소하였다.

표 314.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2	1.5	1.4	1.1	1.9	2.0	2.5	2.5	1.9	1.8
특별시의 구	19.0	20.0	18.9	19.7	19.2	18.6	19.7	20.2	20.2	20.7
광역시의 구	19.3	19.2	19.0	18.8	18.9	19.4	19.7	19.9	20.5	20.3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20.2	20.2	20.3	19.3	19.7	19.3	20.1	20.6	21.6	22.1
도농복합형태의 시	19.6	20.6	19.5	19.5	19.4	20.2	20.1	20.2	21.1	21.4
일반군	19.7	20.0	19.8	19.9	19.2	20.6	20.8	21.6	22.0	21.9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19.5	20.8	20.0	19.8	20.8	20.4	22.2	22.4	21.7	22.1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수도권 지역 21.1%, 비수도권 지역 20.4%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0.7%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15.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2	1.3	1.3	1.1	1.1	0.6	0.8	0.8	0.5	0.7
수도권	19.9	20.3	19.8	19.7	19.7	19.8	20.3	20.6	20.9	21.1
비수도권	18.7	19.0	18.5	18.6	18.6	19.2	19.5	19.8	20.4	20.4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중부 지역 21.3%, 남부 지역 19.7%로 남부 지역에서 1.6%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16.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0	1.9	1.8	1.7	1.7	1.5	1.7	1.5	1.5	1.6
중부	20.1	20.4	19.8	19.8	19.8	20.0	20.5	20.7	21.2	21.3
경기지방	19.9	20.3	19.8	19.7	19.7	19.8	20.3	20.6	20.9	21.1
영동지방	23.2	22.8	21.3	22.3	21.8	23.2	24.0	24.8	25.7	24.8
영서지방	21.0	21.3	21.5	20.8	21.2	21.3	20.4	21.6	22.8	20.8
호서지방	20.2	20.2	19.6	19.9	19.6	20.7	21.0	20.7	21.7	22.2
남부	18.1	18.5	18.0	18.1	18.1	18.5	18.8	19.3	19.7	19.7
호남지방	18.3	18.4	18.2	18.4	18.1	18.5	18.8	19.8	20.1	20.0
영남지방	17.9	18.4	17.9	17.9	18.0	18.5	18.7	19.1	19.6	19.5
제주지방	19.7	19.7	18.2	18.1	19.4	18.6	20.5	18.6	20.4	20.4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동 지역 20.5%, 읍·면 지역 22.0%로 동 지역에서 1.5%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17.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6	0.8	0.9	0.8	0.7	1.2	1.1	1.5	1.4	1.5
동	19.2	19.5	19.0	19.0	19.0	19.2	19.6	19.9	20.4	20.5
읍·면	19.8	20.3	19.9	19.8	19.7	20.4	20.8	21.4	21.9	22.0

30.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전국 결과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93.5%로 '24년과 동일하였다.

표 318.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8.4	88.6	92.3	91.7	93.1	93.3	93.6	93.6	93.5	93.5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전남에서 96.7%로 가장 높게, 울산에서 9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6.7%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울산(3.3%p)이었다.

표 319.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86.8	86.3	92.0	90.0	92.1	92.5	89.5	91.1	93.1	91.3
부산	88.2	89.7	93.6	91.1	91.7	92.4	93.1	92.9	93.0	93.2
대구	89.0	89.5	93.2	92.0	93.2	92.4	94.7	92.6	93.7	91.0
인천	89.8	89.7	91.6	90.8	91.7	93.3	92.2	94.3	91.9	94.5
광주	87.9	88.2	93.4	89.2	93.8	93.8	94.1	93.6	95.4	95.0
대전	88.8	86.7	92.9	91.8	93.1	90.5	92.0	93.7	89.4	93.9
울산	86.4	87.8	91.8	89.6	91.8	92.2	90.7	92.8	93.7	90.4
세종	90.7	81.1	89.3	92.9	90.5	92.9	92.3	92.1	89.1	95.8
경기	87.3	88.3	91.2	91.9	92.8	92.7	93.0	93.2	93.4	93.0
강원	89.4	90.2	94.1	92.0	94.4	93.1	94.8	92.7	93.0	94.5
충북	86.9	88.7	93.8	92.9	93.9	94.3	95.1	95.0	93.5	94.7
충남	87.9	89.3	90.0	91.3	92.0	93.0	90.4	92.7	92.3	92.1
전북	88.3	89.1	90.0	93.7	93.2	95.1	92.4	95.3	95.7	95.2
전남	90.6	89.7	93.2	93.3	96.1	96.3	95.6	95.4	94.8	96.7
경북	88.4	89.4	92.1	89.8	93.2	92.0	94.8	94.1	93.7	94.1
경남	88.3	90.2	91.7	93.1	92.4	93.6	94.4	95.0	94.5	94.6
제주	86.2	89.3	93.7	91.6	94.4	94.0	93.7	93.6	94.5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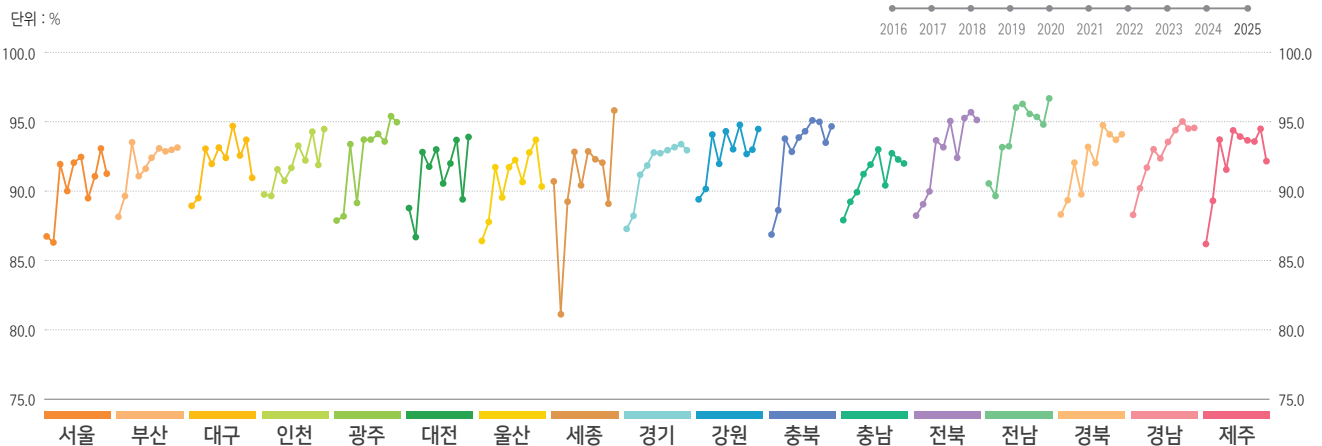


그림 155.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이 증가한 시·도는 9개로 전체의 52.9%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6.7%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충북(7.8%p)이었다.

표 320.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9 (52.9)		8 (47.1)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6.7	울산	3.3	충북	7.8	-	-
	2위	대전	4.5	대구	2.7	광주	7.1	-	-
	3위	인천	2.6	제주	2.3	전북	6.9	-	-
	4위	전남	1.9	서울	1.8	경남	6.3	-	-
	5위	강원	1.5	전북	0.5	전남	6.1	-	-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의 시·도 간 격차는 6.3%p이며, '24년 6.6%p 대비 0.3%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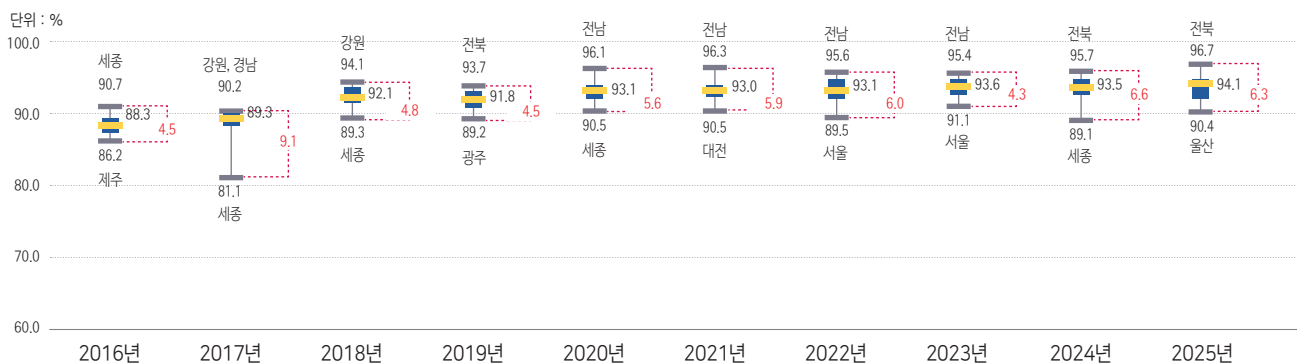


그림 156. 2016-2025 시·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 ◆ '25년 시·군·구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경기 가평군에서 99.4%로 가장 높게, 서울 동대문구에서 7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21. 20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기 가평군 99.4	서울 동대문구 73.6
2위	전북 완주군, 99.1	서울 강남구 77.3
3위	경남 창원시 진해 98.6	전북 남원시 83.9
4위	충북 증평군 98.6	전북 진안군 84.0
5위	전남 무안군, 경북 경산시, 98.5	서울 성동구 85.0
	경남 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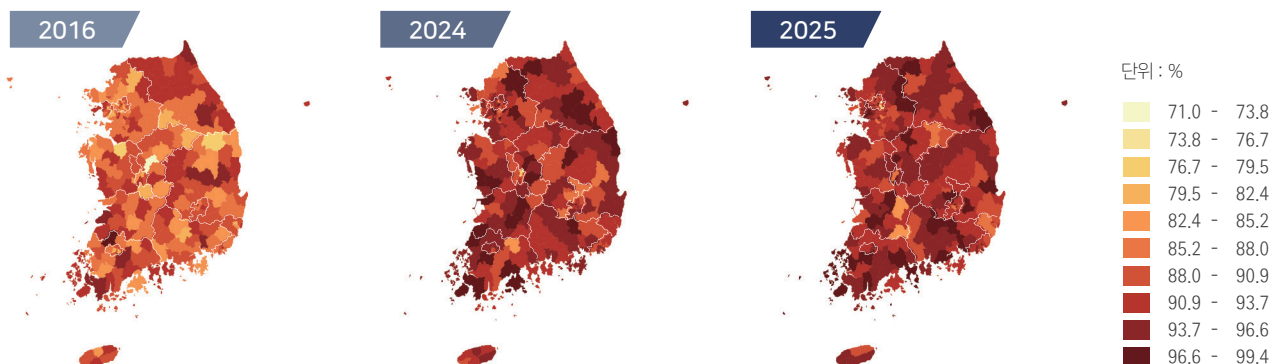


그림 157. 시·군·구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29개로 전체의 50.0%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대전 대덕구(16.7%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26개로 전체의 89.7%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23.5%p)이었다.

표 322.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29	(50.0)	126	(48.8)	226	(89.7)	25	(9.9)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대전 대덕구	16.7	서울 동대문구	19.6	충북 청주시 상당구	23.5	서울 동대문구	16.8
	2위	경기 양평군	9.6	전북 진안군	14.0	경북 봉화군	17.9	전북 진안군	7.1
	3위	전남 곡성군	9.3	서울 강남구	13.9	경기 시흥시	17.0	전북 부안군	4.5
	4위	경기 연천군	9.2	충북 제천시	9.2	경남 산청군	16.4	경기 용인시 수지구	4.4
	5위	인천 계양구	8.8	전북 남원시	8.3	서울 마포구	15.5	전북 남원시	4.0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25.8%p이며, '24년 19.9%p 대비 5.9%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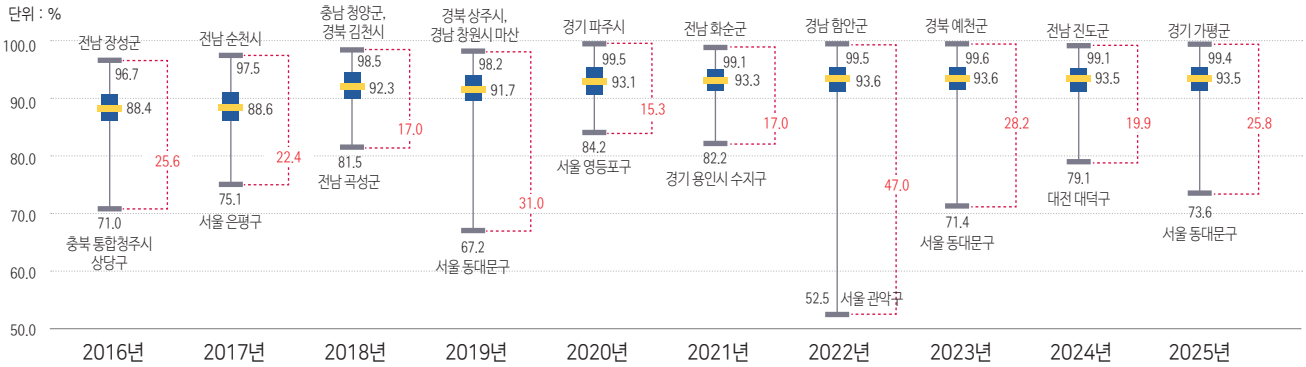


그림 158. 2016-2025 시·군·구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06), 가장 큰 지역은 서울(1.31)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0.11),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서울(0.1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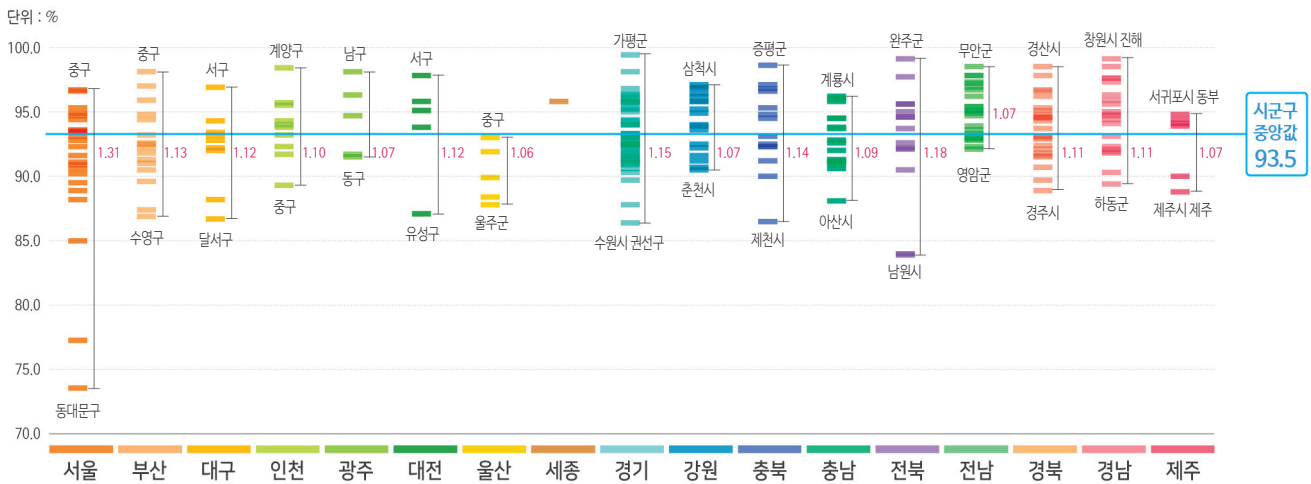


그림 159.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95.1%로 가장 높고, 특별시의 구에서 9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3.9%p로 '24년 1.8%p 대비 2.1%p 증가하였다.

표 323.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8	4.1	4.4	3.3	2.6	2.6	5.6	4.7	1.8	3.9
특별시의 구	86.8	86.3	92.0	90.0	92.1	92.5	89.5	91.1	93.1	91.3
광역시의 구	87.8	89.0	91.7	91.1	92.3	92.5	92.7	93.4	93.2	93.1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89.1	88.2	90.5	92.7	93.5	92.7	93.2	93.2	93.5	93.4
도농복합형태의 시	87.9	88.7	92.1	92.7	93.7	93.8	94.6	94.0	93.6	94.6
일반 군	89.6	89.6	93.3	93.3	94.5	95.0	95.1	94.3	93.9	94.5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89.0	90.4	94.9	93.1	94.7	95.0	94.4	95.8	94.9	95.1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수도권 지역 92.6%, 비수도권 지역 93.7%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1.1%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4.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9	1.5	0.9	0.8	0.6	0.4	1.9	1.1	0.4	1.1
수도권	87.4	87.8	91.5	91.0	92.4	92.7	91.7	92.7	93.2	92.6
비수도권	88.4	89.2	92.5	91.7	93.0	93.1	93.6	93.8	93.6	93.7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중부 지역 92.9%, 남부 지역 93.7%로 남부 지역에서 0.8%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5.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8	1.5	0.8	0.4	0.3	0.6	2.0	1.2	1.3	0.8
중부	87.6	87.9	91.7	91.2	92.6	92.7	92.0	92.8	92.9	92.9
경기지방	87.4	87.8	91.5	91.0	92.4	92.7	91.7	92.7	93.2	92.6
영동지방	90.9	90.5	95.9	93.3	95.2	93.4	94.9	96.3	93.0	95.5
영서지방	88.1	90.2	93.0	91.3	94.0	92.9	94.8	90.5	93.1	94.0
호서지방	88.0	88.0	91.8	92.0	92.7	92.6	92.4	93.4	91.9	93.5
남부	88.4	89.5	92.5	91.6	92.9	93.3	93.9	94.0	94.2	93.7
호남지방	89.1	89.4	92.0	92.3	94.1	95.1	93.9	95.0	95.3	95.6
영남지방	88.3	89.5	92.6	91.3	92.4	92.6	93.9	93.6	93.7	93.0
제주지방	86.2	89.3	93.7	91.6	94.4	94.0	93.7	93.6	94.5	92.2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동 지역 92.9%, 읍·면 지역 93.8%로 읍·면 지역에서 0.8%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26.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9	0.2	0.9	1.2	1.3	1.4	2.0	0.8	1.0	0.8
동	87.7	88.4	91.8	91.1	92.4	92.6	92.2	93.0	93.2	92.9
읍·면	88.7	88.6	92.7	92.3	93.7	94.0	94.2	93.8	94.1	93.8

31.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37]

전국 결과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전국 시·도 중앙값은 30.7%로 '24년 32.1%에 비해 1.4%p 감소하였다.

표 327.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31.8	31.6	33.0	29.6	30.4	29.3	31.2	38.6	32.1	30.7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은 세종에서 23.6%로 가장 낮게, 인천에서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제주(7.8%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10.1%p)이었다.

표 328.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31.2	32.2	29.2	28.5	27.0	27.6	27.6	38.1	27.8	26.5
부산	31.4	35.3	33.0	33.3	27.4	31.6	32.9	39.7	29.9	28.1
대구	31.8	33.0	34.8	30.9	34.1	31.0	30.5	44.3	32.5	28.2
인천	32.9	33.6	35.4	31.9	36.3	32.1	32.1	36.5	32.4	35.2
광주	26.9	26.4	25.8	28.8	27.2	24.2	25.5	36.7	34.1	31.9
대전	32.2	28.7	33.4	29.3	30.4	29.9	28.1	32.8	30.3	32.9
울산	32.0	31.0	32.0	28.6	35.4	27.6	33.7	40.4	29.0	31.6
세종	26.0	31.9	25.3	31.9	29.1	29.1	26.8	32.3	13.5	23.6
경기	32.4	30.7	31.7	31.2	31.0	29.2	30.3	38.4	31.1	27.5
강원	34.7	32.0	36.0	31.4	34.2	33.9	33.8	38.6	33.8	34.4
충북	32.8	30.4	34.2	31.3	34.0	34.0	32.8	39.7	32.1	30.6
충남	28.9	31.6	33.7	28.7	32.3	27.2	31.2	43.7	33.3	30.7
전북	29.9	33.9	27.2	27.5	27.4	27.8	32.8	40.8	31.1	29.4
전남	29.5	30.0	27.2	29.6	29.3	29.3	30.4	38.2	32.9	31.1
경북	35.6	33.4	34.2	30.3	32.3	32.6	32.9	40.4	33.9	34.1
경남	31.8	30.3	31.1	28.7	29.0	26.6	30.0	37.9	30.1	31.0
제주	34.5	31.3	37.8	25.5	28.3	33.0	39.2	41.4	35.7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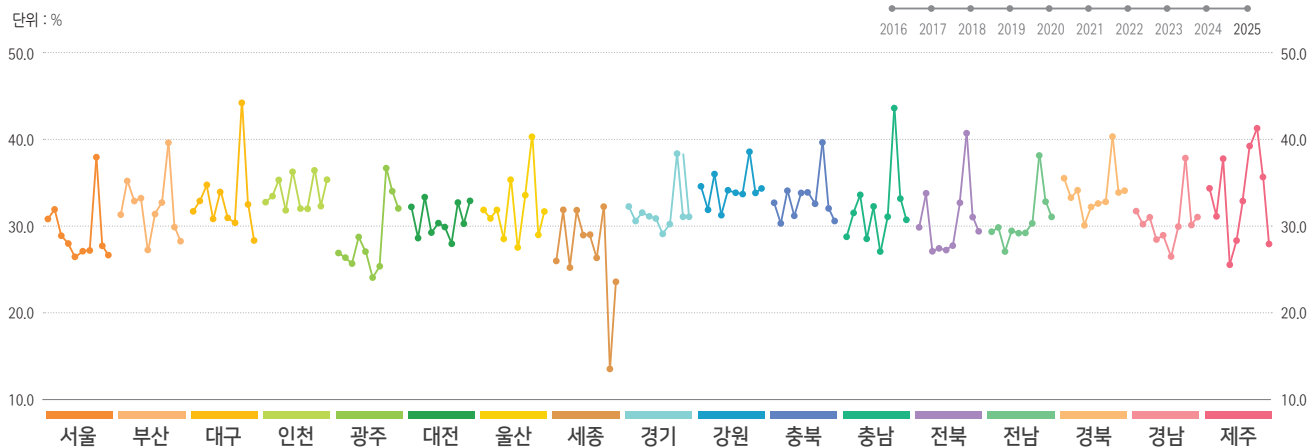


그림 160.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37] '만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자'로 분모를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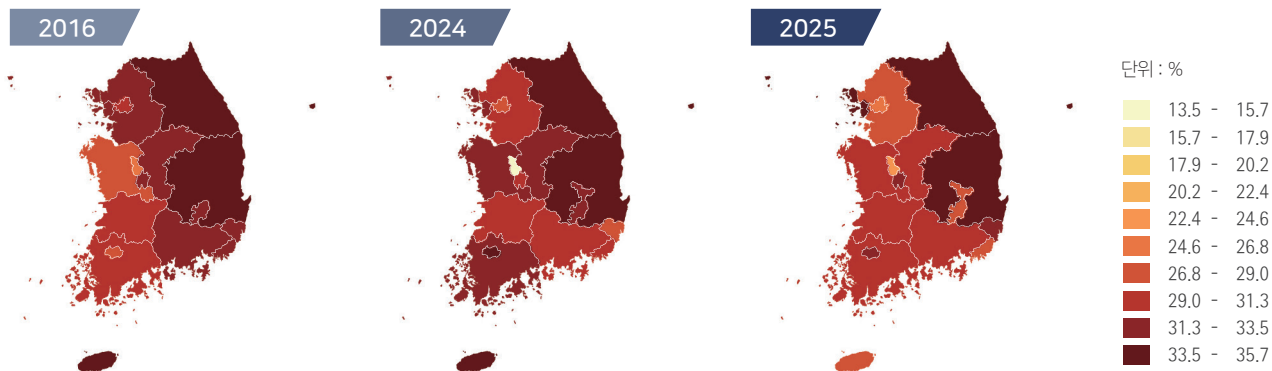


그림 161.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이 감소한 시·도는 10개로 전체의 58.8%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7.8%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12개로 전체의 70.6%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6.6%p)이었다.

표 329.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7 (41.2)		10 (58.8)		5 (29.4)		12 (70.6)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10.1	제주	7.8	광주	5.0	제주	6.6
	2위	인천	2.8	대구	4.3	인천	2.3	경기	4.9
	3위	대전, 울산	2.6	경기	3.6	충남	1.8	서울	4.7
	4위			충남	2.6	전남	1.6	대구	3.6
	5위	경남	0.9	광주	2.2	대전	0.7	부산	3.3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의 시·도 간 격차는 11.6%p이며, '24년 22.2%p 대비 10.6%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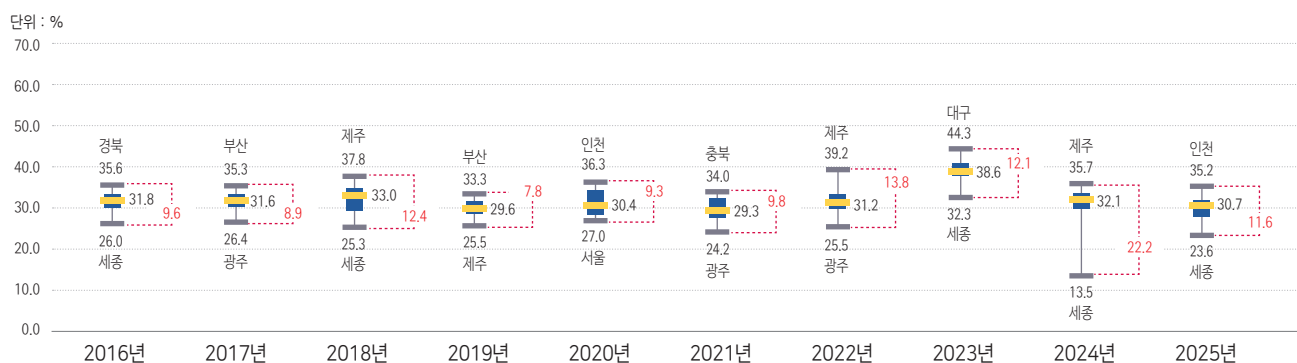


그림 162. 2016-2025 시·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분포

- ◆ 지역유형별 결과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은 동 지역 28.8%, 읍·면 지역 31.7%로 동 지역에서 2.8%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30.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2	0.0	1.8	1.9	1.7	3.1	2.7	4.6	3.0	2.8
동	31.8	31.6	31.5	29.8	30.2	28.7	30.0	38.0	30.3	28.8
읍·면	32.1	31.7	33.3	31.7	31.8	31.8	32.7	42.6	33.3	31.7

32.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38]

전국 결과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전국 시·도 중앙값은 12.3%로 '24년 12.8%에 비해 0.5%p 감소하였다.

표 331.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14.1	13.9	14.2	13.3	10.7	10.1	12.5	12.4	12.8	12.3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 대구에서 9.6%로 가장 낮게, 강원에서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1.6%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인천(0.7%p)이었다.

표 332.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3.0	14.2	13.0	12.4	9.4	9.5	10.8	11.1	10.7	10.3
부산	14.8	14.8	16.7	12.8	10.7	10.1	14.5	11.7	12.5	12.3
대구	12.1	12.3	12.1	11.8	9.4	8.5	10.8	10.0	10.8	9.6
인천	15.8	14.1	14.8	13.9	10.1	12.6	13.5	11.9	12.4	13.1
광주	11.1	9.1	11.9	13.4	10.9	10.3	11.1	10.9	12.6	12.0
대전	13.3	12.5	11.8	10.9	10.4	8.2	10.3	10.2	10.6	9.8
울산	11.9	14.1	14.0	13.7	10.6	9.8	12.8	13.7	14.2	13.5
세종	14.0	12.9	10.1	8.4	10.8	7.2	7.6	11.2	12.0	10.6
경기	14.3	13.9	14.2	13.2	10.0	9.7	12.1	12.4	12.9	11.5
강원	16.4	15.6	16.0	17.7	12.1	12.8	15.8	14.9	14.7	15.1
충북	15.0	14.2	14.7	14.8	11.3	11.6	12.7	14.5	15.2	14.1
충남	14.1	14.5	14.3	13.3	11.4	10.9	12.7	12.4	12.8	13.3
전북	12.2	13.0	12.6	13.6	8.8	9.5	13.1	14.5	12.6	11.0
전남	11.2	9.9	12.9	12.6	9.9	9.2	11.8	13.5	13.8	12.4
경북	14.3	13.0	14.9	13.0	11.2	10.4	11.9	12.3	13.5	12.0
경남	14.6	14.9	16.5	14.6	11.1	11.1	12.5	14.1	13.9	12.9
제주	14.1	12.2	14.3	15.1	12.8	12.2	13.3	15.2	14.0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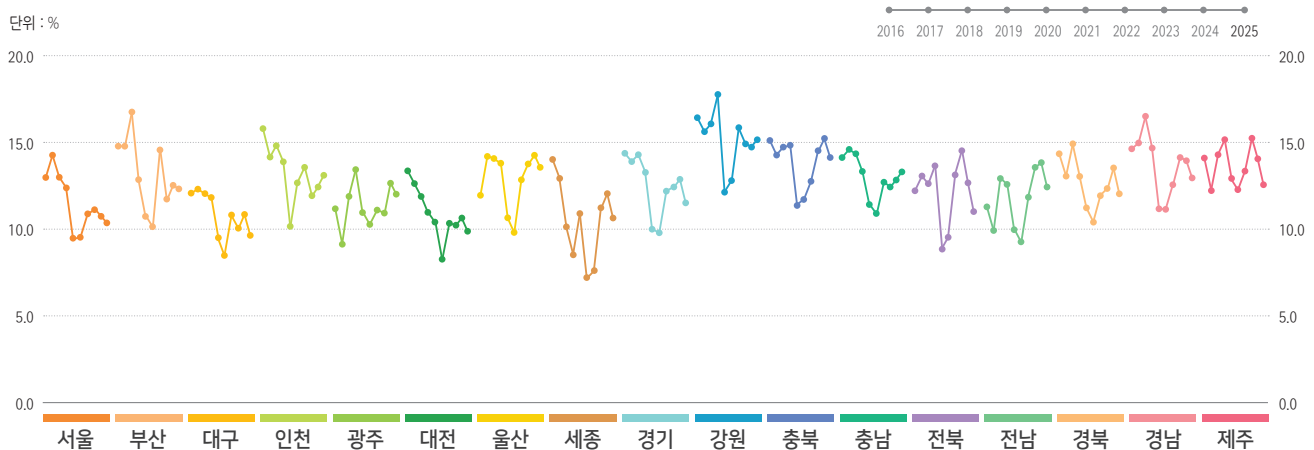


그림 163.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38] '만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자'로 분모를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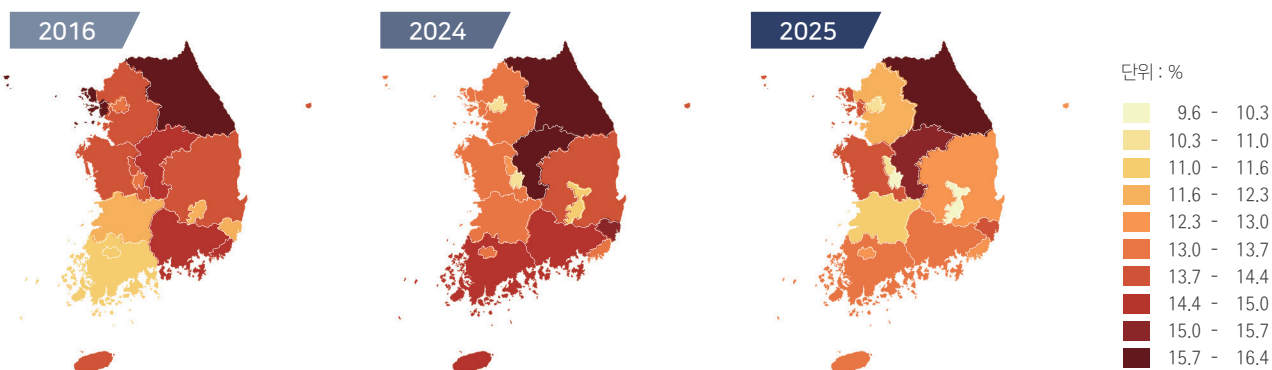


그림 164.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이 감소한 시·도는 14개로 전체의 82.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북(1.6%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14개로 전체의 82.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대전(3.5%p)이었다.

표 333.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도		3	(17.6)	14	(82.4)	3	(17.6)	14	(82.4)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인천	0.7	전북	1.6	울산	1.6	대전	3.5	
	2위	충남	0.5	경북, 제주	1.5	전남	1.2	세종	3.4	
	3위	강원	0.4	세종, 경기, 전남	1.4	광주	0.9	경기	2.8	
	4위	-	-	-	-	-	-	서울, 인천	2.7	
	5위	-	-	-	-	-	-	-	-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의 시·도 간 격차는 5.5%p이며, '24년 4.6%p 대비 0.9%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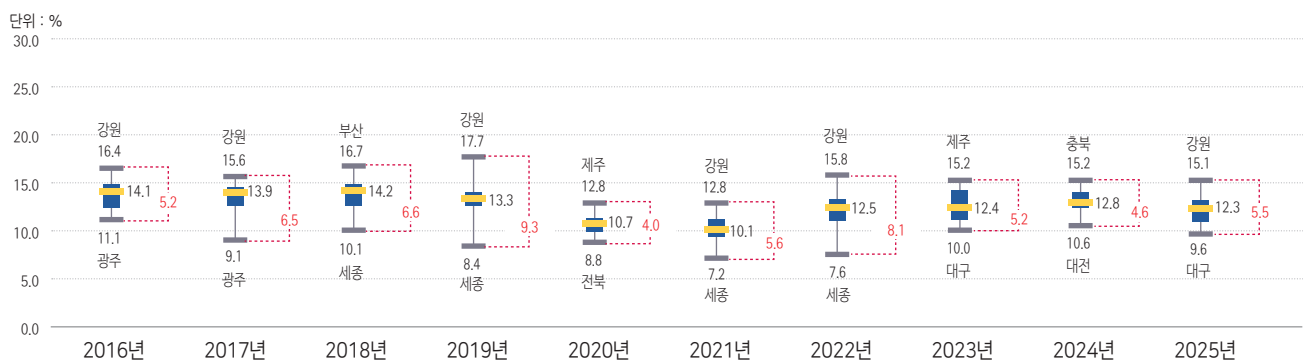


그림 165. 2016-2025 시·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 지역유형별 결과**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 동 지역 11.5%, 읍·면 지역 13.2%로 동 지역에서 1.7%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34.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0	0.4	0.0	0.1	0.9	1.1	1.0	1.9	0.7	1.7
동	13.9	13.8	14.0	13.2	10.1	9.9	12.0	11.9	12.4	11.5
읍·면	13.9	13.4	14.1	13.2	11.0	10.9	13.0	13.8	13.1	13.2

33.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39]

전국 결과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전국 시·도 중앙값은 47.9%로 '24년 49.9%에 비해 2.0%p 감소하였다.

표 335. 2016-2025 전국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37.2	41.0	42.6	38.9	39.3	41.7	45.0	46.9	49.9	47.9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 서울에서 66.3%로 가장 높게, 강원에서 3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남(2.9%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제주(5.8%p)이었다.

표 336.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51.1	57.2	64.3	57.2	53.4	55.9	60.0	59.2	64.2	66.3
부산	43.6	49.4	55.6	49.8	39.2	44.9	49.6	50.1	56.5	53.9
대구	36.1	41.0	47.6	42.4	39.5	45.1	44.7	46.9	46.0	45.7
인천	44.9	44.7	49.5	47.1	44.2	47.6	53.0	52.5	54.8	54.3
광주	39.7	45.2	50.6	45.1	39.3	46.6	46.3	47.0	52.9	50.4
대전	50.8	45.2	49.6	46.0	39.1	42.0	51.8	51.9	53.5	53.4
울산	36.9	41.1	42.6	45.2	42.1	41.7	48.9	50.9	53.5	47.9
세종	35.3	41.1	34.6	38.3	37.9	39.3	55.3	47.0	43.8	41.6
경기	41.2	41.6	47.6	43.1	41.7	45.3	47.5	48.3	52.0	49.1
강원	32.2	33.3	39.2	36.6	37.4	32.1	35.1	39.2	39.2	38.1
충북	37.9	38.6	43.0	30.7	32.9	40.4	42.6	46.3	49.2	44.2
충남	37.2	31.4	37.5	34.1	39.6	39.3	43.7	44.1	53.6	48.2
전북	32.1	32.9	40.2	37.4	36.1	39.3	45.0	42.8	48.7	44.0
전남	34.7	36.3	38.2	35.9	40.3	37.7	43.4	43.5	46.2	44.3
경북	33.2	33.0	34.6	31.8	32.4	35.3	36.4	40.2	43.5	42.5
경남	32.2	35.9	37.3	38.9	44.0	43.9	41.2	41.2	47.5	50.4
제주	39.2	30.0	33.4	30.1	36.6	39.1	36.6	34.5	49.9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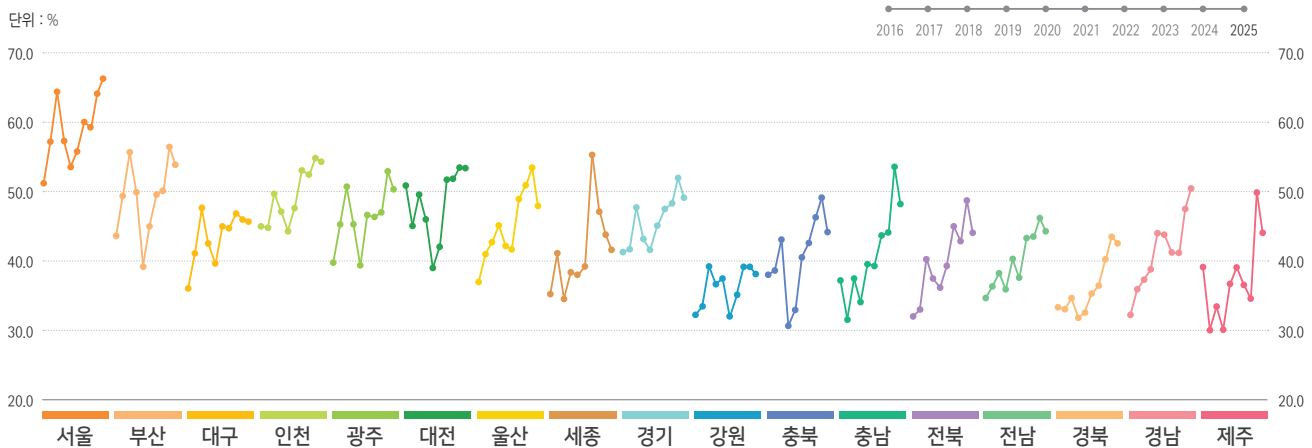


그림 166. 2016-2025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39] '만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자'로 분모를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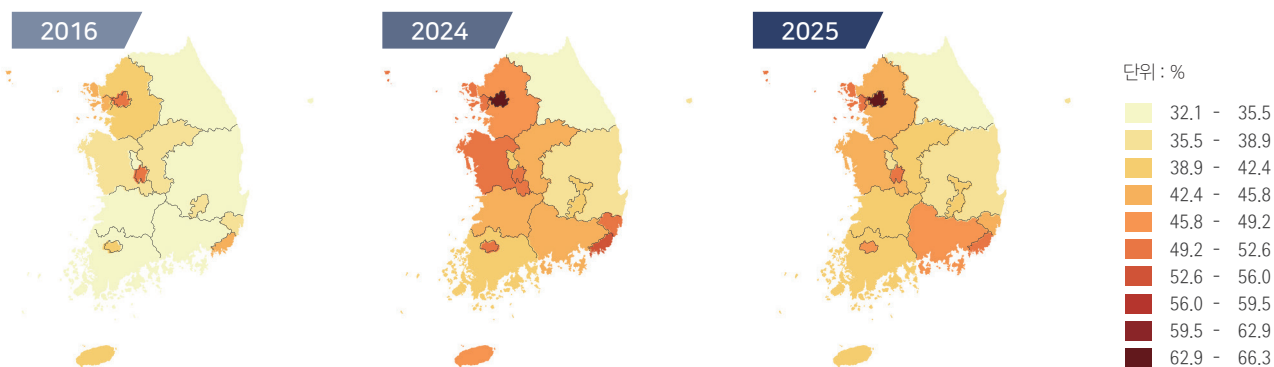


그림 167. 시·도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이 증가한 시·도는 2개로 전체의 11.8%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경남(2.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경남(18.2%p)이었다.

표 337.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2 (11.8)	15 (88.2)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남 2.9	제주 5.8	경남 18.2	-
	2위	서울 2.1	울산 5.6	서울 15.2	-
	3위	-	충남 5.4	전북 11.9	-
	4위	-	충북 5.0	-	-
	5위	-	전북 4.7	울산, 충남 11.0	-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의 시·도 간 격차는 28.2%p이며, '24년 25.0%p 대비 3.2%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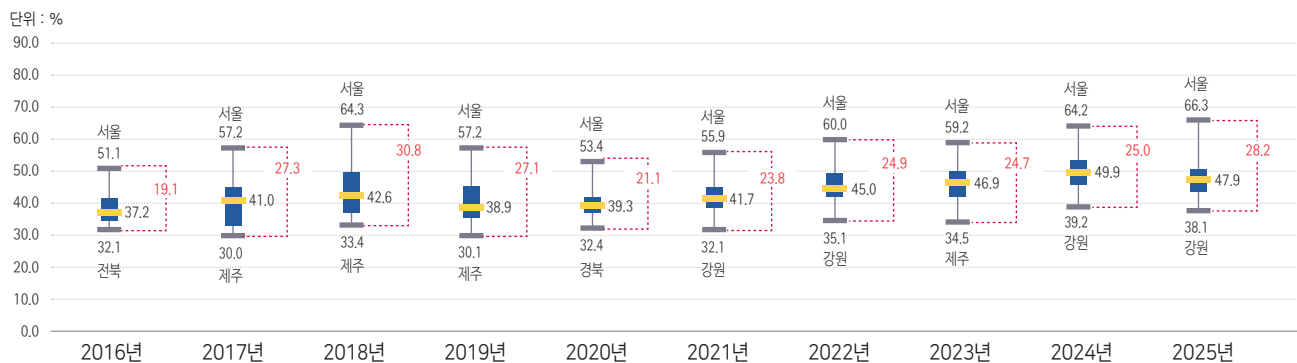


그림 168. 2016-2025 시·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 '25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 동 지역 53.6%, 읍·면 지역 43.3%로 동 지역에서 10.3%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38.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9.7	11.8	14.9	12.6	7.5	8.8	11.4	8.0	10.0	10.3
동	43.3	45.7	51.6	46.8	44.1	47.0	50.7	50.4	55.0	53.6
읍·면	33.6	33.9	36.7	34.2	36.7	38.2	39.3	42.4	45.0	43.3

34. 혈당수치 인지율

전국 결과

- ◆ '25년 혈당수치 인지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30.1%로 '24년 28.2%에 비해 1.9%p 증가하였다.

표 339. 2016-2025 전국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15.5	16.7	15.3	18.6	25.7	26.3	28.4	30.6	28.2	30.1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혈당수치 인지율은 대전에서 42.4%로 가장 높게, 광주에서 2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혈당수치 인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10.2%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경남(4.3%p)이었다.

표 340. 2016-2025 시·도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6.6	19.4	19.0	23.7	32.4	32.1	34.1	33.2	30.2	30.2
부산	16.5	18.6	13.7	18.3	24.1	25.0	25.6	30.4	28.1	34.4
대구	14.9	16.0	17.6	16.5	29.0	26.7	27.2	33.0	31.3	36.5
인천	18.8	20.6	16.6	19.1	27.7	20.7	23.3	24.3	21.4	21.5
광주	16.2	17.1	11.3	18.8	21.3	27.6	22.9	24.6	21.9	20.8
대전	19.5	24.1	33.0	27.3	29.8	38.6	40.6	41.5	41.5	42.4
울산	12.4	12.6	15.3	17.9	23.7	24.2	20.9	20.5	21.5	25.5
세종	20.9	17.1	18.3	27.1	34.8	34.0	31.1	34.6	31.2	41.4
경기	16.4	17.6	17.0	18.8	25.6	28.1	28.6	30.4	24.2	30.1
강원	17.1	18.2	18.6	21.2	30.4	30.4	30.1	27.6	32.7	34.1
충북	15.9	18.1	21.2	25.4	34.3	33.6	36.0	36.5	38.7	38.6
충남	18.4	17.4	15.5	20.6	38.0	31.8	33.1	34.6	35.5	37.7
전북	15.7	20.6	20.2	27.0	28.9	34.3	33.6	33.4	28.4	26.8
전남	16.2	15.4	13.9	14.8	21.2	23.7	30.6	27.9	27.6	23.6
경북	14.9	14.9	16.5	19.7	22.3	25.9	28.9	32.4	36.6	35.7
경남	15.5	15.9	12.8	16.0	28.5	26.4	25.0	24.0	29.2	24.9
제주	8.7	16.6	19.3	18.3	21.2	27.5	31.6	26.7	34.2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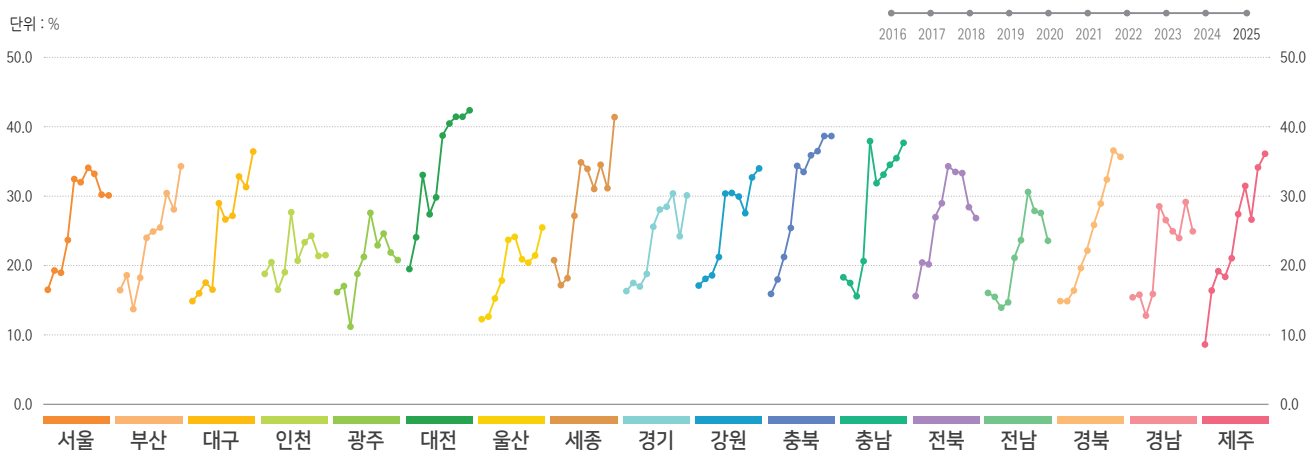


그림 169. 2016-2025 시·도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 ◆ 전년 대비 혈당수치 인지율이 증가한 시·도는 10개로 전체의 58.8%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10.2%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27.5%p)이었다.

표 341. 혈당수치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0 (58.8)		6 (35.3)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10.2	경남	4.3	제주	27.5	-	-
	2위	부산	6.3	전남	4.0	대전	22.9	-	-
	3위	경기	5.9	전북	1.6	충북	22.7	-	-
	4위	대구	5.2	광주	1.1	대구	21.6	-	-
	5위	울산	4.0	경북	0.9	경북	20.8	-	-

- ◆ '25년 혈당수치 인지율의 시·도 간 격차는 21.6%p이며, '24년 20.2%p 대비 1.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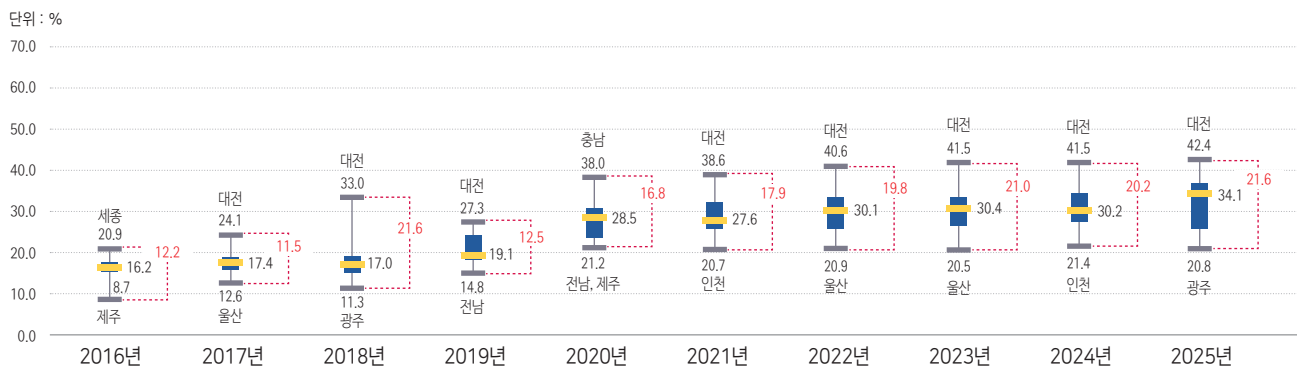


그림 170. 2016-2025 시·도 혈당수치 인지율 분포

- ◆ '25년 시·군·구별 혈당수치 인지율은 경북 봉화군에서 65.6%로 가장 높게,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1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42. 2025년 혈당수치 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북 봉화군	65.6	경기 부천시 오정구	12.6
2위	대구 군위군	59.4	전남 여수시	14.5
3위	충북 제천시	59.1	전남 완도군	14.7
4위	전북 무주군	58.9	광주 남구	14.8
5위	부산 금정구	56.7	경남 합천군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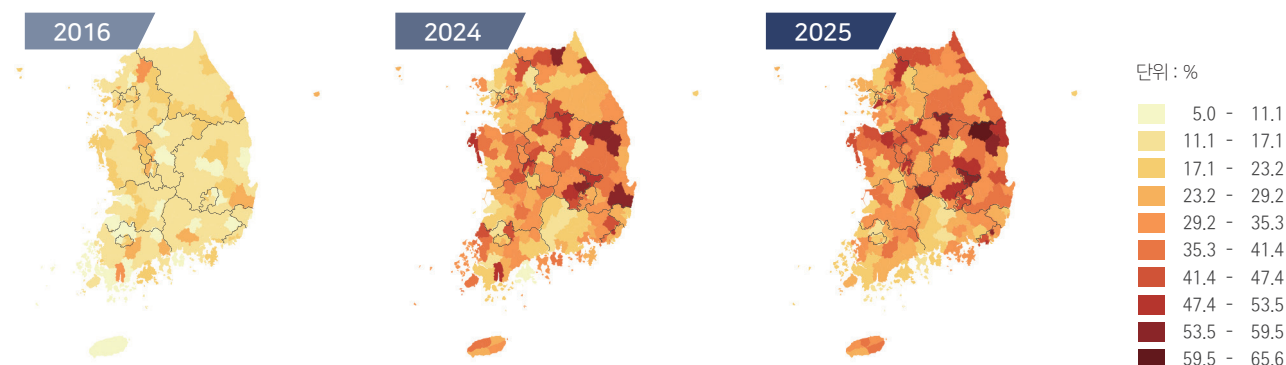


그림 171. 시·군·구별 혈당수치 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혈당수치 인지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59개로 전체의 61.6%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강원 고성군, 전북 무주군(22.5%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38개로 전체의 94.4%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북 봉화군(48.9%p)이었다.

표 343. 혈당수치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59	(61.6)	97	(37.6)	238	(94.4)	13	(5.2)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강원 고성군, 전북 무주군	22.5	전남 강진군	27.1	경북 봉화군	48.9	전남 광양시	7.3
	2위	경북 울진군	21.9	충남 논산시	26.4	충북 제천시	42.9	인천 남동구	7.2
	3위	부산 사하구	21.7	경남 남해군	16.8	대전 중구	42.3	전남 강진군	4.9
	4위	부산 중구	21.1	전남 진도군	16.0	전북 무주군	42.2	경북 울릉군	4.7
	5위					경북 울진군, 경북 의성군	40.5	광주 남구	3.3

- ◆ '25년 혈당수치 인지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53.0%p이며, '24년 47.8%p 대비 5.2%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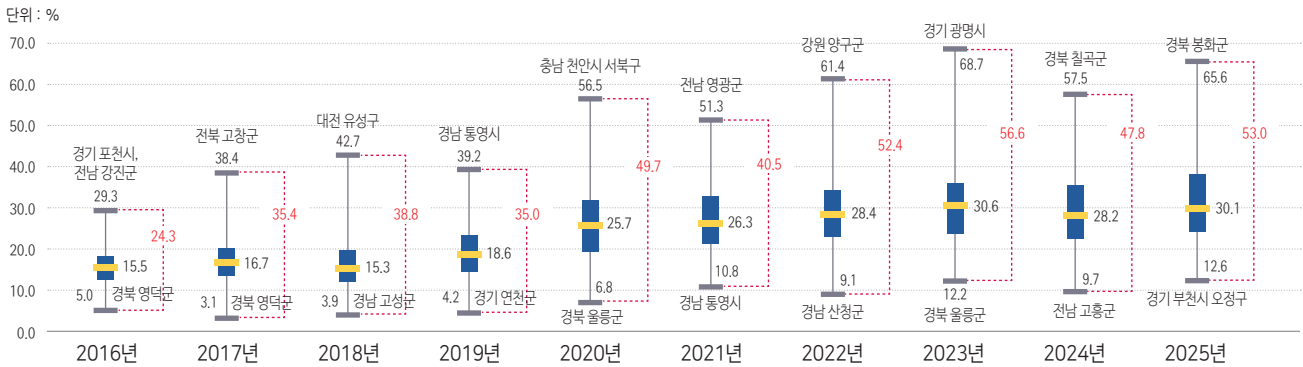


그림 172. 2016-2025 시·군·구 혈당수치 인지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혈당수치 인지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25), 가장 큰 지역은 경기(4.33)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2.50),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기(1.1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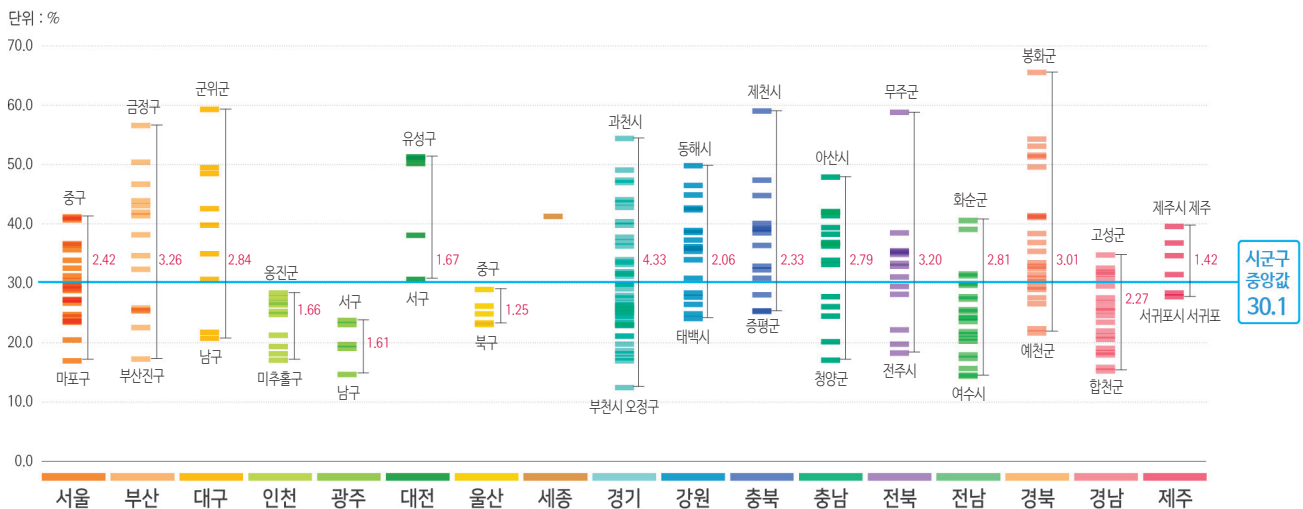


그림 173.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혈당수치 인지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혈당수치 인지율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32.2%로 가장 높고, 특별시의 구에서 3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1.9%p로 '24년 6.7%p 대비 4.8%p 감소하였다.

표 344.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2	4.3	6.5	8.4	8.6	7.9	8.7	6.4	6.7	1.9
특별시의 구	16.6	19.4	19.0	23.7	32.4	32.1	34.1	33.2	30.2	30.2
광역시의 구	16.5	18.1	17.4	19.7	26.8	27.9	28.0	29.4	27.1	30.3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17.1	18.5	16.6	19.0	28.3	29.6	35.0	33.7	25.5	31.4
도농복합형태의 시	16.7	16.8	16.0	20.7	28.3	28.3	29.9	31.4	32.1	32.2
일반군	13.9	15.1	15.2	16.6	23.8	25.7	28.4	31.0	29.9	31.9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15.1	17.2	12.5	15.3	25.8	24.2	26.3	27.3	30.4	31.9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혈당수치 인지율은 수도권 지역 29.1%, 비수도권 지역 32.2%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3.1%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45.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8	1.5	0.9	1.0	1.0	0.3	1.0	0.3	5.2	3.1
수도권	16.8	18.7	17.7	20.7	28.4	28.7	30.1	30.7	26.0	29.1
비수도권	15.9	17.2	16.8	19.8	27.4	28.4	29.1	30.4	31.2	32.2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혈당수치 인지율은 중부 지역 31.0%, 남부 지역 29.8%로 중부 지역에서 1.2%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46.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7	2.3	3.3	3.0	4.4	3.2	3.9	2.9	0.9	1.2
중부	17.0	18.8	18.5	21.3	29.4	29.7	31.0	31.6	28.2	31.0
경기지방	16.8	18.7	17.7	20.7	28.4	28.7	30.1	30.7	26.0	29.1
영동지방	18.3	18.9	15.8	19.4	29.6	27.9	30.0	27.3	28.1	33.5
영서지방	16.4	17.9	20.3	22.2	30.9	31.9	30.1	27.7	35.0	34.3
호서지방	18.1	19.4	22.0	24.2	34.4	34.3	35.7	36.9	37.6	39.4
남부	15.2	16.5	15.2	18.3	25.0	26.5	27.0	28.7	29.1	29.8
호남지방	15.9	17.5	15.4	20.2	23.8	28.4	29.2	28.7	26.0	23.7
영남지방	15.2	16.1	14.9	17.6	25.7	25.8	26.0	28.7	30.0	31.8
제주지방	8.7	16.6	19.3	18.3	21.2	27.5	31.6	26.7	34.2	36.2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혈당수치 인지율은 동 지역 30.3%, 읍·면 지역 32.0%로 읍·면 지역에서 1.7%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47.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혈당수치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7	2.2	2.5	3.4	3.1	3.1	1.6	0.3	1.4	1.7
동	16.7	18.4	17.8	20.9	28.5	29.2	29.9	30.7	28.3	30.3
읍·면	15.0	16.2	15.3	17.5	25.4	26.0	28.4	30.3	29.7	32.0

35.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전국 결과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9.6%로 '24년 9.4%에 비해 0.2%p 증가하였다.

표 348.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7.8	8.1	7.9	8.0	8.3	8.8	9.1	9.1	9.4	9.6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세종에서 6.4%로 가장 낮게, 인천에서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3.8%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부산(0.8%p)이었다.

표 349.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7.6	7.7	7.1	7.5	7.9	7.7	8.5	8.5	8.4	8.5
부산	7.7	7.4	7.3	7.9	8.2	8.3	8.7	8.7	9.0	9.8
대구	7.6	7.8	7.7	7.4	7.7	8.3	9.1	8.6	8.0	8.6
인천	7.9	9.1	9.2	9.0	9.0	9.8	9.3	9.7	9.5	10.0
광주	7.1	8.1	7.1	8.0	7.7	8.1	8.8	8.8	9.0	7.9
대전	6.9	8.3	7.8	7.5	7.1	8.0	8.5	9.0	8.9	9.4
울산	8.0	7.7	8.0	8.1	8.0	8.1	8.3	7.3	8.4	8.8
세종	8.0	9.7	7.4	6.2	9.1	7.0	6.8	9.0	10.2	6.4
경기	8.1	8.4	8.1	8.0	8.4	8.6	8.9	9.1	9.0	9.4
강원	8.6	8.6	8.5	8.4	8.5	9.7	8.9	9.0	10.2	9.5
충북	8.5	8.6	8.1	8.4	8.2	8.9	9.6	9.0	9.3	9.6
충남	8.6	8.5	7.8	8.6	8.8	8.9	9.1	9.8	9.5	9.9
전북	7.3	8.3	7.8	7.9	8.3	8.6	9.1	9.4	8.7	9.4
전남	8.1	8.1	8.1	7.7	7.9	8.6	9.3	9.0	9.5	9.8
경북	7.6	7.6	8.3	7.9	8.4	8.5	8.9	9.3	9.5	9.8
경남	7.0	7.5	7.3	7.5	7.5	7.9	8.1	8.2	8.2	8.8
제주	6.5	6.2	5.9	5.7	6.8	7.3	8.0	6.3	7.6	8.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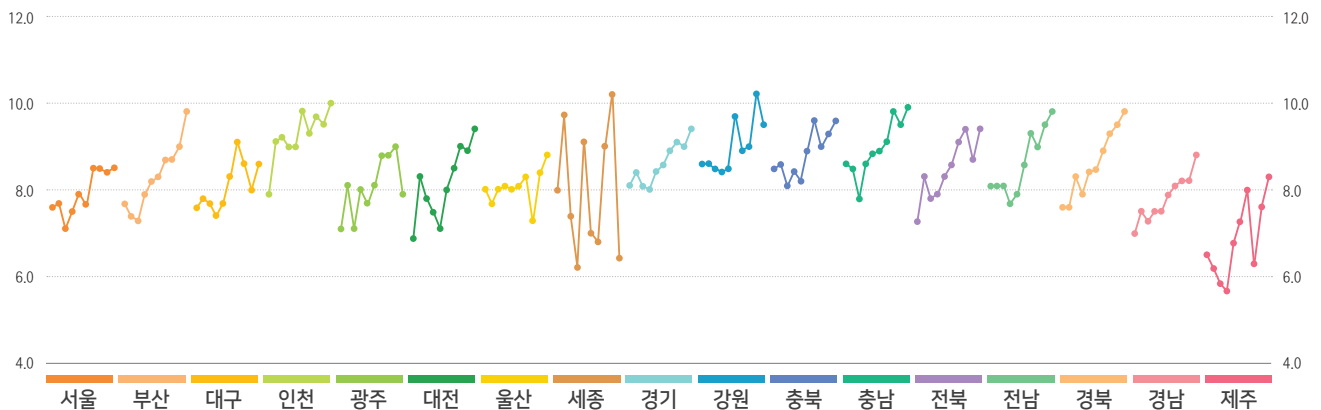


그림 174.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이 감소한 시·도는 3개로 전체의 17.6%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3.8%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1개로 전체의 5.9%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1.6%p)이었다.

표 350.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4 (82.4)		3 (17.6)		16 (94.1)		1 (5.9)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부산	0.8	세종	3.8	대전	2.5	세종	1.6
	2위	전북, 제주 0.7		광주	1.1	경북	2.2	-	-
	3위			강원	0.7	부산, 인천, 전북		2.1	-
	4위	대구, 경남 0.6		-	-	-	-	-	-
	5위			-	-	-	-	-	-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시·도 간 격차는 3.6%p이며, '24년 2.7%p 대비 0.9%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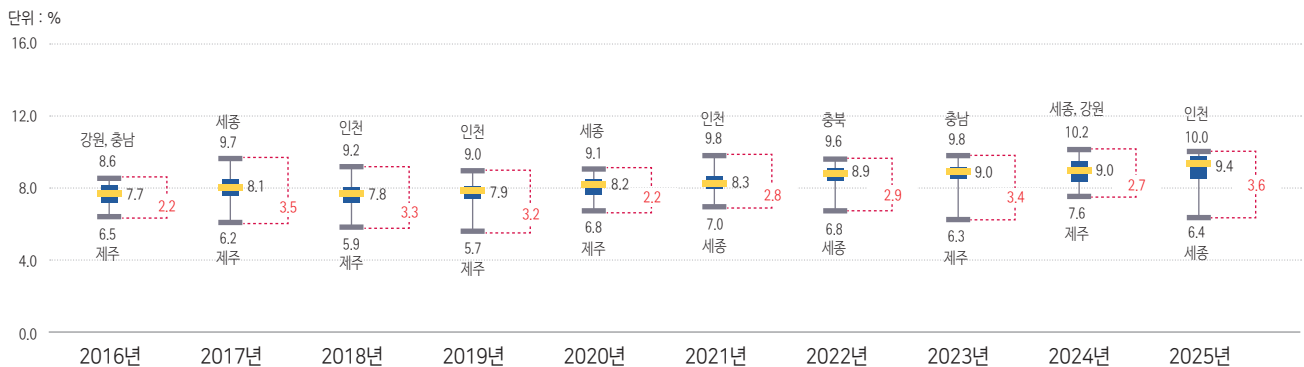


그림 175. 2016-2025 시·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5.7%로 가장 낮게, 전북 고창군에서 1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1. 2025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전북 고창군 15.0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 화성시 동탄 5.7
2위	전북 정읍시 14.7	서울 종로구 6.1
3위	인천 미추홀구, 인천 옹진군, 경북 영천시 12.9	경기 과천시, 전북 전주시 6.2
4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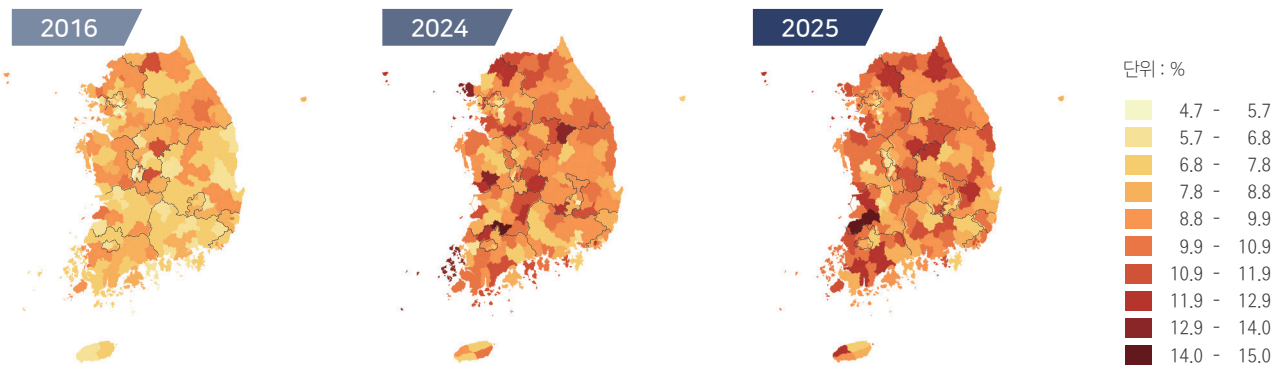


그림 176.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이 감소한 시·군·구는 112개로 전체의 43.4%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충남 부여군(4.9%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36개로 전체의 14.3%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서울 강동구(2.4%p)이었다.

표 352.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36 (52.7)		112 (43.4)		208 (82.5)		36 (14.3)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북 정읍시	7.4	충남 부여군	4.9	전북 고창군	8.2	서울 강동구	2.4
	2위	전북 고창군	6.4	전북 순창군	4.6	제주 제주시 서부	6.1	충남 논산시	2.0
	3위	전남 함평군	4.4	세종 세종시	3.8	경남 통영시	5.4	울산 중구	1.8
	4위	경남 산청군	4.1	인천 동구, 대전 중구	3.0	전북 군산시, 경북 문경시	5.0	세종 세종시	1.6
	5위	전남 강진군	3.8					경북 예천군	1.5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시·군·구 간 격차는 9.3%p이며, '24년 10.0%p 대비 0.7%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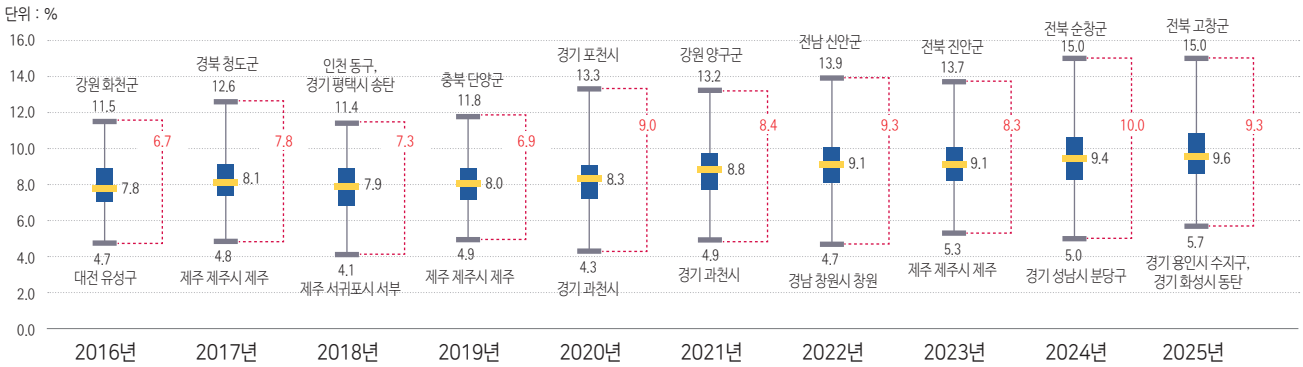


그림 177. 2016-2025 시·군·구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22), 가장 큰 지역은 전북(2.42)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인천(0.48),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북(0.2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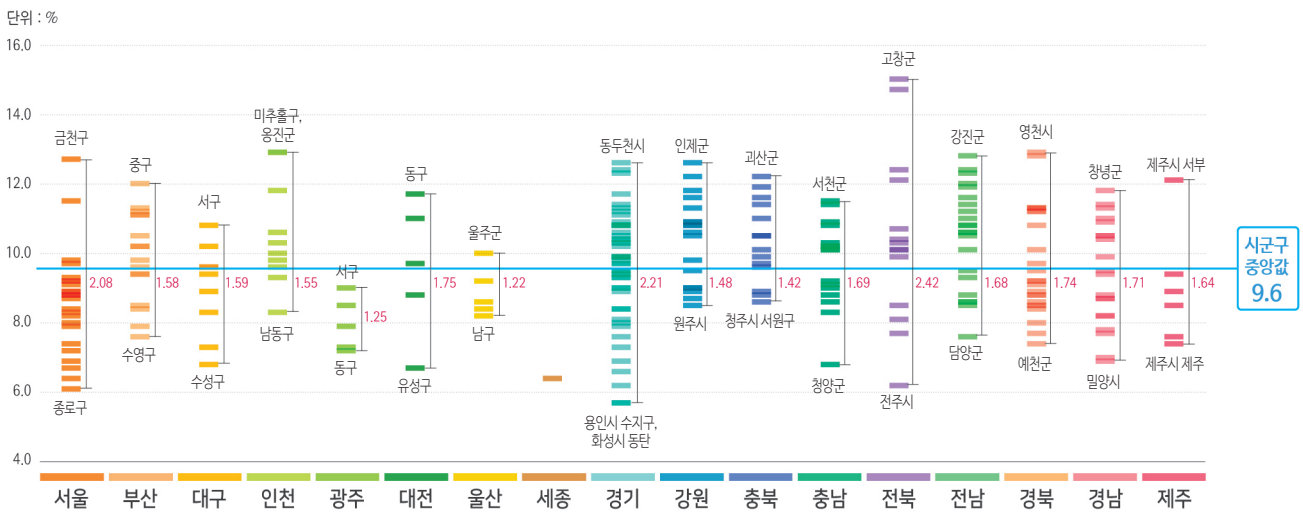


그림 178.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특별시의 구에서 8.5%로 가장 낮게,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서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1.6%p로 '24년 1.7%p 대비 0.1%p 감소하였다.

표 353.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6	0.9	1.3	0.8	1.0	1.5	1.0	0.9	1.7	1.6
특별시의 구	7.6	7.7	7.1	7.5	7.9	7.7	8.5	8.5	8.4	8.5
광역시의 구	7.7	8.1	7.9	7.9	8.2	8.5	8.8	8.8	8.7	9.1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8.1	8.4	8.3	8.0	7.8	7.5	9.0	9.0	9.3	10.1
도농복합형태의 시	8.2	8.3	8.0	8.2	8.3	8.9	8.9	9.1	9.6	9.7
일반 군	8.0	8.6	8.2	8.3	8.6	9.1	9.3	9.4	9.6	10.0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8.2	8.5	8.4	7.7	8.8	8.7	9.5	9.1	10.1	9.9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수도권 지역 9.2%, 비수도권 지역 9.2%로 수도권 지역에서 0.1%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54.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2	0.3	0.1	0.2	0.3	0.0	0.0	0.2	0.1	0.1
수도권	7.9	8.2	7.8	8.0	8.3	8.4	8.8	8.9	8.9	9.2
비수도권	7.6	7.9	7.7	7.8	8.0	8.4	8.8	8.8	8.9	9.2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중부 지역 9.2%, 남부 지역 9.1%로 남부 지역에서 0.1%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55.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5	0.6	0.3	0.3	0.4	0.2	0.1	0.3	0.3	0.1
중부	7.9	8.2	7.8	8.0	8.3	8.5	8.8	9.0	9.0	9.2
경기지방	7.9	8.2	7.8	8.0	8.3	8.4	8.8	8.9	8.9	9.2
영동지방	8.8	8.6	8.3	8.1	8.5	10.2	8.8	8.7	9.3	10.2
영서지방	8.5	8.6	8.6	8.6	8.5	9.5	9.0	9.3	10.6	9.3
호서지방	8.1	8.4	7.8	8.1	8.2	8.5	8.9	9.2	9.3	9.4
남부	7.4	7.7	7.6	7.7	7.9	8.3	8.7	8.6	8.7	9.1
호남지방	7.5	8.1	7.7	7.8	8.0	8.5	9.1	9.2	9.0	9.1
영남지방	7.5	7.5	7.6	7.7	7.9	8.2	8.6	8.5	8.6	9.2
제주지방	6.5	6.2	5.9	5.7	6.8	7.3	8.0	6.3	7.6	8.3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은 동 지역 9.0%, 읍·면 지역 10.1%로 동 지역에서 1.1%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56.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4	0.7	0.6	0.5	0.5	0.8	0.8	0.8	1.0	1.1
동	7.7	7.9	7.7	7.8	8.1	8.3	8.7	8.7	8.7	9.0
읍·면	8.1	8.7	8.3	8.3	8.5	9.1	9.4	9.5	9.7	10.1

36.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전국 결과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93.2%로 '24년 93.4%에 비해 0.2%p 감소하였다.

표 357.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86.1	87.1	90.9	91.9	91.5	91.2	91.8	92.8	93.4	93.2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광주, 제주에서 96.4%로 가장 높게, 대전에서 8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4.7%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구(3.9%p)이었다.

표 358.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86.1	85.1	89.1	90.9	90.3	90.2	90.5	91.8	91.6	92.6
부산	86.7	87.4	93.7	93.6	92.0	93.0	94.6	92.5	94.6	95.0
대구	87.6	88.4	92.3	92.8	93.1	91.4	92.6	96.6	95.8	91.9
인천	86.0	88.9	91.4	92.8	93.6	91.2	92.3	93.0	92.9	94.7
광주	82.6	88.0	94.4	89.6	92.5	91.5	93.2	93.1	91.7	96.4
대전	86.4	85.1	92.7	94.9	75.0	84.6	81.0	91.4	81.4	83.3
울산	84.8	88.6	90.2	91.8	94.6	93.6	94.3	91.1	93.9	90.9
세종	91.5	83.8	97.3	97.0	90.0	84.6	94.9	92.4	93.6	92.1
경기	86.3	88.1	91.7	92.6	91.5	91.1	90.7	92.9	93.8	92.4
강원	89.6	90.7	94.1	91.5	93.1	89.5	93.5	94.8	92.7	94.3
충북	87.1	87.2	91.7	92.9	92.2	90.8	91.5	95.6	95.2	94.2
충남	87.8	85.9	92.5	91.1	90.6	90.9	92.4	93.2	94.7	93.8
전북	87.7	88.7	87.2	94.6	88.8	90.5	90.2	93.7	94.0	94.7
전남	88.1	88.8	94.0	93.4	94.6	93.1	95.1	96.5	97.2	96.2
경북	89.5	87.0	93.4	93.4	91.9	93.7	94.1	95.2	94.8	95.8
경남	87.5	88.1	93.5	93.2	91.2	94.1	96.2	95.8	95.6	94.8
제주	84.8	89.6	93.6	91.0	92.6	96.6	88.2	94.8	93.5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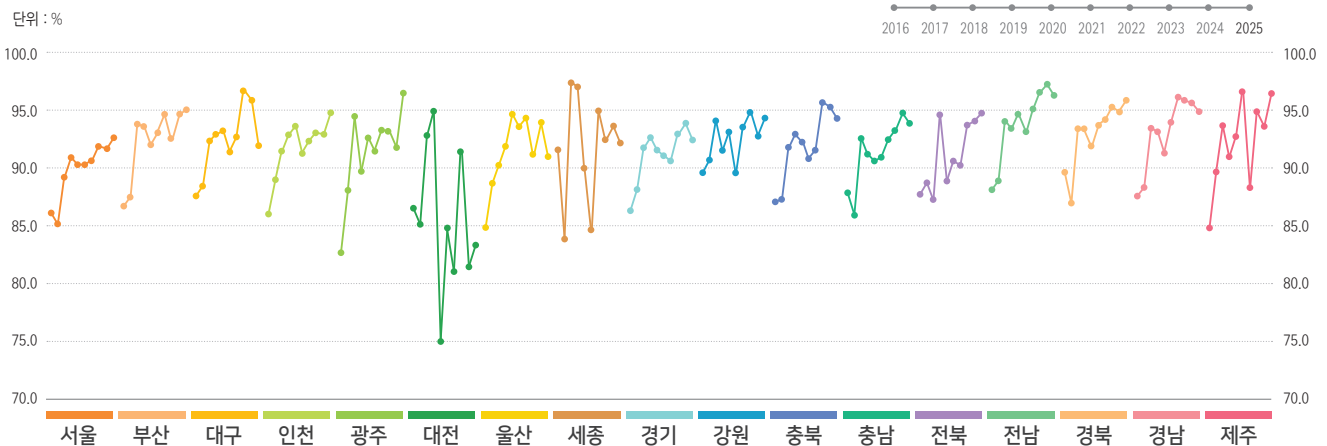


그림 179.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이 증가한 시·도는 9개로 전체의 52.9%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광주(4.7%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도는 16개로 전체의 94.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광주(13.8%p)이었다.

표 359.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9 (52.9)		8 (47.1)		16 (94.1)		1 (5.9)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광주	4.7	대구	3.9	광주	13.8	대전	3.1
	2위	제주	2.9	울산	3.0	제주	11.6	-	-
	3위	대전	1.9	세종	1.5	인천	8.7	-	-
	4위	인천	1.8	경기	1.4	부산	8.3	-	-
	5위	강원	1.6	충북, 전남	1.0	전남	8.1	-	-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의 시·도 간 격차는 13.1%p이며, '24년 15.8%p 대비 2.7%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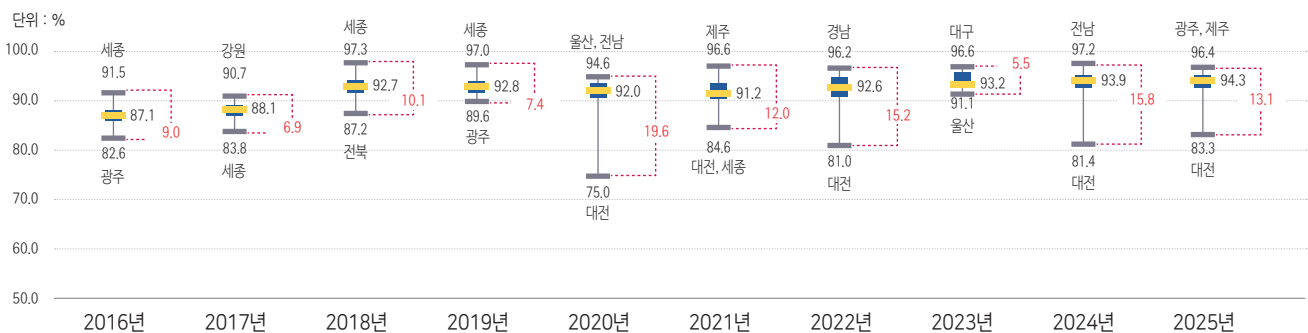


그림 180. 2016-2025 시·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충북 옥천군, 전남 영암군에서 100.0%로 가장 높게, 경기 과천시에서 5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60. 20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충북 옥천군,	100.0	경기 과천시	50.7
2위	전남 영암군		서울 용산구	65.8
3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99.6	경기 성남시 중원구	68.0
4위	전북 정읍시	99.4	대구 동구	68.1
5위	충남 공주시	98.9	충북 괴산군	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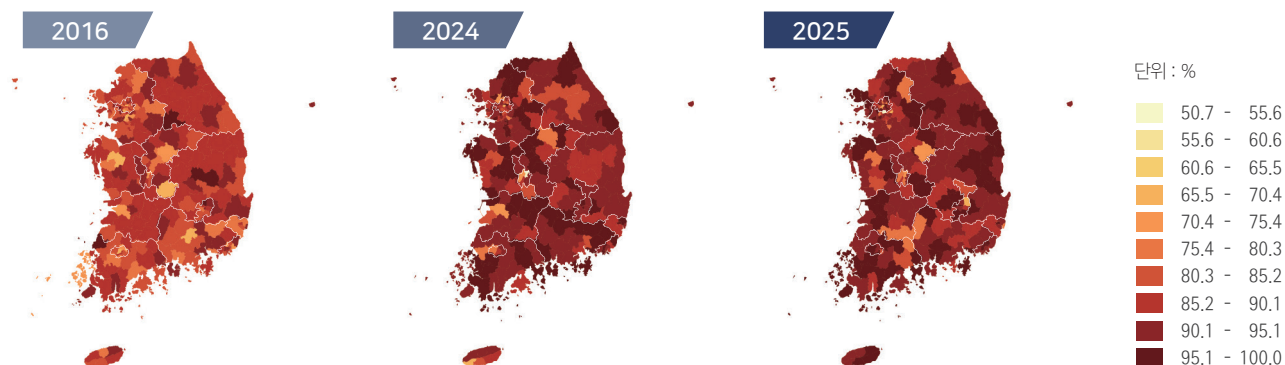


그림 181.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28개로 전체의 49.6%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전북 김제시(24.0%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08개로 전체의 82.5%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서울 관악구(28.8%p)이었다.

표 361.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28	(49.6)	129	(50.0)	208	(82.5)	44	(17.5)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북 김제시	24.0	경기 과천시	33.7	서울 관악구	28.8	경기 과천시	35.7
	2위	제주 서귀포시 서부	22.1	경기 성남시 중원구	25.3	충북 영동군	26.3	대구 동구	22.6
	3위	대전 대덕구	18.1	대구 동구	23.5	서울 중구	26.0	서울 용산구	19.3
	4위	광주 광산구	17.6	울산 동구	18.4	경남 산청군	25.3	경기 성남시 중원구	18.6
	5위	충북 충주시	17.0	충북 괴산군	17.3	경기 의왕시	23.9	대전 유성구	16.3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49.3%p이며, '24년 46.0%p 대비 3.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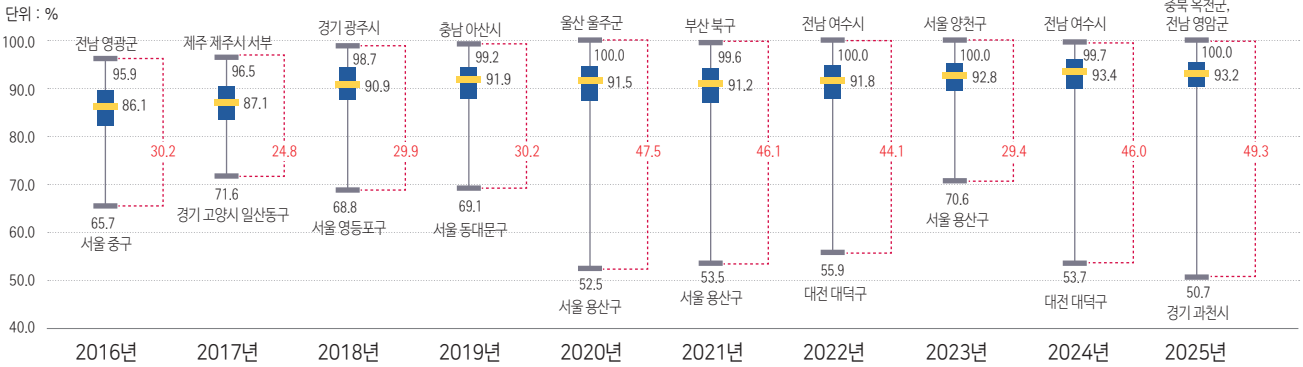


그림 182. 2016-2025 시·군·구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인천(1.07), 가장 큰 지역은 경기(1.94)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전(0.47),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기(0.6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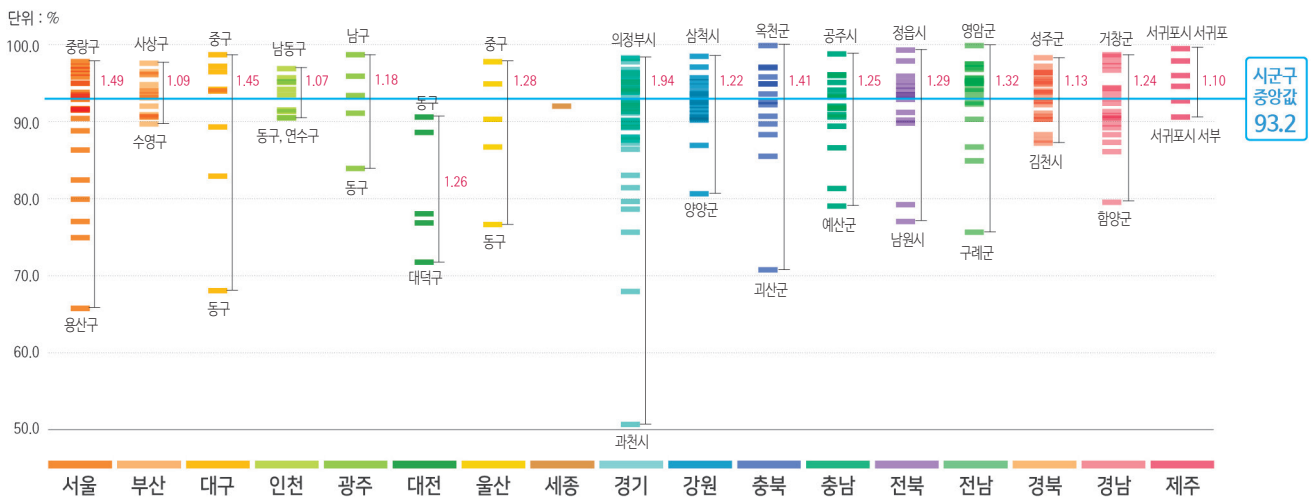


그림 183.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95.9%로 가장 높고,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에서 9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3.5%p로 '24년 4.9%p 대비 1.4%p 감소하였다.

표 362.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2	4.1	4.9	4.2	2.6	3.9	3.5	3.4	4.9	3.5
특별시의 구	86.1	85.1	89.1	90.9	90.3	90.2	90.5	91.8	91.6	92.6
광역시의 구	86.7	88.0	92.0	92.6	91.1	91.4	91.6	93.3	93.0	92.9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85.1	85.4	92.3	90.3	90.9	93.5	94.0	94.3	96.0	92.4
도농복합형태의 시	88.4	87.7	93.4	93.2	92.6	92.0	93.7	95.2	95.5	95.9
일반 군	86.7	89.2	92.9	93.5	92.9	92.1	92.9	93.6	95.1	93.8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87.4	88.8	94.1	94.5	92.5	89.5	91.3	95.1	96.5	92.6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수도권 지역 92.7%, 비수도권 지역 93.9%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1.2%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63.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0	0.6	2.0	0.7	0.1	1.0	2.1	1.8	1.1	1.2
수도권	86.2	87.2	90.7	92.1	91.3	90.9	90.8	92.5	92.9	92.7
비수도권	87.3	87.7	92.7	92.8	91.3	91.9	92.9	94.2	94.0	93.9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중부 지역 92.6%, 남부 지역 94.6%로 남부 지역에서 2.0%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64.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4	1.0	1.3	0.8	1.2	2.4	3.1	1.6	2.2	2.0
중부	86.6	87.1	91.3	92.2	90.8	90.5	90.8	92.8	92.7	92.6
경기지방	86.2	87.2	90.7	92.1	91.3	90.9	90.8	92.5	92.9	92.7
영동지방	85.9	89.9	91.4	93.5	93.8	89.6	90.8	96.7	94.9	93.7
영서지방	91.9	91.1	95.5	90.2	92.9	89.6	95.0	93.7	91.9	94.9
호서지방	87.5	85.9	92.7	92.8	87.9	89.3	89.7	93.4	91.7	91.4
남부	87.0	88.1	92.6	93.0	92.1	92.9	93.8	94.4	94.9	94.6
호남지방	86.8	88.5	91.5	92.8	91.8	91.8	92.7	94.5	94.9	95.7
영남지방	87.2	87.8	93.0	93.2	92.2	93.2	94.6	94.5	94.9	94.1
제주지방	84.8	89.6	93.6	91.0	92.6	96.6	88.2	94.8	93.5	96.4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은 동 지역 93.0%, 읍·면 지역 94.3%로 읍·면 지역에서 1.3%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65.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6	1.4	2.4	0.8	0.5	0.3	0.5	1.5	1.7	1.3
동	86.4	87.2	91.3	92.3	91.2	91.3	91.8	93.0	93.1	93.0
읍·면	88.0	88.6	93.6	93.1	91.8	91.6	92.3	94.6	94.8	94.3

37.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전국 결과

- ◆ '25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39.3%로 '24년 38.3%에 비해 1.0%p 증가하였다.

표 366. 2016-2025 전국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35.0	35.2	38.0	40.5	41.4	39.1	38.5	38.4	38.3	39.3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서울에서 49.7%로 가장 높게, 전남에서 3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14.0%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광주(6.4%p)이었다.

표 367. 2016-2025 시·도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42.8	44.2	47.1	53.2	56.1	51.9	50.9	52.0	53.6	49.7
부산	38.1	33.0	44.0	49.7	39.1	41.6	43.2	44.2	38.4	39.6
대구	40.1	39.7	40.4	44.1	39.0	40.1	39.5	43.9	38.4	38.2
인천	37.0	40.5	41.0	47.9	46.4	40.0	40.4	43.8	41.8	41.2
광주	35.8	32.7	43.5	44.3	43.4	36.7	33.1	37.8	40.2	33.8
대전	43.5	34.7	39.5	51.8	51.0	40.5	38.3	38.6	42.9	41.5
울산	31.6	32.4	38.6	49.9	45.1	45.4	39.0	38.6	42.4	37.8
세종	44.6	40.3	50.0	58.0	60.8	65.2	60.7	51.7	35.4	49.4
경기	38.1	42.1	43.6	46.9	46.3	44.7	43.9	43.3	44.7	44.8
강원	33.5	38.4	36.2	41.0	44.1	37.1	40.0	40.7	37.0	40.9
충북	34.7	35.7	39.5	38.7	45.6	40.4	42.3	41.7	41.2	42.5
충남	36.4	36.2	38.4	41.7	44.9	40.9	42.4	41.1	44.0	41.8
전북	36.6	33.6	43.4	41.3	39.4	38.8	40.3	38.7	38.0	41.9
전남	25.7	29.6	33.3	27.8	33.9	32.8	33.0	33.4	28.7	32.4
경북	34.2	35.5	34.7	37.8	36.6	35.1	34.8	36.1	36.5	33.2
경남	36.6	35.9	37.0	39.8	45.0	38.9	38.4	37.3	35.5	40.3
제주	30.8	38.9	55.1	46.1	53.8	53.3	44.5	50.8	45.6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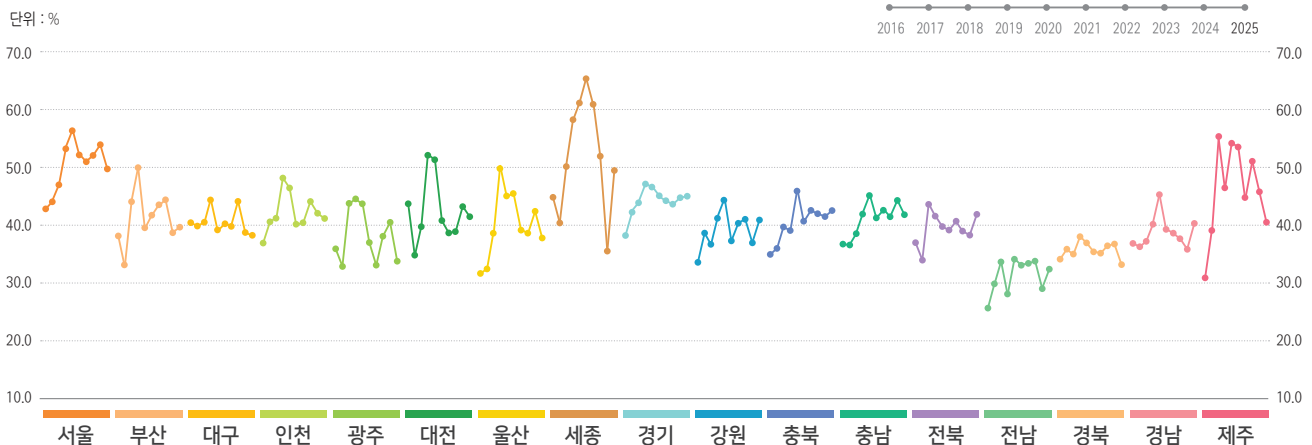


그림 184. 2016-2025 시·도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 ◆ 전년 대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이 증가한 시·도는 8개로 전체의 47.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세종(14.0%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도는 13개로 전체의 76.5%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9.6%p)이었다.

표 368.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 (47.1)		9 (52.9)		13 (76.5)		4 (23.5)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세종	14.0	광주	6.4	제주	9.6	광주, 대전	2.0
	2위	경남	4.8	제주	5.2	충북	7.8		
	3위	강원, 전북	3.9	울산	4.6	강원	7.4	대구	1.9
	4위			서울	3.9	서울	6.9	경북	1.0
	5위	전남	3.7	경북	3.3	전남	6.7	-	-

- ◆ '25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의 시·도 간 격차는 17.3%p이며, '24년 24.9%p 대비 7.6%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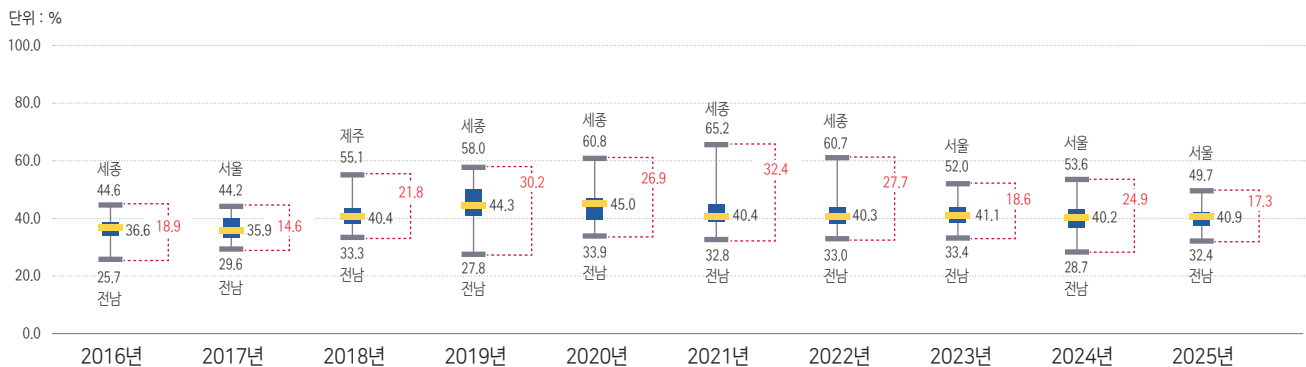


그림 185. 2016-2025 시·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서울 용산구에서 86.0%로 가장 높게, 전남 해남군에서 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69. 2025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서울 용산구 86.0	전남 해남군 6.7
2위	광주 남구 70.9	강원 고성군 12.1
3위	서울 서초구 69.3	충남 청양군, 전남 완도군 14.0
4위	대전 유성구 65.0	
5위	서울 성동구 64.3	광주 광산구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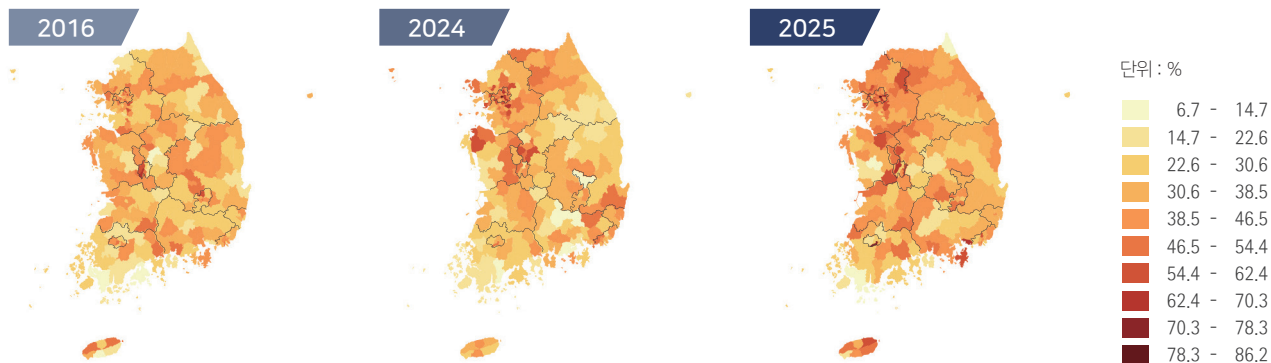


그림 186. 시·군·구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이 증가한 시·군·구는 132개로 전체의 51.2%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서울 서초구(24.0%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169개로 전체의 67.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49.5%p)이었다.

표 370.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32		126		169		83		
시·군·구	(51.2)		(48.8)		(67.1)		(32.9)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서울 서초구	24.0	충남 서산시	37.0	서울 용산구	49.5	대전 서구	42.4
	2위	전남 순천시	23.4	서울 강북구	28.9	광주 남구	44.1	광주 광산구	27.3
	3위	전북 정읍시	23.1	서울 성북구	25.3	대전 동구	38.7	경기 오산시	23.1
	4위	경남 창원시 진해	22.5	강원 고성군	24.7	서울 마포구	37.4	전남 광양시	22.9
	5위	경남 고성군	22.4	서울 강남구, 부산 강서구	21.6	경남 창원시 진해	36.2	광주 서구	22.8

- ◆ '25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의 시·군·구 간 격차는 79.3%p이며, '24년 74.8%p 대비 4.5%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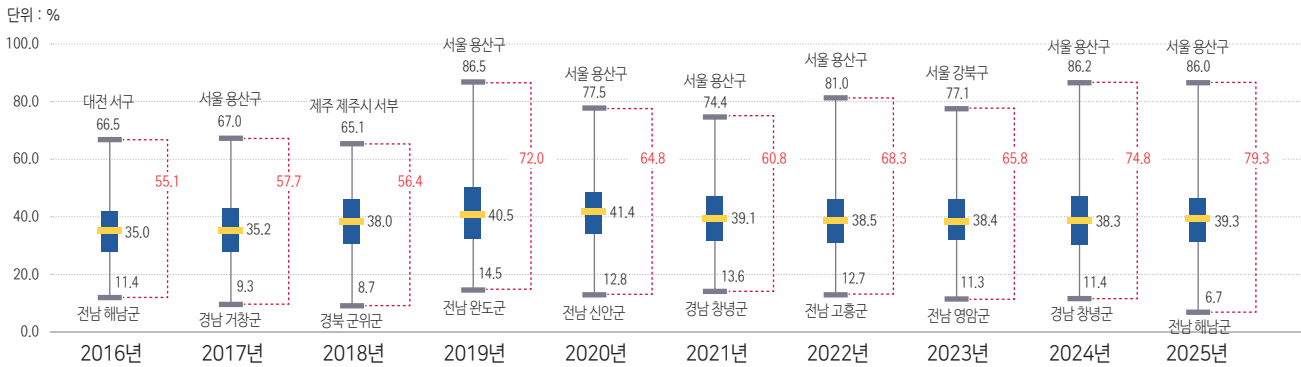


그림 187. 2016-2025 시·군·구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23), 가장 큰 지역은 전남(8.10)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인천(1.16),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4.9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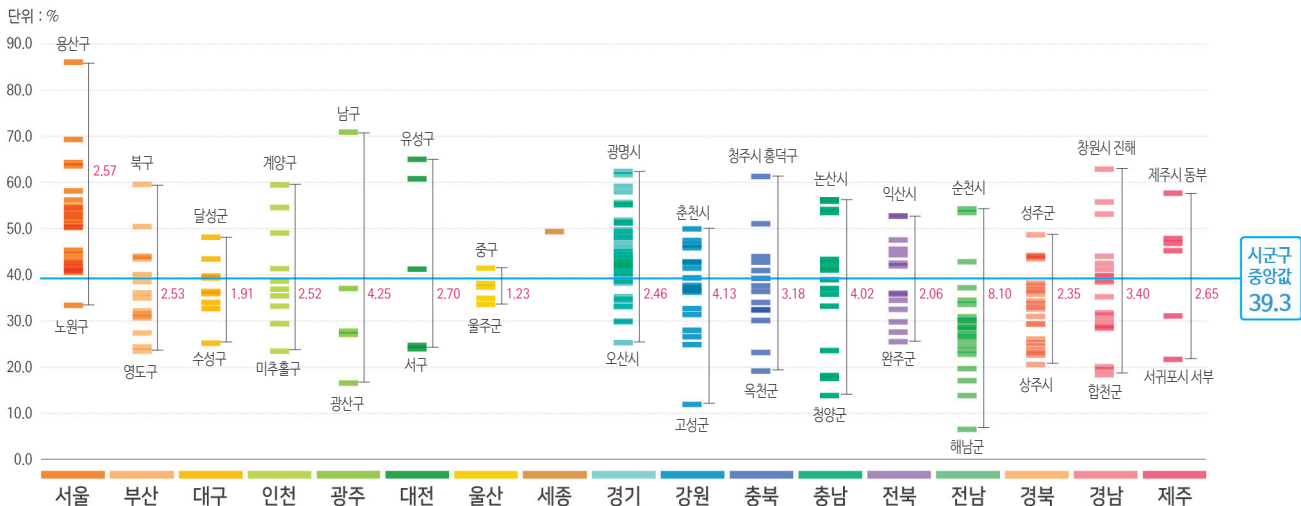


그림 188.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특별시의 구에서 49.7%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3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17.2%p로 '24년 19.7%p 대비 2.5%p 감소하였다.

표 371.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4.6	12.0	17.5	19.1	19.7	16.1	18.1	17.9	19.7	17.2
특별시의 구	42.8	44.2	47.1	53.2	56.1	51.9	50.9	52.0	53.6	49.7
광역시의 구	38.0	39.2	42.5	46.6	44.5	41.5	41.9	42.3	42.3	42.2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36.0	41.5	45.5	41.4	47.9	46.9	39.2	44.9	39.1	36.1
도농복합형태의 시	35.6	34.8	37.5	42.5	43.8	40.9	42.2	40.9	39.1	40.9
일반군	30.5	32.1	33.3	35.4	36.4	36.3	32.8	34.5	34.7	36.3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28.2	33.0	29.7	34.0	38.9	35.8	37.1	34.1	33.9	32.5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수도권 지역 46.2%, 비수도권 지역 38.7%로 수도권 지역에서 7.4%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2.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4.4	7.7	5.5	7.4	8.4	7.4	6.7	6.7	9.2	7.4
수도권	40.0	42.7	44.5	49.5	50.1	46.5	46.0	46.4	47.5	46.2
비수도권	35.6	35.0	39.0	42.1	41.7	39.1	39.3	39.7	38.2	38.7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중부 지역 45.2%, 남부 지역 37.3%로 중부 지역에서 7.9%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3.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9	6.8	3.9	6.2	9.1	6.5	6.7	5.9	9.0	7.9
중부	39.0	41.2	43.1	47.9	49.2	45.0	45.0	45.1	46.0	45.2
경기지방	40.0	42.7	44.5	49.5	50.1	46.5	46.0	46.4	47.5	46.2
영동지방	32.6	32.0	31.8	36.4	37.1	31.2	34.9	38.2	29.9	37.9
영서지방	34.5	41.6	38.3	43.2	49.1	40.3	42.5	42.0	40.9	42.8
호서지방	37.6	35.9	39.3	43.7	46.9	41.9	42.4	41.2	42.7	42.5
남부	35.1	34.4	39.2	41.8	40.1	38.5	38.3	39.2	36.9	37.3
호남지방	31.8	31.9	38.9	36.4	38.0	35.9	35.5	36.4	34.9	36.2
영남지방	36.6	35.3	38.8	43.7	40.3	39.0	39.1	40.1	37.5	37.6
제주지방	30.8	38.9	55.1	46.1	53.8	53.3	44.5	50.8	45.6	40.4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동 지역 43.4%, 읍·면 지역 38.8%로 동 지역에서 4.7%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74.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당뇨병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7	6.0	7.5	8.7	8.1	6.5	6.6	7.3	7.3	4.7
동	39.2	40.1	43.3	47.7	47.7	44.1	44.0	44.6	44.4	43.4
읍·면	32.5	34.1	35.8	39.1	39.6	37.6	37.4	37.3	37.1	38.8

38.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전국 결과

- ◆ '25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51.8%로 '24년 50.1%에 비해 1.7%p 증가하였다.

표 375. 2016-2025 전국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39.6	40.3	44.1	50.9	48.3	46.5	47.8	49.2	50.1	51.8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서울에서 60.8%로 가장 높게, 전남에서 4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부산(8.2%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제주(9.3%p)이었다.

표 376. 2016-2025 시·도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52.0	51.7	56.8	62.5	63.7	57.9	59.8	62.4	60.7	60.8
부산	38.5	38.9	48.2	55.3	43.2	45.8	48.7	49.6	42.0	50.2
대구	46.7	42.9	43.9	54.4	43.7	49.6	47.0	47.2	48.2	52.0
인천	44.7	47.7	51.6	56.6	56.8	53.4	54.6	60.5	53.5	52.9
광주	43.8	44.9	45.4	56.2	58.1	51.6	49.2	50.4	52.1	55.4
대전	45.7	40.3	48.3	58.7	58.4	43.7	52.0	47.5	54.5	48.9
울산	38.4	34.2	45.3	59.5	57.0	55.0	44.8	43.3	46.9	47.7
세종	46.9	33.2	51.3	69.0	69.4	69.5	80.7	67.0	62.7	55.0
경기	43.9	47.3	53.8	57.6	57.1	58.0	54.9	58.7	57.5	58.5
강원	40.6	41.6	45.3	49.9	51.5	38.9	45.8	51.3	45.6	43.0
충북	40.1	39.9	49.3	44.6	52.9	51.1	50.9	51.6	49.8	50.6
충남	38.7	40.0	49.4	55.2	51.0	47.8	47.0	50.2	57.4	54.9
전북	40.2	39.0	50.9	47.7	50.3	43.0	50.9	44.0	52.6	49.7
전남	34.2	36.7	38.0	39.9	43.9	41.6	43.3	40.7	43.4	42.7
경북	36.6	43.4	42.8	41.4	37.1	43.4	39.5	44.6	45.6	47.1
경남	38.0	43.3	40.0	48.9	47.2	45.9	42.2	45.7	49.1	54.6
제주	32.3	40.5	59.5	64.4	63.1	65.4	54.8	62.2	67.1	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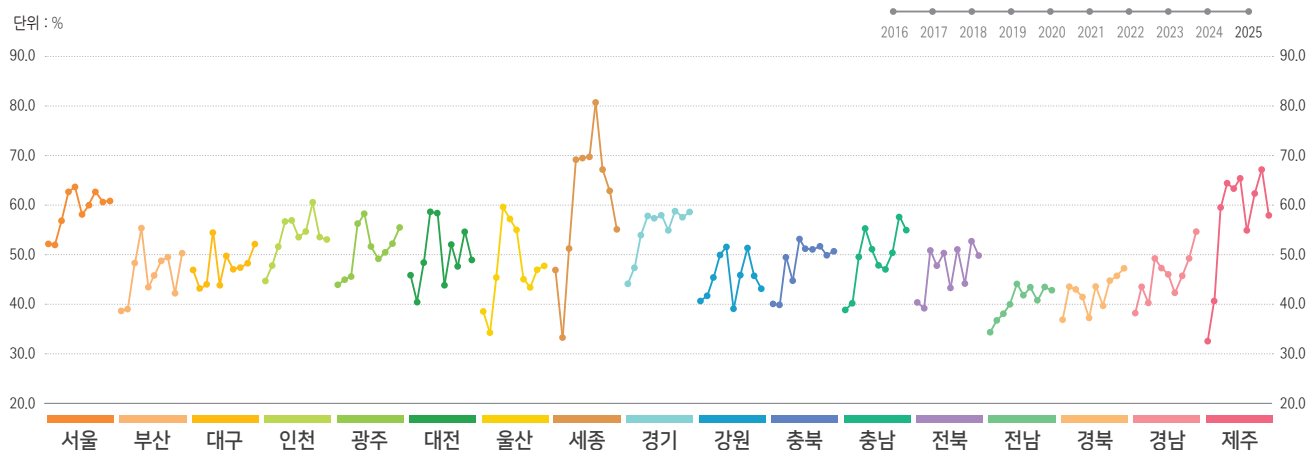


그림 189. 2016-2025 시·도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 ◆ 전년 대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이 증가한 시·도는 9개로 전체의 52.9%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부산(8.2%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25.5%p)이었다.

표 377.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9 (52.9)		8 (47.1)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부산	8.2	제주	9.3	제주	25.5	-	-
	2위	경남	5.5	세종	7.7	경남	16.6	-	-
	3위	대구	3.8	대전	5.6	충남	16.2	-	-
	4위	광주	3.3	전북	2.9	경기	14.6	-	-
	5위	경북	1.5	강원	2.6	부산	11.7	-	-

- ◆ '25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의 시·도 간 격차는 18.1%p이며, '24년 25.2%p 대비 7.1%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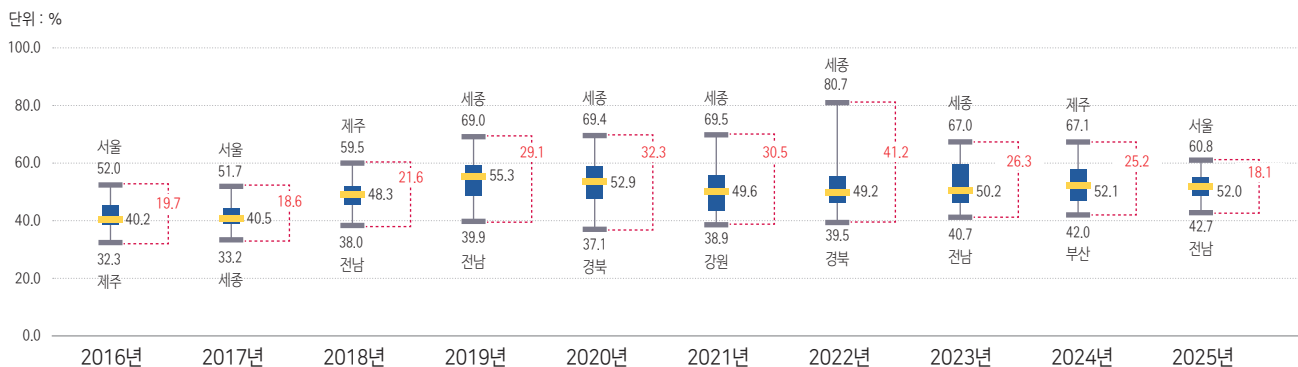


그림 190. 2016-2025 시·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 시·군·구별 결과** ◆ '25년 시·군·구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광주 남구에서 92.2%로 가장 높게, 강원 고성군에서 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78. 2025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광주 남구	92.2	강원 고성군	7.8
2위	서울 용산구	91.1	강원 태백시	7.9
3위	서울 서초구	85.8	충남 청양군	12.2
4위	서울 중랑구	85.7	전남 보성군	15.3
5위	경기 광명시	84.5	강원 정선군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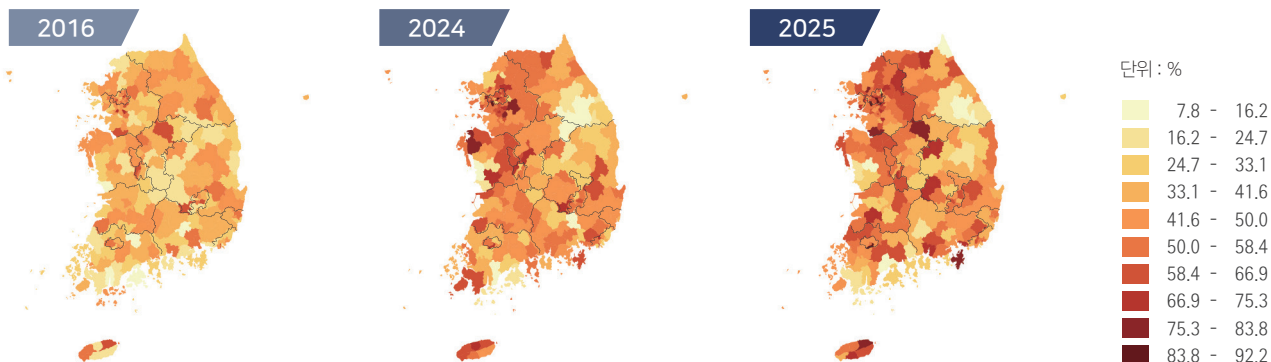


그림 191. 시·군·구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이 증가한 시·군·구는 139개로 전체의 53.9%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부산 수영구(44.0%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189개로 전체의 75.0%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광주 남구(63.8%p)이었다.

표 379.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39	116	189	63	
시·군·구	(53.9)	(45.0)	(75.0)	(25.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부산 수영구 44.0	충남 부여군 41.7	광주 남구 63.8	강원 정선군 41.5
	2위	경기 동두천시 36.4	전남 해남군 41.3	경북 김천시 57.3	충남 청양군 32.7
	3위	서울 서초구 33.8	서울 노원구 35.7	서울 용산구 54.7	서울 노원구 31.5
	4위	경남 창원군 32.5	전남 광양시 32.8	경남 거제시 53.3	대구 수성구 28.3
	5위	경기 평택시 평택 30.0	강원 고성군 31.2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46.8	전남 광양시 25.8

- ◆ '25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의 시·군·구 간 격차는 84.4%p이며, '24년 76.8%p 대비 7.6%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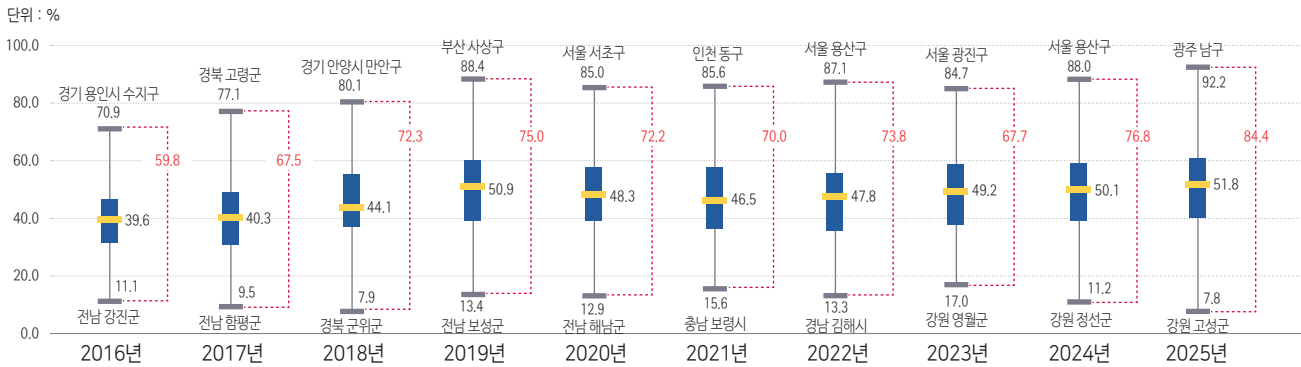


그림 192. 2016-2025 시·군·구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62), 가장 큰 지역은 강원(8.72)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1.80),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강원(3.4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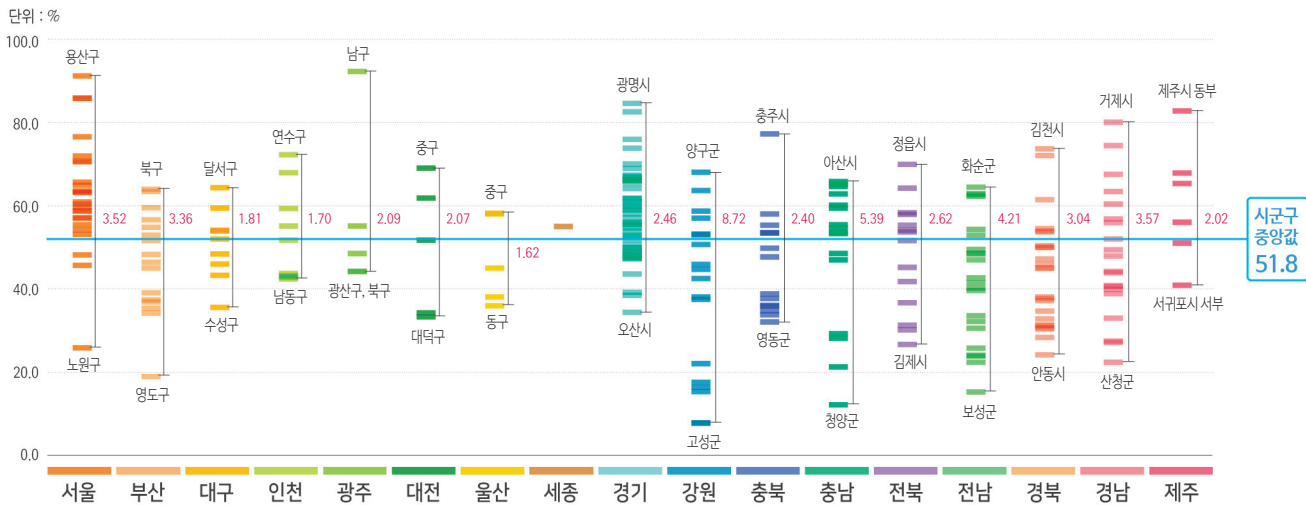


그림 193.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특별시의 구에서 60.8%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4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19.1%p로 '24년 17.9%p 대비 1.2%p 증가하였다.

표 380.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8.6	14.7	21.5	25.1	20.1	19.0	20.2	23.5	17.9	19.1
특별시의 구	52.0	51.7	56.8	62.5	63.7	57.9	59.8	62.4	60.7	60.8
광역시의 구	43.5	45.6	50.8	55.7	52.8	52.4	51.8	54.3	53.1	55.3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45.5	44.5	53.4	49.1	57.2	55.0	44.2	54.0	48.4	45.4
도농복합형태의 시	38.3	39.3	44.7	50.8	50.8	48.2	50.1	51.2	53.9	51.7
일반 군	33.4	37.0	40.9	46.2	43.6	42.6	39.7	41.2	43.4	44.4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35.1	37.2	35.3	37.3	43.6	38.9	41.5	38.9	42.8	41.7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수도권 지역 58.6%, 비수도권 지역 50.1%로 수도권 지역에서 8.5%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81.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7.6	8.3	9.1	8.8	11.7	11.0	10.1	12.5	9.4	8.5
수도권	47.2	49.0	54.6	59.4	59.7	57.3	56.8	60.2	58.2	58.6
비수도권	39.7	40.7	45.4	50.5	48.0	46.3	46.6	47.8	48.8	50.1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중부 지역 56.6%, 남부 지역 50.1%로 중부 지역에서 6.5%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82.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7	6.0	8.6	7.7	12.2	8.3	9.6	11.5	9.7	6.5
중부	45.8	46.9	53.0	57.7	58.1	54.7	55.0	58.0	56.9	56.6
경기지방	47.2	49.0	54.6	59.4	59.7	57.3	56.8	60.2	58.2	58.6
영동지방	39.7	38.8	41.2	46.6	44.4	29.3	34.4	49.3	36.1	37.6
영서지방	41.9	43.1	47.1	51.8	56.5	44.5	51.6	52.3	50.1	45.8
호서지방	41.2	39.9	49.0	53.0	54.1	48.7	50.8	51.0	55.1	52.3
남부	39.1	40.9	44.4	50.0	46.0	46.4	45.5	46.5	47.2	50.1
호남지방	38.3	39.8	44.0	46.4	49.6	44.2	47.2	44.6	48.4	47.9
영남지방	39.6	41.3	44.0	51.0	44.0	46.5	44.3	46.7	45.9	50.5
제주지방	32.3	40.5	59.5	64.4	63.1	65.4	54.8	62.2	67.1	57.8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은 동 지역 55.6%, 읍·면 지역 49.3%로 동 지역에서 6.3%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83.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당뇨병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30세 이상)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7.1	7.4	7.7	8.2	9.1	7.2	7.5	8.5	6.3	6.3
동	44.9	46.5	51.6	56.6	55.7	53.2	53.2	55.7	54.8	55.6
읍·면	37.8	39.1	43.9	48.5	46.6	46.0	45.7	47.2	48.5	49.3

39.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40]

전국 결과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전국 시·도 중앙값은 35.2%로 '24년 36.5%에 비해 1.3%p 감소하였다.

표 384. 2016-2025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36.1	36.6	37.4	35.7	35.7	35.6	36.1	44.3	36.5	35.2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은 세종에서 19.5%로 가장 낮게, 대전에서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북(11.3%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전(3.9%p)이었다.

표 385.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37.5	36.9	33.9	33.4	35.7	31.5	34.6	44.1	35.6	33.0
부산	39.0	41.8	38.3	34.6	35.7	36.3	36.4	41.8	33.7	33.5
대구	37.7	34.9	37.3	32.7	32.2	42.2	35.2	44.0	42.7	35.0
인천	34.5	36.6	35.6	35.7	38.6	40.0	32.9	41.9	41.1	35.2
광주	35.5	27.0	34.0	36.4	31.9	36.1	34.5	38.8	36.4	38.4
대전	33.2	34.5	31.1	37.1	35.8	41.1	36.1	36.5	36.5	40.4
울산	46.6	39.8	38.4	38.5	35.8	34.6	43.6	48.1	37.8	40.0
세종	23.6	33.8	50.1	29.5	37.9	25.8	27.7	44.9	17.5	19.5
경기	34.8	33.8	37.4	35.7	34.4	35.6	36.5	42.7	36.4	33.1
강원	39.6	36.8	40.2	37.5	34.5	39.0	40.7	44.5	39.7	38.3
충북	32.5	37.1	40.7	38.9	36.4	34.9	34.9	45.0	36.5	38.3
충남	36.1	35.8	37.4	35.0	39.9	34.4	34.9	47.7	38.6	37.2
전북	38.4	37.0	37.7	36.5	41.4	38.3	35.0	47.5	42.2	30.9
전남	34.2	35.8	32.2	34.1	34.8	33.2	37.2	47.7	36.1	33.3
경북	42.4	37.6	39.5	33.6	35.3	35.4	36.9	46.3	39.9	37.7
경남	34.7	37.8	37.1	35.3	33.3	39.0	38.4	44.3	32.7	35.5
제주	44.8	33.8	40.4	46.0	30.1	30.1	40.0	42.0	41.3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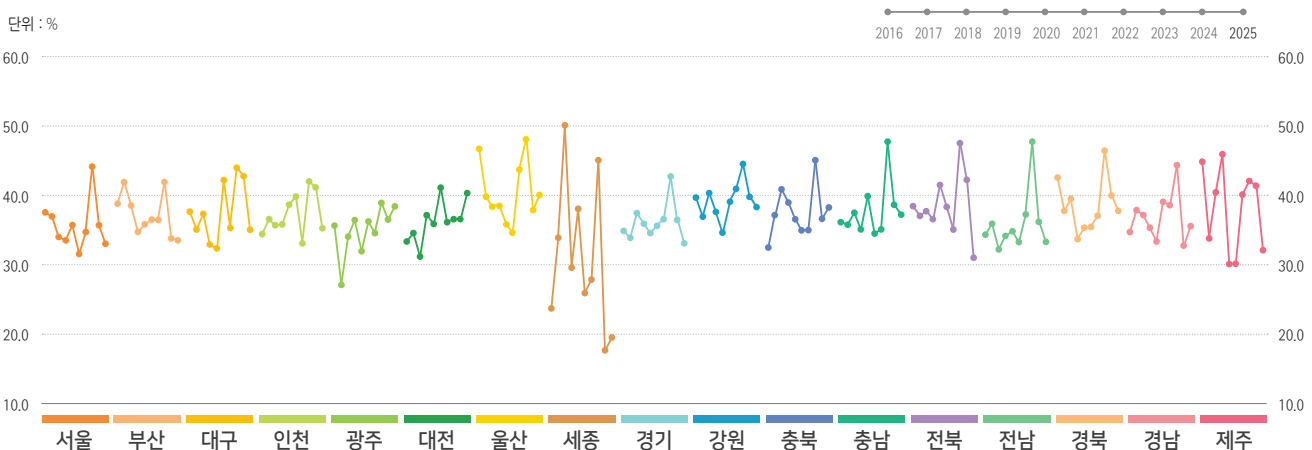


그림 194.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40] '만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로 분모를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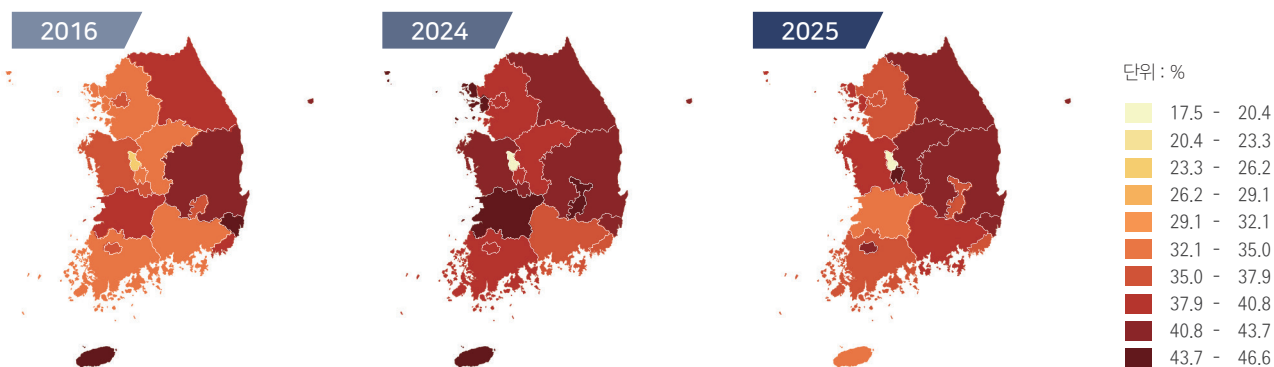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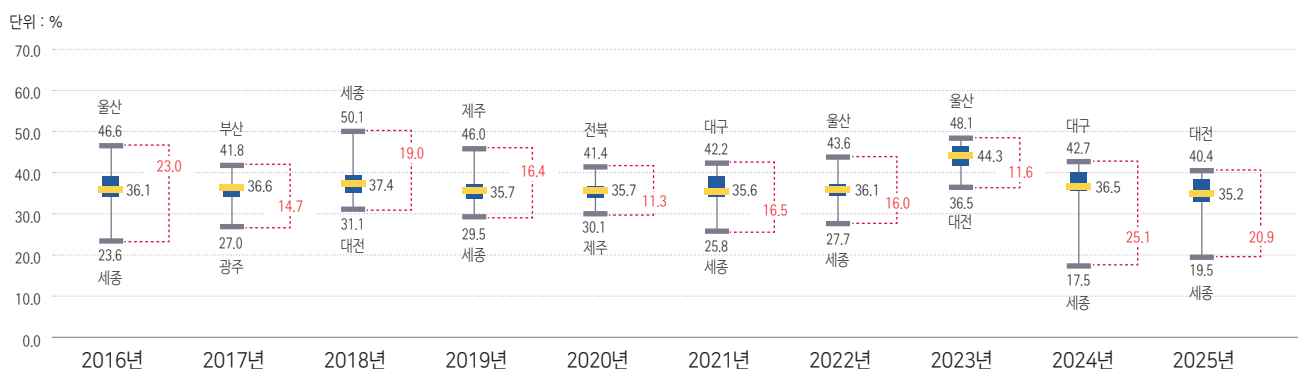
그림 19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이 감소한 시·도는 11개로 전체의 64.7%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전북(11.3%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11개로 전체의 64.7%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12.7%p)이었다.

표 386.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시·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도	6 (35.3)	11 (64.7)	6 (35.3)	11 (64.7)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대전	3.9	전북	11.3	대전	7.2	제주	12.7
	2위	경남	2.8	제주	9.2	충북	5.8	전북	7.5
	3위	울산	2.2	대구	7.7	광주	2.9	울산	6.6
	4위	광주, 세종	2.0	인천	5.9	충남	1.1	부산	5.5
	5위			경기	3.3	경남	0.8	경북	4.7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의 시·도 간 격차는 20.9%p이며, '24년 25.1%p 대비 4.2%p 감소하였다.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은 동 지역 34.1%, 읍·면 지역 36.8%로 동 지역에서 2.7%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87.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남자 현재흡연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9	0.7	0.6	1.6	1.2	3.3	1.7	2.7	0.0	2.7
동	36.4	35.8	36.3	34.7	35.1	35.1	35.7	43.1	36.8	34.1
읍·면	37.3	36.5	36.9	36.3	36.3	38.4	37.4	45.8	36.8	36.8

40.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41]

전국 결과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전국 시·도 중앙값은 10.9%로 '24년 11.5%에 비해 0.6%p 감소하였다.

표 388.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12.8	13.5	13.5	12.1	9.7	9.5	11.1	11.2	11.5	10.9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 세종에서 7.4%로 가장 낮게, 충남에서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6.2%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3.4%p)이었다.

표 389.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1.3	12.3	12.5	12.4	7.9	7.9	10.2	10.4	10.8	9.6
부산	13.1	13.8	13.5	10.9	9.8	8.1	11.7	11.2	11.5	10.3
대구	12.8	10.2	10.8	12.1	7.2	8.8	9.5	10.4	10.1	10.0
인천	13.5	14.5	12.4	12.4	9.7	14.5	12.9	11.6	11.8	10.9
광주	9.1	10.7	9.6	10.7	9.8	9.5	11.1	9.5	7.7	11.1
대전	7.4	11.9	9.1	6.2	8.6	6.2	6.0	9.7	9.4	11.5
울산	9.9	14.8	16.6	12.1	10.8	8.1	13.1	13.9	11.1	11.9
세종	6.5	14.9	8.9	6.1	8.7	4.6	7.0	7.8	13.6	7.4
경기	13.1	12.7	13.7	12.8	8.8	9.6	11.2	10.4	12.0	10.4
강원	12.9	15.5	15.1	13.3	12.3	12.0	13.8	15.2	13.5	12.7
충북	14.3	13.5	13.6	14.8	9.8	10.4	9.4	14.0	14.2	12.7
충남	11.9	16.1	14.5	13.3	8.1	9.5	9.2	13.1	12.0	13.2
전북	11.0	9.9	7.3	8.3	6.3	12.3	12.9	11.8	10.7	11.0
전남	13.1	9.0	17.2	10.3	8.0	9.3	10.2	12.6	11.0	10.1
경북	12.6	13.5	13.2	10.1	11.1	11.7	10.7	10.9	10.7	10.6
경남	14.7	12.3	14.0	12.2	11.0	12.3	11.2	11.2	12.6	10.6
제주	18.6	15.7	13.9	12.6	10.9	9.0	13.9	9.7	15.0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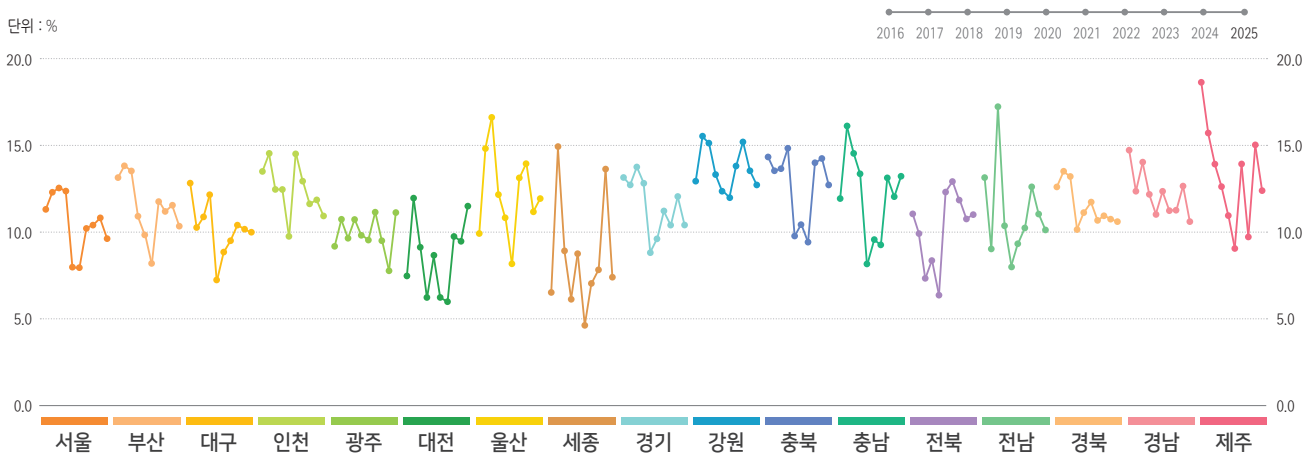


그림 197.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41] '만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로 분모를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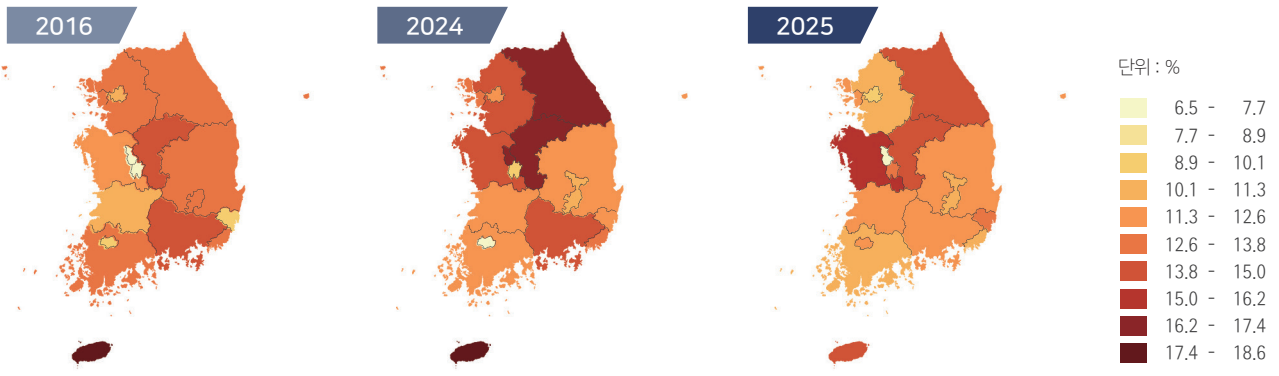


그림 198.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이 감소한 시·도는 12개로 전체의 70.6%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6.2%p)이었다.
- ◆ 9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11개로 전체의 64.7%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제주(6.2%p)이었다.

표 390.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5		12 (70.6)		5 (29.4)		11 (64.7)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광주	3.4	세종	6.2	대전	4.1	제주	6.2
	2위	대전	2.1	제주	2.6	광주, 울산	2.0	경남	4.1
	3위	충남	1.2	경남	2.0		전남	3.0	
	4위	울산	0.8	경기	1.6	충남	1.3	부산, 대구	2.8
	5위	전북	0.3	충북	1.5	세종	0.9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의 시·도 간 격차는 5.8%p이며, '24년 7.3%p 대비 1.5%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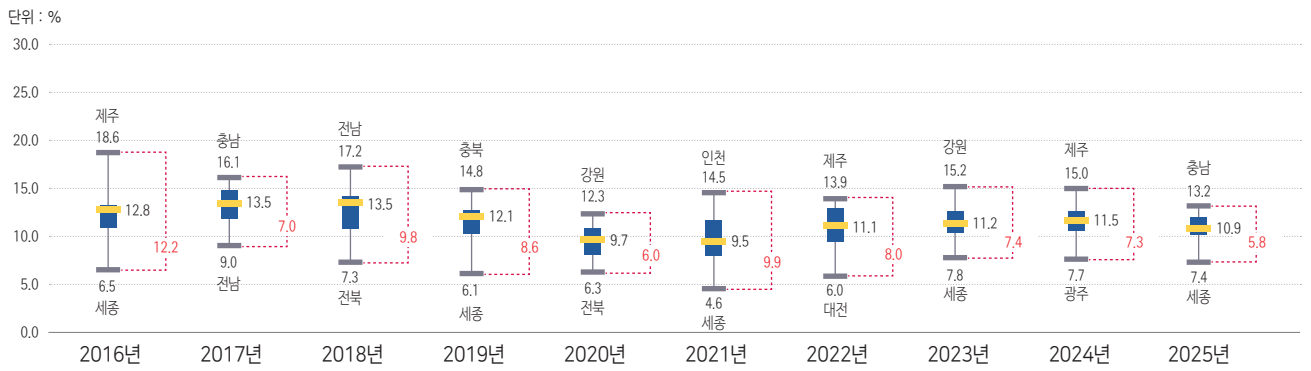


그림 199. 2016-2025 시·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분포

- 지역유형별 결과**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은 동 지역 10.5%, 읍·면 지역 11.4%로 동 지역에서 0.9%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91.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고위험음주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3	0.1	1.1	0.2	1.1	0.5	0.7	1.2	0.9	0.9
동	12.6	12.8	12.8	12.0	8.8	9.6	11.1	10.8	11.3	10.5
읍·면	12.3	12.7	13.9	11.8	9.9	10.2	10.4	12.1	12.1	11.4

41.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42]

전국 결과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전국 시·도 중앙값은 47.7%로 '24년 49.5%에 비해 1.8%p 감소하였다.

표 392. 2016-2025 전국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도 중앙값	38.7	40.5	42.6	40.5	38.9	42.3	47.0	44.9	49.5	47.7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 서울에서 62.5%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3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북(5.2%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울산(8.9%p)이었다.

표 393.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49.1	56.6	62.2	56.3	50.7	53.6	57.8	59.7	62.9	62.5
부산	43.0	48.7	53.9	52.3	36.5	45.0	49.8	50.4	55.7	52.6
대구	37.9	42.4	46.1	44.7	43.9	42.3	45.7	45.8	46.9	47.0
인천	44.6	40.5	51.0	45.0	46.1	47.0	50.6	51.2	51.6	53.5
광주	44.4	45.7	50.4	42.5	38.5	49.2	47.0	41.7	53.7	54.6
대전	48.4	50.0	49.0	40.5	38.9	43.4	50.2	46.7	49.6	50.9
울산	34.9	41.4	42.6	44.1	40.4	38.5	47.8	45.1	52.7	43.8
세종	34.2	49.0	23.1	43.4	30.1	42.1	72.3	52.4	43.1	35.0
경기	41.0	42.0	47.7	44.1	41.5	43.9	48.3	48.8	49.5	48.5
강원	33.5	35.3	41.3	36.7	34.3	33.3	34.7	40.1	39.7	38.3
충북	41.5	37.2	45.2	32.0	35.1	41.0	44.8	43.1	49.3	43.0
충남	39.3	31.1	39.4	37.4	41.7	35.8	45.6	43.2	52.3	50.1
전북	28.2	38.3	38.6	38.9	37.8	38.1	48.0	43.3	44.3	49.5
전남	38.4	34.7	37.7	35.8	38.6	37.4	41.9	44.9	48.0	43.1
경북	36.0	35.7	35.2	34.8	33.8	34.8	38.0	39.8	42.5	42.1
경남	29.7	36.3	37.0	37.1	42.1	43.2	38.7	43.6	44.6	47.7
제주	38.7	35.0	33.8	36.9	41.2	43.0	41.8	39.4	50.0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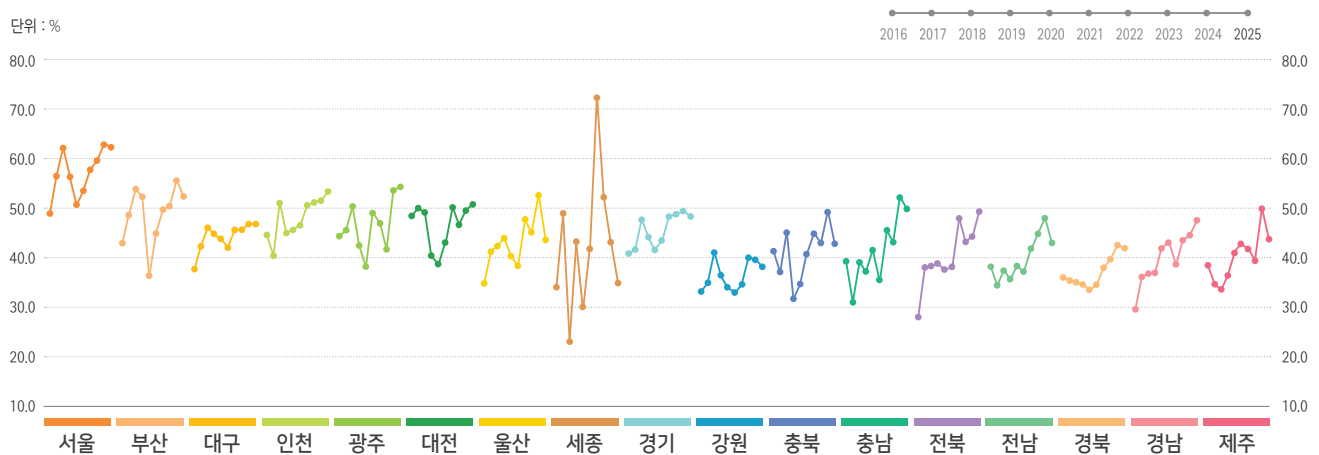


그림 200. 2016-2025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42] '만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로 본문을 제한하여 산출하므로, 통계의 안정성을 위해 시·군·구 단위 결과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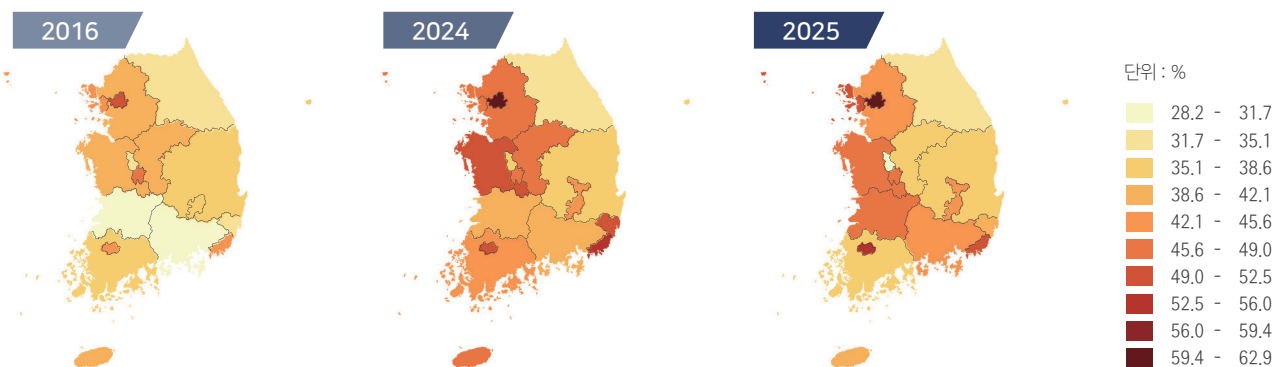


그림 201.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이 증가한 시·도는 6개로 전체의 35.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전북(5.2%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전북(21.3%p)이었다.

표 394.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6 (35.3)		11 (64.7)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전북	5.2	울산	8.9	전북	21.3	-	-
	2위	경남	3.1	세종	8.1	경남	18.0	-	-
	3위	인천	1.9	충북	6.3	서울	13.4	-	-
	4위	대전	1.3	제주	6.2	충남	10.8	-	-
	5위	광주	0.9	전남	4.9	광주	10.2	-	-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의 시·도 간 격차는 27.4%p이며, '24년 23.3%p 대비 4.1%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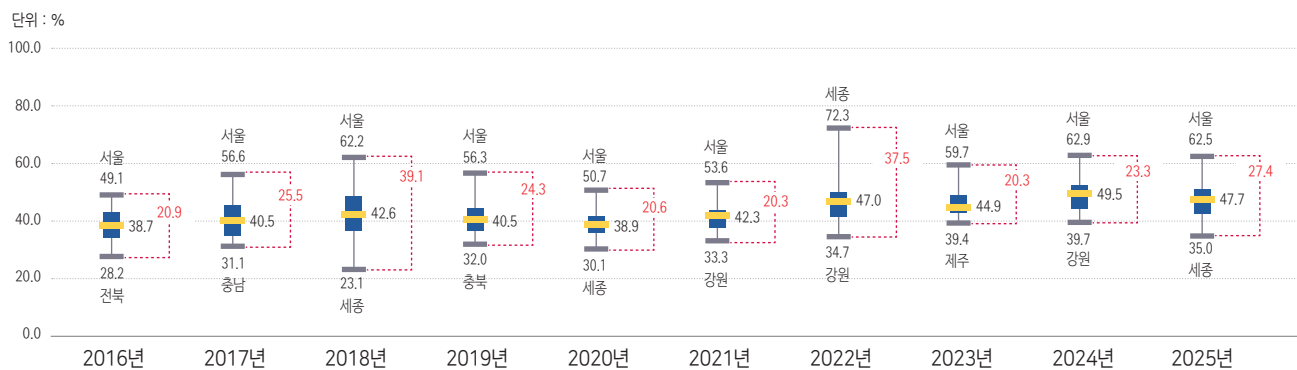


그림 202. 2016-2025 시·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 '25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은 동 지역 52.3%, 읍·면 지역 43.0%로 동 지역에서 9.3%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95.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 추이 (단위 :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0.2	9.6	14.2	11.3	6.5	8.5	9.3	6.1	8.2	9.3
동	43.1	45.5	50.9	46.8	43.3	45.7	50.2	49.8	52.9	52.3
읍·면	32.9	35.9	36.7	35.5	36.7	37.2	40.9	43.7	44.7	43.0

42.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43]

전국 결과

- ◆ '25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60.7%로 '24년 59.2%에 비해 1.5%p 증가하였다.

표 396. 2017-2025 전국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52.6	54.2	61.7	57.5	54.2	57.5	62.0	59.2	60.7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제주에서 75.2%로 가장 높게, 강원에서 5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9.9%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강원(4.2%p)이었다.

표 397. 2017-2025 시·도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49.9	53.9	61.5	58.1	51.3	54.0	57.8	54.1	56.8
부산	50.1	57.2	58.1	58.2	51.0	57.6	63.7	61.5	64.0
대구	52.1	59.9	59.9	66.0	59.4	61.9	62.8	62.1	64.7
인천	46.2	49.7	54.7	52.2	50.0	54.8	63.1	58.2	59.2
광주	47.2	49.3	56.2	53.7	50.5	52.1	56.6	56.2	61.0
대전	47.7	48.2	56.5	55.8	46.5	55.5	62.1	55.5	63.1
울산	49.6	68.6	71.9	61.6	54.1	57.4	60.0	55.5	63.4
세종	56.3	63.1	66.5	62.4	57.5	71.8	49.5	54.2	56.8
경기	49.2	51.6	59.0	55.4	50.9	54.4	58.6	55.9	59.5
강원	53.6	56.8	60.4	55.9	54.6	56.6	59.9	60.2	56.0
충북	55.9	53.1	59.2	57.4	54.8	56.3	65.0	66.9	66.4
충남	52.2	53.5	61.0	56.2	48.5	55.0	57.8	56.9	60.1
전북	58.9	52.2	58.9	60.0	55.6	55.7	64.0	56.7	64.1
전남	62.5	53.0	63.7	57.6	55.6	55.1	61.1	56.4	60.4
경북	51.7	54.7	63.2	55.4	57.7	62.1	63.5	62.2	62.2
경남	50.6	47.4	53.7	51.0	53.4	55.2	63.5	58.8	58.2
제주	62.0	63.7	76.4	74.7	63.1	70.9	75.6	65.3	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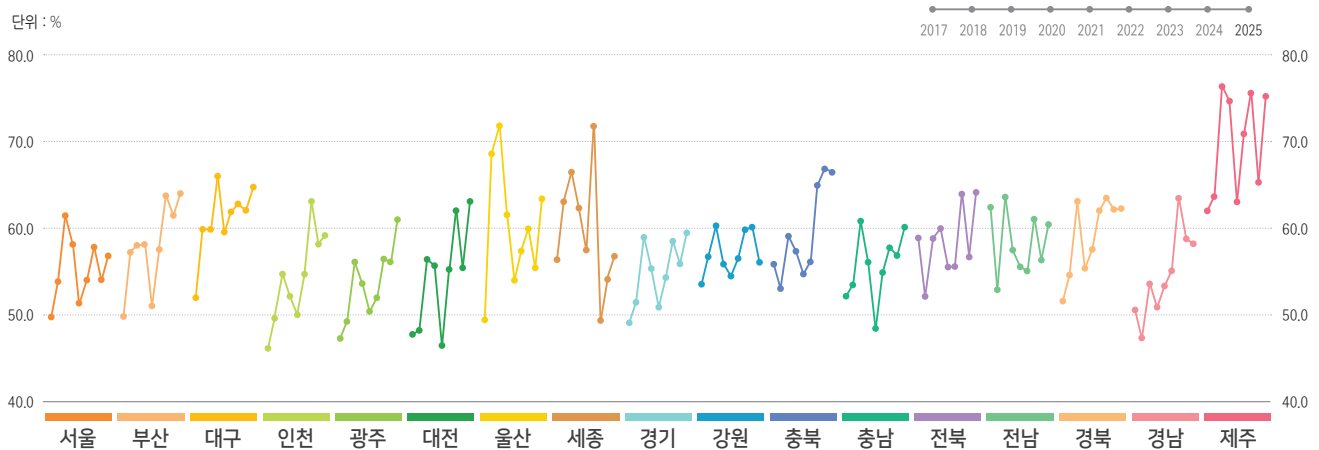


그림 203. 2017-2025 시·도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43] '17년 신규 도입

- ◆ 전년 대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이 증가한 시·도는 13개로 전체의 76.5%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9.9%p)이었다.
- ◆ 8년 전 대비 증가한 시·도는 16개로 전체의 94.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대전(15.4%p)이었다.

표 398.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시·도	전년 대비		8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도	13 (76.5)	3 (17.6)	16 (94.1)	1 (5.9)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제주 9.9	강원 4.2	대전 15.4	전남 2.1
	2위	울산 7.9	경남 0.6	부산 13.9	-
	3위	대전 7.6	충북 0.5	광주, 울산 13.8	-
	4위	전북 7.4	-	-	-
	5위	광주 4.8	-	제주 13.2	-

- ◆ '25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의 시·도 간 격차는 19.2%p이며, '24년 12.8%p 대비 6.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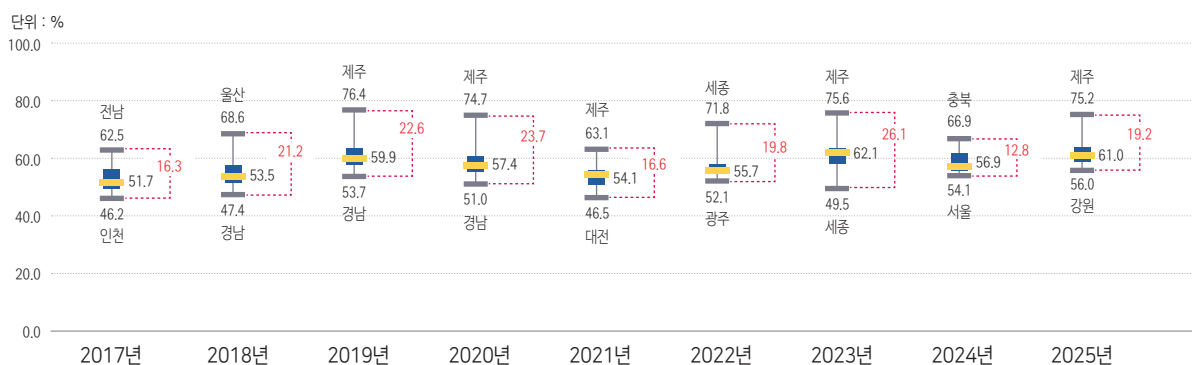


그림 204. 2017-2025 시·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 ◆ '25년 시·군·구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경북 영양군에서 85.2%로 가장 높게, 서울 중구에서 3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99. 2025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북 영양군 85.2	서울 중구 33.9
2위	경남 하동군 81.5	경남 창원시 마산 42.0
3위	전북 순창군 81.2	서울 성동구 43.0
4위	전남 담양군 80.8	경남 함양군 43.6
5위	제주 제주시 제주 80.7	경기 고양시 덕양구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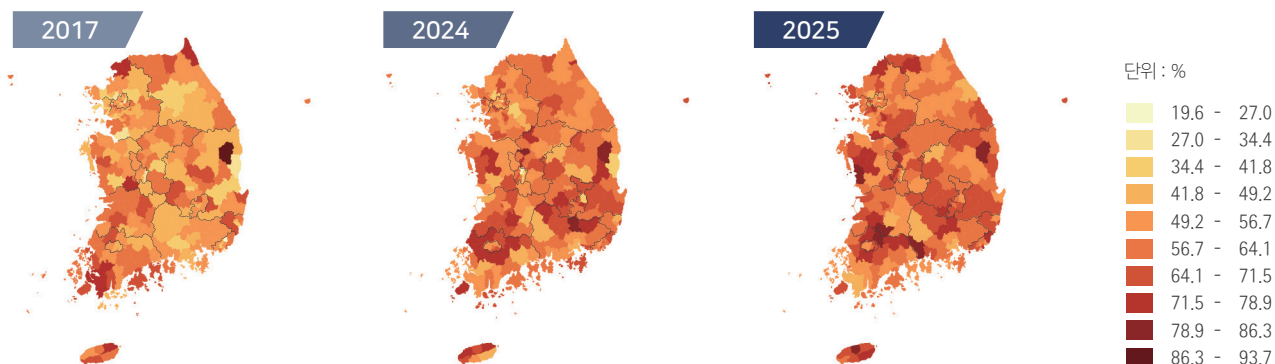


그림 205. 시·군·구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7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53개로 전체의 59.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대전 대덕구(34.0%p)이었다.
- ◆ 8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191개로 전체의 75.8%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 평택시 평택(44.2%p)이었다.

표 400.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8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53 (59.3)		103 (39.9)		191 (75.8)		59 (23.4)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대전 대덕구	34.0	전북 임실군	27.4	경기 평택시 평택	44.2	서울 중구	31.6
	2위	제주 서귀포시 동부	26.2	강원 속초시	20.7	부산 금정구	40.6	전남 해남군	30.1
	3위	경북 영덕군	25.3	경북 청송군	20.2	전북 순창군	38.2	강원 속초시	23.8
	4위	경기 이천시	22.9	강원 횡성군	18.2	대구 중구	33.9	전남 영암군	23.3
	5위	경기 광주시	21.1	경남 통영시	17.8	경북 영덕군	33.8	경북 포항시 남구	19.3

- ◆ '25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51.3%p이며, '24년 58.5%p 대비 7.2%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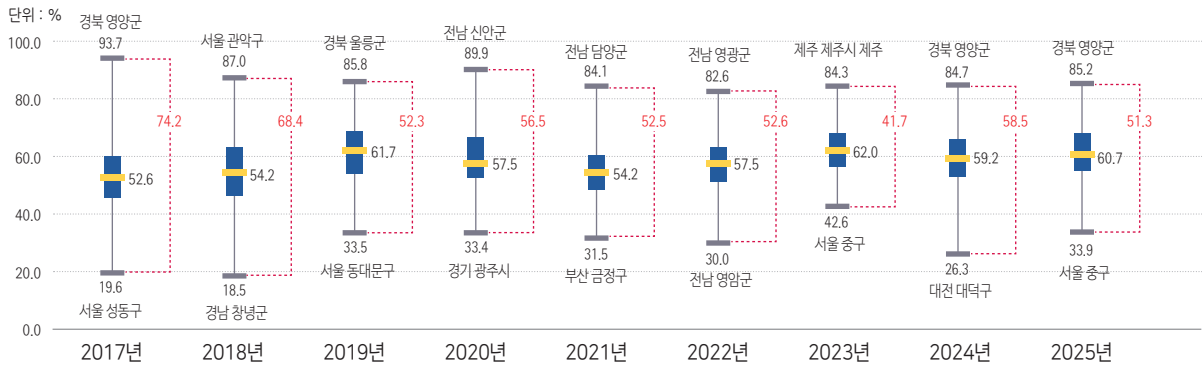


그림 206. 2017-2025 시·군·구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인천 (1.24), 가장 큰 지역은 서울(2.06)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전(1.20),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서울(0.1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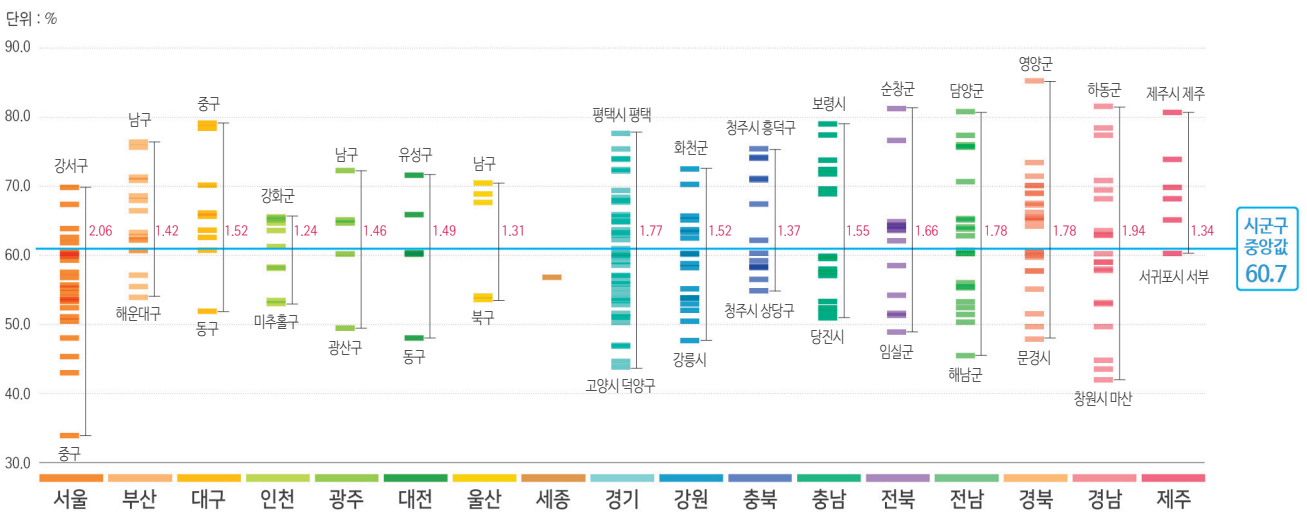


그림 207.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일반 군에서 64.1%로 가장 높고, 특별시의 구에서 5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7.3%p로 '24년 9.1%p 대비 1.8%p 감소하였다.

표 401. 2017-2025 6개 도시유형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6.2	6.9	9.2	12.8	9.9	12.9	7.6	9.1	7.3
특별시의 구	49.9	53.9	61.5	58.1	51.3	54.0	57.8	54.1	56.8
광역시의 구	49.5	52.5	58.4	56.2	51.9	56.6	61.2	58.1	60.6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53.2	50.5	62.9	57.1	52.3	50.9	58.0	55.5	58.8
도농복합형태의 시	54.9	54.7	58.9	54.8	52.7	54.9	59.8	57.7	61.9
일반 군	55.7	57.4	65.1	61.6	56.9	57.7	63.3	61.2	64.1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52.8	55.4	67.7	67.5	61.2	63.8	65.4	63.2	63.3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수도권 지역 58.4%, 비수도권 지역 62.0%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3.6%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02. 2017-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5	2.2	0.6	1.6	2.8	3.2	3.2	3.9	3.6
수도권	49.1	52.3	59.4	56.0	50.9	54.2	58.8	55.5	58.4
비수도권	52.6	54.4	60.0	57.6	53.7	57.5	62.0	59.4	62.0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중부 지역 58.9%, 남부 지역 62.6%로 남부 지역에서 3.7%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03. 2017-2025 중부·남부 지역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0	2.4	0.7	1.9	3.8	3.1	3.7	3.3	3.7
중부	49.8	52.5	59.4	56.1	50.9	54.7	59.1	56.2	58.9
경기지방	49.1	52.3	59.4	56.0	50.9	54.2	58.8	55.5	58.4
영동지방	58.8	62.0	58.7	55.1	53.8	55.2	63.5	59.2	55.5
영서지방	50.9	54.2	61.2	56.4	55.1	57.4	58.1	60.6	56.2
호서지방	52.0	52.4	59.5	56.7	50.1	56.7	60.2	59.0	62.2
남부	52.8	54.9	60.2	58.1	54.8	57.8	62.8	59.5	62.6
호남지방	56.7	51.6	59.8	57.3	53.9	54.3	60.6	56.4	61.8
영남지방	50.8	55.7	59.6	57.6	54.7	58.6	63.1	60.4	62.2
제주지방	62.0	63.7	76.4	74.7	63.1	70.9	75.6	65.3	75.2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동 지역 59.8%, 읍·면 지역 62.4%로 읍·면 지역에서 2.6%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04. 2017-2025 동·읍·면 지역별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4	0.1	1.6	1.7	1.2	0.2	0.8	2.4	2.6
동	50.6	53.4	59.5	56.6	52.1	55.9	60.3	57.0	59.8
읍·면	52.0	53.3	61.1	58.3	53.3	55.6	61.0	59.4	62.4

43.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44]

전국 결과

- ◆ '25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51.5%로 '24년 49.7%에 비해 1.8%p 증가하였다.

표 405. 2017-2025 전국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46.5	50.1	56.9	50.6	46.8	47.1	52.9	49.7	51.5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제주에서 70.2%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4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11.0%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4.0%p)이었다.

표 406. 2017-2025 시·도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46.1	52.5	56.7	50.6	44.7	44.5	48.4	45.1	47.5
부산	48.0	54.8	49.7	51.2	43.9	50.9	56.3	55.1	55.8
대구	45.4	58.9	55.9	59.6	52.7	52.5	54.8	54.2	57.0
인천	42.3	45.6	45.3	42.4	42.2	44.5	55.3	50.3	48.4
광주	37.8	41.9	50.4	44.0	40.7	40.3	40.8	44.8	50.2
대전	42.8	45.5	52.0	49.9	40.7	47.4	53.7	47.6	53.0
울산	47.7	64.8	66.8	53.8	45.8	47.2	47.4	45.7	56.2
세종	50.8	61.0	61.9	58.9	49.5	62.1	41.7	38.6	41.8
경기	43.6	46.0	52.4	47.4	42.2	44.5	48.7	46.8	49.7
강원	48.8	51.7	57.6	50.6	46.5	45.2	51.1	49.8	49.8
충북	52.0	49.0	52.8	51.5	47.8	46.9	57.8	60.1	56.1
충남	47.2	50.1	54.8	49.9	37.5	43.7	47.5	47.7	50.9
전북	47.3	46.9	53.7	51.0	44.6	47.3	54.9	47.4	51.9
전남	57.6	49.5	57.2	50.1	48.0	46.4	51.9	47.6	52.7
경북	43.0	49.2	57.4	47.1	50.2	50.5	53.8	53.7	51.8
경남	42.8	43.3	49.3	46.2	45.7	44.1	55.2	50.9	50.3
제주	52.1	54.9	67.8	69.1	54.9	62.3	71.1	59.2	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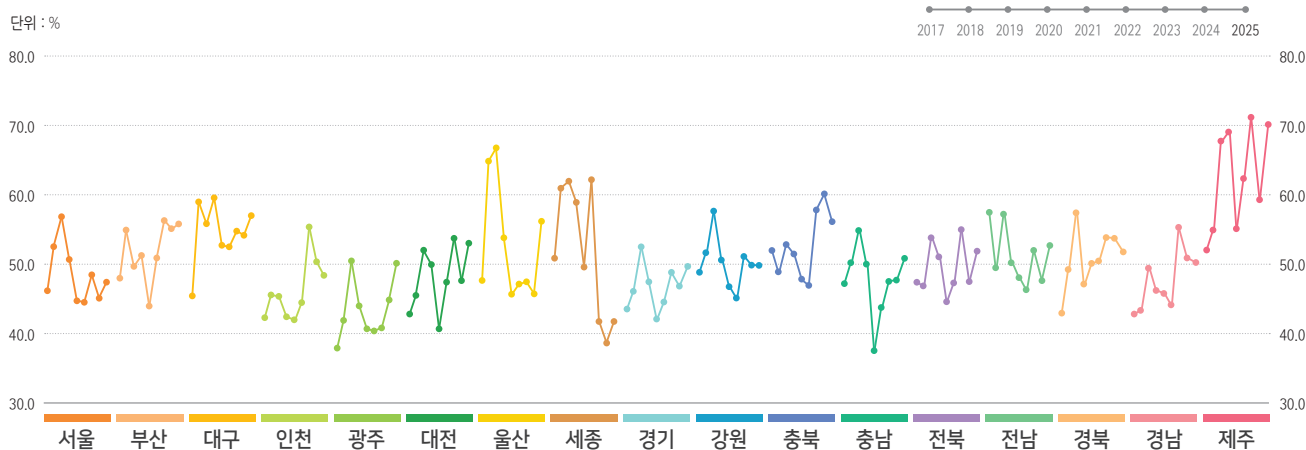


그림 208. 2017-2025 시·도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44] '17년 신규 도입

- ◆ 전년 대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이 증가한 시·도는 12개로 전체의 70.6%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11.0%p)이었다.
- ◆ 8년 전 대비 증가한 시·도는 15개로 전체의 88.2%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제주 (18.1%p)이었다.

표 407.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8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2 (70.6)		4 (23.5)		15 (88.2)		2 (11.8)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제주	11.0	충북	4.0	제주	18.1	세종	9.0
	2위	울산	10.5	인천, 경북	1.9	광주	12.4	전남	4.9
	3위	광주, 대전	5.4			대구	11.6	-	-
	4위			경남	0.6	대전	10.2	-	-
	5위	전남	5.1	-	-	경북	8.8	-	-

- ◆ '25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의 시·도 간 격차는 28.4%p이며, '24년 21.5%p 대비 6.9%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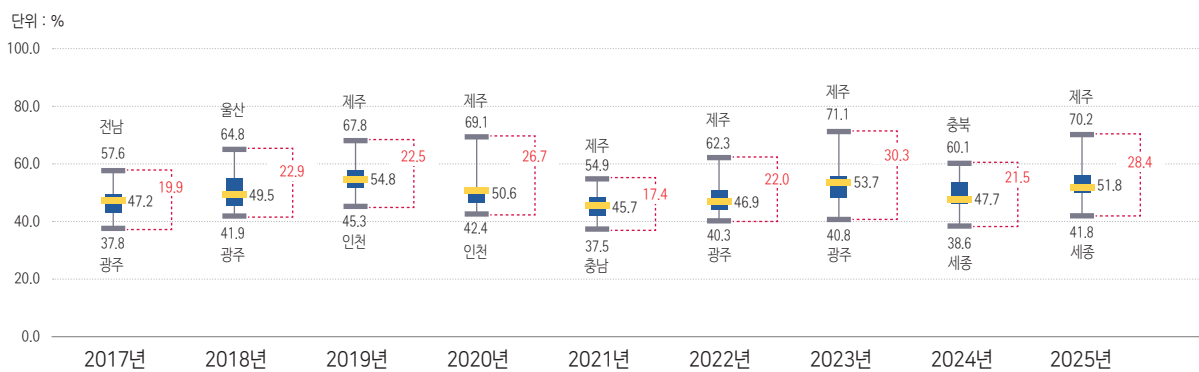


그림 209. 2017-2025 시·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 ◆ '25년 시·군·구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경북 영양군에서 83.3%로 가장 높게, 서울 중구에서 2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08. 2025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북 영양군	83.3	서울 중구	28.9
2위	전남 담양군	77.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9.8
3위	제주 제주시 제주	77.6	서울 성동구	31.9
4위	전북 순창군	73.0	전남 해남군	33.1
5위	전남 나주시	72.9	경남 함양군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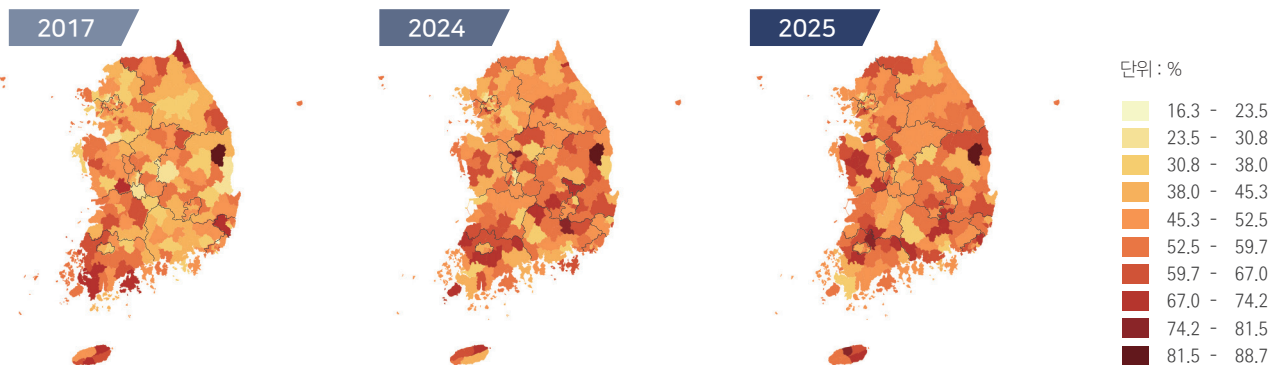


그림 210. 시·군·구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7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이 증가한 시·군·구는 149개로 전체의 57.8%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 이천시(30.0%p)이었다.
- ◆ 8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158개로 전체의 62.7%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 평택시 평택(42.3%p)이었다.

표 409.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8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49	(57.8)	108	(41.9)	158	(62.7)	92	(36.5)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기 이천시	30.0	강원 속초시	30.3	경기 평택시 평택	42.3	서울 중구	38.0
	2위	제주 서귀포시 동부	29.3	전북 임실군	28.0	부산 금정구	38.0	전남 해남군	34.6
	3위	충북 진천군	23.4	경북 청송군	24.2	울산 남구	34.4	전남 영암군	26.5
	4위	강원 화천군	22.2	경남 통영시	23.6	전북 순창군	34.0	서울 구로구	23.9
	5위	전남 순천시	21.0	충북 음성군	19.8	제주 제주시 제주	32.0	강원 속초시	23.1

- ◆ '25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의 시·군·구 간 격차는 54.5%p이며, '24년 58.4%p 대비 3.9%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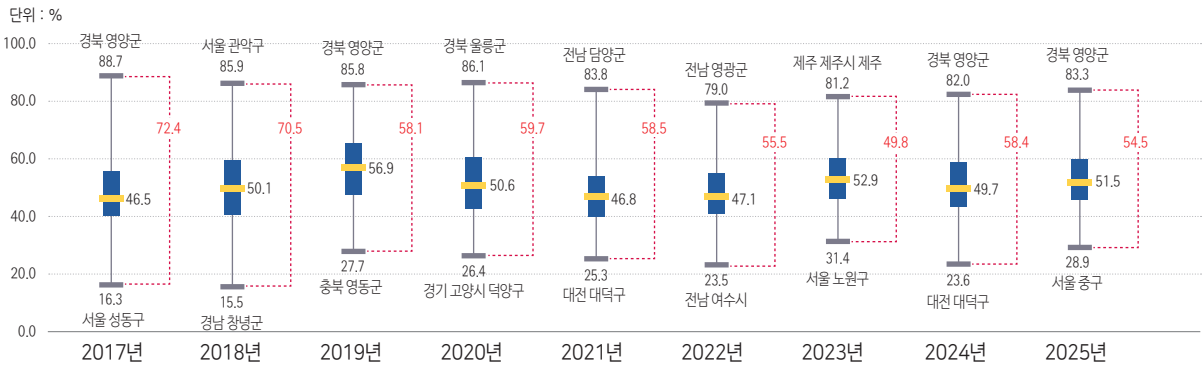


그림 211. 2017-2025 시·군·구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 (1.36), 가장 큰 지역은 경기(2.41)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전(1.12),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0.3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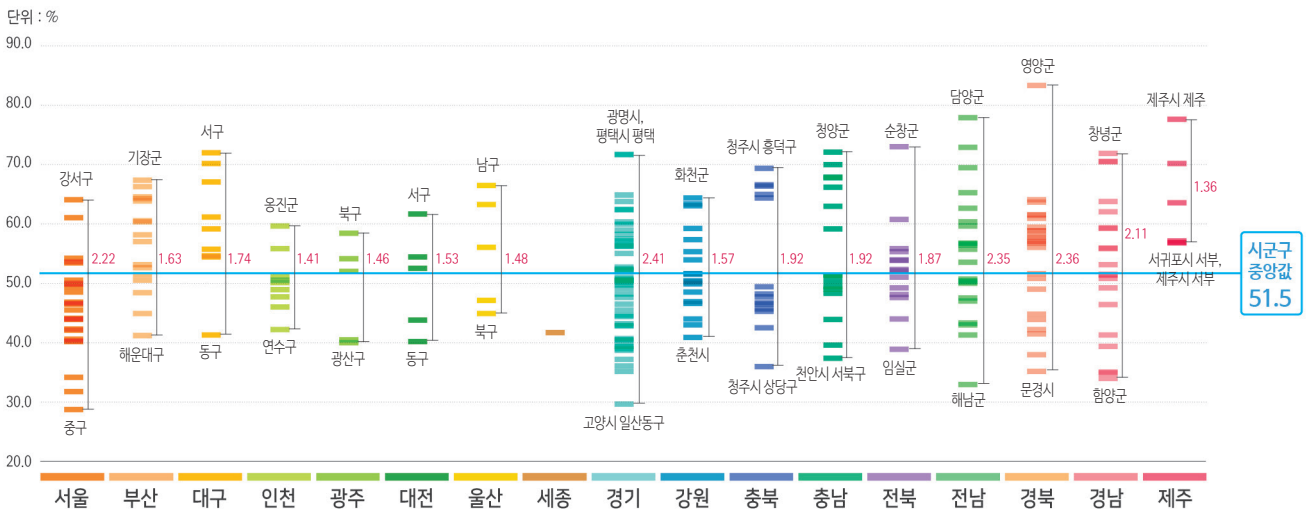


그림 212.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일반 군에서 56.3%로 가장 높고, 특별시의 구에서 4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8.8%p로 '24년 9.4%p 대비 0.6%p 감소하였다.

표 410. 2017-2025 6개 도시유형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7.2	7.0	11.1	12.1	11.6	10.5	7.8	9.4	8.8
특별시의 구	46.1	52.5	56.7	50.6	44.7	44.5	48.4	45.1	47.5
광역시의 구	43.9	48.0	51.9	48.6	43.5	46.6	51.5	49.6	51.0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48.0	45.8	58.7	49.6	44.5	42.4	48.8	45.9	48.0
도농복합형태의 시	47.9	50.1	52.8	47.4	44.0	44.7	50.9	48.5	52.8
일반 군	51.1	52.8	59.2	56.1	50.8	50.0	56.2	52.2	56.3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44.4	49.3	63.0	59.5	55.0	53.0	55.1	54.5	54.1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수도권 지역 48.6%, 비수도권 지역 53.1%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4.5%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1. 2017-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1	2.1	1.3	2.8	2.6	3.3	3.6	4.3	4.5
수도권	44.5	48.4	53.1	48.0	43.1	44.4	49.3	46.6	48.6
비수도권	46.6	50.5	54.3	50.8	45.7	47.7	52.9	50.9	53.1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중부 지역 49.2%, 남부 지역 53.8%로 남부 지역에서 4.6%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2. 2017-2025 중부·남부 지역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1	2.3	0.9	2.3	3.8	3.4	3.8	3.9	4.6
중부	45.1	48.6	53.4	48.5	43.0	44.9	49.7	47.3	49.2
경기지방	44.5	48.4	53.1	48.0	43.1	44.4	49.3	46.6	48.6
영동지방	52.4	55.0	54.9	48.4	47.7	45.1	56.5	48.9	51.6
영서지방	46.9	50.0	58.8	51.8	46.0	45.4	48.4	50.2	48.9
호서지방	47.3	49.0	53.7	50.8	41.8	46.9	51.4	50.2	52.0
남부	46.2	50.9	54.3	50.8	46.8	48.3	53.6	51.2	53.8
호남지방	48.3	46.5	53.9	48.5	44.5	44.8	49.4	46.6	51.5
영남지방	45.2	52.4	53.8	50.9	47.3	49.0	54.4	52.7	53.8
제주지방	52.1	54.9	67.8	69.1	54.9	62.3	71.1	59.2	70.2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동 지역 50.2%, 읍·면 지역 53.8%로 읍·면 지역에서 3.6%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3. 2017-2025 동·읍·면 지역별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추이 (단위: %p,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4	1.3	1.4	4.0	2.2	0.8	2.0	2.1	3.6
동	45.4	49.7	53.5	48.7	44.0	45.9	50.7	48.3	50.2
읍·면	45.8	48.3	54.8	52.7	46.2	46.7	52.7	50.5	53.8

44.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45]

전국 결과

- ◆ '25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4.8%로 '24년 4.9%에 비해 0.1%p 감소하였다.

표 414. 2019-2025 전국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6.0	5.5	5.0	5.3	5.3	4.9	4.8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은 광주에서 3.6%로 가장 낮게, 울산에서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4.0%p)이었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인천, 대전(1.6%p)이었다.

표 415. 2019-2025 시·도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5.3	4.8	4.4	3.8	4.4	4.4	4.6
부산	5.4	5.5	6.1	6.3	5.6	6.8	4.4
대구	6.4	4.1	3.5	5.0	4.9	3.8	4.8
인천	7.9	7.5	7.3	7.2	7.2	5.9	7.5
광주	6.7	5.8	5.6	5.8	6.1	4.3	3.6
대전	4.6	5.5	3.6	3.5	4.3	3.3	4.9
울산	6.3	5.5	3.8	4.8	7.2	7.6	8.0
세종	3.0	4.3	4.8	3.7	7.0	8.7	4.7
경기	5.9	5.1	4.9	5.3	5.9	4.9	5.0
강원	5.2	6.5	6.3	7.2	7.4	6.5	7.1
충북	7.4	6.1	5.4	7.1	8.4	6.7	5.7
충남	10.5	5.2	6.5	6.3	6.6	6.7	5.3
전북	7.7	6.5	6.8	7.1	7.8	7.7	6.3
전남	8.8	6.9	6.9	5.2	5.4	4.8	3.9
경북	5.2	7.3	5.0	6.3	6.5	4.7	4.0
경남	6.6	8.4	7.2	9.1	9.3	5.6	6.9
제주	4.7	6.5	3.4	5.9	4.3	6.5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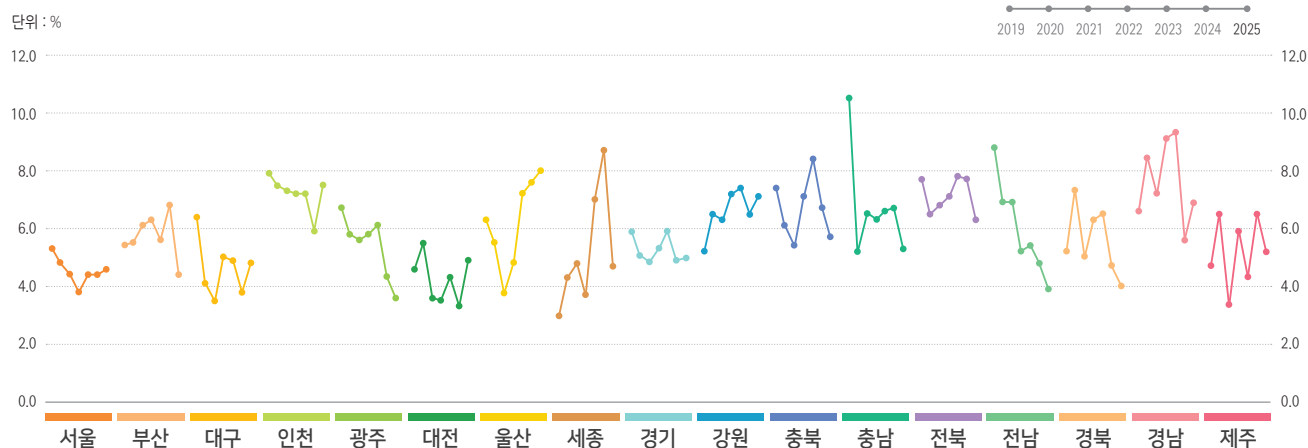


그림 213. 2019-2025 시·도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45] '19년 문항 변경으로 이전 연도 결과 미제시

- ◆ 전년 대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이 감소한 시·도는 9개로 전체의 52.9%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세종(4.0%p)이었다.
- ◆ 6년 전 대비 감소한 시·도는 11개로 전체의 64.7%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도는 충남(5.2%p)이었다.

표 416.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6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 (47.1)		9 (52.9)		6 (35.3)		11 (64.7)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인천, 대전 1.6		세종 4.0	강원 1.9	충남 5.2		
	2위	경남 1.3		부산 2.4	울산, 세종 1.7		전남 4.9	
	3위	대구 1.0		충남, 전북 1.4	제주 0.5		충북 1.7	
	4위	강원 0.6		제주 1.3	대전, 경남 0.3		대구 1.6	
	5위							

- ◆ '25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의 시·도 간 격차는 4.4%p이며, '24년 5.5%p 대비 1.1%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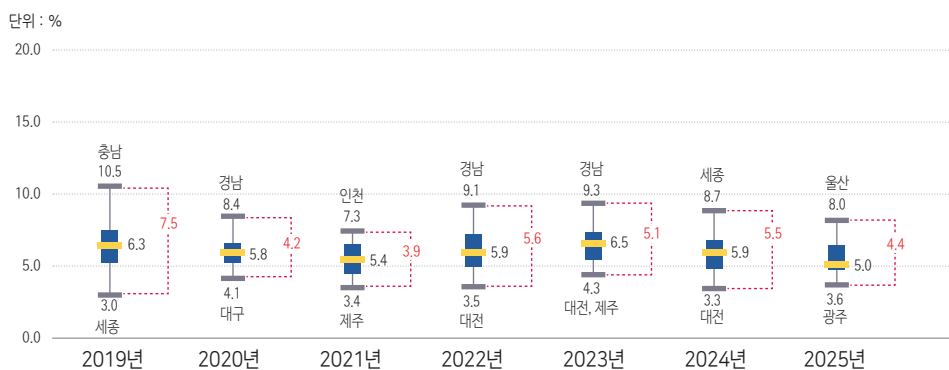


그림 214. 2019-2025 시·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은 대구 수성구에서 0.5%로 가장 낮게, 인천 미추홀구에서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7. 2025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상·하위 시·군·구 (단위: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인천 미추홀구	15.8	대구 수성구	0.5
2위	대전 중구	14.6	전남 진도군	0.6
3위	전북 장수군	14.4	전남 영암군	0.7
4위	경남 창원시 창원	14.3	서울 용산구, 전남 여수시	0.8
5위	강원 춘천시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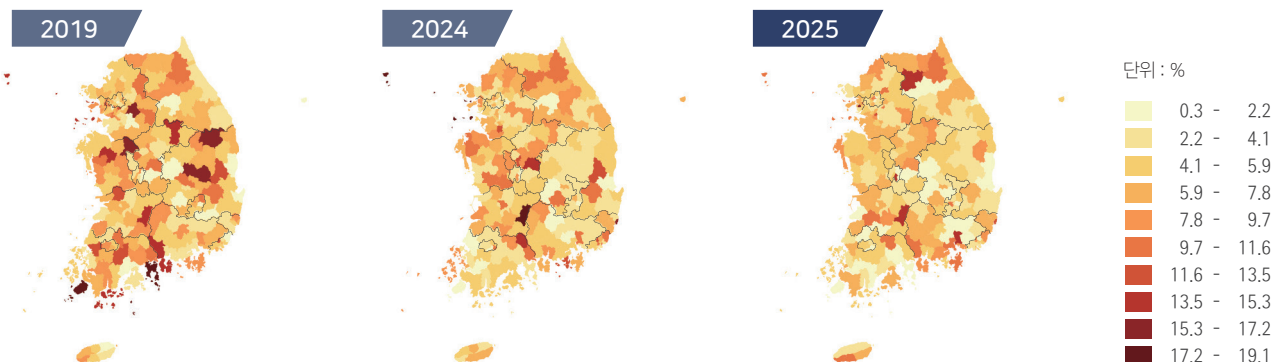


그림 215. 시·군·구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9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이 감소한 시·군·구는 131개로 전체의 50.8%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광주 동구, 전남 구례군(8.9%p)이었다.
- ◆ 6년 전 대비 감소한 시·군·구는 158개로 전체의 62.2% 지역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시·군·구는 전남 진도군(18.5%p)이었다.

표 418.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6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22 (47.3)		131 (50.8)		95 (37.4)		158 (62.2)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제주 서귀포시 서부	9.0	광주 동구, 전남 구례군	8.9	대전 중구	10.8	전남 진도군	18.5
	2위	대구 달서구	7.7			경기 수원시 장안구	9.1	전남 여수시	16.6
	3위	인천 미추홀구	6.9	부산 수영구, 경북 청송군	8.5	강원 춘천시	8.8	경북 봉화군	13.7
	4위	경남 창원시 마산	5.8			서울 서대문구	8.4	경기 광주시	13.1
	5위	전남 함평군	5.6	인천 옹진군	8.3	인천 미추홀구	8.2	충남 천안시 서북구	12.9

- ◆ '25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의 시·군·구 간 격차는 15.2%p이며, '24년 18.6%p 대비 3.4%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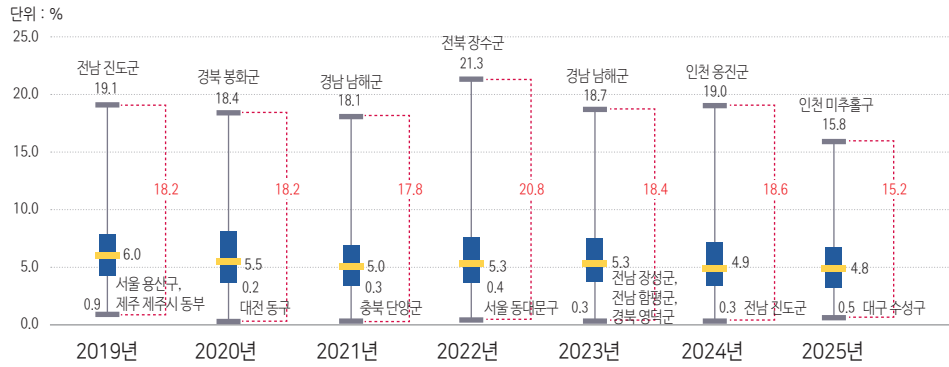


그림 216. 2019-2025 시·군·구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 (1.97), 가장 큰 지역은 대구(21.60)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30.50),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대구 (11.0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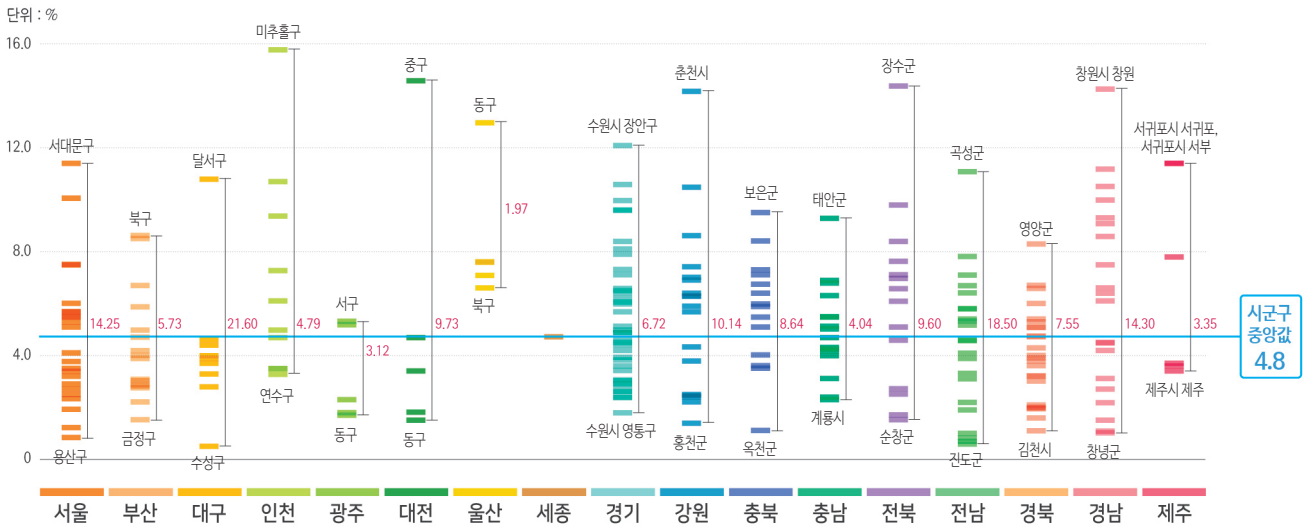


그림 217.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은 특별시의 구에서 4.6%로 가장 낮게,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2.2%p로 '24년 3.1%p 대비 0.9%p 감소하였다.

표 419. 2019-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5	4.7	3.3	3.7	2.6	3.1	2.2
특별시의 구	5.3	4.8	4.4	3.8	4.4	4.4	4.6
광역시의 구	6.3	5.6	5.4	6.0	6.3	5.3	5.3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4.9	3.9	4.0	4.2	4.8	5.1	5.5
도농복합형태의 시	7.4	7.0	6.0	6.5	6.9	6.1	5.4
일반 군	6.3	6.0	5.3	6.0	6.0	5.3	4.9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6.4	8.6	7.3	7.5	6.7	7.5	6.8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은 수도권 지역 5.1%, 비수도권 지역 5.3%로 수도권 지역에서 0.2%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420. 2019-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7	0.9	0.7	1.4	1.1	0.8	0.2
수도권	5.9	5.2	4.9	4.9	5.4	4.9	5.1
비수도권	6.6	6.2	5.6	6.3	6.6	5.7	5.3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은 중부 지역 5.2%, 남부 지역 5.1%로 남부 지역에서 0.1%p 더 낮게 나타났다.

표 421. 2019-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3	1.0	0.6	1.4	0.9	0.5	0.1
중부	6.1	5.3	5.0	5.1	5.7	5.1	5.2
경기지방	5.9	5.2	4.9	4.9	5.4	4.9	5.1
영동지방	4.2	5.3	4.8	6.3	5.2	4.5	5.5
영서지방	5.7	7.1	7.0	7.8	8.5	7.5	8.0
호서지방	7.5	5.4	5.2	5.5	6.4	5.8	5.3
남부	6.4	6.4	5.7	6.5	6.5	5.6	5.1
호남지방	7.8	6.4	6.5	6.1	6.4	5.6	4.6
영남지방	6.0	6.4	5.4	6.7	6.7	5.6	5.4
제주지방	4.7	6.5	3.4	5.9	4.3	6.5	5.2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은 동 지역, 읍·면 지역 5.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22. 2019-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추이 (단위: %p,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5	0.7	0.9	1.1	0.8	0.6	0.0
동	6.1	5.5	5.1	5.4	5.8	5.1	5.2
읍·면	6.7	6.3	6.0	6.5	6.6	5.7	5.2

45.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전국 결과

- ◆ '25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42.9%로 '24년 43.6%에 비해 0.7%p 감소하였다.

표 423. 2016-2025 전국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35.3	37.5	40.0	41.9	45.9	47.1	42.5	44.5	43.6	42.9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충남에서 47.0%로 가장 높게, 대전에서 3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강원(1.6%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인천(2.1%p)이었다.

표 424. 2016-2025 시·도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33.6	37.5	38.0	40.0	45.5	47.9	43.4	44.9	43.4	43.1
부산	33.9	35.0	36.6	37.9	40.3	43.6	38.4	42.1	40.2	41.4
대구	34.0	36.1	36.2	40.5	44.7	43.6	36.4	41.3	38.3	37.8
인천	38.9	39.5	40.6	41.6	48.4	47.3	43.0	46.4	47.8	45.7
광주	32.5	35.0	37.4	40.0	44.6	46.4	42.3	45.0	41.5	39.7
대전	32.5	34.6	40.0	39.3	41.0	46.4	38.9	37.5	37.8	36.7
울산	38.9	40.5	40.5	41.8	44.6	48.2	44.3	46.0	43.1	44.1
세종	32.7	41.6	39.3	40.1	47.8	48.0	49.3	41.9	42.0	42.9
경기	35.4	37.7	40.5	42.4	47.0	48.5	43.2	46.5	46.1	44.6
강원	36.8	38.6	40.2	43.9	46.2	47.7	42.5	43.6	43.1	44.7
충북	37.3	37.4	40.1	43.1	47.0	47.5	42.3	42.2	44.0	42.5
충남	38.5	40.5	44.9	47.5	51.2	50.1	47.1	49.8	46.1	47.0
전북	37.9	39.0	41.0	46.1	44.7	44.9	42.5	47.7	44.2	44.6
전남	39.0	38.1	41.4	44.2	46.7	48.4	42.2	46.4	44.4	45.0
경북	33.2	35.5	38.0	40.7	44.9	46.7	40.1	43.1	42.1	43.5
경남	34.3	37.3	38.0	40.8	43.1	46.7	36.8	40.0	39.3	38.5
제주	29.6	33.3	32.0	35.1	36.1	48.8	36.9	37.1	38.0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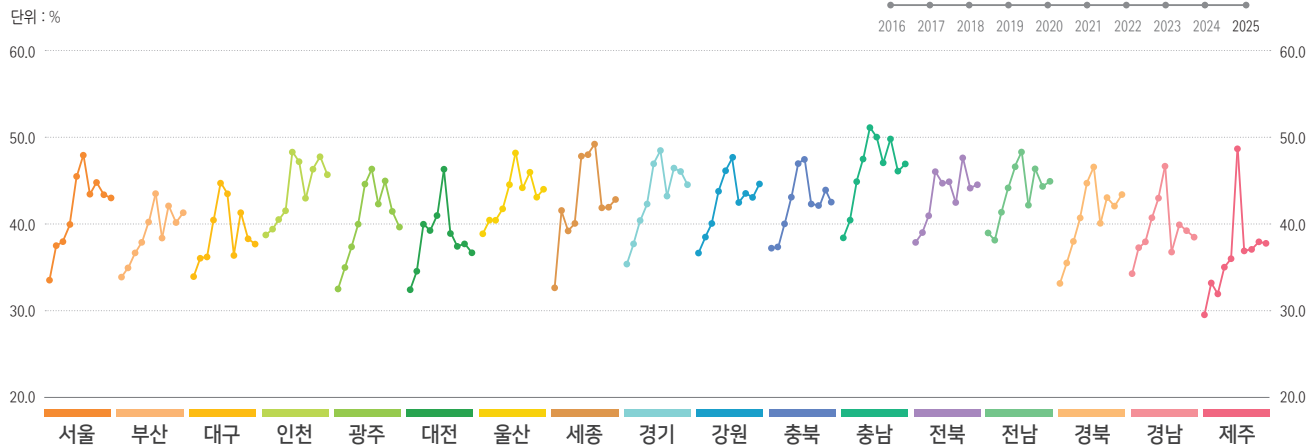


그림 218. 2016-2025 시·도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 ◆ 전년 대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증가한 시·도는 8개로 전체의 47.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강원(1.6%p)이었다.
- ◆ 9년 전 대비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경북(10.3%p)이었다.

표 425.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 (47.1)		9 (52.9)		17 (100.0)		- (-)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강원	1.6	인천	2.1	경북	10.3	-	-
	2위	경북	1.4	광주	1.8	세종	10.2	-	-
	3위	부산	1.2	경기, 충북	1.5	서울	9.5	-	-
	4위	울산	1.0			경기	9.2	-	-
	5위	세종, 충남	0.9	대전	1.1	충남	8.5	-	-

- ◆ '25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의 시·도 간 격차는 10.3%p이며, '24년 10.0%p 대비 0.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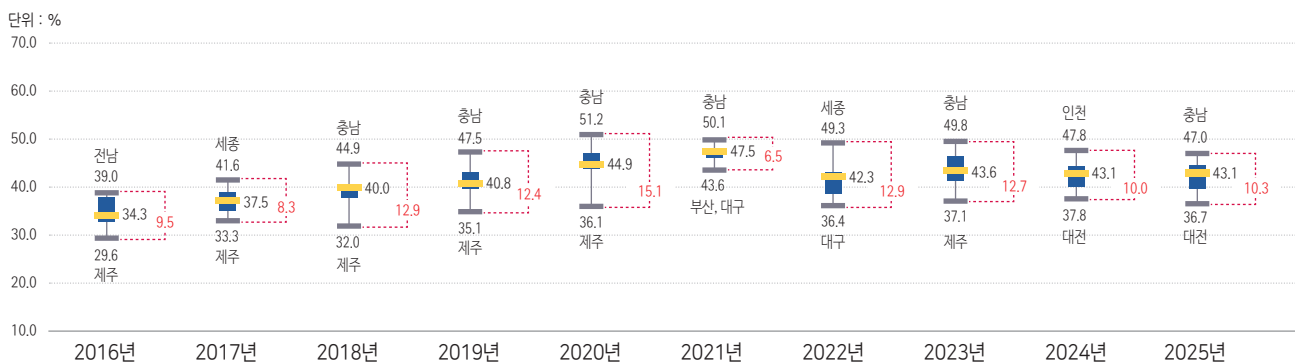


그림 219. 2016-2025 시·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충남 청양군에서 63.0%로 가장 높게, 대전 서구에서 3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6. 2025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충남 청양군	63.0	대전 서구	30.4
2위	경기 성남시 중원구	61.1	경북 영양군	31.2
3위	경기 성남시 수정구	59.8	대구 수성구	32.1
4위	인천 동구	59.1	부산 기장군	32.5
5위	전북 순창군	57.9	광주 동구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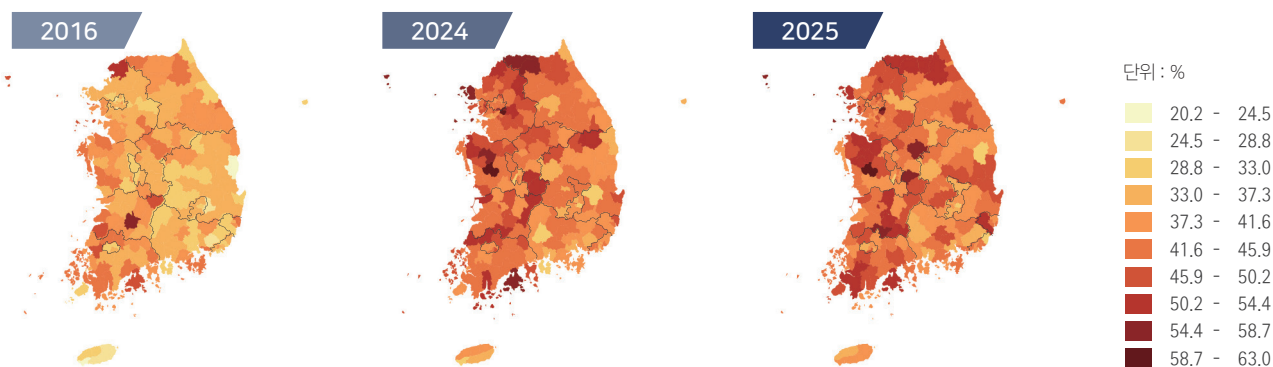


그림 220. 시·군·구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증가한 시·군·구는 122개로 전체의 47.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강원 고성군(14.7%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228개로 전체의 90.5%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북 영덕군(26.3%p)이었다.

표 427.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시·군·구	122	(47.3)	133	(51.6)	228	(90.5)	24	(9.5)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강원 고성군	14.7	전남 완도군	14.5	경북 영덕군	26.3	전남 함평군	7.9
	2위	울산 울주군	11.8	경북 봉화군	13.7	경기 성남시 중원구	24.6	전북 부안군	5.2
	3위	충북 괴산군	11.6	광주 동구	13.2	충남 청양군	23.8	부산 기장군	4.4
	4위	경북 영덕군	9.9	경기 양평군	12.1	경기 성남시 수정구	23.3	충북 제천시	4.4
	5위	부산 부산진구	9.4	전남 구례군	10.8	충북 옥천군	20.1	경남 통영시	4.3

- ◆ '25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32.7%p이며, '24년 30.2%p 대비 2.5%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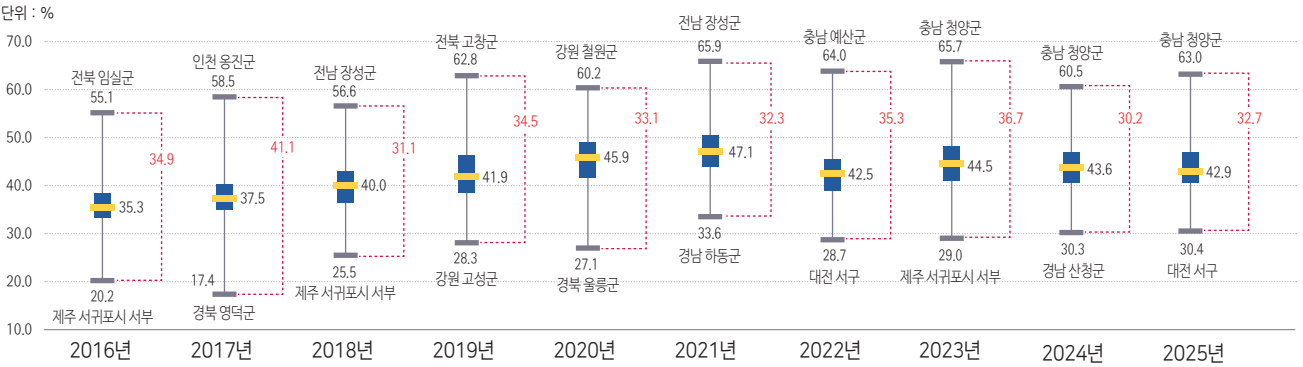


그림 221. 2016-2025 시·군·구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 (1.15), 가장 큰 지역은 경기(1.72)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강원(0.33),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광주(0.2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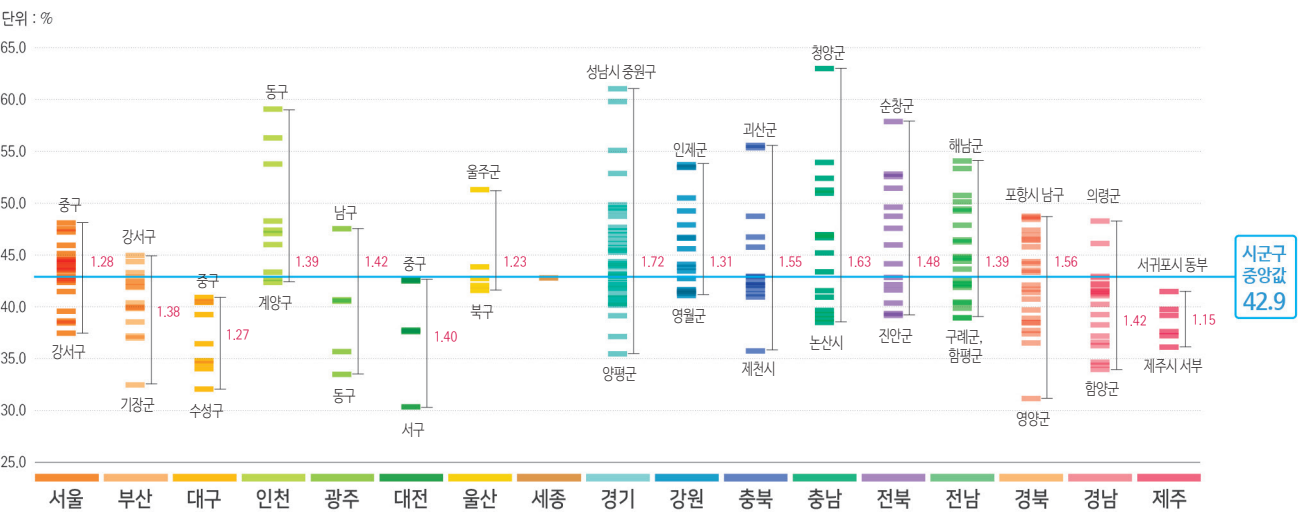


그림 222.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보건 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46.5%로 가장 높고, 광역시의 구에서 4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3.9%p로 '24년 5.2%p 대비 1.3%p 감소하였다.

표 428.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8.6	4.1	6.5	9.0	5.7	4.2	5.6	4.8	5.2	3.9
특별시의 구	33.6	37.5	38.0	40.0	45.5	47.9	43.4	44.9	43.4	43.1
광역시의 구	35.0	36.9	39.0	41.1	44.9	46.7	41.1	43.9	43.2	42.5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35.5	38.3	40.1	40.8	46.4	48.4	42.5	44.7	43.2	43.5
도농복합형태의 시	36.6	38.2	40.6	43.4	47.3	48.8	43.1	46.2	44.3	44.1
일반 군	37.3	38.6	41.6	44.3	46.2	46.7	42.3	45.7	44.3	44.5
보건 의료원이 설치된 군	42.2	41.0	44.5	48.9	50.6	50.9	46.7	48.7	48.4	46.5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 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수도권 지역 44.2%, 비수도권 지역 41.7%로 수도권 지역에서 2.5%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29.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1	0.8	0.5	0.2	2.2	1.7	2.6	2.7	3.7	2.5
수도권	35.1	37.8	39.5	41.4	46.6	48.1	43.2	45.8	45.3	44.2
비수도권	35.2	37.0	39.0	41.6	44.4	46.5	40.6	43.2	41.5	41.7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중부 지역 43.9%, 남부 지역 41.2%로 중부 지역에서 2.8%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30.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0.5	1.2	1.9	1.0	3.1	2.3	3.8	2.5	3.8	2.8
중부	35.3	37.8	39.9	41.8	46.6	48.1	43.3	45.4	44.8	43.9
경기지방	35.1	37.8	39.5	41.4	46.6	48.1	43.2	45.8	45.3	44.2
영동지방	35.2	36.1	38.5	41.5	41.3	46.9	41.3	44.9	41.3	44.4
영서지방	37.6	40.0	41.1	45.1	48.7	48.0	43.2	43.0	44.0	44.8
호서지방	36.2	37.9	41.9	43.6	46.9	48.2	43.7	43.7	42.9	42.6
남부	34.8	36.6	38.0	40.8	43.5	45.9	39.4	43.0	41.0	41.2
호남지방	36.8	37.5	40.1	43.6	45.4	46.6	42.4	46.5	43.4	43.2
영남지방	34.4	36.4	37.6	40.1	43.1	45.4	38.5	41.9	40.2	40.6
제주지방	29.6	33.3	32.0	35.1	36.1	48.8	36.9	37.1	38.0	37.8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동 지역 42.7%, 읍·면 지역 44.2%로 읍·면 지역에서 1.5%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31.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2.6	1.3	1.4	2.2	1.6	0.1	0.6	1.1	0.5	1.5
동	34.7	37.1	39.0	41.1	45.3	47.3	41.8	44.4	43.4	42.7
읍·면	37.3	38.4	40.4	43.3	46.9	47.2	42.5	45.5	43.9	44.2

46.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46]

전국 결과

- ◆ '25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의 전국 시·군·구 중앙값은 20.7%로 '24년 20.0%에 비해 0.7%p 증가하였다.

표 432. 2016-2025 전국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군·구 중앙값	26.9	27.8	25.2	26.3	-	-	48.7	-	20.0	20.7

시·도별 결과

- ◆ '25년 시·도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은 전남에서 28.6%로 가장 높게, 대전에서 8.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인천(1.6%p),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세종(5.0%p)이었다.

표 433. 2016-2025 시·도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18.4	18.6	18.6	19.8	-	-	37.1	-	15.1	16.5
부산	19.9	19.2	21.1	21.5	-	-	48.9	-	17.1	17.1
대구	19.7	20.1	16.4	18.2	-	-	34.0	-	15.3	14.2
인천	21.0	22.8	20.1	20.7	-	-	35.6	-	15.6	17.2
광주	18.3	20.8	20.3	21.8	-	-	51.8	-	12.8	11.0
대전	16.9	16.2	15.4	18.4	-	-	13.2	-	9.4	8.3
울산	24.9	25.9	21.4	24.4	-	-	48.5	-	20.8	22.0
세종	26.7	27.8	25.3	24.8	-	-	30.6	-	21.1	16.1
경기	21.0	21.1	19.4	19.7	-	-	44.2	-	16.0	17.0
강원	35.3	36.3	30.6	32.8	-	-	48.7	-	25.5	27.0
충북	30.5	31.4	25.3	27.4	-	-	55.2	-	20.5	20.4
충남	30.5	36.0	32.0	29.9	-	-	38.2	-	24.6	22.7
전북	34.5	33.0	32.3	33.0	-	-	44.3	-	24.2	23.2
전남	37.4	40.2	37.5	36.8	-	-	53.4	-	28.5	28.6
경북	29.4	31.2	27.9	28.0	-	-	43.2	-	20.4	21.5
경남	32.7	32.6	28.7	33.1	-	-	53.5	-	23.6	24.8
제주	26.1	27.9	26.8	27.5	-	-	48.4	-	26.0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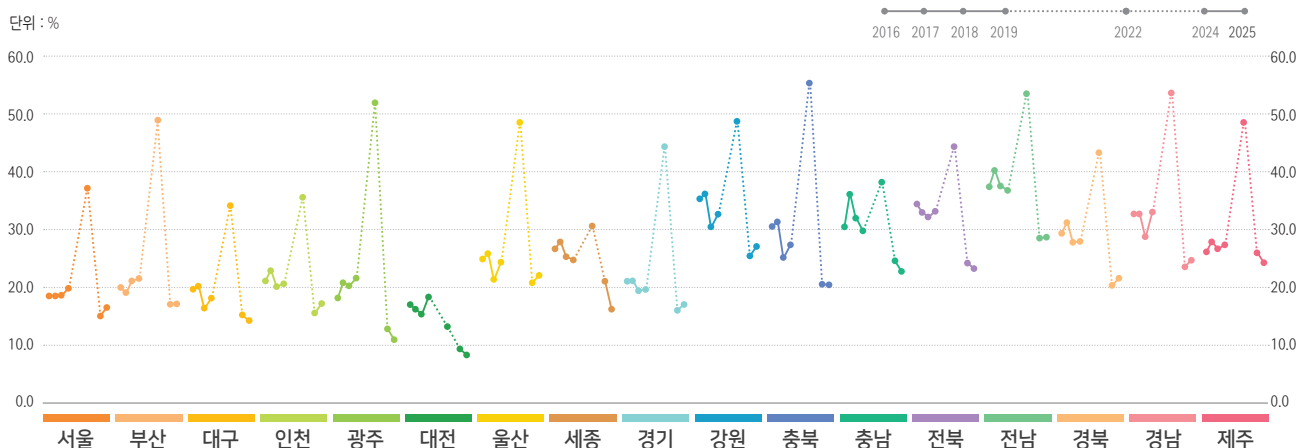


그림 223. 2016-2025 시·도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46] '20, '21, '23년 조사 미실시

- ◆ 전년 대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이 증가한 시·도는 8개로 전체의 47.1%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도는 인천(1.6%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도는 없었다.

표 434.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도

(단위 :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8 (47.1)		8 (47.1)		- (-)		17 (100.0)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인천	1.6	세종	5.0	-	-	전북	11.3
	2위	강원	1.5	충남	1.9	-	-	세종	10.6
	3위	서울	1.4	광주	1.8	-	-	충북	10.1
	4위	울산, 경남	1.2	제주	1.7	-	-	전남	8.8
	5위			대구	1.1	-	-	대전	8.6

- ◆ '25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의 시·도 간 격차는 20.3%p이며, '24년 19.1%p 대비 1.2%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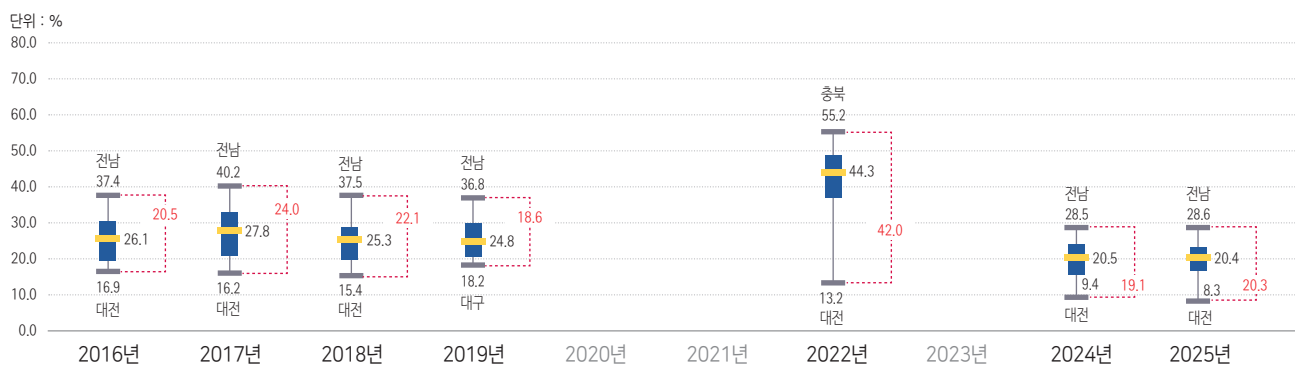


그림 224. 2016-2025 시·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분포

시·군·구별 결과

- ◆ '25년 시·군·구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은 경북 울릉군에서 65.1%로 가장 높게, 대전 서구에서 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35. 2025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상·하위 시·군·구

(단위 : %)

구분	상위 지역		하위 지역	
1위	경북 울릉군	65.1	대전 서구	4.7
2위	전북 무주군	60.5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7.7
3위	충남 청양군	57.3	광주 남구	8.3
4위	강원 인제군	55.2	대구 수성구	8.6
5위	전북 진안군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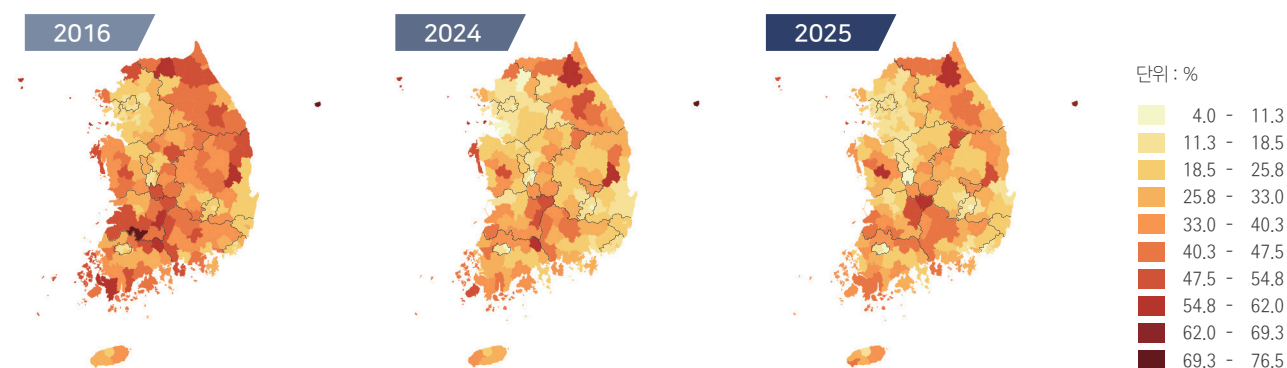


그림 225. 시·군·구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지리적 분포 추이 (좌측부터 2016년, 2024년, 2025년)

- ◆ 전년 대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이 증가한 시·군·구는 149개로 전체의 57.8%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경남 통영시(14.0%p)이었다.
- ◆ 9년 전 대비 증가한 시·군·구는 36개로 전체의 14.3% 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시·군·구는 제주 서귀포시 서부(13.4%p)이었다.

표 436.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증감 지역수와 변동폭 상위 시·군·구 (단위: 개(%), %p)

구분	전년 대비		9년 전 대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감지역수	149	107	36	215
시·군·구	(57.8)	(41.5)	(14.3)	(85.3)
변동폭 상위 지역	1위	경남 통영시 14.0	전남 구례군 14.9	제주 서귀포시 서부 13.4
	2위	경남 산청군 12.5	충남 태안군 13.6	전북 무주군 10.7
	3위	전북 진안군 10.2	경기 연천군 13.3	서울 용산구 10.6
	4위	서울 용산구 9.7	충남 부여군 13.1	전북 진안군 8.1
	5위	충남 청양군 9.5	충남 서천군 10.9	충북 단양군 6.7

- ◆ '25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60.4%p이며, '24년 65.8%p 대비 5.4%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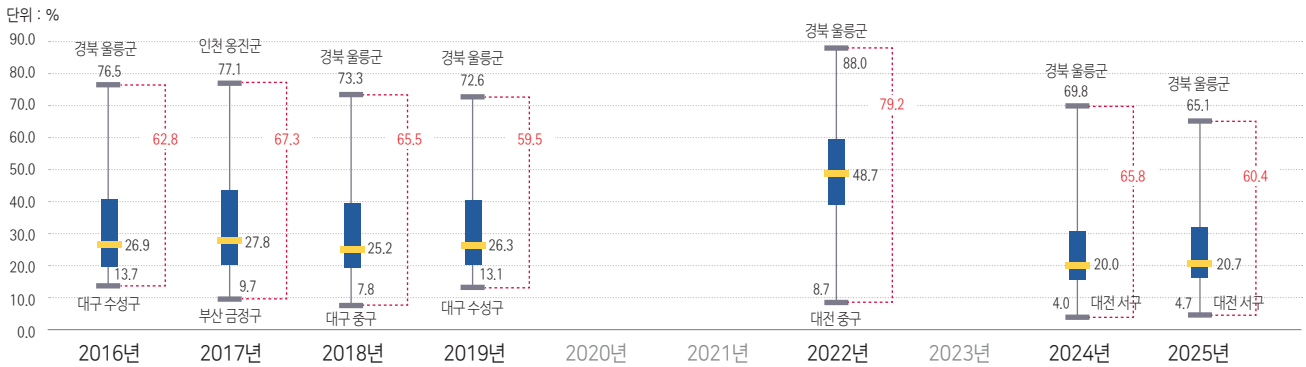


그림 226. 2016-2025 시·군·구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분포

지역 격차비

- ◆ '25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의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비가 가장 작은 지역은 울산(1.34), 가장 큰 지역은 충남(4.86)로 나타났다.
- ◆ 전년 대비 격차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전(1.51),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남(1.8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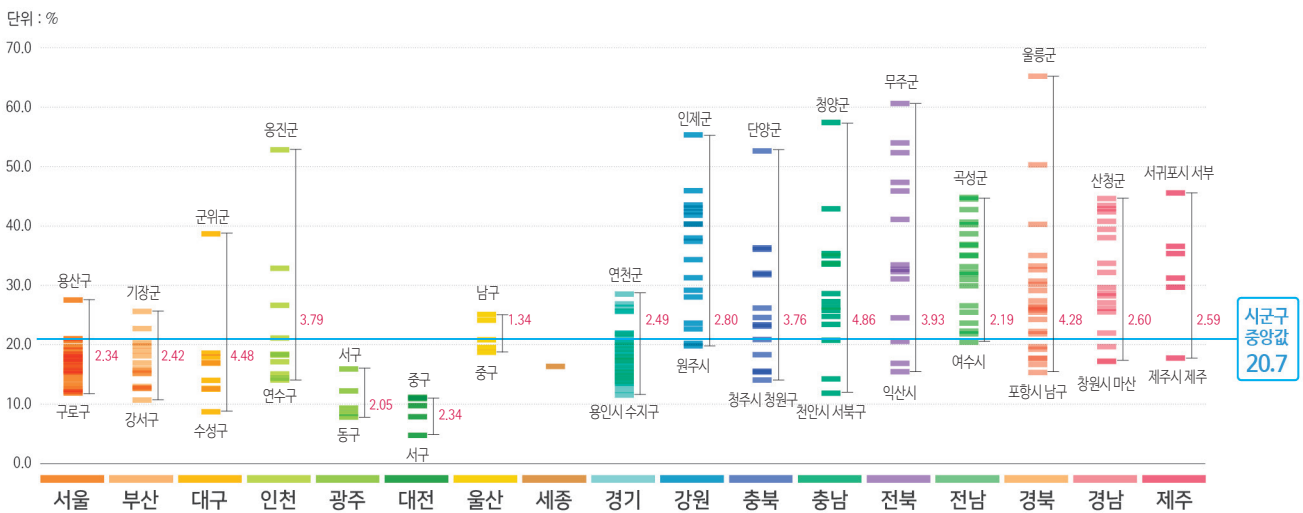


그림 227. 2025년 시·도 내 시·군·구 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분포

지역유형별 결과 ◆ 6개 도시유형별로 비교할 때, '25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은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에서 43.5%로 가장 높고, 광역시의 구에서 1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대·최소 지역 간 격차는 27.2%p로 '24년 30.7%p 대비 3.5%p 감소하였다.

표 437. 2016-2025 6개 도시유형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35.3	37.7	32.2	32.5	-	-	21.6	-	30.7	27.2
특별시의 구	18.4	18.6	18.6	19.8	-	-	37.1	-	15.1	16.5
광역시의 구	20.8	21.0	19.5	20.8	-	-	42.0	-	15.9	16.2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28.6	26.1	23.7	22.4	-	-	45.7	-	18.8	21.8
도농복합형태의 시	31.4	33.4	29.5	29.8	-	-	46.4	-	22.3	22.9
일반 군	38.5	41.0	37.0	37.3	-	-	50.3	-	29.3	29.8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53.7	56.3	50.8	52.3	-	-	58.7	-	45.9	43.5

* 2015년 말 기준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6개 도시유형으로 구분

**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 '25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은 수도권 지역 16.8%, 비수도권 지역 20.2%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3.4%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38. 2016-2025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7.5	8.1	6.8	7.3	-	-	4.2	-	4.8	3.4
수도권	20.0	20.3	19.1	19.8	-	-	40.6	-	15.6	16.8
비수도권	27.4	28.4	25.9	27.1	-	-	44.8	-	20.4	20.2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하며 그 외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포함

◆ '25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은 중부 지역 17.5%, 남부 지역 20.4%로 남부 지역에서 2.9%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39. 2016-2025 중부·남부 지역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5.2	5.1	5.0	5.6	-	-	7.1	-	3.8	2.9
중부	21.8	22.5	20.7	21.4	-	-	40.2	-	16.7	17.5
경기지방	20.0	20.3	19.1	19.8	-	-	40.6	-	15.6	16.8
영동지방	35.6	36.4	30.8	33.4	-	-	57.2	-	25.7	25.4
영서지방	35.1	36.3	30.3	32.3	-	-	44.3	-	25.5	27.9
호서지방	26.7	28.9	25.3	25.8	-	-	35.8	-	19.2	17.9
남부	27.0	27.6	25.7	27.1	-	-	47.3	-	20.4	20.4
호남지방	31.1	32.2	30.9	31.3	-	-	50.1	-	22.4	21.5
영남지방	25.5	25.8	23.6	25.4	-	-	46.1	-	19.4	19.8
제주지방	26.1	27.9	26.8	27.5	-	-	48.4	-	26.0	24.3

* 경기지방: 서울, 경기, 인천 지역(수도권 지역)

영동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동쪽지역

영서지방: 태백산맥 고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서쪽지역

호서지방: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지역

호남지방: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

영남지방: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 '25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은 동 지역 17.0%, 읍·면 지역 25.0%로 읍·면 지역에서 8.1%p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40. 2016-2025 동·읍·면 지역별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추이 (단위: %p,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격차(최대-최소)	12.8	13.5	11.5	10.3	-	-	6.1	-	8.7	8.1
동	21.2	21.7	20.2	21.4	-	-	41.4	-	16.3	17.0
읍·면	34.0	35.2	31.7	31.7	-	-	47.6	-	25.0	25.0

제4부
부록

흡연

현재흡연율

정의	평생 일반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분율
분자	평생 일반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 중에서 현재흡연자("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정의	현재 일반담배(궐련)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기타담배를 사용하는 분율
분자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기타담배의 현재사용자(일반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1일이상", 최근 한달동안 기타담배를 사용한적이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담배제품 현재 사용자의
금연시도율

정의	담배제품 현재사용자 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율
분자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기타담배를 끊고자 최근 1년 동안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기타담배의 현재사용자(일반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1일이상", 최근 한달동안 기타담배를 사용한적이 있는 사람)의 수
단위	%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정의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 중 최근 1주일 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는 분율
분자	담배제품 현재 미사용자 중 최근 1주일 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일을 하고 있는 모든담배 미사용자(과거사용자 포함)의 수
단위	%

음주

월간음주율

정의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고위험음주율

정의	최근 1년 동안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 여자는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정의	최근 1년 동안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 여자는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분모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의 수
단위	%

신체활동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정의	최근 1주일 동안 고강도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분자	최근 1주일 동안 고강도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중강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걷기 실천율

정의	최근 1주일 동안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걷기를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분자	최근 1주일 동안 한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걷기를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건강생활실천

건강생활실천율

정의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분율
분자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비만 및 체중조절

비만율(자가보고)

정의	자가보고 체질량지수(kg/m ²)가 25 이상인 분율
분자	자가보고 체질량지수(kg/m ²)가 25 이상인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정의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려고 노력한 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식생활

아침식사 실천율

정의	최근 1년 동안 주 평균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한 분율
분자	최근 1주일 동안 주 평균 아침식사를 5일 이상 한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영양표시 활용률

정의	영양표시를 읽는 사람 중 영양표시 내용이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분율
분자	영양표시 내용이 가공식품을 고를 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
분모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시를 읽는 사람의 수
단위	%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정의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분자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연간 우울감 경험률

정의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우울증상유병률

정의	우울증선별도구(PHQ-9)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인 분율
분자	우울증선별도구(PHQ-9)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인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구강건강

저작불편호소율
(65세 이상)

정의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65세 이상의 분율
분자	“매우 불편하다” 또는 “불편하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
분모	65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정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한 분율
분자	점심식사 후 칫솔질 한 사람의 수
분모	어제 하루 동안 점심식사 한 사람의 수
단위	%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주관적 건강인지율

정의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 좋음' 이라고 응답한 분율
분자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개인위생

외출 후 손 씻기 실천율

정의	최근 1주일 동안 외출 후 “항상” 또는 “자주” 손을 씻는 분율
분자	최근 1주일 동안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항상 씻었다” 또는 “자주 씻었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비누, 손 세정제 사용률

정의	평소 손을 씻을 때, 비누나 손 세정제를 “항상” 또는 “자주” 사용하는 분율
분자	평소 손을 씻을 때, 비누나 손 세정제를 “항상 사용한다” 또는 “자주 사용한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안전의식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정의	자동차 운전 시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는 비율
분자	자동차 운전 시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
분모	자동차 운전을 한 사람의 수
단위	%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정의	자동차나 택시 뒷좌석에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는 비율
분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나 택시 뒷좌석에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에 응답한 사람의 수
분모	동승차량 뒷좌석 탑승자 수
단위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

정의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 수
단위	%

이환(고혈압)

혈압수치 인지율

정의	본인의 혈압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
분자	본인의 혈압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고혈압 진단 경험률 (30세 이상)

정의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30세 이상의 비율
분자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람의 수
분모	3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고혈압 진단 경험자 (30세 이상)의 치료율

정의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중 현재 혈압조절약을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비율
분자	현재 혈압조절약을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이환(당뇨병)

혈당수치 인지율

정의	본인의 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 분율
분자	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당뇨병 진단 경험률
(30세 이상)

정의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의 분율
분자	의사에게 당뇨병 진단받은 사람의 수
분모	3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당뇨병 진단 경험자
(30세 이상)의 치료율

정의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중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슐린 주사 또는 당뇨병약(경구 혈당강하제)을 사용한 분율
분자	현재 인슐린 주사 또는 당뇨병약(경구용 혈당강하제)을 당뇨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사람의 수
분모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연간 당뇨병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
(30세 이상)

정의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중 최근 1년 동안 눈 검사(안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당뇨병으로 인한 안질환 합병증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눈 검사(안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연간 당뇨병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
(30세 이상)

정의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중 최근 1년 동안 스틱검사를 제외한 정밀소변검사(미세단백뇨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콩팥) 합병증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틱검사를 제외한 정밀소변검사(미세단백뇨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건강지식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정의	뇌졸중(중풍) 조기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분율
분자	뇌졸중(중풍) 조기증상을 모두 맞힌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정의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분율
분자	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을 모두 맞힌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의료이용

연간 미충족의료율 (병의원)

정의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분자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예방접종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정의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보건기관 이용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정의	최근 1년 동안 보건기관을 이용한 분율
분자	최근 1년 동안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수
분모	조사대상 응답자 수
단위	%

 승인번호 제 117075 호	 <h2 style="margin: 0;">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h2>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258개 보건소에서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응답을 위하여 반드시 조사대상자 본인이 성실하게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하는 건강내일

활동제한 및 삶의 질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흡연

※ 다음은 흡연 문항을 묻기 전 사전질문으로, 담배 제품에는 일반담배, 궤련형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은 담배(스누스), 물담배, 시가 등 모든 종류를 포함합니다.

1.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담배 제품을 사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8번 문항으로]

※ 다음은 담배사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반담배(궤련), 궤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아이코스, 글로, 릴 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기타담배 순으로 질문하오니 차례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2~2-2-2번은 일반담배(궤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2.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일반담배(궤련)의 양은 총 얼마나 됩니까?

- ① 5갑(100개비) 미만
 ② 5갑(100개비) 이상
 ③ 피운 적 없다 [⇒ 3번 문항으로]
 ④ 비해당(문항1/②: 평생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 없음)

8. 비해당

↳ 2-1. 현재 일반담배(궤련)를 피우니까?

① 매일 피운다 → 2-1-1. 하루 평균 일반담배(궤련)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개비 [⇒ 3번 문항으로]

888. 비해당(문항1/②: 평생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 없음, 문항2/③: 평생 일반담배(궤련)를 피운 적 없음, 문항2-1/②,③: 현재 담배를 가끔 피우거나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8. 비해당

□□□개비

888. 비해당

② 가끔 피운다 → 2-2-1. 최근 1달 동안 일반담배(궤련) 흡연일수는 며칠입니까?

□□일

88. 비해당(문항1/②: 평생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 없음, 문항2/③: 평생 일반담배(궤련)를 피운 적 없음, 문항2-1/①,③: 현재 담배를 매일 피우거나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88. 비해당

→ 2-2-2. 일반담배(궤련)를 흡연한 날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개비 [⇒ 3번 문항으로]

888. 비해당(문항1/②: 평생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 없음, 문항2/③: 평생 일반담배(궤련)를 피운 적 없음, 문항2-1/①,③: 현재 담배를 매일 피우거나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888. 비해당

③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다

④ 비해당(문항1/②: 평생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 없음, 문항2/③: 평생 일반담배(궤련)를 피운 적 없음)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하는 건강내일

※ 5번은 기타 담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5. 지금까지 일반담배, 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외한 다른 담배제품(머금은 담배(스누스), 물담배, 시가 등 모든 종류)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최근 1달 이내로 사용한 적 있다
 ② 과거에는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 사용한 적 없다
 ④ 비해당(문항1/②: 평생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 없음)

8. 비해당

※ 6~7번은 금연시도 및 금연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워본 담배종류와 상관없이 질문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6.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문항2-1/①②: 현재 담배를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움 or 문항3-1/①②: 현재 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 ㉔아이코스, 글로, 릴 등)를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움 or 문항4-1/1~31일: 현재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함 or 문항 5/①: 현재 기타담배를 사용함)

0. 해당

7.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생각이 없다
 ② 향후 6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③ 향후 1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④ 현재 금연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⑤ 해당(문항2-1/①②: 현재 담배를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움 or 문항3-1/①②: 현재 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 ㉔아이코스, 글로, 릴 등)를 매일 피우거나 가끔 피움 or 문항4-1/1~31일: 현재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함 or 문항 5/①: 현재 기타담배를 사용함)

0. 해당

※ 8~10-2번은 간접흡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담배종류와 상관없이 질문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8. 본인을 제외한 가족 중 가정의 실내에서 일상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9번 문항으로]



8-1. 최근 1주일 동안 가정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문항8/②: 가족 중 가정의 실내에서 일상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 없음)

8. 비해당

9. 최근 1주일 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직장에 다니지 않음(일을 하지 않음)

10. 최근 1주일 동안 다음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10-1. 실내 공공장소

(※ 실내 공공장소: 공공기관청사, 학교, 도서관, 교통수단,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민화대여업소 등이며 흡연실은 제외함)

- ① 예 ② 아니오

10-2. 실외 공공장소

(※ 실외 공공장소: 버스/택시 정거장, 길거리 등)

- ① 예 ② 아니오

※ 11번은 금연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11.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지정된 사실 및 구체적인 구역을 알고 있다
 ② 지정된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인지는 모른다
 ③ 지정된 것을 모른다

음주

※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음주에서 제외합니다.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3번 문항으로]

2. 다음은 최근 1년 동안의 음주(술)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 2-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3번 문항으로]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한 달에 2~4번 정도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⑧ 비해당(문항1/2): 평생 술을 마신 적 없음

8. 비해당

2-2.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 맥주 1개(355cc)는 맥주 1.5잔과 같습니다)

- ① 1~2잔]
 ② 3~4잔] [⇒ 남성은 2-3번 문항으로,
 ③ 5~6잔] 여성은 2-4번 문항으로]
 ④ 7~9잔]
 ⑤ 10잔 이상 — [⇒ 2-2-1번 문항으로]
 ⑧ 비해당(문항1/2), 문항2-1/1: 평생 또는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 없음

8. 비해당

↳ 2-2-1. ('⑤ 10잔 이상' 응답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한 번에 술을 얼마나 마십니까? 숫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 소주 1병은 7잔과 같습니다. □□잔

88. 비해당(문항1/2), 문항2-1/1: 평생 또는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 없음,
 문항2-2/1,2,3,4: 한 번에 술을 1~9잔까지 마심

8. 비해당

2-3. (남성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또는 맥주 5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⑧ 비해당(여성, 문항1/2), 문항2-1/1: 평생 또는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 없음

8. 비해당

2-4. (여성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또는 맥주 3캔 정도)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⑧ 비해당(남성, 문항1/2), 문항2-1/1: 평생 또는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 없음

8. 비해당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여는 건강내일

2-5. 앞으로 절주 또는 금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현재로서는 전혀 절주 또는 금주할 생각이 없다
- ② 향후 6개월 이내에 절주 또는 금주할 계획이 있다
- ③ 향후 1개월 이내에 절주 또는 금주할 계획이 있다
- ④ 현재 절주 또는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 ⑤ 현재 절주 또는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다
- ⑧ 비해당(문항1/②, 문항2-1/①: 평생 또는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 없음)

8. 비해당

3. 최근 1년 동안 음주폐해 예방 또는 절주에 대한 홍보(TV, 라디오, 포스터, 리플릿 등)를 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4. 최근 1년 동안 음주폐해 예방 또는 절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안전의식

【자동차 운전】

1.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맵니까?

- ① 운전을 하지 않는다 [⇒ 2번 문항으로]
- ② 전혀 매지 않는다
- ③ 거의 매지 않는 편이다
- ④ 가끔 매는 편이다
- ⑤ 대체로 매는 편이다
- ⑥ 항상 맨다

↳ 1-1.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⑧ 비해당(문항1/①: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음,
「음주」문항1/②, 문항2-1/①: 평생 또는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 없음)

8. 비해당

2.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택시포함)의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안전벨트를 맵니까?

- 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은 적이 없다
- ② 전혀 매지 않는다
- ③ 거의 매지 않는 편이다
- ④ 가끔 매는 편이다
- ⑤ 대체로 매는 편이다
- ⑥ 항상 맨다

3.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탄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오토바이 운전】

1.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헬멧을 착용합니까?

- ①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안전의식-자전거 운전」 1번 문항으로]
- ②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 ③ 거의 착용하지 않는 편이다
- ④ 가끔 착용하는 편이다
- ⑤ 대체로 착용하는 편이다
- ⑥ 항상 착용한다

↳ 1-1.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⑧ 비해당(문항1/①: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음,
「음주」문항1/②, 문항2-1/①: 평생 또는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적 없음)

8. 비해당

【자전거 운전】

1.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합니까?

- ①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 ②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 ③ 거의 착용하지 않는 편이다
- ④ 가끔 착용하는 편이다
- ⑤ 대체로 착용하는 편이다
- ⑥ 항상 착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모두 포함

1.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헬멧을 착용합니까?

- ① 운전을 하지 않는다
- ②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 ③ 거의 착용하지 않는 편이다
- ④ 가끔 착용하는 편이다
- ⑤ 대체로 착용하는 편이다
- ⑥ 항상 착용한다

신체활동

※ 고강도(격렬한) 신체활동

달리기(조깅), 등산,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스쿼시, 단식테니스,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 및 체육활동

1.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고 숨이 많이 가쁜 고강도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했던 날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일 (⇒ 0일은 2번 문항으로)

일

- ↳ 1-1. 이러한 고강도 신체활동을 한 날, 보통 하루에 몇 분간 했습니까?

하루에 시간 분

시간 분

88 88. 비 해당(문항1/0일: 고강도 신체활동 없음)

88 88. 비 해당

※ 중강도(중등도) 신체활동

천천히 하는 수영, 복식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 활동 및 체육활동

2.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고 숨이 약간 가쁜 중강도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했던 날은 며칠입니까?(단, 걷기는 제외합니다.)

일주일에 일 (⇒ 0일은 3번 문항으로)

일

- ↳ 2-1. 이러한 중강도 신체활동을 한 날, 보통 하루에 몇 분간 했습니까?

하루에 시간 분

시간 분

88 88. 비 해당(문항2/0일: 중강도 신체활동 없음)

88 88. 비 해당

※ 출퇴근 또는 등하교, 이동 및 운동을 위해 걷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3.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었던 날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일 (⇒ 0일은 4번 문항으로)

일

- ↳ 3-1. 이러한 날 중 하루 동안 걷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시간 분

시간 분

88 88. 비 해당(문항3/0일: 걷기운동 없음)

88 88. 비 해당

※ 근력운동 실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 운동을 한 날은 며칠입니까?

- ① 전혀 하지 않음
- ② 1일
- ③ 2일
- ④ 3일
- ⑤ 4일
- ⑥ 5일 이상

식생활

1. 최근 1년 동안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몇 회 하셨습니까?

- ① 주 5~7회
 ② 주 3~4회
 ③ 주 1~2회
 ④ 주 0회(거의 안한다)

2.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비만 및 체중조절」1번 문항으로]

↳ 2-1. 가공식품을 사거나 고를 때, '영양표시'를 읽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비만 및 체중조절」1번 문항으로]
 ⑧ 비해당(문항2/②: 영양표시를 모름)

8. 비해당

↳ 2-1-1. 영양표시 내용이 가공식품을 고르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⑧ 비해당(문항2/②: 영양표시를 모름, 문항2-1/②: 영양표시를 읽지 않음)

8. 비해당

비만 및 체중조절

1. 현재 본인의 키와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1-1. 키(신장)	□□□.□cm
1-2. 몸무게(체중)	□□□.□kg

□□□□.□cm□□□□.□kg

2.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임
 ② 약간 마른 편임
 ③ 보통임
 ④ 약간 비만임
 ⑤ 매우 비만임

3.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②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③ 몸무게를 늘리려고 노력했다
 ④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 본 적 없다

이환 1 - 건강지식

【뇌졸중(중풍)】

1. 다음의 질문들은 뇌졸중(중풍) 조기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귀하의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뇌졸중(중풍) 증상이 맞다고 생각하면 “예”,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오”를 응답해 주십시오.

1-1.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갑자기 한쪽 눈이나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생긴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심근경색증】

1. 다음의 질문들은 심근경색증(심장발작) 조기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귀하의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심근경색증(심장발작) 증상이 맞다고 생각하면 “예”,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오”를 응답해 주십시오.

1-1. 갑자기 턱, 목 또는 등쪽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갑자기 힘이 없으며,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식은땀이 난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갑자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갑자기 숨이 찬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건강정보 이해능력】

1. 건강이나 의료에 관한 정보를 찾거나 조언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 ① 아주 쉽다
- ② 어느 정도 쉽다
- ③ 다소 어렵다
- ④ 매우 어렵다
- ⑤ 건강정보를 찾지 않는다

2. 의사, 간호사, 한의사 혹은 다른 의료진이 ‘말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 ① 아주 쉽다
- ② 어느 정도 쉽다
- ③ 다소 어렵다
- ④ 매우 어렵다

3. 신문, 인터넷, 안내자료 등 ‘글로 쓰인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 ① 아주 쉽다
- ② 어느 정도 쉽다
- ③ 다소 어렵다
- ④ 매우 어렵다
- ⑤ 글로 쓰인 건강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구강건강

1. 스스로 생각할 때 치아와 잇몸 등 귀하의 구강건강이 어떤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좋음
- ② 좋음
- ③ 보통
- ④ 나쁨
- ⑤ 매우 나쁨

2. 현재 치아나 틀니, 잇몸 등 입안의 문제로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니까?
(※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틀니를 낀 상태에서 느끼는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매우 불편하다
- ② 불편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불편하지 않다
- ⑤ 전혀 불편하지 않다

3. 어제 하루 동안 다음 시기에 칫솔질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식사하지(또는 잠자지) 않은 경우, 칫솔질 여부와 상관없이 '③'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3-1. 점심식사 후에 칫솔질을 했습니까?

- ① 예 (⇒ 3-2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③ 어제 점심식사 하지 않음 (⇒ 3-2번 문항으로)

↳ 3-1-1. 어제 점심식사 후에 칫솔질을 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
- ② 칫솔질 할 장소가 없어서
- ③ 주변에 칫솔질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 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⑤ 기타()
- ⑧ 비해당(문항3-1/①, ③: 어제 점심식사 후에 칫솔질을 함, 어제 점심식사 하지 않음)

기타

8. 비해당

3-2. 저녁식사 후 또는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어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음

정신건강

1.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

1-1. 주중(또는 일하는 날)	<input type="text"/> 시간
1-2. 주말(또는 일하지 않는 날, 일하지 않는 전날)	<input type="text"/> 시간

시간시간

2.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② 많이 느끼는 편이다
③ 조금 느끼는 편이다
④ 거의 느끼지 않는다
- ⇒ 2-1번 문항으로
⇒ 3번 문항으로

↳ 2-1.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문항2/③,④: 평소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음)

8. 비해당

3.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4번 문항으로)

↳ 3-1.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문항3/②: 2주 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 없음)

8. 비해당

4. 최근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4-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① 전혀 아니다 (0~1일)	② 여러날 동안 (2~6일)	③ 일주일 이상 (7~13일)	④ 거의 매일 (14일)
4-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① 전혀 아니다 (0~1일)	② 여러날 동안 (2~6일)	③ 일주일 이상 (7~13일)	④ 거의 매일 (14일)
4-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① 전혀 아니다 (0~1일)	② 여러날 동안 (2~6일)	③ 일주일 이상 (7~13일)	④ 거의 매일 (14일)
4-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① 전혀 아니다 (0~1일)	② 여러날 동안 (2~6일)	③ 일주일 이상 (7~13일)	④ 거의 매일 (14일)
4-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① 전혀 아니다 (0~1일)	② 여러날 동안 (2~6일)	③ 일주일 이상 (7~13일)	④ 거의 매일 (14일)
4-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랑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① 전혀 아니다 (0~1일)	② 여러날 동안 (2~6일)	③ 일주일 이상 (7~13일)	④ 거의 매일 (14일)
4-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① 전혀 아니다 (0~1일)	② 여러날 동안 (2~6일)	③ 일주일 이상 (7~13일)	④ 거의 매일 (14일)
4-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하지 못해서 평소 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① 전혀 아니다 (0~1일)	② 여러날 동안 (2~6일)	③ 일주일 이상 (7~13일)	④ 거의 매일 (14일)
4-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건 당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① 전혀 아니다 (0일)	② 여러날 동안 (1~6일)	③ 일주일 이상 (7~13일)	④ 거의 매일 (14일)

5.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게임(오락),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인터넷, 게임(오락),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없음 [⇒ 6번 문항으로]
- ② 전혀 없다
- ③ 한 달에 1번 미만
- ④ 한 달에 1번 정도
- ⑤ 일주일에 1번 정도
- ⑥ 거의 매일

↳ 5-1.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터넷, 게임(오락),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을 받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거의 그렇지 않다
- ③ 대체로 그렇다
- ④ 항상 그렇다
- ⑤ 비해당(문항5/①: 인터넷, 게임(오락), 스마트폰을 이용한 적이 없음)

8. 비해당

※ 도박은 현금 등을 걸고 하는 내기로 ①+②+③을 말함

- ①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 ② 이외 사설 사행활동(사설 카지노, 사설 경마, 사설 경륜, 사설 경정, 사설 토토/프로토, 사설 소싸움 경기, 하우스 도박, 현금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사행성 게임, 성인 오락실, 투견 등)
- ③ 친목목적 게임(현금을 걸고 하는 게임, 고스톱, 포커, 카드게임 등), 오락형 온라인 게임(현금이나 전자화폐를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 한게임 등)

6. **최근 1년 동안 도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도박을 한 적이 없음
- ② 전혀 없다
- ③ 한 달에 1번 미만
- ④ 한 달에 1번 정도
- ⑤ 일주일에 1번 정도
- ⑥ 거의 매일

【치매 및 인지장애】

※ 다음은 귀하의 인지 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듣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만 40세 이상 응답해 주십시오) 최근 1년 동안 점점 더 자주 또는 더 심하게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만 50세 이상: 2번 문항으로,
만 50세 미만: 「예방접종 및 검진」 1번 문항으로)
- ⑧ 비해당(나이: 만 40세 미만)

8. 비해당

↳ 1-1. 최근 1년 동안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평소 해오던 집안일을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예: 요리, 청소, 약 복용, 운전, 공과금 납부 등)

- ① 항상 못했다
② 대체로 못했다
③ 가끔 못했다
④ 거의 못한 적 없다
⑤ 전혀 못한 적 없다
⑧ 비해당(나이: 만 40세 미만, 문항1/②: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 없음)

8. 비해당

1-2. 최근 1년 동안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직장생활이나 자원봉사, 사회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자주 지장이 있었습니까?

- ① 항상 있었다
② 대체로 있었다
③ 가끔 있었다
④ 거의 없었다
⑤ 전혀 없었다
⑧ 비해당(나이: 만 40세 미만, 문항1/②: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 없음)

8. 비해당

1-3. 귀하의 정신 혼란이나 기억력 감소 때문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⑧ 비해당(나이: 만 40세 미만, 문항1/②: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 없음)

8. 비해당

2. (만 50세 이상 응답해 주십시오) 최근 1년 동안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⑧ 비해당(나이: 만 50세 미만)

8. 비해당

예방접종 및 검진

1.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최근 2년 동안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 최근 2년 동안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암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이환 II

※ 지금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1. 본인의 혈압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이환II-당뇨병」 1번 문항으로]

↳ 2-1.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2-1-1. 비약물요법(운동, 식이요법)	① 예 ② 아니오
2-1-2. 혈압약 복용	① 예 → 한 달에 □□일 ② 아니오

8. 비해당

한 달에 □□ 일

8 88. 비해당

2-2.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이환II-당뇨병」 1번 문항으로]

8. 비해당

⑧ 비해당(문항2/②: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 없음)

↳ 2-2-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의 기관 중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단, 진료시간 중 의사, 간호사 등과 10분 미만으로 대화한 진료상담은 제외)
① 병의원
②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③ 기타()

기
타

8. 비해당

⑧ 비해당(문항2/②: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 없음, 문항2-2/②: 교육받은 적 없음)

【당뇨병】

1. 본인의 혈당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이환II-골다공증」 1번 문항으로]

↳ 2-1.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2-1-1. 비약물요법(운동, 식이요법)	① 예 ② 아니오
2-1-2. 당뇨병약(경구 혈당강하제 또는 주사제)	① 예 ② 아니오
2-1-3. 인슐린 주사(인슐린 펌프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8. 비해당

8. 비해당

8. 비해당

⑧ ⑧ ⑧. 비해당(문항2/②: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 없음)

2-2.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2-3번 문항으로]

8. 비해당

⑧ 비해당(문항2/②: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 없음)

2-2-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음의 기관 중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단, 진료시간 중 의사, 간호사 등과 10분 미만으로 대화한 진료상담은 제외)
 ① 병의원
 ②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③ 기타()
 ⑧ 비해당(문항2/②: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 없음, 문항2-2/②: 교육받은 적 없음)

2-3. **최근 1년 동안 당화혈색소** 검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① 당화혈색소가 무엇인지 모름
 ② 4회 이상
 ③ 3회
 ④ 2회
 ⑤ 1회
 ⑥ 측정 안 함
 ⑧ 비해당(문항2/②: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 없음)

2-4. **최근 1년 동안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검사(안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⑧ 비해당(문항2/②: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 없음)

2-5. **최근 1년 동안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콩팥) 합병증**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틱검사를 제외한 정밀소변검사(미세단백뇨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⑧ 비해당(문항2/②: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 없음)

기타
 8. 비해당

8. 비해당

8. 비해당

8. 비해당

【골다공증】

1. 의사에게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의료이용」 1번 문항으로)

- 1-1.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⑧ 비해당(문항1/②: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 없음)

8. 비해당

- 1-2. 의사에게 다음의 부위가 **골절**되었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2-1. 엉덩이뼈	① 예 ② 아니오
1-2-2. 척추	① 예 ② 아니오
1-2-3. 손목뼈	① 예 ② 아니오

8. 비해당
 8. 비해당
 8. 비해당

⑧ ⑧ ⑧. 비해당(문항1/②: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 없음)

의료이용

1.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사고 및 중독」 1번 문항으로)
 ③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사고 및 중독」 1번 문항으로)

↳ 1-1.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내가 원하는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아서, 직장 등을 비울 수 없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
 ② 증세가 가벼워서(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③ 경제적인 이유(진료비가 부담되어서)
 ④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리가 멀어서
 ⑤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⑥ 병원 등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⑦ 진료(검사 또는 치료) 받기가 무서워서
 ⑧ 기타()

88. 비해당(문항1/②, ③: 병의원(치과 제외) 진료를 받지 못한 적 없음, 병의원 진료가 필요한 적 없음)

기 타

88. 비해당

사회 물리적 환경

1.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1-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우리 동네 사람들은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우리 동네의 전반적 안전수준(자연재해, 교통사고, 농작업 사고, 범죄)에 대해 만족한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우리 동네의 자연환경(공기질, 수질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5. 우리 동네의 생활환경(전기,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스포츠시설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6. 우리 동네의 대중교통 여건(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7. 우리 동네의 의료서비스 여건(보건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 만족한다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가장 많이 접촉하는 친척(가족포함)과 얼마나 자주 보거나 연락합니까?

- ① 한 달에 1번 미만
- ② 한 달에 1번
- ③ 한 달에 2~3번
- ④ 일주일에 1번
- ⑤ 일주일에 2~3번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3. 가장 많이 접촉하는 이웃과 얼마나 자주 보거나 연락합니까?

- ① 한 달에 1번 미만
- ② 한 달에 1번
- ③ 한 달에 2~3번
- ④ 일주일에 1번
- ⑤ 일주일에 2~3번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4. 가장 많이 접촉하는 친구(이웃제외)와 얼마나 자주 보거나 연락합니까?

- ① 한 달에 1번 미만
- ② 한 달에 1번
- ③ 한 달에 2~3번
- ④ 일주일에 1번
- ⑤ 일주일에 2~3번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개인위생

1. 최근 1주일 동안 식사하기 전 얼마나 자주 손을 씻었습니까?

- ① 항상 씻었다
- ② 자주 씻었다
- ③ 가끔 씻었다
- ④ 거의 씻지 않았다

2. 최근 1주일 동안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자주 손을 씻었습니까?

- ① 항상 씻었다
- ② 자주 씻었다
- ③ 가끔 씻었다
- ④ 거의 씻지 않았다

3. 평소 손을 씻을 때, 비누나 손 세정제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 ① 항상 사용한다
- ② 자주 사용한다
- ③ 가끔 사용한다
- ④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⑤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여성건강

1. (여성만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월경(생리, 달거리)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월경 중
- ② 임신 중
- ③ 출산 후 수유 중
- ④ 폐경
- ⑤ 기타()
- ⑧ 비해당(남성)

기
타

8. 비해당

교육 및 경제활동

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무학 [⇒ 2번 문항으로] ② 서당/한학 [⇒ 2번 문항으로]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2년/3년제 대학
 ⑦ 4년제 대학 ⑧ 대학원 이상

↳ 1-1. 귀하는 그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졸업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졸업
 ② 수료
 ③ 중퇴
 ④ 재학/휴학 중
 ⑧ 비해당(문항1/①,②: 무학, 서당/한학)

8. 비해당

2. 귀하께서는 최근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일을 하고 있지만 일시 휴직 상태도 일을 하신 경우에 포함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 4번 문항으로]

3. 귀하께서 종사하고 계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예를 들면, 은행에서 출납 일을 함, 건설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함, 벽지 도배 등)

일의 종류	
직업분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직업군인)

일의 종류

88. 비해당

88. 비해당(문항2/②: 최근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음)

↳ 3-1. 귀하께서 하시는 일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고용주 및 자영업자(내 사업을 한다)
 ② 임금근로자(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일한다)
 ③ 무급가족종사자(가족,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⑧ 비해당(문항2/②: 최근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음)

8. 비해당

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 ① 배우자 있으며, 함께 살고 있다(사실혼 포함)
 ② 배우자 있으나,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출장 등의 일시적 상태 제외)
 ③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가 없다
 ④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다
 ⑤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Community Health Survey

[문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 043-719-7388
7399

가구조사

※ 가구대표 1명만 가구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대 유형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십니까?

1세대	① 1인 가구
	② 부부(응답자 + 배우자)
	③ 기타 : 상기를 제외한 모든 1세대 가구
2세대	④ 부부 + 미혼자녀
	⑤ 편부모 + 미혼자녀
	⑥ 기타 : 상기를 제외한 모든 2세대 가구
3세대	⑦ 모든 3세대 이상 가구

2. 귀 가구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구,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영세민입니까?

- ① 그렇다
- ②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다
- ③ 아니다

3. 임금, 부동산 소득, 연금, 이자, 정부 보조금, 친척이나 자녀들의 용돈 등 모든 수입을 합쳐 최근 1년 동안 가구의 세금 납부(공제) 전 총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만일 연간 소득을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월 평균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기간) ① 연 ② 월
(소득액) □□□□□ 만원

 (연/월)
 만원

4. 최근 1년 동안 귀댁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우리 식구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② 우리 식구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 ③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 ④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5. 귀 가족 중에 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가 있습니까?

(※ 가족: 가구주 기준으로 조부모 및 부모(배우자의 조부모 및 부모 포함), 배우자, 형제 및 자매(배우자의 형제 및 자매 포함), 본인, 자녀)

- ① 예 ② 아니오 (→ 가구조사 종료)

↳ 5-1. 귀 가구는 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⑧ 비해당(문항5/2): 가족 중에 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가 없음

8. 비해당

↳ 5-2. 치매 환자로 인해 가장 부담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부담
- ② 심리정서적 부담
- ③ 육체적 부담
- ④ 시간적 부담
- ⑤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담
- ⑥ 치매환자로 인한 부담 없음
- ⑧ 비해당(문항5/2): 가족 중에 의사로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가 없음

8. 비해당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Community Health Survey

[문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 043-719-7388
7399

구분 ¹⁾	보건소 수 (2025년 기준)	시·군·구
특별시의 구	25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구, 서울 용산구, 서울 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광역시의 구 ²⁾	100	부산 강서구, 부산 금정구, 부산 동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부산 남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수영구, 부산 연제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대구 북구,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구 수성구, 대구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풍양, 경기 고양시 덕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부천시 소사, 경기 부천시 오정, 경기 부천시 원미,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 평택시 송탄, 경기 평택시 평택, 경기 화성시 동부, 경기 화성시 동탄, 경기 화성시 서부, 경기 시흥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북 전주시, 경북 구미시 구미, 경북 구미시 선산, 경북 포항시 남구, 경북 포항시 북구,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마산, 경남 창원시 진해, 경남 창원시 창원, 경남 진주시, 제주 제주시 제주시, 제주 제주시 동부, 제주 제주시 서부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10	경기 구리시, 경기 과천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의왕시, 경기 오산시, 강원 동해시, 강원 속초시, 강원 태백시, 전남 목포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41	경기 여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포천시, 경기 안성시, 강원 강릉시, 강원 삼척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계룡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보령시,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김제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전남 순천시, 전남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북 경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김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천시, 경북 영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밀양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제주 서귀포시 동부, 제주 서귀포시 서부, 세종 세종시
일반 군	67	부산 기장군, 대구 군위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가평군, 경기 양평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철원군,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음성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영동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충남 홍성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북 완주군, 전북 진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함평군, 전남 화순군, 전남 강진군, 전남 고흥군, 전남 무안군, 전남 보성군, 전남 신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흥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해남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북 칠곡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청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15	경기 연천군, 강원 화천군, 강원 평창군, 충남 청양군, 충남 태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완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울릉군, 경남 산청군

주

1) 보건소(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배치기준(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2)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부록 04 운영위원회 및 참여기관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 변경사항

2025 오진희 국장	2024 최종희 국장	2023 최홍석 국장	2022 최홍석 국장	2021 양동교 국장	2020 조경숙 국장	2019 박 옥 센터장
2018 고운영 센터장	2017 고운영 센터장	2016 고운영 센터장	2015 정은경 센터장	2014 정은경 센터장	2013 이덕형 센터장	2012 이덕형 센터장
2011 이덕형 센터장	2010 장재혁 센터장	2009 배종성 센터장	2008 -			

|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기관 |

권역	보건소 (개)	책임대학교 (개)	정		부		비고
			대학교	책임교수	대학교	책임교수	
합계	258	33	-	34	-	45	
서울	25	3	인제대	박노례	인제의대	박현아	총괄대표 권역대표
			서울대	황승식	서울대	윤영숙	
			경희대	오창모	-	조성일	
부산	16	2	고신대	유병철	고신대	박은기	권역대표
			동아대	홍영섭	동아대	김병권 손현진	
대구	9	1	경북대	김건엽	경북대	이유미	권역대표
인천	10	2	인하대	이훈재	인하대	임민경	권역대표
			가천대	임정수	가천대	김은지	
광주	5	1	조선대	한미아	조선대	박 종	권역대표
대전	5	1	건양대	이무식	건양대	배석환	권역대표
울산	5	1	계명대	이종정	울산대	옥민수	권역대표
			가톨릭대	임현우	계명대	우형택	
경기북부	22	3	한양대	김유미	한양대	정현숙	권역대표
			서울대	이진용	서울대	최보울 신영전	
			아주대	이순영	아주대	홍세리	
경기남부	26	3	성균관대	박재현	성균관대	김종현	권역대표
			중앙대	이원영	중앙대	홍연표	
			연세대(원주)	김성경	연세대(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	김춘배 김종구 김정희 김남희	
충북	14	2	강원대	조희숙	강원대	박유경	권역대표
			건국대	김형수	건국대	이건세	
세종	1	1	충북대	강길원	한국교통대	탁양주	권역대표
			순천향대	황보영	순천향대	장영수 이미리	
충남	16	2	순천향대 ¹⁾	황보영 ¹⁾	순천향대	장영수 ¹⁾ 이미리 ¹⁾	권역대표 ¹⁾
			충남대	남해성	충남대	이석구	
전북	14	2	전북대	이주형	전북대	엄정호 권근상	권역대표
			원광대	오경재	원광대	손정우 이영훈	
			원광대	이정미			
전남	22	2	전남대	신민호	전남대	권순석 김혜연	권역대표
			조선대	류소연	조선대	박 종 ²⁾ 한미아 최성우	
			동국대	김상규	동국대	유석주	
경북	25	3	대구가톨릭대	황준현	대구가톨릭대	박순우	권역대표
			영남대	황태윤	영남대	이경수	
경남	20	2	인제대	전진호	-	-	권역대표
			경상국립대	박기수	-	-	
제주	6	1	제주대	김수영	-	-	권역대표

1) 세종·충남권역 책임대학교(권역대표) 및 책임·부책임교수 중복
2) 광주·전남권역 부책임교수 중복

|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문분과 위원회 구성 |

교육홍보운영분과

구분	소속	성명
위원장	인제대학교	박노례
위원 (7)	경북대학교	김건엽
	연세대학교(원주)	김춘배
	인제대학교	박현아
	건양대학교	이무식
	원광대학교	이영훈
	인하대학교	이훈재
	강원대학교	조희숙

표본설계분과

구분	소속	성명
위원장	한국조사연구학회	이계오
위원 (6)	전북대학교	권근상
	서울시립대학교	김규성
	경북대학교	이유미
	순천향대학교	이미리
	고려대학교	안형진
	인하대학교	이훈재

지표표준화분과

구분	분야	소속	성명
위원 (46)	위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	황준현
	흡연/음주 (6)	대구가톨릭대학교	황준현
		인제대학교	김광기
		이화여자대학교	제갈정
		연세대학교	지선하
		서울대학교	조성일
		고려대학교	추진아
	신체활동 (5)	경희대학교	오창모
		고신대학교	고광옥
		대구대학교	김완수
		서울대학교	최지엽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양윤준	
	비만/식생활 (5)	제주대학교	김수영
		강북삼성병원	강재현
		단국대학교	김기량
		한양대학교	김미경
	대전대학교	심재은	
	구강건강 (5)	강릉 원주대학교	정세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김남희
		경희대학교	류재인
		서울대학교	한동헌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최연희	
	정신건강 (6)	가톨릭대학교	임현우
		한림대학교병원	이병철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아주대학교	이순영
		강북삼성병원	김준형
		가톨릭대학교	정현숙
	이환/예방서비스 (6)	건국대학교	김형수
		원주 연세대학교	김종구
		동국대학교	유석주
		조선대학교	한미아
		경상대학교	박기수
	가톨릭대학교	임상현	
	손상/사회물리적 환경 (7)	영남대학교	이경수
		단국대학교	권호장
		한림대학교	김동현
		성균관대학교	김종헌
		서울대학교	도영경
		서울대학교	신상도
		울산대학교	조민우
	건강형평성 (6)	서울대학교	황승식
		서울대학교	강영호
		고려대학교	기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중앙대학교		장숙량	

|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문분과 위원회 구성 |

질 관리 및 평가분과

구분	소속	성명
위원장	서울대학교	김 호
위원 (12)	연세대학교(원주)	김남희
	제주대학교	김수영
	조선대학교	류소연
	고려대학교	박민규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순우
	한신대학교	변종석
	원광대학교	오경재
	고신대학교	유병철
	서울시립대학교	이용희
	연세대학교	정인경
	한국교통대학교	탁양주
	서울대학교	황승식

자료활용분과

구분	소속	성명
위원장	한림대학교	김동현
위원 (8)	경북대학교	김건엽
	원주연세대학교	김남희
	원주연세대학교	김춘배
	조선대학교	류소연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순우
	경북대학교	이원기
	강원대학교	현혜진
	순천향대학교	황보영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편집위원회

구분	소속	성명
위원장	인제대학교	박노례
위원 (6)	조선대학교	류소연
	경희대학교	오창모
	인하대학교	이훈재
	인하대학교	김연주
	강원대학교	조희숙
	한림대학교	최용준



지역사회건강조사
Community Health Survey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발행일	2026. 2.
발행인	임승관(질병관리청장)
편집인	김유미(만성질환관리과장)
발행처	기관명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 누리집 http://chs.kdca.go.kr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Community Health Survey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발행일	2026. 2.
발행인	임승관(질병관리청장)
편집인	김유미(만성질환관리과장)
발행처	기관명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 누리집 http://chs.kdca.go.kr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